2020

기본연구 2020-02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 이주연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기본연구 2020-02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주 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최 지 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9GI0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3
가.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나. 연구내용 ····· 6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 7
가. 연구방법 ····· 7
나. 연구절차 ····· 10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 11

제2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분석 ····· 13

제1절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이론적 논의 ····· 15
가.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이해 ····· 15
나. 미디어 이용의 역기능과 과의존의 주요 원인 ····· 21

제2절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분석 ····· 23
가.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 및 정책 ····· 23
나. 전라북도의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 ····· 46
다. 중앙 및 전북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제한점 ····· 56

제3절 국내 타 지자체 및 국외 정책 사례 분석 ····· 59
가. 국내 타 지자체 정책사례 ····· 59
나. 국외 정책사례 ····· 63
다. 시사점 ····· 71

제3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 현황 ····· 73

제1절 영유아 관련 현황 ····· 73

가. 영유아 규모 및 추이 ····· 73

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및 가정양육 현황 ····· 80

제2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현황 ····· 81

가.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3-9세 이용 현황 ····· 81

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른 영유아의 이용 실태 및 과의존 현황 ·· 88

제3절 소결 ····· 97

제4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적 욕구 ····· 101

제1절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 ····· 103

가. 조사개요 ····· 103

나. 분석결과 ····· 106

제2절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현장종사자 면접조사 ····· 181

가. 조사개요 ····· 181

나. 분석결과 ····· 183

제3절 소결 ····· 214

제5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 및 대응방안 ····· 22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 225

제2절 전북 영유아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대응 방안 ····· 237

참고문헌 ····· 261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부처별 미디어 이용 관련 법률 ····· 23
〈표 2-2〉 제1차~제3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내용 ····· 29
〈표 2-3〉 제4차 종합계획(안)('19-'21)에서의 영유아 대상 세부 추진과제 내용 ····· 32
〈표 2-4〉 2019년 추진계획 내용 중 영아와 유아 대상 추진과제 ····· 33
〈표 2-5〉 제4차 종합계획 수립('19-'21) 이후 향후 추진될 영유아 대상 정책 현황 ····· 33
〈표 2-6〉 전국 스마일쉼센터 현황 (18개소) ····· 34
〈표 2-7〉 부처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 39
〈표 2-8〉 부처별 관련 시설 현황 ····· 40
〈표 2-9〉 부처별 시행 중인 사업 현황 ····· 45
〈표 2-10〉 전라북도 미디어 이용 관련 법률 현황 ····· 48
〈표 2-11〉 연도별 전라북도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 예산 현황(순 도비) ····· 49
〈표 2-12〉 전북 스마트쉼센터 주요 사업 요약정리 ····· 53
〈표 2-13〉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인터넷 중독 관련 기본계획 사업 내용 ····· 55
〈표 2-14〉 전북 도내 관련 사업 시설 현황 ····· 55
〈표 2-15〉 서울시 6개 센터 현황 및 2019년 추진실적 ····· 60
〈표 2-16〉 서울시 6개 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현황 ····· 61

〈표 3-1〉 전국 시·도별 영유아 현황 (2020) ····· 76
〈표 3-2〉 지난 10년간 전국과 전북 영유아의 인구 추이 ····· 77
〈표 3-3〉 연도별·연령별 전북 영유아 연령별 현황(2011~2020.3) ····· 78
〈표 3-4〉 전북 14개 시·군별 영유아 현황 (2020.03) ····· 79
〈표 3-5〉 연도별·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2019) ····· 92
〈표 3-6〉 대상별 과의존위험군 3가지 요인별 점수(4점 만점) ····· 94
〈표 3-7〉 대상별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 ····· 95

〈표 4-1〉 조사대상자 임의 할당 표집설계 ····· 104
〈표 4-2〉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과 내용 ····· 105
〈표 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07
〈표 4-4〉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 및 자녀의 이용률 ····· 108

〈표 4-5〉 영유아의 가정 내 미디어별 이용 순위(1-2순위) ····· 110
〈표 4-6〉 영유아의 가정 내 미디어별 이용 순위(종합) ····· 110
〈표 4-7〉 TV / 컴퓨터 최초 이용 시기 ····· 111
〈표 4-8〉 TV / 컴퓨터 이용 빈도 ····· 112
〈표 4-9〉 TV/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 114
〈표 4-10〉 TV/컴퓨터 이용 시 함께하는 사람 ····· 116
〈표 4-11〉 TV/컴퓨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118
〈표 4-12〉 TV/컴퓨터 이용 방법(절차) ····· 120
〈표 4-13〉 TV/컴퓨터 총 이용 시간(평일) ····· 122
〈표 4-14〉 TV/컴퓨터 총 이용 시간(주말) ····· 123
〈표 4-15〉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상황 ····· 125
〈표 4-16〉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이유 ····· 127
〈표 4-17〉 TV/컴퓨터 이용량에 대한 평가 ····· 129
〈표 4-18〉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콘텐츠(1-2순위) ····· 131
〈표 4-19〉 TV를 시청하는 영유아의 주 이용 프로그램 순위 ····· 131
〈표 4-20〉 컴퓨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주 이용 콘텐츠 순위 ····· 131
〈표 4-21〉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지도 ····· 133
〈표 4-22〉 어머니의 하루 평균 TV/컴퓨터 이용시간 ····· 134
〈표 4-23〉 영유아-어머니 미디어 이용시간의 상관관계 ····· 134
〈표 4-24〉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 시기 ····· 135
〈표 4-25〉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소유 현황 ····· 136
〈표 4-26〉 스마트기기 이용 빈도 ····· 137
〈표 4-27〉 스마트기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 138
〈표 4-28〉 스마트기기 첫 이용 계기 ····· 139
〈표 4-29〉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 ····· 140
〈표 4-30〉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141
〈표 4-31〉 스마트기기 이용 절차 ····· 142
〈표 4-32〉 스마트기기 총 이용 시간 ····· 144
〈표 4-33〉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 ····· 145
〈표 4-34〉 스마트기기 이용 장소 ····· 146
〈표 4-35〉 스마트기기 이용 상황 ····· 147
〈표 4-36〉 스마트기기 이용 사유(1-2순위) ····· 148

〈표 4-37〉 스마트기기 이용 사유(종합순위) ····· 148
〈표 4-38〉 스마트기기 이용 시 부모의 행동(1-2순위) ····· 149
〈표 4-39〉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변화 ····· 150
〈표 4-40〉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151
〈표 4-41〉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에 따른 과의존 수준 ····· 154
〈표 4-42〉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에 따른 과의존 수준 ····· 155
〈표 4-43〉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 ····· 156
〈표 4-44〉 영유아-부모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 158
〈표 4-45〉 부모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 159
〈표 4-46〉 영유아-부모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의 상관관계 ····· 159
〈표 4-47〉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시 어려움 ····· 160
〈표 4-48〉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노력(1-2순위) ····· 161
〈표 4-49〉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경험 ····· 162
〈표 4-50〉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필요성 ····· 163
〈표 4-51〉 어머니의 심리상태 ····· 165
〈표 4-52〉 어머니의 우울감 변수의 상관관계 ····· 166
〈표 4-5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수의 상관관계 ····· 168
〈표 4-5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수의 상관관계 ····· 170
〈표 4-55〉 어머니의 양육행동 ····· 171
〈표 4-56〉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수의 상관관계 ····· 172
〈표 4-5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173
〈표 4-58〉 미디어 적절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 인지도(복수응답) ····· 175
〈표 4-59〉 정부 지원정책 중 기대효과 평가(1-2순위) ····· 176
〈표 4-60〉 사용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종류 ····· 177
〈표 4-61〉 자녀의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 ····· 178
〈표 4-62〉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방법 ····· 179
〈표 4-63〉 자녀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 180
〈표 4-64〉 면접조사 내용 ····· 183
〈표 4-65〉 영유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 ····· 185
〈표 4-66〉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185

〈표 5-1〉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237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 11

〈그림 2-1〉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30
〈그림 2-2〉 제4차 종합계획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전문기관 협력체계 ····· 21
〈그림 2-3〉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실천약속(2015년):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위한 8개 실천사항 ·· 35
〈그림 2-4〉 스마트폰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6종(2013년) ····· 35
〈그림 2-5〉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과정 ····· 37
〈그림 2-6〉 유아를 위한 미디어교육 가이드북(2010년) ····· 38
〈그림 2-7〉 전라북도 정보총괄과 조직구성 및 업무내용 ····· 50
〈그림 2-8〉 전북스마트쉼센터 조직구성 ····· 51
〈그림 2-9〉 일본 e-넷 캐러밴 공식 웹 사이트 및 e-넷 캐러밴 추진체계 ····· 68
〈그림 2-10〉 Vodafone이 발간한 '디지털 육아' 잡지들 ····· 70
〈그림 2-11〉 Vodafone이 개발한 가디언 앱(무료) 설치 이용 ····· 70

〈그림 3-1〉 전국 시·도별 영유아 인구 수 및 총 인구대비 영유아 비중(2020.3) ····· 75
〈그림 3-2〉 지난 10년간 전국과 전북의 영유아 인구수 및 비율 추이 ····· 77
〈그림 3-3〉 전북 시·군별 영유아 현황 및 비중(2020. 03) ····· 78
〈그림 3-4〉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비교(2009,2019) ····· 83
〈그림 3-5〉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수(천명, 2018, 2019) ····· 83
〈그림 3-6〉 지역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2018) ····· 83
〈그림 3-7〉 연령별 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및 주평균 이용시간(2019) ····· 84
〈그림 3-8〉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기간 비교(2019) ····· 85
〈그림 3-9〉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빈도 비교(2019) ····· 85
〈그림 3-10〉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시간 비교(2019) ····· 86
〈그림 3-11〉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시간 비교(2019) ····· 86
〈그림 3-12〉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목적 비교(2019) ····· 87
〈그림 3-13〉 전 연령 및 3-9세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률 비교(2019) ····· 87
〈그림 3-14〉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2019) ····· 90
〈그림 3-15〉 연도별 및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2019) ····· 90

〈그림 3-16〉 연도별 및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2019) ····· 90
〈그림 3-17〉 연도별·대상별·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2019) ····· 92
〈그림 3-18〉 학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2019) ····· 93
〈그림 3-19〉 맞벌이 유무별 유아동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현황 (2019) ····· 93
〈그림 3-20〉 유아동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지도활동(2018) ····· 96

〈그림 4-1〉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 및 자녀의 이용률 ····· 109
〈그림 4-2〉 TV / 컴퓨터 이용 정도(점) ····· 113
〈그림 4-3〉 TV/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 115
〈그림 4-4〉 TV/컴퓨터 이용 시 함께하는 사람 ····· 117
〈그림 4-5〉 TV/컴퓨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119
〈그림 4-6〉 TV/컴퓨터 이용방법(절차) ····· 121
〈그림 4-7〉 TV 최초 이용시기에 따른 총 시청시간(평일+주말) ····· 124
〈그림 4-8〉 컴퓨터 최초 이용시기에 따른 총 이용시간(평일+주말) ····· 124
〈그림 4-9〉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상황 ····· 126
〈그림 4-10〉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이유 ····· 128
〈그림 4-11〉 TV/컴퓨터 이용량에 대한 평가 ····· 130
〈그림 4-12〉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콘텐츠 ····· 132
〈그림 4-13〉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지도 ····· 133
〈그림 4-14〉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 시기 ····· 135
〈그림 4-15〉 스마트기기 이용 빈도 ····· 137
〈그림 4-16〉 스마트기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 138
〈그림 4-17〉 스마트기기 첫 이용 계기 ····· 139
〈그림 4-18〉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 ····· 140
〈그림 4-19〉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141
〈그림 4-20〉 스마트기기 이용 절차 ····· 142
〈그림 4-21〉 스마트기기 총 이용 시간 ····· 144
〈그림 4-22〉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 ····· 145
〈그림 4-23〉 스마트기기 이용 장소 ····· 146
〈그림 4-24〉 스마트기기 이용 상황 ····· 147
〈그림 4-25〉 스마트기기 이용 시 부모의 행동(종합) ····· 149
〈그림 4-26〉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변화 ····· 150

〈그림 4-27〉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 152
〈그림 4-28〉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152
〈그림 4-29〉 스마트폰 과의존 그룹의 일반적 특성 ····· 153
〈그림 4-30〉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에 따른 과의존 수준 ····· 154
〈그림 4-31〉 스마트기기 이용용도에 따른 과의존 수준 ····· 155
〈그림 4-32〉 자녀의 문제행동 척도 ····· 157
〈그림 4-33〉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 ····· 157
〈그림 4-34〉 부모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 159
〈그림 4-35〉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시 어려움 ····· 160
〈그림 4-36〉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노력(1-2순위) ····· 161
〈그림 4-37〉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경험 ····· 162
〈그림 4-38〉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필요성 ····· 164
〈그림 4-39〉 어머니의 우울 수준 ····· 166
〈그림 4-40〉 어머니의 우울감 척도(4점 기준) ····· 166
〈그림 4-41〉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전체) ····· 167
〈그림 4-42〉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척도(5점 기준) ····· 168
〈그림 4-4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전체) ····· 169
〈그림 4-4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5점기준) ····· 170
〈그림 4-45〉 어머니의 양육행동 ····· 172
〈그림 4-46〉 자녀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계획 ····· 174
〈그림 4-47〉 미디어 적절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 인지도(복수응답) ····· 175
〈그림 4-48〉 정부 지원정책 중 기대효과 평가(종합) ····· 176
〈그림 4-49〉 사용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 177
〈그림 4-50〉 자녀의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 ····· 178
〈그림 4-51〉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방법 ····· 179
〈그림 4-52〉 자녀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 180

〈그림 5-1〉 영아와 유아 보호자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_모바일용 ····· 242
〈그림 5-2〉 한국 디지털 페어런팅 잡지 제작 사례 ····· 243
〈그림 5-3〉 유해 콘텐츠 차단 사례 ····· 246

연구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영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는 TV와 스마트폰 보기이며, 스마트 멀티미디어 솔루션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스마트 교육은 점차 확대되어 미디어가 생활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그 활용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를 반영하듯 유모차나 자동차에 탄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이동하는 모습, 음식점에서, 커피숍 등에서 스마트기기로 동영상·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모습들은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님

❍ 2019년 한국정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만3-9세 연령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전 연령층 중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신체적·정신적 및 뇌 발달에 중요한 영유아기의 미디어 부적절 이용은 중독으로 이어져 신체와 심리, 사회적 생활과 다양한 기능에 심각한 성장 장애와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고, 영유아의 미디어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증가와 과의존위험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디어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과의존 위험 가능성과 청소년 및 성인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통계자료 및 전라북도 차원에서 만 2세 이하 영아까지 포함한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는 부재한 실정임

❍ 이에 미디어의 보급과 이용률의 급격한 확대로 미디어를 접하고 이용하는 연령이 급속히 하향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유아의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등) 과의존 현황 파악을 통한 과의존 조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서비스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만 2세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 0세부터 6세미만(취학 전)까지를 영유아라 규정(영유아기본법과 동일)하고, 전북 도내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과의존 실태 및 관련 지원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만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은 부모의 지도 및 개입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함.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기존의 지원정책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영유아 미디어의 적절 이용 유도와 과의존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1) 전북지역 영유아(만 0 - 6세)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현황 파악, (2)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모의 지도 및 개입 정도와 유형 파악, 주 양육자의 양육방법과 양육스트레스 등 파악, (3) 기존 지원정책의 인지도 및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파악 등을 토대로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관련 논문, 자료집, 단행본, 정책보고서 검토
- 국내 타 지자체 및 국외 지원정책 사례 수집 · 분석
- 중앙 및 전북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관련 행정자료 수집·분석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설문조사

- 목적 :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 조사대상 : 전북 도내 거주 0세 ~ 6세(취학 전)의 영유아를 둔 부모 4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문항을 부모 관찰용으로 평가하고 부모 관련 문항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자녀의 특성과 부모특성),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부모 인

식과 개입 정도, 부모변인과 자녀문제행동, 정책인지도 및 욕구사항 등

❍ 영유아 부모 대상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설문조사 시 면접조사에 동의한 영유아의 부모 9명
- 조사방법 : 반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현황, 부모 지도와 개입정도, 정책 인지도 및 욕구사항 등

❍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스마트쉼센터 실무자 · 놀이치료사 · 예방교육강사 · 가정방문상담사, 과의존관련 전문상담사 등 8명
- 조사방법 : 반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 영유아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부모개입 정도, 정책적 지원욕구사항 등을 파악함

2.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실태

가.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은 TV(98.5%) 및 스마트폰(83.6%)의 경우 거의 보유하고 있었음. 이용률 역시 TV(94.2%) 및 스마트폰(64.8%)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과의존 위험군 집단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용 빈도가 높은 TV의 경우 5점을 기준으로 4.21점으로 매우 높았고, 과의존 위험군 집단은 4.47점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음

❍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가정 내 규칙 여부를 보면, TV는 19.2%, 컴퓨터는 15.0%가 별도의 이용규칙 없이 노출되고 있었음. 특히, 과의존 위험군 집단은 이용규칙이 없는 경우가 47.2%로 매우 높았고, 이용절차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둔다는 응답이 38.9%에 달했음

❍ 스마트기기 총 이용시간대 및 시간을 보면, 「주중 월요일~금요일」까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총 시간은 219.9분(3시간 40분)으로 하루 약 40분 정도로 나타남.

주로 이용 시간대는 저녁(64.1%) 시간대로 나타남. 「주말 토요일~일요일, 총 이용 시간은 186.9분(3시간)으로 하루 평균 90분 정도였으며, 주로 이용시간대는 오후(57.8%)가 가장 많았음

○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보면, 4점을 기준으로 현저성(2.02점), 조절실패(1.89점), 문제적결과(1.85점) 등 전체 1.91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과의존 위험군(2.90점) 집단과 가정 내 이용규칙 없는 집단(2.17점)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남. 과의존위험군의 경우 문제행동 수준이 일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 미디어기기에 대한 사용 지도 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음.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3.44점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가정 내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규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 적절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들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실시'가 78.5%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의료·상담기관 연계서비스(23.5%), 심리검사 및 과의존 진단평가(2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각 지원 정책 간 인지도 편차가 심한 편임.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인지도를 보면, 맞벌이 여부별로 맞벌이 가정 부모가 정책 인지도 복수응답 누적비율이 229.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장 관심도가 높아 정책 인지도가 높아야할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 부모의 경우 173.9%로 가장 낮았음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79.9%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스마트폰 사용규제가 73.0%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나.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현장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 영유아자녀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보면, 3세까지는 TV를 많이 이용하고, 4세 이상부터는 TV와 스마트폰을 겸해서 이용하거나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평일보다 보통 2배 이상 이용 시간이 증가함

❍ 미디어 이용 시작 상황은 주로 영유아가 엄마에게 시청해도 되는지를 허락받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 종료 상황은 엄마와 약속된 시간에 끄는 경우와 약속된 시간이 넘어도 끄지 않으려 떼쓰거나 칭얼거리거나 혹은 가벼운 협박까지 이용하여 제지시키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 향후 스마트폰 구입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구입해 주겠다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 후 등 자녀에게 되도록이면 스마트폰과의 접촉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부모도 있었음

❍ 부모의 개입정도를 보면, 영유아기는 외부 환경을 스스로 통제 및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하기에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과 이용은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이 부각됨. 그리고 부모가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허용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미디어를 부모 일하기와 여유를 즐기기 위한 양육수단으로 이용할수록 영유아 미디어 노출 및 이용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들이 필요로 한 정책적 욕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교육'을 지적함.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도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영유아 대상 반복교육이 필요하며, 되도록 2-4세와 4-7세 집단이 같이 받거나 혹은 동일 연령별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영유아와 적절한 상호작용과 이용현황 파악 및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해서는 수강 인원이 최대 50명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함

❍ 한편, 전북지역 내 과의존 관련 영유아 대상 전문적인 상담·치료 인프라와 인력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영유아 대상 관련 정책 및 사업 또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단점과 평일 저녁 6시면 센터의 모든 사업이 마감된다는 제한점을 보완하는 체험 중심의 기관을 필요로 했음

3. 전북 영유아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대응 방안

❍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안전) 이용과 과의존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은 사회적 인식 개선제고, 부모의 교육참여와 역량 확대, 기관 예방교육 내실화, 스마트쉼센터의 영유아 특화기능 확대 및 강화,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정책방향	세부 과제
사회적 인식 개선 제고	영유아기 미디어 조기 노출과 과다이용의 심각성 사회적 인식 제고
	영유아기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예방 '전문가 정기 포럼' 운영
부모의 교육 참여와 역량 확대	영유아기 보호자(부모, 조부모 포함) 대상 부모교육 참여 제고
	영유아기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채널 다각화 및 실질적 정보 전달화
	미디어 시간관리 및 유해정보 차단 앱 · 프로그램 관련 정보 안내
기관 예방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예방교육 의무교육 횟수 및 이행 점검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 양적 · 질적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 아이돌봄 교사 대상 예방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확대
스마트쉼센터 영유아 특화 기능 확대 및 강화	영유아 전담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영유아 전담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놀이치료 예산과 인력 확대 및 놀이치료실 운영 시간대 편성 조정
	관련 행정부서 및 영유아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협의회) 구성·운영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 체계 구축 ·운영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 조성	영유아 미디어 올바른 이용 및 과의존 대응 관련 조례 제정 혹은 기존 조례 일부 개정 등 제도 정비
	영유아 미디어 올바른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기본계획 수립 · 추진
	영유아 특화 인터넷 윤리 체험관 운영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즐기는 영유아들을 흔히 볼 수 있음. 유모차나 자동차에 탄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이동하는 모습, 음식점에서, 커피숍 등에서 스마트기기로 동영상·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모습들은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님

❍ 현재 영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는 TV와 스마트폰 보기이며, 스마트 멀티미디어 솔루션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스마트 교육은 점차 확대되어 미디어가 생활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그 활용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증가율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높고, 영유아 가정의 97% 이상이 TV·컴퓨터·스마트폰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수는 46,353,320(전년대비 228천명 증가)이며, 만 3세 이상 인구 중 인터넷 이용률은 91.8%로 전년 대비 0.3%가 증가하였고, 만 3－9세 연령의 인터넷 이용률 또한 91.2%(2,826천명)로 전년 대비 3.4%p가 증가함(2019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와 동시에 미디어 과다 이용에 따른 다양하고 심각한 역기능적 결과들이 지속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 영유아들의 미디어 과다 이용 및 스마트폰 과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20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3－9세 연령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전 연령층 중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감소한 반면, 3-9세 연령의 과의존위

험군 비율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2015년 12.4% → 2016년 17.9% → 2017년 19.1% → 2018년 20.7% → 2019년 22.9%)

❍ 특히, 신체적·정신적 및 뇌 발달에 중요한 영유아기의 미디어 부적절 이용 및 과다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져 신체와 심리, 사회적 생활과 다양한 기능에 심각한 성장 장애와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고, 영유아의 미디어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 장시간 동안의 미디어 이용으로 시력 저하, 수면장애, 척추 측만증, 소음성 난청 유발, 의존적 강박증, 우울, 적대감, 산만함, 대인관계문제, 폭력성 등 정신적·사회적으로 역기능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뇌 장애를 초래함
-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PloS One)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지면, 뇌의 생각 중추인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Carsten, & Jorn, 2010)를 도출함
- 미디어기기를 이용하는 시간동안 두뇌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뇌세포들의 상호연결고리들이 심각하게는 약 30%까지도 해체되어 두뇌발달 기능에 중요한 도파민 수용체들을 감소시키고, 유전자 자체의 변형도 가능케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이에 영유아기에 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뇌 기능상의 피해가 더 막심함
- 영유아기는 특히 두뇌 세포들이 왕성하게 급증하여 서로 간에 무작위로 상호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연결고리들 중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관계된 고리들을 제거되는 '가지치기'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육아정책연구소, 2013). 따라서 영유아기에 오랫동안 미디어기기에 노출되면,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 감정소통능력(사회적 소통, 인내심, 양보심)과 같은 심리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뇌의 연결고리들이 해체되거나 허약해지는 대신 반사적이고 직관적인 동물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연결고리들만 생존하게 되어 향후 충동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난폭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행동 결정에 있어 쾌락과 원초적 사고에 의존하는 인간형들이 양상 되어 사회적 위험성과 문제가 증가하게 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이에 미디어 보급과 이용률의 급격한 확대로 미디어를 접하고 이용하는 연령이 급속히 하향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유아의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등) 과의존 현황 파악을 통한 과의존 조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서비스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처음 미디어 노출시기가 영아 중 약 38%가 생후 11개월 미만이었으며, 나이로는 0.84세로 나타나(이정림, 2013; 이경숙 외, 2015), 미디어의 최초 이용 시기가 만 2세 이하로 저연령화 추세가 급속히 빨라지고 임을 알 수 있음. 즉,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증가와 과의존위험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디어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과의존 위험 가능성과 청소년 및 성인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통계자료 및 전라북도 차원에서 만 2세 이하 영아까지 포함한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차 파악할 수 없음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에 근거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만 3세 이상부터임

❍ 이에 본 연구는 만 2세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 0세부터 6세미만(취학 전)까지를 영유아라 규정(영유아기본법과 동일)하고, 전북 도내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과의존 실태 및 관련 지원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만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부모의 지도 및 개입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함.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기존의 지원정책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영유아 미디어의 적절 이용 유도와 과의존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1) 전북지역 영유아(만 0-6세)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현황 파악, (2)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모의 지도 및 개입 정도와 유형 파악, 주 양육자의 양육방법과 양육스트레스 등 파악, (3) 기존 지원정책의 인지도 및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파악 등을 토대로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함

❍ 제2장은 영유아 미디어기기 이용 및 과의존 관련 이론적 내용(주요 용어개념, 영유아의 미디어기기 이용의 역기능과 과의존의 주요 원인 등) 검토와 중앙부처별 관련 법률과 정책 현황 및 전북의 미디어기기 관련 법률과 지원정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함. 그 외 국내 타 지자체의 정책사례와 국외 선진국 중심의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전북도 내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함

❍ 제3장에서는 전국과 전북의 영유아 규모 및 추이를 살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3-9세 연령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등을 전국 단위 차원에서 살펴봄

❍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북 도내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유아 미디어 이용실태 및 과의존 관련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기존 정책에 대한 한계점 및 개선안, 전북스마트쉼센터 운영 발전을 위해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함

❍ 마지막 5장에서는 2장의 중앙과 전북의 정책과 사례분석, 3장의 전국단위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과의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분석, 4장의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실태, 영유아 부모와 현장종사자의 경험과 정책적 욕구 분석 등을 토대로 영유아 미디어 적절 이용 유도 및 과의존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관련 논문, 자료집, 단행본, 정책보고서 검토
  - ◦ 영유아 · 미디어 · 과의존의 개념과 척도,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
  - ◦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과 부모개입 간의 관계 등 선행연구 고찰
- 중앙 및 전북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관련 행정자료 수집·분석
  - ◦ 관계부처 합동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2015)',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지원 종합계획(2016-2018)',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종합계획(안)' 등 연도별 정책 분석
- 국내 타 지자체 및 국외 지원정책 사례 수집 · 분석

❍ 각종 통계자료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분석
  - ◦ 만 3세 ~ 9세의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및 과의존 규모, 추이 등 현황 파악

2) 실태조사 계획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설문조사

- 목적 :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 조사대상 : 전북 도내 거주 0세 ~ 6세(취학 전)의 영유아를 둔 부모 4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문항을 부모 관찰용으로 평가하고, 부모 관련 문항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
  - ◦ 조사대상자는 2019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토대로 지역(시 · 군)과 연령별(0세 ~ 6세)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층화하여 할당표집 함

◦ 설문지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고, 개발된 설문문항을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1차 수정 보완한 후, 10명의 어머니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정도, 응답방식의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 한 후 최종설문지를 확정함

- 조사내용

영 역	조 사 내 용
일반적 특성	(영유아 자녀 특성) : 성별, 연령, 출생순위, 거주지역, 가족형태 등, 주양육자 (부모특성) 연령, 부와 모 교육수준·직업유무·직업구분, 평균 가구소득 등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 (미디어 보유현황) TV, 컴퓨터(노트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테블릿 PC), 비디오/DVD, 기타 • (자녀 이용현황) 주이용 미디어, 미디어별 최초 노출시기, 최초 접하게 해준 사람, 미디어별 평균 이용 횟수와 시간과 시간대 이용에 대한 규칙 유·무, 이용 결정(접근)방법, 주로 이용하는 상황과 장소, 이용하는 주된 이유, 과다이용에 대한 염려정도, 이용 콘텐츠, 과다이용 정도 등
부모 인식과 개입 정도	• 노출하지 않은 이유, 만약 이용 및 노출을 고려한다면 언제부터, 이용 및 노출 이유 • 부모의 스마트기기 평균 이용시간 •미디어 이용 시 주 양육자가 주로 하고 있는 일 • 가정 내 규칙 유무,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심각성 • 미디어 이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 사용지도 시 어려움 • 자녀 부적절 이용에 따른 예방 행동
부모변인과 자녀문제행동	• 주 양육자(母)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우울 • 주의집중, 공격성
정책인지도 및 요구사항	•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예방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필요성, 교육내용과 교육 장소 등 • 정책 인지도(상담대표전화 인지도, 센터 인지도 등),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수단 • 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규제나 법·제도 필요성 여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영유아 부모 대상 면접조사

- 목적 :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내용을 부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수행, 자녀 미디어 이용 관련 경험 및 통제 어려움 관련 경험과 적절 이용 유도 및 과의존 대응을 위한 정책적 욕구 파악
- 조사대상 : 설문조사 시 면접조사에 동의한 영유아 부모 9명
- 조사방법 :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지역(시·군), 영유아자녀의 성별과 연령별, 과의존수준 정도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자녀 특성, 부모 특성), 영유아 자녀 미디어 이용 현황(주이용 미디어, 최초 노출 시기, 평균 이용 횟수 및 시간, 이용하는 주된 이유와 상황, 장소 등), 부모 지도 및 개입 정도(규칙 유무, 개입 시 어려운 점, 부모 인식 등), 정책 인지도 및 욕구(부모교육 경험 유무 및 도움 정도와 필요도, 기존 정책 인지도, 필요지원 정책, 법·제도의 필요성 등)
- 면접 시간 및 장소 : 약 1시간 정도 소요, 자택과 가까운 조용한 카페 등 협의 조정하여 결정함

❍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 목적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사항 도출, 정책욕구 및 적절이용 유도와 과의존에 대한 대응 및 보호 방안 모색 등
- 조사대상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전북스마트쉼 센터 실무자 · 놀이치료사 · 예방교육강사 · 가정방문상담사, 과의존 관련 전문상담사 등 8명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연령, 담당업무, 근무경력 등), 영유아 미디어 이용현황과 부모 개입 정도(시설 이용 영유아의 이용 실태와 과의존 정도, 과의존 영유아와 부모 특성과 부모자녀 관계 특성, 부모 개입 정도 등), 정책적 지원 욕구(현 지원정책의 문제점, 개선사항, 센터 운영상 애로사항, 필요 지원 부분), 정책과 사업 활성화 의견, 적절 이용 유도와 과의존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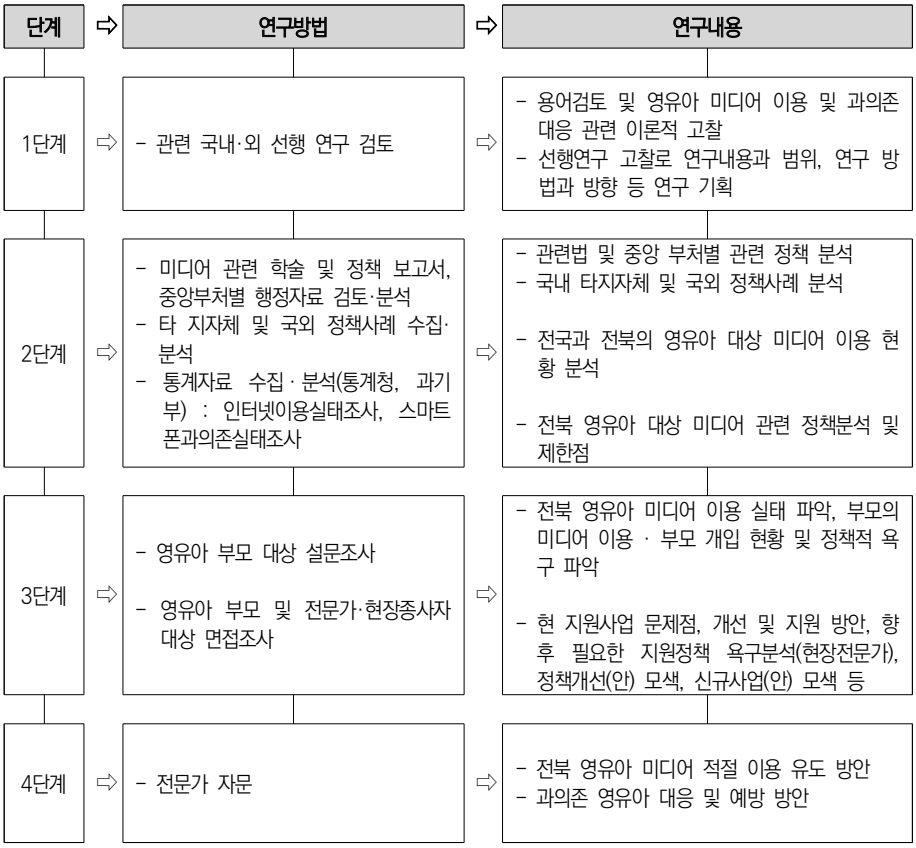
3) 전문가 자문회의

❍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착수와 최종 연구심의회를 통해 영유아 · 보육 및 교육학 전공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영함

❍ 영유아 관련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미디어 과의존 대응 기관(전북스마트쉼센터, 아동심리병원 등)의 임상심리상담사, 방문상담사, 예방교육강사 대상 현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안 도출 및 영유아 대상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와 과의존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제언의 효과성 등을 검토함

나. 연구절차

○ 연구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한 연구진행절차를 정리하여 표로 그리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제 3 절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제한점

가. 본 연구의 차별성

❍ 최근까지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이용 및 과의존 관련 실태, 과의존의 문제행동,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의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연구 등이 일반적으로 청소년(중·고등학생)과 성인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미디어(인터넷 및 스마트폰 포함) 이용 및 과의존에 대한 (국가)통계자료도 청소년과 성인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왔음

❍ 하지만, 2009년 이후 이래 아이폰이란 스마트폰 출시로 스마트폰이 급격히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영유아, 아동의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음. 특히 최근 3년간 유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문제와 심각성이 급속도로 저연령화 되고 있음. 미디어 과의존률이 저연령화되어가는 추세가 눈에 띄게 부각되면서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포함) 과의존 논의에 영유아, 아동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함. 즉 영유아 및 아동들의 미디어,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이 통계자료 및 많은 언론기사로 전해지면서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에 관한 국가통계를 산출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도 조사대상자를 만 9세부터였던 것을 2011년부터는 만 5세부터, 2014년부터는 만 3세부터로 그 대상의 연령을 보다 낮춰 어린 아동을 보다 포함시켜 조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유아동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시작함

❍ 반면, 전북지역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이용 및 과의존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재하고,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함. 무엇보다 미디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초기 미디어 이용 시 부모 지도와 개입정도에 따라 과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의존에 의한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짐

❍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0세~만6세 취학 전 아동)와 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실태, 부모지도 및 개입정도, 현 지원정책 인지도 및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고,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나. 본 연구의 제한점

○ 첫째, 만 0~2세 사이의 미디어 이용 현황 통계자료가 국가차원에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북지역 만0~2세에 대한 미디어 이용 관련 현황을 전북과 전국평균 및 시·도별로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움. 둘째, 2019년 12월 기준 전북 도내 전체 영유아(0세~만6세 취학전) 규모는 86,986명, 이중 시설이용(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은 약 79%, 가정양육 비율은 약 19%인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로 약 19%에 해당되는 가정양육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셋째,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파악을 순기능적 내용 보다 역기능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영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미디어가 학습도구가 되어 학습능력 제고, 생활(안전)에 필요한 중요 지식을 접할 기회 확대, 학습의 효과성 제고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적 내용(과의존 특성,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보다 중심적으로 살펴봄

○ 넷째,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결과 및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시간누적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최근 영유아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영유아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과 환경여건 및 영유아 특성 등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음. 반면, 본 연구는 횡단적자료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간흐름에 따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변화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음. 향후 일정주기로 조사를 지속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연구기간이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포함되어 있어 긴급돌봄 이외 보육시설 등원을 제한함. 이에 조사대상 일부가 가정양육만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다소 증가된 결과 값들이 본 연구의 이용 실태 분석에 녹아 있음이 제한점으로 드러남

2 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분석

제1절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이론적 논의
제2절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분석
제3절 국내 타 지자체 및 국외 정책 사례 분석

제 2 장 전북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분석

제 1 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이론적 논의

가.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이해

1) 주요 개념

❒ 미디어 조작적 범위 및 미디어 이용의 순기능

○ 미디어(Media)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중간에 자리하여 사이를 매개하는 것, 즉 매체를 의미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미디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부터 AR, VR, 스마트폰,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인터넷, 페이스북, 유투브,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등 각종 플랫폼에서부터 시작하여 TV, 비디오, DVD, 라디오, 전화, 라디오, 잡지, 신문, 책 등이 있음

○ 최근 미디어 이용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되어가고 있고, 약 생후 11개월부터 교육과 놀이 등을 위한 미디어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소자녀화 경향으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형제와 또래가 없고, 아동 범죄 증가, 크고 작은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영유아기 부터 TV, 컴퓨터, 스마트폰, DVD 등을 놀이감이나 교육 매체로 삼아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양이 증가하고 있음

○ 미디어는 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며 미디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향후 앞으로의 생활에서 미디어의 존재와 역할 및 기능은 더욱 더 중요하고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은 꼭 필요하나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영유아에게 교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질 것으로 보임. 영유아에게 미디어는 시·청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인지·학습 등 교육적 효과가 크고 보다 오래 지속됨. 또한 간접적 체험 기회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간접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음. 그리고 교육이외 다양한 영유아용 놀이 프로그램 등과 더불어 교수-학습 매체로 혹은 놀잇

감으로 활용되는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음

○ 반면, 미디어 이용 증가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부정적 결과도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저연령층의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음. 저연령층 특히 9세 미만의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중학생·고등학생 등의 청소년과 성인과는 미디어 활용의 종류가 구별되며, 영·유아는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와 더불어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테블릿 PC), 그리고 TV(정규방송, 케이블방송), DVD/비디오 등 교육적(한글, 영어 등 학습용) 및 유아 전용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이용·노출되고 있기에 영유아 대상으로는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이라는 한정적인 미디어 영역 보다는 보다 더 폭넓은 차원의 미디어별 이용과 과의존/중독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함

❒ 영유아 개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란 6세 미만(취학 전) 아동을 나타냄. 교과서적 측면에서는 한국과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연령 및 구분이 다소 차이가 있음. 만 1개월 이후부터 만 1세까지를 신생아 포함해서 영아,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를 유아, 만 5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혹은 초·중학교 저학년까지를 아동이라 칭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을 나타내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및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에서는 유아동을 만 3~9세, 청소년을 만 10~19세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만 1세(11개월 이전, 0.84세) 이전에 이미 미디어에 노출되는 영아들이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으며, 선행연구가 2013, 2015년도에 실시되어졌음을 고려해 볼 때, 현 2019년도에는 보다 이른 시기에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지리라 사료됨

○ 그리고 아이폰이 2009년 국내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집집마다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급증하여 2013년을 기점으로 PC보다 모바일 점유율이 높아졌음. 2010년 데스크탑 비율은 81.4%,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등은 4.9%였으나 2018년에는 데스크탑 56.3%, 모바일기기(스마트폰/스마트폰패드 등)은 94.9%로 증가함

○ 무엇보다 영유아는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등)에 대한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작용하기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만0~6세 미만(취학 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으리라 판단됨

❒ 미디어 과의존 및 과의존의 진단기준(척도)

○ 심리학자인 Goldberg(1996)는 DSM-Ⅳ의 물질중독을 기반으로 최초로 '인터넷 중독'이란 용어와 개념적 진단 준거를 만듦,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 IAD)'란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도한 의존성, 지배성, 내성, 갈망, 금단증상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지장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으로 정의함

○ 같은 해 Young(1996)도 '병리적 인터넷 사용'이란 개념을 사용함. 즉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으로 인터넷에 대한 집착, 갈망, 통제, 내성, 상실, 금단, 과도한 사용, 부정적 결과 등을 특징하는 충동조절장애로 정의함. 그리고 인터넷 중독 척도도 발표함. 이후 Griffith(1998)도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행위중독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비합리적 행동과 인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로 파악함

○ 하지만, 인터넷 중독은 일정 기준을 갖는 장애나 질병, 혹은 일정 물질에 신체적으로 의존한다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정상적 사용에서부터 과도한 사용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단지 절제력의 부족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음(LaRose et al., 2003). 비슷하게 '인터넷 중독'을 장애가 아닌 사용정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충동적, 병리적 혹은 문제적 인터넷사용(Morahan-Martin and Schumacher, 2000; Davis, 2001; Caplan, 2002)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병리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중독이 병리적인 사용 외에도 비병리적인 인터넷사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임(강은영, 2014)

❍ 국내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였고(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5년부터는 중독이란 용어에서 과의존이란 용어로 전환하여 사용하면서, 과의존이란 개념을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스마트폰)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14조를 근거로 2004년 첫 실태조사 실시 이후 2018년까지 총 15차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실태조사 명칭을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15~2016년은 인터넷과의존 실태조사, 2017년부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로 조사명을 지속 변경하였고, 중독의 개념을 중독과 과의존 용어로 혼합하여 사용함

<table>
<tr><th></th><th colspan="2">2004</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r>
<tr><td>연령대</td><td colspan="2">만 9~39세</td><td colspan="2">만 5~49세</td><td>만 5~54세</td><td colspan="2">만 3~59세</td><td colspan="3">만 3~69세</td></tr>
<tr><td>조사명</td><td colspan="6">인터넷 중독실태조사</td><td colspan="2">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td><td colspan="2">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td></tr>
<tr><td>조사지역</td><td colspan="4">전국 16개 시·도</td><td colspan="7">전국 17개 시·도</td></tr>
</table>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실태조사 연혁

❍ 이상과 같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관련 중독, 과의존 등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개념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강박적 사용, 집착 이로 인한 금단과 내성 발생 및 일상생활의 장애를 수반하는 상태라고 함. 아직까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중독과 과의존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세분화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학계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과(다)사용, 과몰입, 과의존 및 중독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된 용어나 정의는 없는 상황임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과의존에 대한 진단기준도 차이가 남. Goldberg(1996)는 내성, 금단, Young(1996)은 금단증상이나 내성, 직업적 및 사회적 역할 기능의 손상, Griffiths(1998)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 금단, 내성, 일상생활의 장애와 지장 수반 등을 진단 기준의 요소로 제시함

❍ 인터넷 중독은 Young(1998)이 제시하고 있는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갈등으로서 가족, 직장, 사회에서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를 그 내용으로 함(강은영, 2014). 자세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질문하고, 그 문항들을 합산하여 통상 70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40점 이상은 초기 중독자 혹은 과의존자로 분류하고 있음(강은영, 2014)

❍ 국내에서는 2002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K-척도(청소년용 40문항, 성인용 20문항)를 활용함. 이후 가장 최근에는 2011년 유아용 · 청소년용 ·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고, 각 15문항씩으로 구성함. 그 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S척도는 인터넷중독을 판별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음

[인터넷중독의 측정문항]

1.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가?
2. 인터넷 때문에 집안일(또는 학업, 업무)을 미룬 적이 있는가?
3.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더 흥미를 느끼는가?
4. 온라인상의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5. 인터넷을 너무 오래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불평하는가?
6. 인터넷 사용시간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지장이 있는가?
7.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먼저 인터넷에 접속부터 하는가?
8. 인터넷 때문에 학교성적이나 업무생산성이 떨어지는가?
9.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숨기거나 변명을 하며 얼버무린 경험이 있는가?
10. 일상생활의 괴로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한 적이 있는가?
11. 인터넷을 사용하고 나서도 다시 인터넷을 사용할 때를 기다리는가?
12. 인터넷이 없다면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13. 인터넷을 하는 동안 방해를 받았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귀찮은 듯이 행동하는가?
14. 밤늦게까지 접속해 있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가?
15. 인터넷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접속할 생각에 몰두해 있거나 접속해 있는 듯한 공상을 하는가?
16. 인터넷을 할 때 '조금만 더 해야지' 하면서 계속하게 되는가?
17. 온라인 접속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가?
18. 온라인 접속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줄여서 이야기하거나 숨기는가?
19. 다른 사람과 밖으로 나가 어울리기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은가?
20. 접속해 있지 않을 때에는 우울하고 불안했다가도 접속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개념은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스마트폰)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함(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한국형 인터넷 과의존 척도(K-척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 표준화하여 활용함. 연령대별 과의존위험군 산출을 위해 유아동(관찰자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구분함. 그리고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고위험과 잠재적위험군을 '과의존위험군'으로 구분함

나. 미디어 이용의 역기능과 과의존의 주요 원인

1)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역기능

○ 미디어기기 과의존이 영유아에 미치는 역기능적 영향을 살펴보면. 크게 심리적, 관계·행동적, 신체적 영향 등 3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심리적 영향)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이 나타나고, 가상과 현실 구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예로 미약하게는 신경질과 짜증으로부터, 불안, 초초, 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보일 수 있음. 또, 미디어기기 이용 과다로 영유아 및 아동기에 필요한 신체 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감소하고, 동시에 타인과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표현 방법도 미숙해지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됨
- (관계·행동적 영향) 성장발달의 전 영역들에서 발달 지연가 나타남. 타인과 만나 관계 맺는 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하거나 상대방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등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함. 특히 공감능력의 결핍으로 공격성 문제가 발생하고, 점차 공격성 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나게 됨. 미디어 과의존위험군 영유아의 경우,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하고, 미디어라는 일방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유아동시기에 반드시 습득하고 익혀야해야 할 타인조망능력에 대한 학습적 기회를 놓치게 됨. 이로 인해 향후 반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미디어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폭력성과 충동적인 행동들을 심화시켜 보이기도 함
- (신체적 기능의 영향) 오랜 시간 미디어기기 이용으로 시·청각 손상, 근골격계의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기능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잠깐의 바깥 활동에도 바로 지치고, 피곤해하며, 구부정한 앉는 태도 체형으로 변형될 확률이 높아짐. 또래 친구들과 달리 저조한 신체활동을 하고 신체활동과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도 부재함. 이로 인해 거북목증후군 등 신체적 자세에 문제가 발생하고, 미디어기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시각 저하, 안구 건조증, 소음성 난청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 2016-2018' 참조.

2)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의 주요 원인

❍ 영유아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의 원인이나 주요 요인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과의존 관련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영유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주요 원인들을 폭넓게 포괄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자료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과의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임

❍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의 주요 원인으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일상생활화에 의해 스마트폰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스마트폰 기기의 편리한 조작성은 영유아를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에 과의존하게 만든다고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개인 심리·가정환경·사회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함*

- (개인 심리적 요인) 충동성, 공격성, 낮은 자기통제력, 낮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기술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다시 말해 자존감이나 낮아지고 외운 경우, 우울·충동성·불안 등이 높은 경우 미디어 이용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과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주요 회피역할로 이용될 수 있음
- (가정 환경적 요인) 부모의 인터넷 또는 게임에 대한 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과 통제, 부모-자녀 신뢰감, 부모의 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간섭 및 강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및 부모와의 갈등, 가족 간 불화 등이 확인됨. 즉, 부모-자녀간 믿음이 저하되거나,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기기 사용에 있어서 방임하거나 혹은 매우 통제하거나, 그리고 부모 본인이 미디어 과의존일 경우, 조절력이 미흡한 유아동은 미디어기기에 과의존할 수도 있음
- (사회 · 환경적 요인) 취업과 진학이란 생존경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대체 활동 등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미디어 올바른 이용을 위한 문화 조성이 정착되지 못한 사회적 환경 등도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 2016-2018' 참조.

제 2 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분석

본 절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미디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 대상 중심의 미디어 관련 법률과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영유아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대응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보완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가.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 및 정책

1) 미디어 관련 법적 근거

❍ 2019년 현행법상,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중독 관련 법률은 1995년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을 기반으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계획수립」을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2019~2021)까지 발표된 상황임. 그 외 '인터넷중독대응센터(→스마트쉼센터) 설치·운영',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인터넷중독 해소 노력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그린인터넷' 인증부여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외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청소년의 보호와 게임 과몰입 등의 예방과 치료,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법률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법) 등에서도 제정되어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음

〈표 2-1〉 부처별 미디어 관련 법률

관련법령	내용	소관부서
국가정보화기본법 (1995)	(목적)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 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인터넷중독자 상담/치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그 외 필요한 사업 ■ 제30조의 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87)	(목적)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여 국민의 생활 향상과 공공복지 증지에 이바지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지원을 추진하는 곳. 이용에 대한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 훈련, 등	(인터넷제도 혁신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2)	(목적)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제12조의 2 (게임 과몰입 예방 등), ■ 제12조의 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제12조의 4 (게임몰 이용 교육 지원 등) ■ 제14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콘텐츠 산업실)
청소년 보호법 (2012, 일부개정)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 ·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 ※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여성 가족부 (청소년가족 정책실)

❍ 최근 정부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영유아의 언어발달 능력과 신체발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과학기술통신부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8 제2항 내용을 2018. 2. 21에 일부 개정함

❍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정하였고, 과거에는 유치원으로 한정하였던 과이용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한 점검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법률 개정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과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강해짐에 따른 바른

양육과 지도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조치라 볼 수 있음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개정 2019. 8. 28) (법률 일부개정 2018. 2. 21)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21.〉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는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제정한 이후 12조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의 법률을 근거로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의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및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12조 2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을 법적근거로 청소년이 게임을 하게 될 경우, 부모의 동의확보, 부모(친권자) 요청 시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문구 및 제한된 사용시간 경과 내용 표시 등을 포함한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일부개정 2018. 12. 24)

제12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제24조 9 인터넷게임 사용자의 부모·친권자 등의 동의), 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의무), 제26조9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 피해 청소년 지원) 등을 근거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할 경우 부모·친권자 동의확보, 청소년의 게임의

이용시간과 내용 및 결제정보 등을 부모·친권자에게 공지, 그리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새벽 0시부터 6시 까지) 인터넷 게임사용 금지,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등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과 상담 및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2) 미디어 이용,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관련 정책동향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에 의거, 9개 관계 부처합동는 2018년 12월에 「제4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차 종합계획(2010~2012) 정책비젼 '인터넷 안전 1등 국가 건설', 정책목표 '포괄적 중독대응을 통한 인터넷중독률 감축'로 하여 7개 부처, 16개 시도에서 과제를 추진함

❍ 제2차 종합계획(2013~2015) 정책비전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 구현'과 정책목표 '인터넷 이용 조절능력 배양 및 회복기능 촉진'으로 8개 부처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

-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 기반에서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 융·복합 기반으로 확대됨. 다시 말해 유선중심의 인터넷 중독환경에 기반을 둔 사회 환경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유선과 무선 인터넷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한 미디어 매트릭스 환경까지를 고려함
- 1차 종합계획에서는 청소년 대상 예방·상담 위주였는데 2차 종합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전 연령대로 확대시켜 예방·상담, 그리고 치료·사후관리까지 全 과정으로 확대시킴
- 대응주체가 1차 종합계획에서는 정부중심의 대응방식 이였으나 2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자체, 언론·시민단체·종교단체·기업 및 학교 등과 함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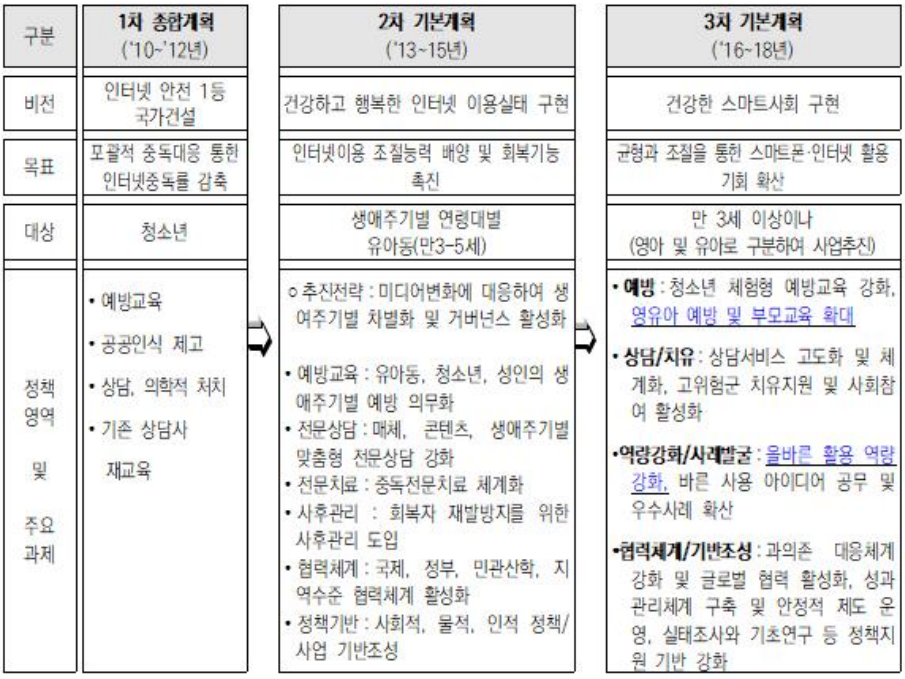
활동·협력하는 방식으로 유관기관체계 고도화함

-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1차 종합계획에서는 중독 상담 기본교육 이수로 마무리 하였지만, 2차 종합계획부터는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관련 교육 중심으로 고도화시켜 양적·질적으로 상담서비스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인터넷중독상담사 자격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함
- 생애주기별 선제적 예방을 위해 유아동(만 3~5세) 대상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관련 내용을 누리과정 교육에 편성, 동화 구연·신체놀이·음악체험 및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예방교육 의무화, 주 양육자와 보호자(돌보미 포함), 교육기관 교사 대상 교육 강화 내용이 추진됨

○ **제3차 종합계획**(2016~2018)은 '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이란 정책 비전과 '균형과 조절을 통한 스마트폰·인터넷 활용 기회 확산'이란 정책목표와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강화'라는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

-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스마폰·인터넷을 위험 혹은 회피의 관점에서 의미있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 활용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사업방향 책정
- 제3차 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과 활동을 강화시킴. 영유아 및 고령층 등 스마트폰 사용 연령층 확대로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고령층) 세분화된 예방정책을 제시함(미래창조과학부, 2016). 영유아는 부모 인식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현장체험 및 토론식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영아 자녀 지도와 부모습관 등 부모교육 강화, 유아자녀는 누리과정을 활용한 시청각 예방교육 의무화 강화)
- 민간영역(시민단체와 기업 등)의 참여 제고와 더불어 민관의 전방위적 대응체계 협력수준과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 더 나아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권역 내에 상담기관(센터) – 학교 – 병원 – 복지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함

〈표 2-2〉 제1차~제3차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종합계획 추진방향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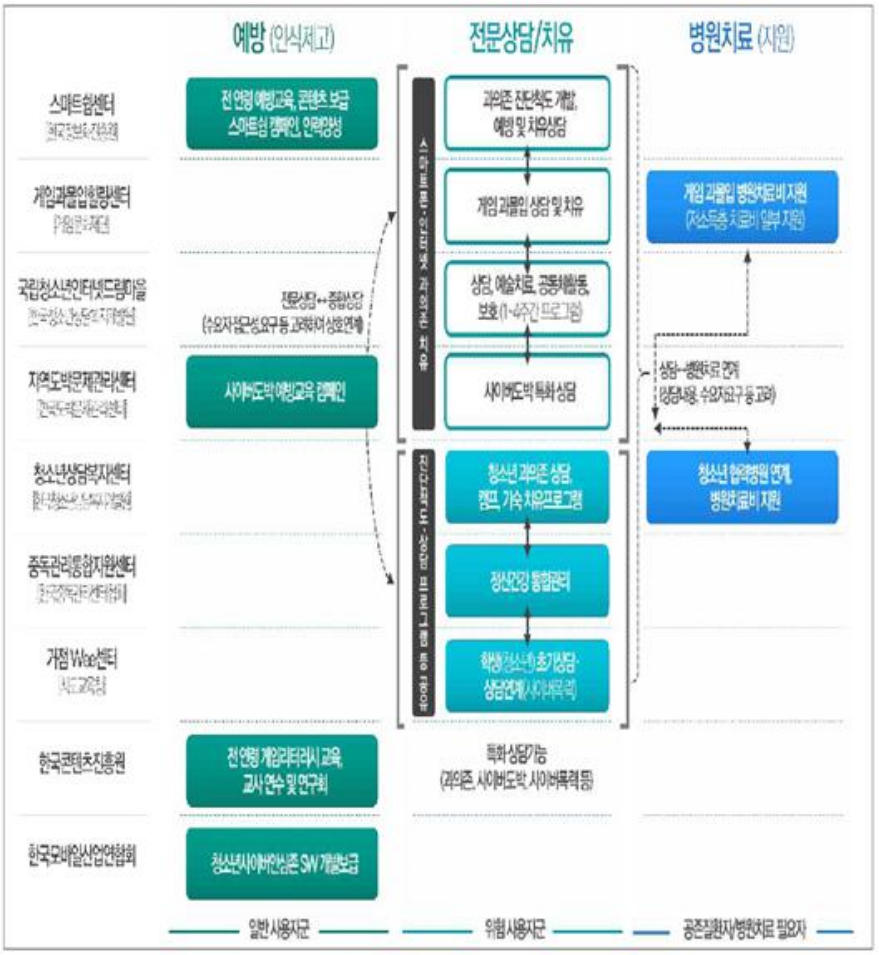
○ **제4차 종합계획**(2019~2021)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이란 정책 목표를 가지고 4개 전략(역기능방지 - 역량강화로 적극적 예방', '예방/회복/성장으로 역기능 대응체계 구축', '가정/학교/사회 환경기반 강화', '국민중심 정책추진 위한 지식·정보 공유)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실시 예정

- 제4차 종합계획은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 양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환경 대응), 정보화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핵심역량), 국민이 정책기획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국민 참여) 및 마지막으로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기관 협력체계 표준화(거버넌스)에 주요 역점을 둠
- 특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정책 사각지대에 영유아 대상 서비스 부족을 인식하고 정책 서비스 지원이 취약한 영유아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 분배와 사업 분배를 위한 노력 강화함(영유아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비율이 현재는 약 47%이나 3년 후(2021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율을 100%까지 달성하고 의

무화 시키려고 함, 이를 위해 상담전문인력이 현재는 상담사 1인당 위험군 수가 780명(약 10,000명)이나 3년 후에는 상담사 1인당 위험군수를 490명까지 낮추기 위해 약 6,000명 이상 전문 인력 확대 예정)

정책영역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
배움	역기능 방지에서 역량 강화로의 적극적 예방	디지털 콘텐츠의 건강한 이용
		데이터·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온라인상에서의 배려와 포용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향상
상담·치유	예방, 회복,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기능 대응 체계 구축	과의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코칭
		과의존 치유·치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상담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식 공유 네트워크 강화
사회기반	가정, 학교, 사회의 지원 환경 기반 강화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시범·중점학교 운영
		스마트폰 바른 사용 보호자 코칭 교육 확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전문인력 양성·직무교육의 안정적 추진
		관련 법제도의 효율적·생산적 운영
소통·참여	국민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국제 협력 및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채널별 소통 전략 다각화

〈그림 2-1〉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그림 2-2〉 제4차 종합계획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전문기관 협력체계

○ 제4차 종합계획(안)에는 4대 전략과제, 15개의 주요 정책과제가 있고 약 90개 정도의 세부 추진과제가 있음. 이 중 영유아 대상 세부 추진과제는 약 12개가 있음.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영유아 대상 세부 추진과제는 전체 중 13.3%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반면, 청소년 대상 세부 추진과제는 약 17개로 전체 중 18.9%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관련 사업 보다 약 5.6%p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3〉 제4차 종합계획(안)('19 - '21)에서의 영유아 대상 세부 추진과제 내용

1. 역기능 방지에서 역량강화로의 적극적 예방						
No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이행 목표			담당부처(협력)
			'19	'20	'21	
1-1	디지털 콘텐츠의 건강한 이용	▹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자체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복지부
		▹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전면 확대**				
		- 누리과정 방문 교육	**172,000명**	**185,000명**	**200,000명**	**과기정통부**
		- 문화체험 교육	**1,000명**	**1,000명**	**1,000명**	
1-3	온라인상에서의 배려와 포용	▹ 인터넷 윤리의식 강화 교육				
		- 바른 인터넷 유아교육				방통위
3. 가정, 학교, 사회의 지원환경 기반 방화						
3-2	스마트폰 바른 사용 보호자 코칭 교육 확대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코칭 강화**				
		- 유아 문화체험 융합 교육	**1,000명**	**1,000명**	**1,000명**	**과기정통부**
		- 유아 대체활동 체험 교육	**54회**	**72회**	**90회**	
		- 유아 부모 코칭 앱 배포	**1,000건**	**1,500건(누적)**	**2,000건(누적)**	
		▹ 학부모 인터넷 윤리교육 운영 및 콘텐츠 구축				
		- 학부모 인터넷 윤리교육	60,000명	60,000명	60,000명	방통위
		- 학부모 인터넷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1종	1종	1종	
4. 국민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지식 공유						
4-3	생애주기별 채널별 소통 전략 다각화	▹ **유아동 디지털 페어런팅 정보 확산**				
		-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지침 개발·배포	**개발**	**배포**	**배포**	**과기정통부**
		- 유아동 부모 실천사례 공유·확산	**연중**	**연중**	**연중**	
		- 유아동 인터넷 윤리 체험관 운영	**3개관**	**4개관**	**4개관**	**방통위**

❍ 2019년도에는 4대 정책영역(상담·치유, 배움, 소통·참여, 사회기반), 중점과제 15개, 세부과제 51개가 추진됨. 무엇보다 영유아 과의존 관련 예방교육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추진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별 협력을 기반으로 18개 전국 '스마트쉼센터'를 기축으로 영아에서부터 노인층까지,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촘촘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이행하고자 함

〈표 2-4〉 2019년 추진계획 내용 중 영아와 유아 대상 추진과제

연령	목표	추진과제
영아	디지털 미디어 이용 최소화	▪ 생애초기 스마트폰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 * '19년 상반기 내 기존 가이드라인 개편 및 배포 [영아 보건 및 보육 관계 기관(병원, 보건소, 지자체 등) 협조] ▪ 영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실태 파악 * '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시 관련 문항 추가
유아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조기 형성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자체교육, 전문 강사 방문교육, 문화체험교육 ▪ 스마트폰 올바른 이용 습관 함양 교육 * 디지털 교구·인형극 프로그램 '바른 인터넷 유아 학교'

〈표 2-5〉 제4차 종합계획 수립('19－'21) 이후 향후 추진될 영유아 대상 정책 현황

3차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종합계획('16-'18) 근거 추진 정책 현황	⇒	4차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종합계획('19-'21) 근거 향후 3년 추진 정책 현황
◦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영유아/보호자가 함께하는 예술체험형 예방교육 실시 ◦ 보호자용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과의존 예방 동영상 콘텐츠 및 누리과정 담당교사 매뉴얼 제작·배포 ◦ 지역 센터별 상담 및 영유아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 현명한 디지털 페어런팅을 지원하는 앱 개발	⇒	◦ (신규) 어린이집 과의존 예방교육 의무 이행 ※ 국가정보화기본법 18년 개정에 따른 조치, 유치원생 의무교육 '13년 시작 ◦ (신규) 어린이집 예방교육 의무이행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 강화 ◦ (신규) 관련 학과 대학생 연수를 통한 미래교사의 역량 강화 ◦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강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활용방법 지침 마련·배포 ◦ (강화) 영유아 과의존의 구체적인 예방·해소 방법에 대한 보호자 관심을 반영하여 디지털 페어런팅 사례 공유 기회 확산

주 : '영유아디지털 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2018. 12. 17) 토론회 자료집

3) 각 중앙부처별 지원정책 현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현재 스마트쉼센터를 운영 하고 있음. 2002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과의존상담센터 개소 이후 2018년 18개의 '인터넷과의존대응센터'가 전국 각 시도(경기도 2개)에 설치됨

○ '인터넷과의존대응센터'는 2015년에 '스마트쉼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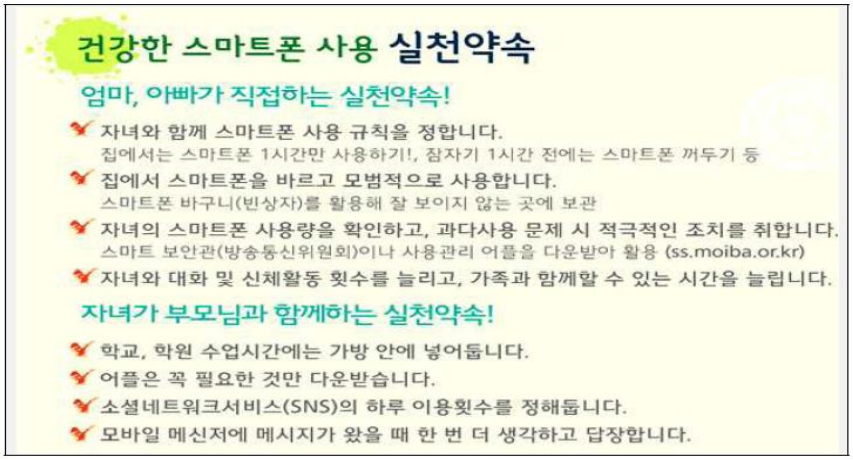
〈표 2-6〉 전국 스마일쉼센터 현황 (18개소)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6191-2041	울산	052-256-5234	충남	041-635-5835
인천	032-725-3231	세종	044-300-2471	전북	063-288-8497
부산	051-744-7755	강원	033-249-3077	전남	061-642-1972
대구	053-768-7978	경기북부	031-8008-8058	경북	054-241-0076
광주	062-613-5790	경기남부	031-8008-8045	경남	055-281-7333
대전	042-270-3225	충북	043-211-8275	제주	064-723-2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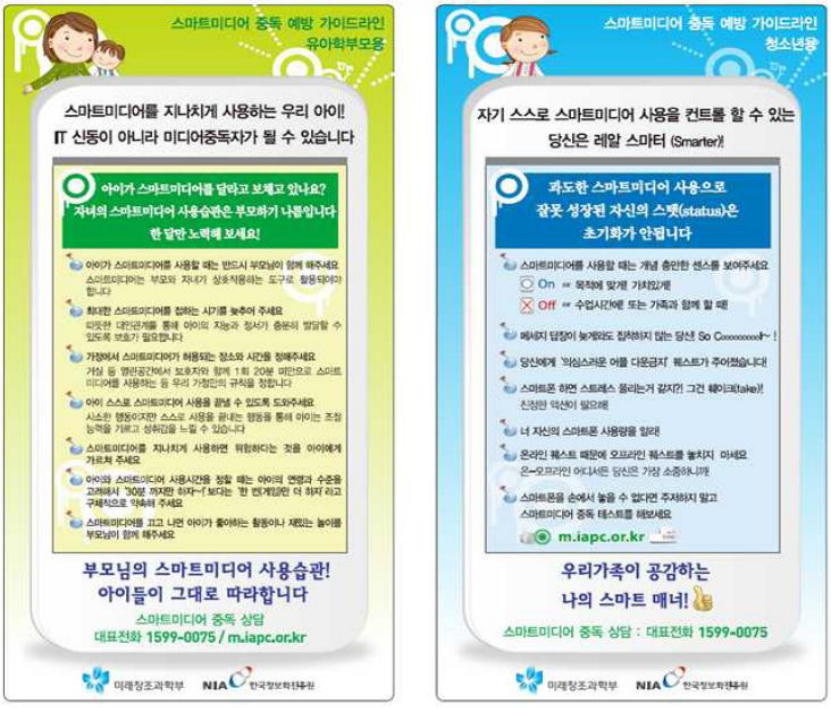
※ 스마트쉼센터 업무 담당자 연락처

○ 스마트쉼센터의 주요사업은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조사·연구, 홍보·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 쉼 문화운동 캠페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제고와 스마트폰의 건강한 이용을 위하여 스마트 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전문상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및 진로, 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실시
전문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상담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상담이론 및 실제접근법들을 교육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예방교육	학교, 기관, 시설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유아, 청소년, 성인(대학생, 학부모, 교사, 고령층 등) 등 전국민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지원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은 물론 일반가정(고위험 사용군, 잠재적 사용군 해당자)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실시
조사 및 연구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 뉴미디어 중독관련된 연구 실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와 전문상담, 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



〈그림 2-3〉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실천약속(2015년) :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위한 8개 실천사항



〈그림 2-4〉 스마트폰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6종(2013년)

2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권역별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총 5개소 설치·운영과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수도권 허브센터 게임과몰입 힐링센터(중앙대학교병원), 경북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전라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국립나주병원), 충청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건국대학교충주병원), 수도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프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이 있으며,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 소재해 있음
-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과도하게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과몰입 정도와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센터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은 병원이 되며, 센터 방문 시 의사 판단 하에 저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진행됨. 대상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도 지원함. 센터는 개인·집단상담, 전화상담 및 검사,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함

○ 중앙대학교병원은 수도권 허브센터로 수도권 권역을 아우르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성인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게임문화재단이 센터 운영 공고 및 전문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함

ㅇ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 게임지도 십계명(2014)

3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각 시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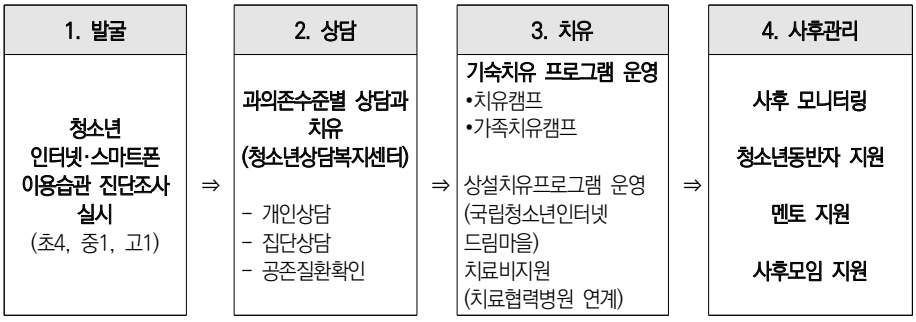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는 전국 시도에 총 230개가 설치되어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단조사, 과의존 수준별 상담과 치유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지원과 협력망 연계를 통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진단조사를 통해 조기 발굴

○ 과의존 상담 및 치유 서비스 제공 : 이용습관 위험군 청소년에게 개인상담 서비스, 주의군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서비스, 청소년 동반자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심리검사 지원 및 치료협력병원 연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기숙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과의존 수준별 치유캠프와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 전문 인력 양성 :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심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2-5〉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과정

〈그림 2-6〉 유아를 위한 미디어교육 가이드북(2010년)

〈표 2-7〉 부처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기능[정책대상] 부처명[전문기관]	예방·인식제고 [일반 사용자군]	전문상담·치유 [과의존 위험군]	치료·치료지원 [위험군, 공존질환자]	인력양성, 조사·연구
과기정통부 [NIA 스마트쉼센터]	• **전연령** - 스마트폰 과의존 정책 총괄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스마트쉼 문화 운동	• **전연령** - 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 상담콘텐츠 개발	-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국가승인 통계) - 교육·상담 콘텐츠 개발 - 전문 인력 양성·교육
교육부 [KERIS, Wee센터]	• **유**·초·중·고교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정보통신윤리교육	• 초·중·고교 - 사이버폭력 상담·치유 거점센터 운영 - 사이버폭력 상담·치유 가족지원	-	- 사이버 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 - 정보통신 윤리 교육 학습 공동체 운영·전달 연수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유아** - 누리과정 예방교육 - 전문인력교육	• **전연령** - 정신건강 통합 상담	-	-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 **전연령** -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 게임 리터러시 교육 - 게임시간 선택제	• **전연령** - 게임 과몰입 상담	• **전연령** - 게임 과몰입 치료	-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 게임 과몰입 전문인력 교육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초·중·고교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초·중·고교 -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치유프로그램 사후 모임	• 초·중·고교 - 공존질환검사 - 치료협력병원 연계	- 학령 전환기(초4·중1·고1)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상담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방통위 [NIA 사이버윤리팀] [한국모발일산업협회]	• **유**·초·중·고교, 성인 - 인터넷윤리 인식제고 교육 - 유해매체물 차단 기술 - 사이버 안심존 운영	-	-	-
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전연령 - 도박중독 예방교육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 전연령 - 도발중독 상담·치유	• 전연령 - 공존질환검사 - 치료협력병원 연계	-
법무부	• 중·고교(학교 밖 청소년) - 과의존·사이버범죄 예방	-	-	-
국방부	• 군장병 - 예방교육, 전담교관 양성	-	-	-
행안부 [경찰청]	• 전연령 - 보행안전 홍보 -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	-	-

자료: 제4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1.)

〈표 2-8〉 부처별 관련 시설 현황

구분	부처	시설명	운영주체	시설수	사업대상
전문 상담	과기부	스마트쉼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18	전 연령
	문체부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위탁법인·게임문화재단 지원	5	전 연령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3	전 연령
	여가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청소년
	서울시	아이윌센터	위탁법인/서울시 지정	6	청소년
종합 상담	교육부	Wee센터	시·도교육청	178	청소년(학생)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	243	전 연령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지자체	50	전 연령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230	청소년
소 계				734개	

4) 각 부처별 전국단위 실태조사 현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만 3세 이상 가구원(유아동은 3-9세를 나타냄, 70대 이상)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목적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와 이용률에 대한 정략적 측정, 집집마다의 정보통신기계 보유율 및 인터넷 접속 등 인터넷 사용 환경에 대한 결과분석, 인터넷 사용시간·용도·장소·방법 등 인터넷 사용실태 파악,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그리고 향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했음

○ 모집단을 전국 가구 및 만 3세 이상 인구로 보고, 전국 25,000가구, 가구 내의 만3세 이상의 가구원들을 조사함. 조사방법은 가구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함.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전국 25,000가구 내 만 3세 이상 가구원 59,970명이었음

○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함.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IDI)' 지표가 활용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통계 조사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 1999년 : 만 7세 이상 인구 3,445명인 전국 1,403가구 대상 「인터넷 이용자수 산출 및 통계기법 검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 2000년 : 만 7세 이상 인구 8,491명인 전국 2,623가구 대상 「2000년 상반기 인터넷 사용자 인구수 산출 및 통계기법 검증과 개선에 대한 연구」 실시
- 2000년 :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실시. 이 조사는 만7세 이상 인구 약 10,000명인 전국 약 3,500가구로 조사패널 구축 및 전화조사로 조사방법 변경함
- 2001년 2000년과 동일 조사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등 총 4회 전화조사 실시.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로 조사명을 변경하여 실시함
- 2002년 : 인터넷 사용자 인구수, 사용 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조사대상자를 만 6세 이상 가구원으로 확대함, 6월, 12월 등 연 2회로 조사 횟수와 주기 변경
- 2003년 : 조사명을 「정보화실태조사」로 변경. 제12005호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기준)의 10% 표본조사구를 기반 표본으로 재설계함, 약 18,000명인 전국 7,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가구별 방문 면접조사 실시
- 2004년 : 인터넷 이용자의 정의(1개월 이내 1회 이상의 인터넷을 사용한 자) 변경 및 무선 인터넷 사용자(이동통신망)도 인터넷 사용자에 포함시킴
- 2006년 : 표본 재설계 및 표본 규모를 약 25,000명인 전국 10,000가구로 확대시킴. 조사대상자도 만 6세에서 만 3세 이상 가구원으로 변경하여 확대함
- 2008년 6월 : 조사명을 다시 「인터넷이용실태조사」로 변경함, 약 42,000명인 전국 17,000가구대상 표본규모 확대. 연 1회, 2개월 동안 조사하는 조사 주기와 기간 변경
- 2016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승인통계 제329002호) 중지 후 주요 문항 흡수
- 2018년 7월 표분추출 틀 변경함(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2% 가구 주택 사항의 일반 조사구 및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 기준)

②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만 3~69세까지 (2017년부터 조사대상자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의 성과와 평가, 효과적인 정책 수립, 개선대책 도출 위한 기초통계 생산 목적으로 조사 실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를 법적 근거로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 120019호)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만 3세 ~ 69세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자(1개월 이내에 약 1회 이상 사용한 자). 현재까지의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 전국 「청소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실시
- 2006년 국가승인통계 지정(승인번호 12019호), 통계명 「인터넷 중독실태조사」, 성인 대상 인터넷중독 척도개발, 청소년과 성인 대상 인터넷 중독 현황분석
- 2011년 : 스마트폰 중독 관련 척도 개발, 최초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 산출
- 2015년 : 유아동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척도 개발과 조사에 도입함
- 2016년 :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로 통계 명칭 변경 승인

❍ 조사명 변경 : 3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16~18년)에 근거함

- 2017년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통계명칭 변경 승인

❍ 실태조사의 명칭 변경 변천 : 청소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중요 활동이 되고(현저성/salience)
② 스마트폰 이용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조절실태 self-control failure)
③ 주변 사람과 갈등, 신체적 불편, 가정·학교·직장 생활에 어려움(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 이 있는 상태
※ 과의존 위험군 분류 : 「스마트폰과의존척도」 활용, 대상별 점수기준에 따라 고위험, 잠재적위험, 일반사용자 유형으로 분류. '과의존위험군 = 고위험군 + 잠재적위험군'

(2)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학령 전환기인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대상 전국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현재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연구결과보고서까지 발표된 상황

❍ 진단조사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부모 동의 이후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조사기간 : '19. 3. 18.(월) ~ 4. 19.(금)
- 조사대상 : 전국 11,583개 초/중/고등학교, 총 128만 6,567 명 (참여율 98.1%)
  - 초등 4년 42만 563명, 중등 1년 42만 2,788명, 고등 1년 44만 3,216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웹 기반의 설문 시스템 운영)
- 이용척도 : K-척도(인터넷 과의존), S-척도(스마트폰 과의존)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발
- 결과구분 - 위험사용자군 :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 주의사용자군 :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
  - 과의존위험군 : '위험사용자군' 과 '주의사용자군' 합계

(3)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즉 게임 과몰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입 전략 구축을 목표로, 게임 산업의 급성장과 게임이용자의 증가로 게임이용자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여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임(전인식 외, 2012)

❍ 본 조사의 주요 목적은 게임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조사, 사용 형태 진단하는 것임. 조사 데이터는 향후 게임과몰입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체계 및 개입 전략 구축하는 등 정책수립 시 기초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여 변화를 추적하며, 청소년은 초/중/고등학생, 성인은 만 19~35세 사이로 인터넷 이용자 중심으로 함.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학생과 학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학부모는 1~3학년 대상으로 하였으나, 1학년 학생을 제외한 2~3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 함

○ 측정도구는 청소년 대상 청소년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를 활용함. 청소년 진단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됨(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일반사용자군, 게임선용군). 성인 대상으로는 게임 선용과 문제적 게임사용을 측정하는 심리·정서 및 행동적 특성들을 검토하는 문항들을 활용함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ㅇ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국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게임행동유형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게임의 역기능과 순기능 진단)

ㅇ 조사대상 및 규모 : 전국 초등학교 246개, 중학교 132개, 고등학교 98개 총 477개교의 초등/중등/고등학생 총 180,000을 비율 할당

- 청소년 : 초등학생 저학년 14,269명, 초등학교 고학년 57,433명, 중학교 56,894명, 고등학교 65,672명

ㅇ 조사방법 : 학교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OMR 카드 방식을 활용하여 설문조사함.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저학년과 학부모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함. 대상별 설문지와 OMR 카드를 인쇄하여 학교에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ㅇ 이용척도 : 게임선용(AGUS : 재미와 활력경험, 생활경험 확장, 감정 및 스트레스 관리, 몰입경험, 도전과 성취, 통제력 신장,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적 게임이용(MGUS : 내성, 금단, 과도한 시간 소비, 조절손상, 강박적 사용, 일상생활 무시, 부작용에도 계속 사용)

*한국콘텐츠진흥원(2018)의 게임행동 종합진단척도(CSG) 보완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용, 초등 저학년 학생용 및 학부모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ㅇ 결과구분 - 과몰입군 : 게임의 긍정적 결과는 거의 없고, 게임이용에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고위험 집단

- 과몰입위험군 : 게임의 긍정적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게임이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집단
- 게임선용군 : 게임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게임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집단
- 일반사용자군 : 게임이용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게임의 긍정적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집단

〈표 2-9〉 부처별 시행 중인 사업 현황

부처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과기정통부	교육	레몬교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과정	영유아·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WOW 건강한 멘토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심화과정	초·중·고교생
		다 함께 꿈 톡톡!	체험형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학생
		온라인 콘텐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학습	영유아·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상담	개안점검·가정방문상담	과의존 문제상담, 예술놀이치료, 대안활동	영유아·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문체부	교육	학부모 게임문화 인식 제고 교육	게임 인식 제고, 게임 이용 지도 교육	초·중교생 학부모
		게임리터러시 교사직무연수	게임 리터러시 직무연수 및 선도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캠프	게임문화 가족캠프	게임 과몰입 예방, 게임 제작 체험 통한 진로탐색	청소년, 학부모
산자부	앱서비스	세모달 앱서비스	스마트폰 바른 사용 학습 기능 제공	초등 저학년·학부모, 교사, 상담사
복지부	교육	중독예방교육	뇌의학기반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교육	보건교사, 상담교사
여가부	상담·치료연계	공존질환 검사	공존질환(우울증, ADHD 등) 보유 선별검사	청소년
		과의존 위험 수준별 상담	대상특성, 과의존 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개인·집단 상담	청소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종합심리검사, 병원연계·치료지원	청소년
	캠프·기숙치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설 치유기관 운영	청소년
		인터넷치유캠프·가족치유캠프	치유활동, 체험활동, 대안놀이 등을 결합한 기숙치유캠프	청소년, 가족
	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	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대상 예방가이드 교육	학부모
	조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 및 위험도 파악	초4, 중1, 고1 학생
방통위	교육/SW보급	사이버안심존(스마트안심드림)	중독 상담 관리 및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유해정보 차단 SW 활용 및 스마트폰 역기능 교육	
			스마트폰 중독 상담관리 프로그램 활용법 및 상담 교육	학부모, 교사
			건전한 미디어 교육	교사
		그린아이넷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사감위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영유아·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문화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형식의 예방교육 콘텐츠	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연극	문화콘텐츠(연극)를 통한 도박문제 예방	중·고교생

주 :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2020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중독예방교육 기본계획 자료

나. 전라북도의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

1) 법적근거

○ 전라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 現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1997년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를 제정함. 이후 여러 차례 일부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함

○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와 5조에 근거하여 전라북도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2]'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라북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또한,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혹은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제21조(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근거하여 도민 대상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2007. 2)

제12조의2(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가.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나.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제21조(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의6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30조의8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지역정보화 시책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 분야별 사업 추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간 연계·활용과 정보의 공동 활용,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확산,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재원조달과 운영 등

❍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전라북도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북 시군의 부문별 정보화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함. 이에 제4차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이 2017년 12월에 가장 최근 수립 발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제2차 전라북도 정보화종합계획(2007~2011년), 제3차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 「정보화 조례」는 전북 14개 시·군 모두가 제정하였고, 기초단체장은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과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등의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그 외 관련 법률은 전라북도 본청 정보화총괄과에서 2017년 5월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과 과몰입 청소년의 상담·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전라북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하고자 함.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전라북도교육청도에서 제정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전북 도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고, 여기서 학생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를 뜻함. 전북도 교육감은 전북 도내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매년 인터넷 중독 관련 기본계획[3]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각 학교의 학교장은 매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행정적 지원 방안, 인력 자원 활용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는 전북교육청 정보화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됨. 학생은 저소득층 학생을 말하며, 정보화 역기능이라 함은 인터넷·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등을 말함. 이에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사이버 음란물 등 학생·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등으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예방·해소 등의 대책을 시행함

〈표 2-10〉 전라북도 미디어 관련 법률 현황

조례명	지역	비고
정보화 조례	전북도 본청	
지역 정보화 조례	14개 시·군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북도 정보총괄과	'17. 5(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북교육청	'17. 9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16. 7

2) 전라북도의 관련 정책과 예산·조직 현황

○ 전라북도는 2017년 12월에 제4차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제4차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비전은 '대한민국의 지능형 정부 Standard, BEST 전라북도'이며, 비전 달성을 위해 4개 추진전략(균형된 발전, 확장된 서비스, 특화된 산업, 기술화된 사회), 8개 전략과제, 32개 실행과제를 수립함
- 32개 실행과제 중 인터넷 ·스마트폰 건강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을 위한 실행과제가 수립됨
-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실행과제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서비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차단 서비스', 사이버음란물 차단 서비스', '청소년 상담·치유 서비스' 등 4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청소년과의 연계협력 및 정보화총괄과의 차단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추진할 예정 (5년간 상담 및 치유서비스 지원 예산은 약 520백만원, 유해차단 시스템 개발 예산은 약 520백만원)

❍ 전라북도 '2020년도 정보화 시행계획'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도민 대상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상담·치료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센터운영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사업은 총 136개 전체 예산 79,57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 정도인 9,680백반원이 상승함(일반회계 예산의 1.28%)

❍ 2020년도 정보화 사업 136개 사업들 중 전북 도민 대상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문화 형성을 위해 '인터넷 중독대응센터 운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센터 운영'과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과 관련된 총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126백만원[4](국비 53백만원, 도비 73백만원)으로 전년(91백만원) 대비 35백만원이 상승한 것임. 이는 2020년 정보화 관련 사업 전체 예산 중 약 0.16%를 차지함

❍ 전라북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에 대한 2020년 전라북도 순 도비는 102,223천원으로 센터 운영 예산 72,883천원과 중독 예방·해소 사업 예산 29,340천원을 합한 것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및 인터넷중독예방 및 해소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과의존(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1〉 연도별 전라북도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 예산 현황(순 도비)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예산**	2019년 예산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2016년 예산
합계	**102,223**	91,663	102,163	142,323	152,078
전북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72,883**	50,883	52,683	52,683	71,683[5]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일반부담금)	**29,340**	40,780	49,480	89,640	80,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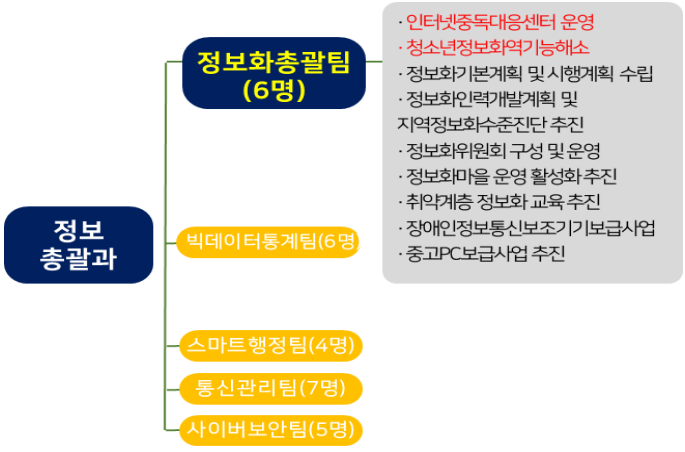
주 : 전라북도 자료

4) 2020년도 전라북도 정보화 시행계획 자료 참고

5) 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구입비 등 포함

❍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는 5개 팀(정보화총괄팀 5명, 빅데이터통계팀 5명, 스마트행정팀 4명, 통신관리팀 7명, 사이버보안팀 4명)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정보화총괄팀에서 도민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건강 이용 및 과의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전북 직영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 정보화총괄과의 인력은 총 29명으로, 이중 도민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건강이용 및 과의존 해소를 위한 인터넷중독센터 운영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해소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1명임



*출처 : 전라북도청홈페이지(2020. 5.5 추출)

〈그림 2-7〉 전라북도 정보총괄과 조직구성 및 업무내용

3) 전라북도 스마트쉼센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업 현황[6)]

○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전라북도 직영으로 운영되는 센터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문화 개선과 건전한 e-문화 조성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구축하고자 운영되고 있음

○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예방·교육사업, 치료·재활사업, 지역사회조직 연계 및 홍보 사업 등 크게 3개 사업과 자문위원회(6-7명)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조직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센터 운영 상근 실무자는 총 3명으로 센터의 사업 실행을 총괄하는 센터장 이외 행정·사업과 함께 상담도 겸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2명이 있음. 이외 놀이치료사 1명, 가정방문상담사 10명, 기관으로 파견되는 예방교육 강사 18명이 매년 위촉되어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2-8〉 전북스마트쉼센터 조직구성

○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예방교육,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개인면접상담, 인터넷과

6) 전북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www.jicc.or.kr/

의존 가정방문 상담, 집단상담, 놀이치료 및 체험활동, 심리검사, 인터넷과의존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월~금까지 센터전화(288-8495~7)를 통해 개인면접 상담 예약 및 온라인 상담과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가능함
- 강사 파견을 통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 건강한 스마트폰·인터넷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초·중·고등학교의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군인, 학부모 등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매년 3~12월까지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특강식, 1회 1시간)과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심화교육, 토론식, 초·중·고교 대상 1회 2시간)을 무료(예산 소진될 때까지)로 지원하고 있음. 교육 대상별 표준강의안을 활용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이해, 실태, 예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 진행함
- 인터넷 과의존 가정방문 상담 : 인터넷·스마트 미디어 과의존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과 고위험·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의 일반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실시
- 집단상담 :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으로 태도, 행동, 학습동기 향상에 도움
- 놀이치료 : 잠재적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술적 감각 통합 치료 실시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학교 및 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 체험활동 : 스마트 e-체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역기능의 과다사용의 대안활동을 찾고 순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 심리검사 : 과의존 척도에 의한 과의존 측정 및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가능
- 인터넷과의존 홍보 및 캠페인 : 전북 도내 행사와 연계하여 부스 운영, 거리 캠페인 등 인터넷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전 도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추진

❍ 전북지역에서는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매년 약 4천여명이 상담과 기관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의 전북 도내 상담 및 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245명, 2016년 4,118명, 2017년 3,959명, 2018년 4,929명 등 이었음. 전국 스마트쉼센터의 상담 지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가 전체의 7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10대 이하는 7.7%로 나타남

〈표 2-12〉 전북 스마트쉼센터 주요 사업 요약정리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지원내용
예방교육	신청은 각 기관 담당자가 전 연령 (영유아-성인)	건강한 스마트폰·인터넷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생, 군인, 성인, 부모 대상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전문 강사 파견 및 대상 맞춤별 표준강의안을 활용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이해, 실태, 예방법 등에 대해 교육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특강식), 1회, 1시간) -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심화교육, 토론식, 초/중/고 대상 1회 2시간) - 비용 : 무료
센터 방문 상담	전 연령 (영유아-성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당사자 또는 가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와 면접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1:1 맞춤형 상담 진행	• 개인상담, 심리검사(과의존정도 등), 가족상담 등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가정방문 상담	전 연령 (영유아-성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센터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상담사가 가정(소속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과의존 취약계층(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가정)에 우선 실시, 필요 시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군의일반가정도 지원 • 대상자 특성 및 과의존 유형에 따라 총 8회 상담 실시 -방문상담 : 6회(1회 60~90분) + 전화상담 : 2회(1회 30분 이내) - 추후상담 필요 시 담당자와 상의 후 추가지원 가능 - 비용 : 무료
집단상담	청소년	인터넷이용습관척도 이용 일반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별로 대상 분류 후 특성별 적합한 집단프로그램 제공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	• 인터넷과의존 유형별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 제공 - 1회기 당 1시간, 집단별 4회기 ~10회기 구성 - 비용 : 무료
(모래놀이 치료	접수상담 이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안정된 공간에서 교구를 활용하게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안 해소와 자아성장 지원	• 접수면접 진행 다음 놀이치료와 모래놀이치료 중 택 1로 치료 지원 • 전화로 예약 신청, 전희기 센터 내 놀이치료실에서 진행하며 미성년자 접수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 - 1회기 당 1시간 내외, 각종 심리검사 지원 - 비용 : 무료
심리검사	전 연령 (영유아-성인)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	• 성격검사, 진로검사, 지능 및 학습검사, 인성검사, 투사적 검사 - 심리검사 비용 : 무료
전화 상담	전 연령 (영유아-성인)	과의존 당사자/가족이 직접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 시 센터 전화로 상담 가능	• 전화를 통한 상담 실시로 과의존에 대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 - 연중 실시(평일 9-7시), - 비용 : 무료
홍보/예방 캠페인	전연령	과의존 예방 체험관 운영 대안 및 체험활동 진행	과의존 자가진단, 올바른 사용습관 익히기, 스마트폰 보관 바구니 만들기 스마트폰 사용다짐 부채 만들기 등

주 : 전북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http://www.jicc.or.kr/) 내용 참고

4) 전라북도 교육청의 관련 정책 및 예산 현황

❍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 전라북도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함. 2020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사업은 인터넷 과몰입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게임·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4시간 이상, 유치원은 연간 1시간 이상 예방교육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결과도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신청 학교(20개교)에 한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전통놀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캠페인이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교사 원격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의존군을 발굴하고 과의존군 대상 상담·치료를 지원하며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그 외 학부모 대상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학부모회의,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교실운영,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시간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특강, 상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하고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교육청은 유관기관인 전북스마트쉼센터,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 도박문제관기센터 등을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과의존군의 상담·치료를 위해 연계 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상의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은 약 29,690천원(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관련 예산 5,690천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캠페인 관련 예산 9,000천원, 교사연구회 관련 예산 15,000천원)

〈표 2-13〉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인터넷 중독 관련 기본계획 사업 내용

영역	내 용	시기
교육 과정 시수 확보	▪정보통신윤리 **교육시간 별도 확보(교과연계) 및 교육 실시** - 초·중·고 학생 : 연간 4시간 이상, - **유치원 : 연1시간 이상** - 교사, **학부모 : 학기별 1회 이상** ※ **교육 실시 결과 점검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내용 : 인터넷 과몰입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게임·도박 중독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연중
홍보 캠페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캠페인 실시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청기관(20교) -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전통놀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 활동	연중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교사, 학부모 대상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 -실시 횟수 :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 활용시간 : 교무회의,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회의, 학부모교실 운영,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방법 : 동영상자료, 특강, 상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연중
연수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장(800여명)	5-7월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원격연수(전북교육연수원) -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연중
교사 연구회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 지원액 : 3,000천원*5팀=15,000천원	4-12월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유관기관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독려 - 전라북도스마트쉼센터,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 프로그램 참여 연계	연중
전수 조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주최: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체계적 발굴 및 사후 관리 계획	4-5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료지원 -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유관기관 협력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내 협조체계 마련	연중

주. 전라북도교육청 2020년도 인터넷 중독 관련 기본계획(안) 자료 참고

〈표 2-14〉 전북 도내 관련 사업 시설 현황

구분	부처	시설명	운영주체	시설수	사업대상
전문 상담	과기부	스마트쉼센터(전북도 직영)	한국정보화진흥원	1	전 연령
	문체부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위탁법인·게임문화재단 지원	1	전 연령
	여가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청소년
종합 상담	교육부	Wee센터	시·도교육청	16	청소년(학생)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전북도, 시군)	12	전 연령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지자체(전주)	1	전 연령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전북도, 시군)	15	청소년
소 계				47개	

다. 중앙 및 전북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제한점

1) 미디어(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이용 및 과의존에 관한 정책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영유아 대상 정책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부처별 및 대상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영유아 대상 지원정책(예방교육을 위한 강사파견 중심)은 양적 ·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는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통계자료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부터 영유아시기에 미디어 건전 이용 문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앙 정부가 최근에 인지하기 시작했고 2018년 2월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영유아 대상 관련 정책·제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이러한 요인으로 현재 몇 개 안되는 영유아 대상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더불어 영유아 관련 지원정책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도 저조함. 또한, 미디어 과의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대상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및 의료 연계 역시 상대적으로 부재함

2) 영유아 대상 미디어(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이용 및 과의존 관련 지원정책 대부분은 중앙사업 임

○ 현재 몇 개 안 되는 영유아 대상 관련 사업 대부분은 중앙 사업으로, 전북도는 중앙의 예산 지원과 사업 지침에 따라 일부 도비 매칭 혹은 자체 예산 마련을 통해 중앙 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먼저 전북도 차원에서 영유아 대상 미디어 건전 이용 문화 조성 및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도 차원의 관심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영유아와 부모 대상, 영유아 관련 시설 대상(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욕구조사 등을 기초로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 마련이 필요함

❍ 미디어 과의존 수준별 전문 상담과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나 영유아에 특화된 과의존(중독) 관련 전문 상담 인력 및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영유아 미디어 적절 이용 유도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제고 또한 필요한 상황임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2월 국가정화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개정하고 2019년 3월부터 어린이집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화(연 1회 이상)시켰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한 안내 및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 예방교육 강사 파견 지원이 있음을 모르는 어린이집 시설장도 상당히 있었음. 이에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장과 교사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의무화(연 1회 이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영유아 주양육자(부모) 대상 영유아시기에 이루어지는 미디어 건전 이용 문화 조성에 대한 중요성과 과의존에 대한 심각성 및 악영향에 대해 안내하고 영유아시기 미디어 과의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그리고 현재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연 1회 30분의 일회성 교육으로 영유아 특성 맞춤별 전문화 및 체계화 등이 필요한 상황임

3) 영유아 대상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 상담 · 치료 등의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담당기관 혹은 담당 센터 내 별도 부서 등 마련 부재, 영유아 대상 미디어 적절이용 이용 및 과의존 예방·대응 관련 사업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과 기관(단체, 병원)들 간의 상호 네트워크 미흡한 상황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종합계획(제4차, 2019~2021) 및 매년 시행계획(2019년도 추진계획안 발표)에 부응한 전북지역 차원의 영유아 미디어(인터넷 및 스마트폰 포함)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자체가 부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도 부재한 상황

4) 영유아 전담 미디어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사·강사 양성 및 과의존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관련 전문 상담기관들이 있지만, 영유아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기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현재로서는 과기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 연령 대상 '스마트쉼센터'를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연령 대상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사비를 털어 어린이병원의 정신과를 찾아가는 방법이 일반적임

❍ 무엇보다 영유아의 심리·정서·행동적 발달 특성은 청소년/성인과 다른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반응과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나기에 영유아의 심리·정서·행동적 발달특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놀이치료, 모래치료, 가족치료)나 전문 강사 양성이 필요하고, 특히 만 0~6세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전문화된 기관이나 협력체계 형성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영유아 부모 대상 관련 교육·상담·치료 및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전북 도내에서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와 부모 대상 과의존 수준별(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등)에 따른 전문 상담·치료 지원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져야 함

제 3 절 국내 타 지자체 및 국외 정책 사례 분석

○ 본 절에서는 국내·외에서 영유아 대상 미디어 건강 이용 문화 조성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떠한 규제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 이러한 정책들이 전북지역 영유아 · 보호자(주양육자,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종사자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했음

가. 국내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1) 서울특별시 자체 운영의 I Will(인터넷중독예방상담) 센터

○ 2007년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13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내에 총 6개의 센터가 있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I Will 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교육 및 중독 치유사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중독위기 단계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접근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윌센터) 운영은 서울시의 평생교육국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상담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상담치료, 예방교육, 연구사업, 홍보사업 등 4가지로 구분됨

- (상담치료) 개인 및 부모상담, 가족치료, 행동치료,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 (예방교육) 대상별 찾아가는 교육, 예방특강, 대안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연구사업)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례수퍼비젼, 자문위원회 운영
- (홍보 및 기타사업) 캠페인, 연합캠페인,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

○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시 내 71만 1천명(상담 15면 2천명, 예방교육 55만 8천명)이 인터넷중독 상담과 예방교육을 지원받았음. 예방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2,414개소로 유치원 183개소, 초등학교 690개소, 중학교 598개소, 고등학교 297개소, 기타 기관 646개소였음

○ 향후 센터의 주요 추진방향은 인터넷·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에 의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초등1~3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이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주제별 교육과 대안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킬 계획임.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진단 조사와 과의존 위험군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상담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표 2-15〉 서울시 6개 센터 현황 및 2019년 추진실적

센터명	운영법인	정원	관할구역	2019 실적			
				상담		예방교육	
				횟수(건)	인원(명)	횟수(건)	인원(명)
광진('07.07)	(사) 홍사단	10명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7,222	24,114	2,303	89,049
보라매('09.04)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10명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 금천구	4,440	28,874	2,098	93,114
창동('10.07)	(학)삼육학원 삼육대학교	10명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6,044	23,276	2,309	94,717
마포('10.07) (구, 서대문)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10명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4,756	28,471	1,903	85,137
강북('12.06)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10명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4,431	16,580	2,772	96,966
강서('13.11)	(학)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	10명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9,999	31,653	2,298	99,467

주. 서울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참고

○ 서울시 센터들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률과 과의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거 영유아 및 부모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음. 강북 센터는 유아 및 아동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SMART-KID) 시 Big Book을 활용하였고, 유아동 교사연수, 유아동과의존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로 디지털 콘텐츠 건강이용 조기교육 확대하고 있고, 보라매센터와 창동센터는 유아 및 아동들에게 보다 친근한 콘텐츠인 인형극과 동화를 각색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 및 아동 대상 미디어 과의존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외에 교원 대상 교원정보화 직무연수, 학부모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3년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0년 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보조금 시비(100%)로 3,987,664천원(유보금 5,000천원 포함)이며, 이에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국비 50%, 시비 50%) 208,608천원을 합해 총 4,196,271천원임. 이에 6개의 센터 각각은 시비 운영보조금 661,000천원씩을 지원받고 있음

〈표 2-16〉 서울시 6개 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센터		분야별 프로그램 수							2020년 예산			
		계	상담	예방교육	연구	홍보	기타	연계협력	총계	운영보조금(시비 100%)	전담상담사 배치사업비 (국50, 시50)	비고
계		218	65	50	36	21	25	19	4,196,271	3,987,663	208,608	전문상담사 6명
시립	광진	28	6	6	5	3	4		695,768	661,000	34,768	상담사1인
	보라매	49	8	8	8	2	2	11	661,000	661,000		
	창동	38	6	6	7	4	6	8	695,768	661,000		
	마포	29	11	11	5	3	3		661,000	661,000	34,768	
	강북	32	7	7	6	6	5		708,431	673,663		상담사1인 (임차료)
	강서	42	12	12	5	3	5		669,768	665,000	34,768	상담사1인 (건물보수)
	미디어센터								69,536		69,536	상담사 2인
유보금									5,000			긴급 필요시

주. 서울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참고

2) 광주 영유아 관련 조례 및 정책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전영원 의원이 영유아 및 초등연령 아동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을 막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2019. 7. 11일 통과시켜 2019. 7. 31. 제정·시행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고, 디지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영유아 돌봄 기관과 청소년 관련 지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광주 동구의 본 조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관련 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디지털 중독 예방 및 중독 대응을 위해 영유아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아동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의 위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호와 중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중독”이란 디지털기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디지털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교육 등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기기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관련 예방을 위한 아동 돌봄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동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돌봄기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2. 경로당 등 사회복지 기관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회단체

②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활동 아이디어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
③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사업수행을 맡길 경우의 필요 경비
④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마을강사를 육성할 경우 사업예산
⑤ 제③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구민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국외 정책사례

○ 일부 국외에서도 영유아의 인터넷·스마트폰 노출의 악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유아 중심의 인터넷·스마트폰 관련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 방안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과의존을 해소를 위한 권고안·지침 등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

1) 영유아 인터넷·스마트기기 노출 보호를 위한 권고안 및 지침

○ (홍콩의 보건부) 홍콩 보건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는 이미 1세 미만의 영아가 전자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 DVD, 전자게임 등)를 접촉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결과가 제시하면서 영유아 발달의 중요성 언급과 함께 전자기기 사용 지침에 대한 기준을 발표함

❍ 6세 미만, 특히 2세 이전의 영유아들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들을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빨리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음. 2세 이전의 영유아는 하루의 40~60% 정도는 잠을 자며 부모와 많은 상호작용과 신체 및 탐색 활동들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보건부의 전자기기 사용 지침에 의하면, 초등학교 이후 스마트폰을 소유하도록 권고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는 전자기기 화면 노출을 피해야 하며, 2~5세까지는 부모 관찰 하에 하루 누적 1시간 이내로 사용해야 함. 6~12세는 1일 2시간 이내 이용하고, 12~18세는 오랜 기간 동안 전자기기 이용을 하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또한, 취침시간 1시간 전에는 수면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 스크린 화면을 보여주는 대신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침실에 전자 스크린 제품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함. 영유아 자녀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설정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시 부모가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용에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함. 그리고 시청 시 올바른 자세 유지, 적절한 거리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눈과 신체 근육 이완을 위해 자세를 바꾸거나 휴식을 때때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홍콩의 보건부는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경고 동영상, 과도한 사용에 관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미국 소아과 학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침(안)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음

❍ (미국소아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1999년 자기기 화면 노출하는 시간을 1일 1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2세 이하 영아는 전자기기 화면에 전면적 노출 제한해야 된다는 권고안을 만들어 발표함. 또한,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미디어는 교육이나 발달상 이득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은 잠재적인 건강과 발달상 역효과가 있으며, 부모의 미디어 사용이 2세 이하 영유아에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각하게 알리면서 2016년 10월 영유아기의 스마트기기 이용 관련 연령별 이용시간, 이

용가능 콘텐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미국 소아과학회(APP) 권고 사항]

1. 18 -24개월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피해야 함
2. 18-24개월 영유아에게 디지털 미디어를 보여줄 경우에는 고품질의 영상을 선택하고 부모가 함께 시청해야 함
3. 2-5세 유아의 경우 고품질 영상 선택, 화면 노출시간 하루 1시간으로 제한, 부모가 함께 시청하며 아이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 등에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 함
4.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혼란스럽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는 피함
5. TV 및 기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꺼 두어야 함
6. 미디어를 아이를 달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자기감정조절 불능 등)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함
7. 아이들이 접하기 전에 콘텐츠를 모니터링 함
8. 수면시간, 식사시간, 놀이시간 등에는 미디어 사용 금지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음
9. 취침 1시간 전에는 스크린 등을 이용하지 않게 함

○ (세계보건기구, WHO) 2019년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첫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아동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함. 주요내용을 보면, 2~4세 영유아가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시청해서는 안 됨, 1세 이하 영유아는 전자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함. 1~4세 영유아는 하루 3시간 이상 다양한 신체활동 필요하고 적절한 신체적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 전자기기 화면이란 스마트폰은 물론 TV와 게임기 사용 시간 모두를 포함함

○ 영유아에게 잠이 부족한 것은 TV시청, 비디오 게임과 연관 있고, 어릴 때의 신체적 활동과 수면 습관 등은 성인기의 습관을 형성함.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려면 어릴 때 오감 모두 자극돼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시·청각에만 의존하게 됨. 이에 스마트폰 노출은 한 번에 15분,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사용하도록 부모의 이용량 조절·통제가 필요함

○ 캐나다의 소아과 전문의 크리스 로완(Cris Rowan)은 Zone'in Programs에서 부모, 교사, 정부에 특히 0-2세는 모든 미디어기기 노출을 금지하고, 12세 미만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지해야 되는 10개 이유를 관련 학술 연구들과 더불어 소개함

12세 미만에게 휴대용 기기를 금지시켜야하는 10가지 이유

- **(급속한 뇌 성장)** 0~2세 사이에 영아의 뇌 크기는 3배가 되며 21세까지 급속한 발달을 지속. 초기의 뇌 발달은 환경 자극의 풍부함 여부에 의해 결정. 매체기기(휴대폰, 인터넷, 패드, TV)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in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의력 결핍, 인지 지연, 학습 장애, 충동성 증가, 울화(짜증)와 같은 자기통제력 저하 등의 원인
- **(발달 지연)** 매체기기은 활동을 제한하여 발달지체를 초래함. 현재 어린이 3명중 1명은 발달지체이며 문해력과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12세 미만의 매체기기 사용은 아동 발달과 학습에 해로움
- **(비만 문제)** TV와 비디오게임 사용은 비만 증가와 관련 있음. 침실에서 기기 사용이 허락된 어린이는 비만발병률이 30% 증가. 비만아동의 30%가 당뇨병을 앓게 되며, 조기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 등에 처해 기대 수명이 크게 단축. 비만으로 인해 21세기의 어린이들은 부모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첫 세대 일 수 있음
- **(수면 부족)** 부모의 60%가 자녀의 기기 사용을 감독하지 않으며, 75%의 자녀가 침실에서의 기기 사용이 허용됨. 9~10세 사이의 어린이 중 75%가 성적이 떨어질 정도로 잠을 빼앗김
- **(정신질환)** 기기 남용은 아동 우울증, 불안, 애착장애, 주의력 결핍, 자폐증, 양극성 장애, 정신병 및 문제가 있는 아동 행동의 원인 요소. 캐나다 어린이 6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고, 그 중 다수는 위험한 향정신성 약물 치료 중
- **(공격성)** 폭력적인 미디어 콘텐츠는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 어린 아동들이 오늘날 미디어의 신체적, 성적 폭력의 범람에 점점 더 노출됨. 그랜드 테프트 오토 V(액션 어드벤처 게임)는 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섹스, 살인, 강간, 고문 및 절단을 묘사. 미국은 아동의 공격성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위험요소로서의 미디어폭력물로 분류
- **(디지털 치매/인지적 저하)** 고속 미디어 콘텐츠는 전두엽 피질로 향하는 뉴런트랙 뇌 손상으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뿐 아니라 주의결핍을 유발. 주의력이 없는 아이들은 배울 수 없음
- (중독) 부모가 매체기기에 빠져있을수록 자녀와 분리. 부모의 애착이 없으면 분리된 아동은 매체기기에 빠져 중독. 8~18세 청소년 11명 중 1명이 매체기기에 중독. 인류역사상 결코 어린이 중독은 없었음
- **(전자파 방출)**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휴대폰(및 기타 무선기기)을 전자파 방출을 하는 2B위험(발암 가능성) 카테고리로 분류(WHO, 2011). 2011년 10월, Health Canada와 James McNamee는 '어린이는 두뇌와 면역체계가 계속 발달함에 따라 성인보다 다양한 요소에 민감하므로 어린이에 관해서는 어른처럼 적다고 얘기할 수 없음. 2013년 12월, 토론토 공중보건대학의 Anthony Miller 박사는 새로운 연구를 근거로 라디오 주파수 노출을 2B(발암개연성)가 아닌 2A(발암가능성)로 재분류할 것을 권장. 미국 소아학회는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기술 기기의 EMF 전자파 방출에 대한 검토를 요청
- **(지속 불가능)** 아이들이 매체기기와 함께 양육 및 교육되는 방법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지만 매체기기를 남용하는 어린이에게는 미래가 없음. 어린이의 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팀 기반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시급함. www.zonein.ca의 슬라이드 등을 어린이의 기기 남용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필요

주 : http://movingtolearn.ca/2014/ten-reasons-why-hand-held-devices-should-be-banned-for-children-under-the-age-of-12

〈표 2-17〉 각 연령에 따른 미디어기기 노출 시간과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Developmental Age	How Much?	Non-violent TV	Handheld devices	Non-violent video games	Violent video games	Online violent video games and or pornography
0-2 years	none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3-5 years	1 hour/day	✓	never	never	never	never
6-12 years	2 hours/day	✓	never	never	never	never
13-18 years	2 hours/day	✓	✓	limit to 30 minutes/day		never

❍ (대만) 2015년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s Welfare and Rights Act)」[7] 개정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장시간 전자기기 화면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제43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2세 이하 영유아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전자기기 과의존 시 부모(보호자) 대상 벌금 5만 달러(한화 약 175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음.

❍ (프랑스) 2010년부터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8년 7월에는 만 3세~15세 학생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2) 일본[8]

❍ 일본은 '소아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고, 정부 · 기업 · 민간단체 약 370여 곳이 참여해 인터넷 안전 이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인터넷·스마트폰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도구인 반면 유해하고 위험하며 성장발달에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임. 칼 등의 도구는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법을 배우고 이용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위험성 및 안전한 사용법에

7)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 현황과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김여라), (2019. 6. 3)
8) https://www.fmmc.or.jp/e-netcaravan/ 참고

대해서 배울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본은 인터넷·스마트폰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판매하는 입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e-넷 캐러밴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e-넷 캐러밴(e-ネットキャラバン)」은 총무성에서 문부과학성 및 통신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증, 사이버폭력, 유인·스푸핑,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사기, 체인 메일, 저작권·초상권 침해 등의 내용에 대해 위험 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다양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며, 인터넷의 안심·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활동(배달강좌로 전국적으로 실시) 임

❍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과 그리고 그 보호자와 교사로 아이들이 쉽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 인터넷의 안심·안전 이용에 관한 교육은 물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보호자(부모)와 교사들까지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2-9〉 일본 e- 넷 캐러밴 공식 웹 사이트 및 e- 넷 캐러밴 추진체계[9)]

9)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d_syohi/seishonen.html#e-netcaravan

3) 영국 Vodafone 통신사의 '디지털 육아' 잡지 발간 / 앱[10)]

❍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영국의 Vodafone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예방하고자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Vodafone은 2004년에 가장 먼저 '어린이 유해 콘텐츠 온라인 필터(여과장치)'를 도입하였고, 이후 2010년부터 부모와 자녀들에게 디지털기기 접근 방법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와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소개하는 잡지〈디지털 페어런팅(육아) 'Digital Parenting magazine'〉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2020년 4월 현재 8호까지 발간됨)

❍ '디지털 페어런팅' 잡지는 인쇄 발행 시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다시 학부모 등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이 좋아 '가디언(Guardian App) 앱'(무료) 버전도 개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적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20여개 국가에서 '가디언 앱'을 50만 번 넘게 내려 받기 한 기록을 갖고 있고, 모시 카드도 4개국에서 40만부 이상 배포함

❍ Vodafone의 '디지털 페어런팅' 누리집(vodafone.com/parents)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하고 유해한 콘텐츠와 사회관계망과 연계된 위험 요인 등에 관한 가장 최신자료를 부모에게 즉각 제공하고 있고, 어린이 인기 누리집은 '모시 몬스터'에 등장하는 몬스터 주인공들을 이용하여 아동관점에서 인터넷 안전 이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내하는 모시 몬스터 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디지털 관련 이용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 이슈들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의 조언을 받아 함께 만들고 있음

❍ 특히 Vodafone은 유혹적인 디지털기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요즘 시대에 자녀(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부모와 사회의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고, 인터넷·스마트폰 건강 이용 방안은 아동기(3~13세)에 교육시킬수록 효과적이다고 보고 있

10) www.hani.co.kr/arti/PRINT/621186.html. 디지털육아 가르치는 통신사 기업의 이해보단 사회적 책임 (2014.01.23.) 자료 참고 작성

음. 이에 정부·기업·학교가 모두 각자의 강점을 살려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디지털 육아 관련 연구도 지속 수행하여 향후 기업과 부모,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0〉 Vodafone이 발간한 '디지털 육아' 잡지들

〈그림 2-11〉 Vodafone이 개발한 가디언 앱(무료) 설치 이용

다. 시사점

❍ 국내 지자체와 국외 일부 선진국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건전한 이용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우선 국내 지자체들 중 서울시는 이미 13년 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I Will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에서부터 전문적인 상담치료, 의료기관 연계, 연구사업 및 홍보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

❍ 현재는 서울시 내에 구역별로 담당 센터 6개가 있으며 생애주기대상별(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과의존 수준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무엇보다 인터넷·스마트폰 노출 연령 및 과의존군이 저연령화 추세에 있다는 점에 근거 영유아 및 아동(초등 저학년)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 수와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과 대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있음

❍ 광주광역시 동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조례'를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하여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영유아 및 아동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에 대한 심각성, 예방과 중독 대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저연령화 추세에 대해 보다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성과 전북 도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예방교육 및 과의존 수준별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부터 재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임. 또한, 영유아 뿐 만 아니라 그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관련 시설 종사자와 교사를 포함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안전 이용 및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 국외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보다도 영유아 및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안전 이용과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었고, 학계·시민단체·정부·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유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대

한 부정적 영향과 지속 및 과다 이용 시 발생하는 발달 문제들에 대해 동영상·세미나/포럼·책자·연구 등으로 사회 전반에 안내하고 알리는 분위기가 컸음. 그리고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과 영유아의 인터넷·스마트폰 안전 이용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까다로운 권고안과 지침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지키도록 권장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및 전라북도는 영유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권고안 안내와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무엇보다 영유아기 발달 특성 상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이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그 심각성이 부모와 교사 및 사회 전체적 분위기 상 매우 저조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그 외 국외 정책사례들을 살펴보면, 영유아기 특성 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부모 대상 디지털 육아 잡지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자녀 관리·감독을 위한 앱 등을 개발하여 영유아 인터넷·스마트폰 안전 사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도 영유아 부모와 교사 대상 영유아의 인터넷·스마트폰기기 안전 사용 방법 안내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책자(잡지, 안내지, 팜플렛 등) 등을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지속 안내하고 홍보하여 급격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임. 그리고 국외 정책사례와 같이 영유아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홍보, 예방, 그리고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3 장

영유아 미디어 이용 현황

Jeonbuk Institute

제1절 영유아 관련 현황
제2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현황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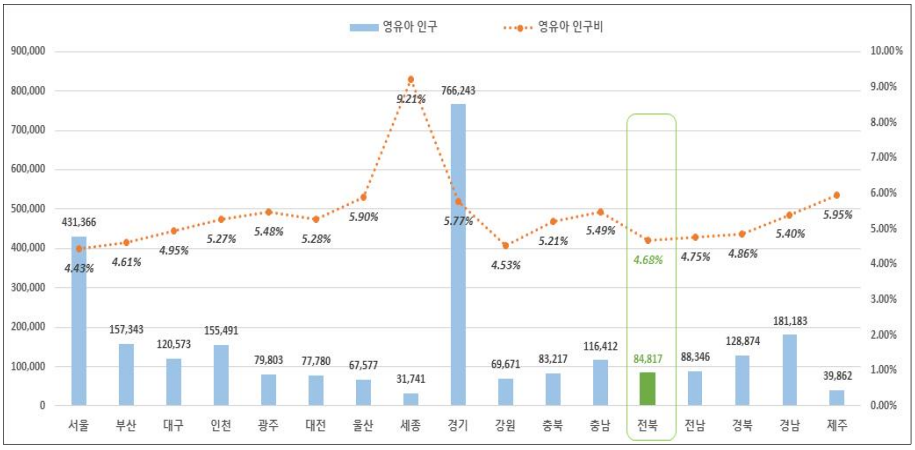
제 3 장 전북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현황

제 1 절 영유아 관련 현황

가. 영유아(만 0 ~ 6세, 취학 전) 규모 및 추이

❍ 2020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전국 영유아 수는 2,680,299명이며, 영유아 인구는 전국 총 인구의 5.17%를 차지하고 있음. 17개 시·도 중 영유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66,243명)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총 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21%)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5.95%), 울산(5.90%), 경기(5.77%), 충남(5.49%), 광주(5.48%) 순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영유아 수는 84,817명으로 전북 총 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8%임. 이는 전국 평균 영유아 인구 비율인 5.17% 보다 0.5%p 가 낮음. 17개 시·도 중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4.53%)며, 그 다음으로 부산(4.61%), 전북(4.68%) 순으로 나타남. 전북지역 연령별 영유아는 0세가 8,460명으로 가장 적었고, 6세가 14,692명으로 가장 많았음



〈그림 3-1〉 전국 시·도별 영유아 인구 수 및 총 인구대비 영유아 비중(2020.3)

〈표 3-1〉 전국 시·도별 영유아 현황 (2020)

구분	총인구 (A)	비율 (B/A)	합계(B)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국	51,843,195	**5.17**	2,680,299	284,807	324,004	354,125	398,033	438,784	442,535	438,011
서울	9,733,655	4.43	431,366	49,051	54,104	57,361	63,603	69,433	69,302	68,512
부산	3,409,932	4.61	157,343	15,999	18,541	20,772	23,531	26,402	26,329	25,769
대구	2,433,568	4.95	120,573	12,377	14,179	15,919	18,201	19,839	20,262	19,796
인천	2,952,689	5.27	155,491	16,678	19,080	20,172	23,081	25,417	25,823	25,240
광주	1,455,705	5.48	79,803	7,943	9,136	10,384	12,008	13,192	13,519	13,621
대전	1,471,858	5.28	77,780	7,908	9,186	10,236	11,723	12,857	12,886	12,984
울산	1,144,563	5.90	67,577	7,071	7,904	8,922	10,220	11,072	11,325	11,063
세종	344,792	9.21	31,741	3,535	4,078	4,344	4,666	5,158	5,027	4,933
경기	13,288,975	5.77	766,243	80,310	92,585	101,315	114,069	126,119	127,282	124,563
강원	1,538,577	4.53	69,671	7,992	8,540	9,248	10,212	11,071	11,245	11,363
충북	1,597,639	5.21	83,217	8,815	10,373	11,262	12,352	13,475	13,384	13,556
충남	2,119,749	5.49	116,412	12,616	14,150	15,393	17,156	19,035	18,990	19,072
전북	**1,812,936**	**4.68**	**84,817**	**8,460**	**9,666**	**11,103**	**12,370**	**14,076**	**14,450**	**14,692**
전남	1,859,290	4.75	88,346	10,260	10,892	11,589	12,744	14,081	14,276	14,504
경북	2,653,418	4.86	128,874	13,601	15,647	16,932	19,382	21,013	21,251	21,048
경남	3,355,341	5.40	181,183	17,923	21,085	23,862	26,932	30,138	30,637	30,606
제주	670,508	5.95	39,862	4,268	4,858	5,311	5,783	6,406	6,547	6,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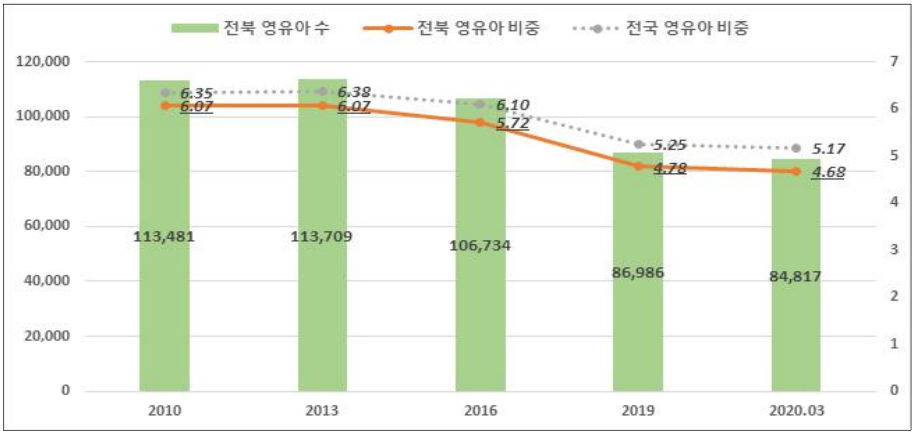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현황 2020. 03. 기준

- ❍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의 영유아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13,481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84,817명으로 10년 사이 약 25%가 감소함
- ❍ 전북 전체 인구 중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2010년 6.07%에서 2016년 5.17%로, 2020년 03월 기준 4.67%로 감소하여 10년 사이 1.4%p가 감소함. 감소 추이를 보면, 2016~2019년 사이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에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 2020년 3월 기준 영유아의 비율은 4.67%로, 전년(2019. 03) 대비 감소율은 0.37%로 나타남

〈표 3-2〉 지난 10년간 전국과 전북 영유아의 인구 추이

구분		2010	2013	2016	2019	2020. 03
전국	영유아	3,208,694	3,264,476	3,153,489	2,726,967	2,680,299
	비 중	6.35	6.38	6.10	5.25	5.17
	증감률		△0.03	▽0.28	▽0.85	▽0.08
전북	영유아	113,481	113,709	106,734	86,986	84,817
	비 중	6.07	6.07	5.72	4.78	4.68
	증감률		-	▽0.35	▽0.94	▽0.1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0~2020.3)..



〈그림 3-2〉 지난 10년간 전국과 전북의 영유아 인구수 및 비율 추이

❍ 전북의 영유아 인구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13,344명에서 2020년 03월 84,817명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906명이 증가한 것 외에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2017년 5,422명, 2018년 6,697명, 2019년 7,692명의 영유아 인구가 매년 감소를 보이고 그 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연령 및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모든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무엇보다 0세의 감소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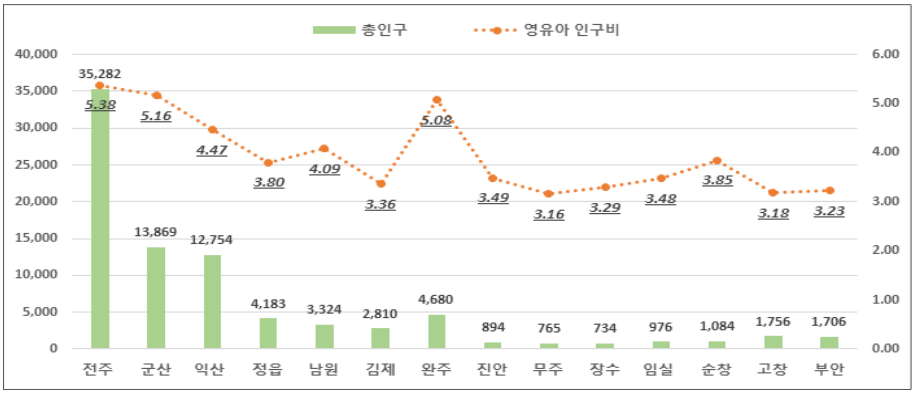
〈표 3-3〉 연도별 · 연령별 전북 영유아 연령별 현황(2011~2020.3)

연도	연령별 현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증감정도
2011	15,662	16,356	15,484	16,344	17,493	15,894	16,111	113,344	-
2012	15,695	16,384	16,456	15,614	16,422	17,596	15,983	114,150	▲906
2013	14,191	16,503	16,499	16,587	15,724	16,502	17,703	113,709	▽441
2014	13,761	14,838	16,608	16,628	16,690	15,844	16,630	110,999	▽2,710
2015	13,771	14,399	14,924	16,627	16,691	16,739	15,845	108,996	▽2,003
2016	12,433	14,370	14,538	15,037	16,724	16,821	16,811	106,734	▽2,262
2017	11,096	12,857	14,378	14,545	14,978	16,692	16,766	101,312	▽5,422
2018	9,775	11,484	12,829	14,397	14,531	14,949	16,650	94,615	▽6,697
2019	8,703	10,107	11,496	14,360	14,360	14,509	14,934	86,986	▽7,629
2020.03	**8,460**	**9,666**	**11,103**	**12,370**	**14,076**	**14,450**	**14,692**	**84,817**	▽2,16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1~2020.3)

❍ 2020년 3월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 영유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35,282명)이며, 전주의 영유아 인구가 전북 전체 영유아의 41.59%를 차지함. 영유아 인구가 전주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군산(13,869명, 16.35%), 익산(12,754명, 15.03%), 완주(4,680명, 5.51%)로 나타남

❍ 전북 14개 시·군별 총 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을 보면, 전주 5.38%, 군산 5.16%, 완주 5.08%, 남원 4.09% 순으로 높았고, 무주 3.16%, 고창 3.18%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평균 5.17%, 전북평균 4.68%)



〈그림 3-3〉 전북 시·군별 영유아 현황 및 비중(2020. 03)

〈표 3-4〉 전북 14개 시·군별 영유아 현황 (2020.03)

구분	총인구 (A)	비율 (B/A)	합계(B)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국	51,843,195	5.17	2,680,299	284,807	324,004	354,125	398,033	438,784	442,535	438,011
전북	1,812,936	4.68	84,817	8,460	9,666	11,103	12,370	14,076	14,450	14,692
전주	655,519	5.38	35,282	3,353	3,987	4,621	5,157	5,972	6,064	6,128
군산	268,766	5.16	13,869	1,284	1,460	1,827	1,982	2,335	2,475	2,506
익산	285,431	4.47	12,754	1,237	1,507	1,642	1,887	2,156	2,137	2,188
정읍	109,951	3.80	4,183	415	506	554	557	692	728	731
남원	81,257	4.09	3,324	415	420	439	471	522	521	536
김제	83,570	3.36	2,810	296	284	381	396	486	472	495
완주	92,135	5.08	4,680	441	481	592	778	759	802	827
진안	25,621	3.49	894	147	132	121	130	119	115	130
무주	24,178	3.16	765	81	75	104	107	129	128	141
장수	22,277	3.29	734	87	85	84	105	97	131	145
임실	28,073	3.48	976	153	134	140	140	138	145	126
순창	28,155	3.85	1,084	162	183	143	177	154	134	131
고창	55,190	3.18	1,756	192	222	219	238	275	304	306
부안	52,813	3.23	1,706	197	190	236	245	242	294	302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0. 03)

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및 가정양육 현황

❍ 2019년 12월 기준 전북 도내 전체 영유아 86,986명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이용 46,698명, 유치원 이용 22,025명)는 68,723명으로 전북 도내 전체 영유아 중 시설 이용 비율은 약 79%로 나타남

❍ 한편, 2019년 12월 기준 전북 도내 전체 영유아 중 가정양육 수당을 지급받은 비율은 19.13%(16,646명)으로 나타남

구분	영유아 수 현황	시설이용 현황			가정양육 수당 지급현황
		어린이집 이용 현황	유치원 이용 현황	계 (시설이용 비율)	
15년 12월	108,996	55,226	1,526	56,752 (52.1%)	27,946
16년 12월	106,734	53,798	1578	55,376 (51.8%)	25,379
17년 12월	101,312	52,105	1,622	53,727 (53.0%)	22,313
18년 12월	94,615	49,670	1,648	51,318 (54.2%)	19,324
19년 12월	86,986	46,698	22,025	68,723 (79.0%)	16,646
전주시	35,879	19,650	9,293	28,943	
군산시	14,335	8,027	3,676	11,703	
익산시	13,174	6,900	3,708	10,608	
정읍시	4,301	2,349	1,089	3,438	
남원시	3,371	2,142	435	2,577	
김제시	2,908	1,476	392	1,868	
완주군	4,824	2,598	1,370	3,968	
진안군	920	238	159	397	
무주군	777	399	190	589	
장수군	754	343	158	501	
임실군	1,026	411	177	588	
순창군	1,133	403	202	605	
고창군	1,813	981	336	1,317	
부안군	1,771	781	421	1,202	

제 2 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현황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시·도별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실태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매년 여러 유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전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및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살펴봄

○ 단, 아쉬운 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실태와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조사를 국가승인통계(제120019호)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료 배포 시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연령구분 변수 중 3-9세 연령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지역구분 변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북지역 영유아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그 결과 값을 제시하지 못함. 이에 '인터넷이용실태조사'와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자료에 기반 한 영유아(3-9세)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등을 전국 단위 차원에서 살펴봄

가.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3-9세의 이용 현황

1) 조사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인터넷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고 이용 현황 및 형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2000년부터 전국 가구단위로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 형태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국가승인 지정통계(제120005호)로 지정되었음

○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는 전국 25,000가구 및 가구 내 만 3세 이상 가구원(유효표본 약 60,300명 정도)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가 실시되며, 현재 2019년도 보고서까지 발표됨

❍ 주요 조사내용은 인터넷이용자 수와 이용률 산출 및 시계열분석,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지역별에 따른 이용현황, 이용시간, 빈도, 장소, 용도 등 이용형태, 인터넷 이용환경, 주요 이용 서비스 현황 및 향후 이용의향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등임

❍ 한편, 실태조사에 대한 원자료 제공 시 연령별 구분에서 3-9세 연령에 대한 원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지역별, 특히 전북의 3-9세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큼. 이에 2019년도의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전국 3-9세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함

2) 전국 3-9세의 인터넷 이용 실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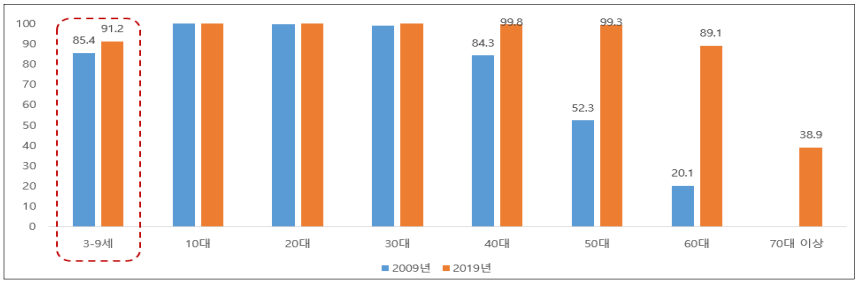
❍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 분석 시 연령별 범주를 유아동(만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본 절에서는 영유아(0-6세까지)의 연령이 포함된 유아동(만3~9세)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봄

① 연령별 인터넷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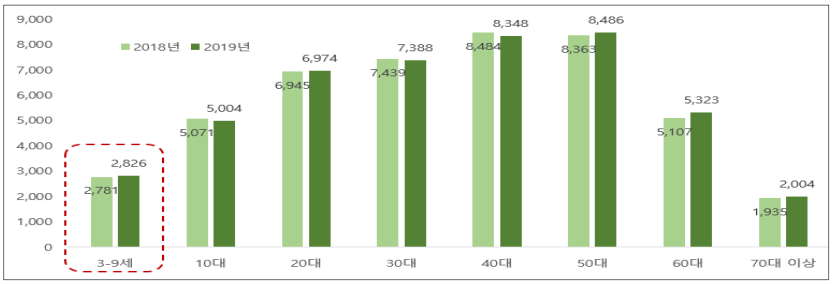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10대·20대·30대·40대는 99.9% 이상으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음

❍ 3-9세의 인터넷 이용률도 2019년 기준 91.2%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층(60대 89.1%, 70세 이상 3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3-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10년 전(2009년 85.4%)에 비해 약 5.8%, 전년(2018년 87.8%) 대비 약 3.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비교(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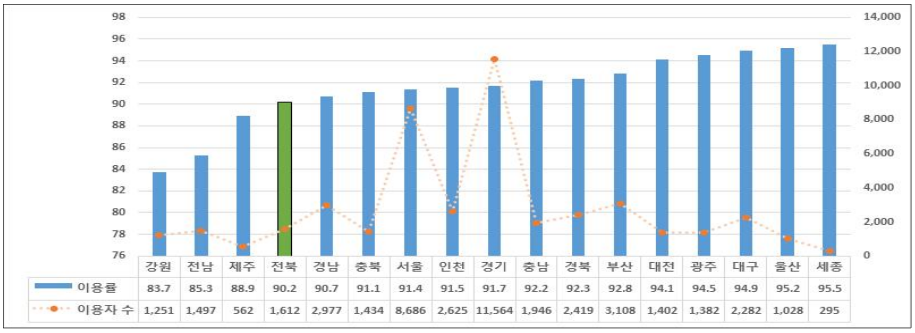


〈그림 3-5〉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수(천명, 2018, 2019)

② 전국 시·도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 전국 시도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가 95.5%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83.7%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90.2%(1,612천명)로 나타남



	강원	전남	제주	전북	경남	충북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경북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세종
이용률	83.7	85.3	88.9	90.2	90.7	91.1	91.4	91.5	91.7	92.2	92.3	92.8	94.1	94.5	94.9	95.2	95.5
이용자 수	1,251	1,497	562	1,612	2,977	1,434	8,686	2,625	11,564	1,946	2,419	3,108	1,402	1,382	2,282	1,028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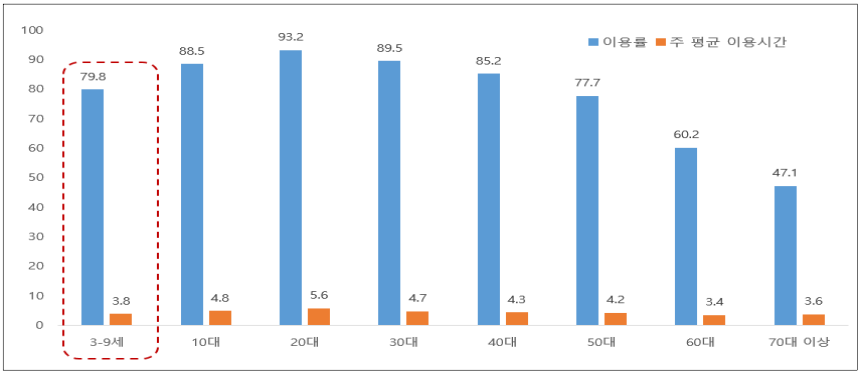
〈그림 3-6〉 지역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2018)

③ 연령별 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만 3세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81.2%로 전 국민 대다수가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1회 이상 이용자가 73.7%, 주 평균 이용 시간은 4.5시간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서비스는 유튜브(76.9%), 네이버(36.1%), 아프리카TV(17.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동영상서비스는 20대가 93.2%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주 평균 5.6시간, 하루 평균 48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3-9세 연령도 79.8%가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약 8명 정도가 동영상서비스를 보며, 주 평균 3.8시간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60대와 70대 이상의 노인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60.2%, 47.1%)과 이용시간(3.4시간, 3.6시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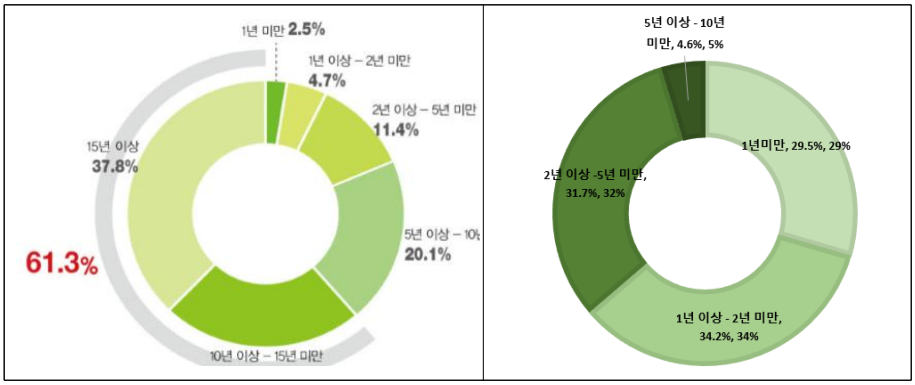


〈그림 3-7〉 연령별 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및 주평균 이용시간(2019)

④ 3－9세 인터넷 이용기간 및 이용 빈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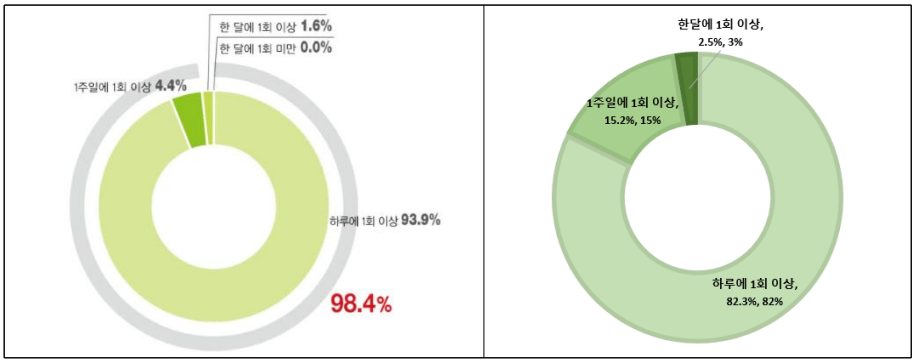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1.3%가 인터넷을 10년 이상(15년 이상 37.8%, 10년 이상-15년 미만 23.5%)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순으로 나타남

❍ 한편, 3-9세 연령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 이상－5년 미만 31.5%, 1년 미만 29.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8〉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기간 비교(2019)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98.4%인 거의 대부분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3-9세 연령 인터넷 이용자 또한 82.3%가 1일에 약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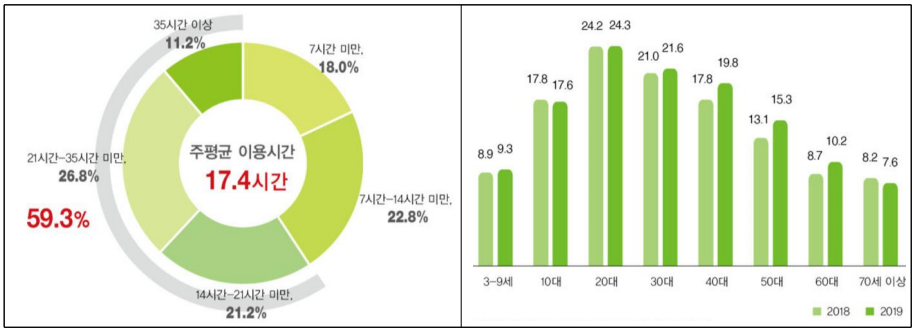


〈그림 3-9〉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빈도 비교(2019)

⑤ 3－9세 인터넷 이용 시간 및 장소 현황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은 주 평균 17.4시간의 인터넷을 이용하며, 이용자들의 약 59.3%가 일주일에 평균 1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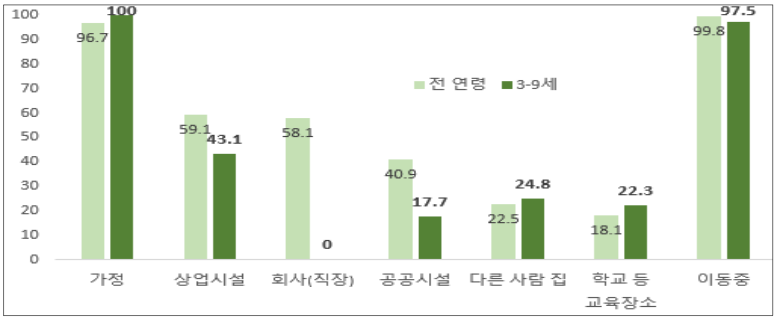
❍ 3-9세 연령은 주 평균 인터넷을 9.3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0.4시간이 증가한 것임. 연령대별로 보면 3-9세 연령의 이용시간이 70이상 노인층을 제외 하고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시간 비교(2019)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99.8%인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동' 중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이 96.7%로 가장 높이 나타남

❍ 3-9세 연령은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동 중'에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97.5%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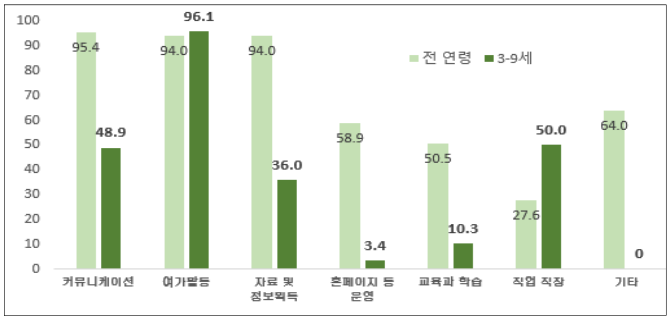


〈그림 3-11〉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시간 비교(2019)

⑥ 3－9세 인터넷 이용 목적 현황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주 이용 목적은 95.4%가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활동 94.0%, 정보 및 자료 획득 94.0% 순으로 나타남

❍ 3－9세 연령의 인터넷 이용 목적은 96.1%가 여가활동이었고, 다음으로 교육 및 학습 5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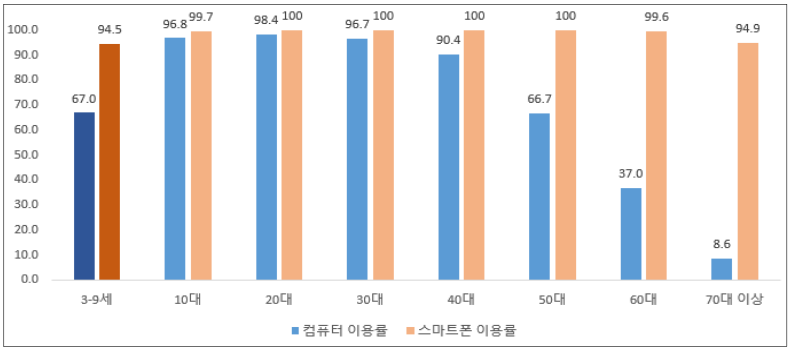


〈그림 3-12〉 전 연령 및 3-9세 인터넷 이용 목적 비교(2019)

⑦ 3－9세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이용률 현황

❍ 만 3세 이상의 컴퓨터 사용률은 73.0%이며, 이 중 3－9세 연령의 컴퓨터 이용률 또한 67.0%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대별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만 3세 이상 인구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9.0%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3－9세 연령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4.5%로 전년 대비(85.5%) 9%가 상승함



〈그림 3-13〉 전 연령 및 3-9세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률 비교(2019)

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에 따른 영유아의 이용 실태 및 과의존 현황

1) 조사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스마트폰·인터넷에 대한 역기능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전국 단위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20019호)로 전 국민 대상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실태 파악과 과의존 예방·해소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현재(2020. 03) 2019년도 보고서까지 발표되었고 실태조사에 대한 지역별 구분 원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서 2019년도의 실태 결과를 영유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함

❍ 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3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으로 이중 1개월 이내에 약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한 자로 유아동(만 3~9세)은 본인의 스마트폰 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적격대상자가 되며, 주관찰자인 양육자(부모)가 유아동의 행동과 태도에 기반하여 응답하게 했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하여 가구 단위로 조사함. 조사규모는 10,000가구이며, 가구별로 방문하여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총 9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스마트폰 사용 현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게임 사용현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현황, 과의존 예방 및 상담 서비스 이용현황, 과의존 문제해결에 관한 인식, 스마트폰 이용 관련 심리적 특성, 만 3~19세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문항(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원인 및 영향력 등) 및 일반사항에 대한 특성 등으로 구성됨

영역	세부 내용
PART2. 스마트폰 이용 현황	이용 콘텐츠 및 이용 정도, 생활에 도움 되는 콘텐츠, 부작용이 걱정되는 콘텐츠
	1일 평균 이용시간, 이용 목적별 스마트폰 이용 비율,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연령범주별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PART5. 과의존 상담 및 교육 이용 현황	스마트쉼센터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과의존상담 서비스 도움정도
	과의존 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예방교육 장소
	과의존 전문상담 및 예방교육 이용 의향
PART6. 과의존 문제해결에 관한 인식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인식, 과의존 문제원인, 과의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해결 주체 및 해결방법, 개인스스로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시 장애요인
PART8. 대상별 조사	(만3세~19세 자녀 학부모)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처
	(만3세~19세 자녀 학부모)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정보 획득 경로

자료 :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2019.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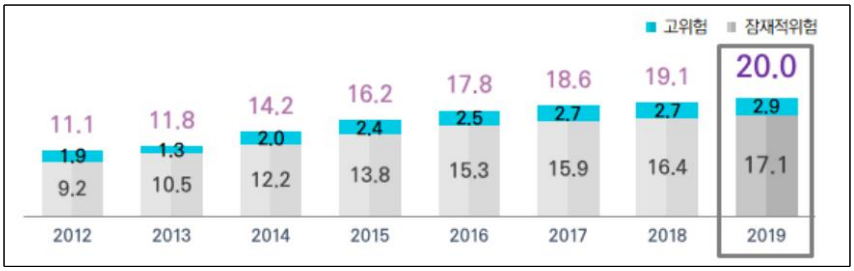
2)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과의존 현황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연령별 범주를 유아동(만 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고 있어서 본 절에서는 영유아(0-6세까지)의 연령이 포함된 유아동(만 3~9세)을 중심적으로 살펴봄

①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 2019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 + 잠재적위험군)은 20.0%로 5명 중 1명 이상이 과의존 위험군에 속함. 2012년(11.1%) 대비 9%p가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0.9%p가 증가하여 매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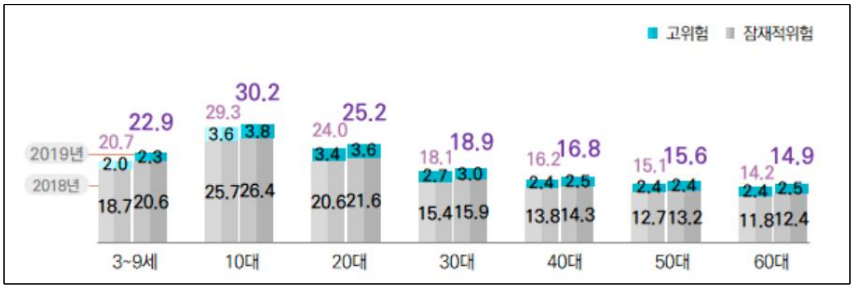
❍ 고위험군은 2019년 2.9%로 전년 대비 0.2%p가 증가했으며 2012년 대비 1.0%p가 증가함. 잠재적 위험군은 2019년 17.1%로 2012년 대비 7.9%p가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0.7%p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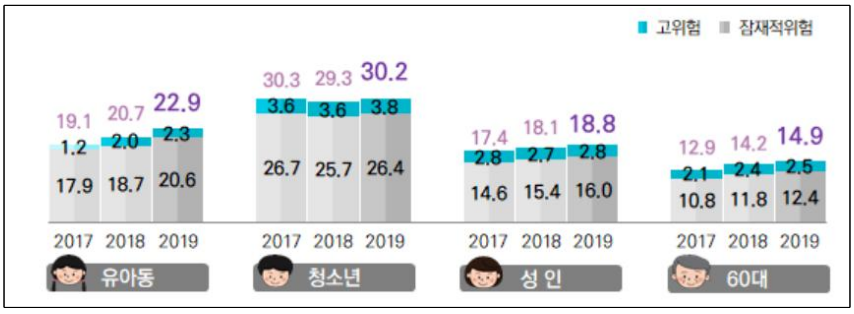
〈그림 3-14〉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2019)

② 연도별 및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

○ 연령별에 따른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10대(30.2%), 20대(25.2%), 3-9세(22.9%), 30대(18.9%) 순으로 나타남. 즉 대상별로는 청소년이 3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9세인 유아동(22.9%), 성인(18.8%), 60대(1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연도별 및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2019)



〈그림 3-16〉 연도별 및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2019)

❍ 대상별 과의존 위험군의 연도별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유아동(3-9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즉 2018년(20.7%) 대비 2019년은 2.2%p 증가한 22.9%로 나타남

- 2019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유아동은 2.2%p, 청소년은 0.9%p, 성인은 0.7%p, 60대는 0.3%p 상승함
-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증가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4%에서 2016년에는 5.5%p 증가한 17.9%,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한 19.1%,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p 증가한 20.7%, 2019년은 전년대비 2.2%p 증가한 22.9%를 나타냄. 즉 2015년(12.4%) 대비 2019년(22.9%)에는 10.5%p 증가함
- 반면, 2019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15년(31.6%) 대비 -1.4%p 감소한 30.2%로 나타남

❍ 연령대 전년 대비 과의존위험군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가폭은 유아동(2.2%p), 20대(1.2%p), 10대(0.9%p) 순으로 나타나 10대 미만의 유아동에서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③ 연도별 · 대상별 ·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

❍ 성별에 따른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19년 기준 남성(20.2%)이 여성(19.6%)보다 약 0.6%p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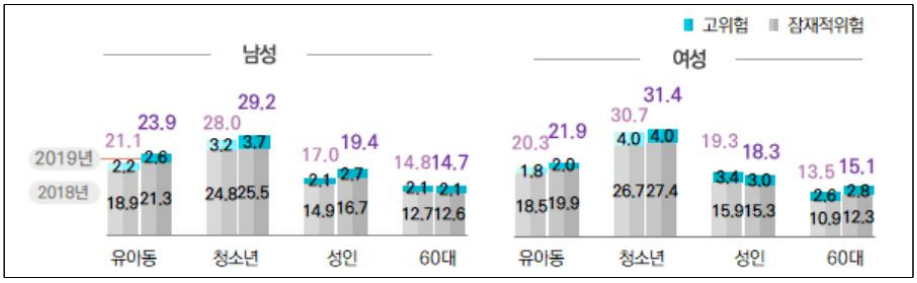
- 한편, 2019년 기준 고위험군의 비율은 남성(2.7%)보다 여성(3.0%)이 0.3%p 높음. 반면, 잠재적위험군의 비율은 여성(16.6%)보다 남성이 17.5%로 0.9%p 높게 나타남. 즉 고험군 비율은 여성이 높은 반면, 잠재적 위험군 비율은 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대상별 과의존위험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아동, 성인, 60대 순으로 나타남

〈표 3-5〉 연도별·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2019)

(단위: %)

구분		성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과의존위험군		남	12.5	14.6	16.0	17.2	18.0	18.3	20.2
		여	11.2	13.8	16.5	18.4	19.3	20.1	19.6
	고위험	남	1.2	2.2	2.3	2.0	2.3	2.2	2.7
		여	1.4	1.8	2.5	3.0	3.1	3.3	3.0
	잠재적 위험	남	11.3	12.4	12.4	15.2	15.7	16.1	17.5
		여	9.8	12.0	12.0	15.4	16.2	16.8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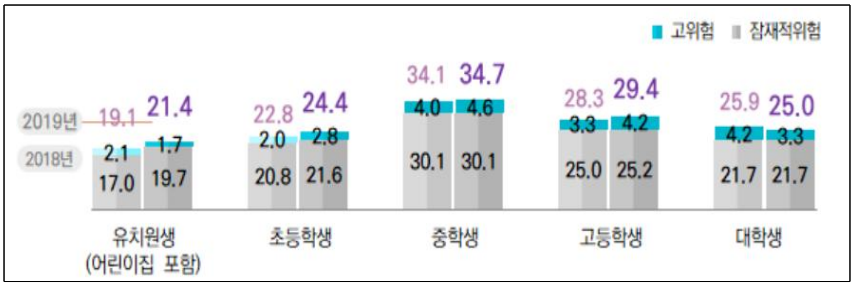
〈그림 3-17〉 연도별·대상별·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2019)

○ 대상별 성별에 따른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보면, 유아동의 경우 2019년과 2018년 모두 남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23.9%, 21.1%)이 여아의 비율(21.9%, 20.3%)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의 경우 2019년과 2018년 모두 여자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남자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29.2%, 28.0%)보다 2019년에는 2.2%p, 2018년에는 2.7%p 높은 31.4%, 30.7%로 나타남

④ 학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

○ 학년별(어린이집/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중학생 34.7%, 고등학생 29.4%, 대학생 25.0%, 초등학생 24.4%, 어린이집·유치원 21.4% 순으로 2018년과 동일하게 중학생이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높고,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폭은 어린이집·유치원 2.3%p, 초등학생 1.6%p로 저연령 층으로 갈수록 과의존위험군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 과의존 위험률이 지속적으로 저령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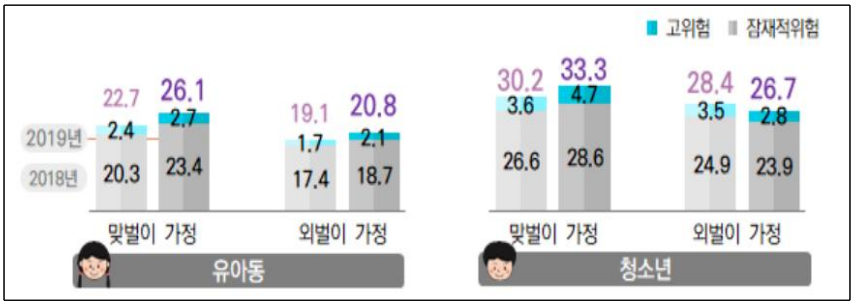


〈그림 3-18〉 학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현황(2019)

⑤ 맞벌이 유무별 및 유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현황

❍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외벌이 가정(20.8%)보다 5.3%p가 높은 26.1%로 나타남. 맞벌이 가정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18년 대비 3.4%p 증가한 반면, 외벌이 가정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1.7%p 증가하여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외벌이 가정 유아동의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 또한,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외벌이 가정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19〉 맞벌이 유무별 유아동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현황 (2019)

⑥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속성 현황

❍ 스마트 '과의존 척도(유아동 9문항, 이외 대상 10문항)'는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은 '현저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 외 대상인 청소년, 성인 및 60대는 '조절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어떠한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의존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

❍ 이에 과의존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는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고, 다른 어떠한 장남감보다도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부모와 자주 싸우고,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생기며, 지속적인 이용으로 시력이나 몸의 자세 등이 문제가 생기는 문제적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나게 됨

〈표 3-6〉 대상별 과의존위험군 3가지 요인별 점수(4점 만점)

구분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영유아	2.76	3.17	2.84
청소년	3.06	2.93	2.48
성인	2.89	2.74	2.45
60대	2.67	2.63	2.52

⑦ 대상별 스마트폰 1일 평균 이용 시간 현황

❍ 대상별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유아동과 60대는 1시간 미만이 77.9%,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과 성인은 1시간~2시간 미만이 35.5%,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아동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시간 미만 77.9%, 1시간~2시간 미만 17.3%, 2시간~3시간 미만 3.5%, 3-4시간 미만 0.7%, 4시간 이상 0.6%로 나타나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유아동은 4.8%로 나타남

〈표 3-7〉 대상별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

(단위: %)

구 분	1시간 미만	1-2시간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유아동(3-9세)	77.9	17.3	3.5	0.7	0.6
청소년	34.0	35.5	20.4	7.9	2.2
성 인	31.2	34.6	24.1	7.3	2.8
60대	57.4	29.1	9.4	3.0	1.0

⑧ 유아동의 스마트폰 이용 시 주 이용 콘텐츠 및 온라인 동영상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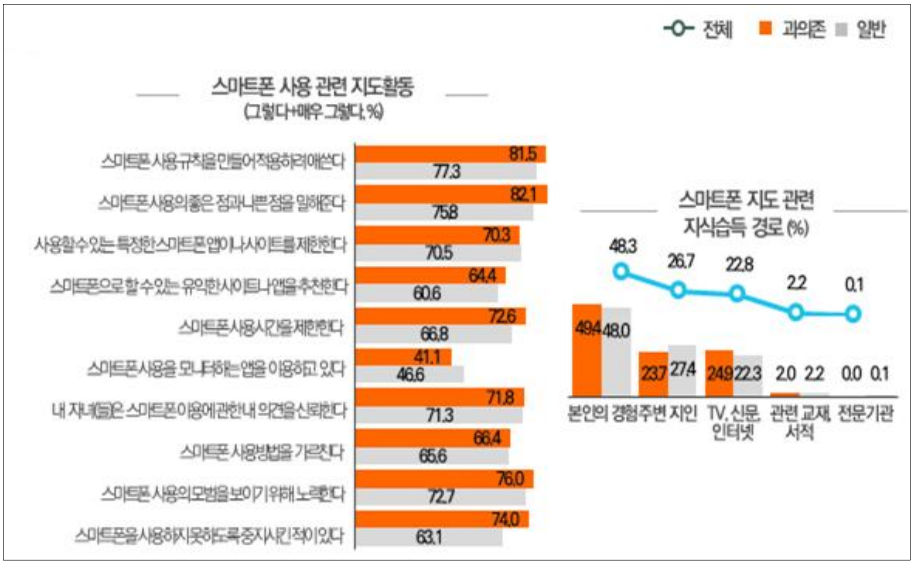
○ (주 이용 콘텐츠)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중복응답)는 1위 영화 · TV · 동영상(96.5%), 2위 게임(73.6%), 3위 음악(59.7%), 4위 학업용(48.7%), 5위 메신저(4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동영상 이용 현황) 대상자별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을 보면, 청소년의 이용률이 9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아동 96.5%, 성인 92.2%, 60대 71.0% 순으로 나타남. 유아동의 온라인 동영상 내용은 1위 애니메이션(만화)이 53.1%로 가장 높았고, 2위 게임 17.2%, 3위 교육과 학습 동영상 10.3%, 4위 TV 4.6% 순으로 나타남

⑨ 유아동 스마트폰 이용 시 부모의 지도활동 유형 현황 (2018년)

○ 유아동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지도활동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해준다(82.1%)'와 '스마트폰 이용d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에게 적용하려 한다(81.5%)' 등의 순이었음

○ 유아동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지도에 대한 지식습득 이동 경로는 '부모 본인의 학습 및 경험(48.3%)', '주변 지인(26.7%)' 등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지도 관련 지식은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경로보다 생활 속에서 다소 비전문적인 경로를 통해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20〉 유아동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지도활동(2018)

제 3 절 소결

❍ 본 절에서는 영유아 규모 및 연도별 추이에 대한 영유아 관련 현황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유아 연령대와 가장 근접한 3-9세 연령대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과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음. 이에 대한 현황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가. 영유아 관련 현황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전국적으로 영유아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2,680,299명*이며, 전국 총 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는 5.17%를 차지하고 있음. 17개 시·도 중 영유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66,243명)이며, 시·도별 총 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20%), 제주(5.94%), 울산(5.90%), 경기(5.76%) 순으로 나타남. 한편, 17개 시·도 중 전체 인구 대비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4.52%), 부산(4.61%), 전북(4.67%) 순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영유아 수는 84,817명으로 전북 총 인구 대비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7%로 전국평균 영유아 인구 비율(5.17%) 보다 0.5%p가 낮음. 전북지역은 지난 10년간 영유아 인구가 2010년 113,481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84,817명으로 약 25%가 감소하였고, 전북 전체 인구 중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6.07%, 2016년 5.17%, 2020년 03월 4.67%로 감소하여 10년 사이 1.4%p가 감소함

❍ 영유아 인구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영유아가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 또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임. 특히 전북지역 영유아는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영유아가 차지하는 인구비율 또한 끝에서 세 번째임

* 2,680,299명 중 0세가 284,807명로 가장 적고, 5세가 442, 535명으로 가장 많음

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3-9세 연령의 인터넷 이용률(2019)이 91.2%로 10명 중 9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2009년 85.4%)에 비해 약 5.8%, 전년(2018년 87.8%) 대비 3.4%가 상승함

❍ 3-9세 연령의 인터넷 사용기간은 약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 이상 5년 미만 31.5%로 나타나 65%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한지 1년 이상이 되었음을 나타냄. 주 평균 인터넷을 9.3시간 이용하며, 이는 전년 대비 0.4시간 증가한 것임. 3-9세 연령 대부분은 '가정'과 '이동 중'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8%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3.8시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3-9세 연령의 인터넷 경험률 및 이용 시간과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 모두 60대 이상 노인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3-9세 연령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년 급상승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또한 3-9세 연령의 인터넷 이용장소가 '가정(100%)'과 '이동 중(97.5%)으로 나타나 자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자녀대상 대응 보다는 부모 대상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음

❍ 그리고 3-9세 연령의 인터넷 이용 목적은 96.1%가 여가활동으로 나타나 3-9세 연령의 여가활동이 인터넷 이용으로 나타나는 주요 원인 파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여가활동을 대체할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활동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 유도 및 새로운 대안활동 발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3-9세 연령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매년 상승하고 있기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인터넷 적절 이용 교육에 대한 대응이 다차원적 방향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2019년 기준 20.0%로 5명 중 1명이 과의존위험군에 속함. 과의존위험군은 2012년 대비 9%p, 전년 대비 0.9%p가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 증가 추세임

○ 연령대별에 따른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10대(30.2%), 20대(25.2%), 3-9세(22.9%), 30대(18.9%) 순으로 높고, 대상별로는 청소년(30.2%), 3-9세(22.9%), 성인(18.8%), 60대(14.9%) 순으로 높게 나타나 3-9세 연령의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5명 중 1명 이상이 과의존위험군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3-9세 연령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대한 부처별 관심과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 대상별에 따른 과의존위험군의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3-9세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어떤 대상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남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여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이에 3-9세는 물론 영유아 대상 스마트폰 적절 이용 유도 및 과의존에 대응하는 방안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맞벌이 가정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외벌이 가정보다 5.3%p 높은 26.1%로 나타나 외벌이 가정보다는 맞벌이 가정 내 3-9세 연령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직장일로 바쁜 맞벌이 부모를 겨냥한 쉽고 편리하면서 접근성이 높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과의존 척도 3요인(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중 3-9세 연령의 과의존위험군은 현저성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항상 스마트폰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 등의 문제적 행동을 야기하고 있음. 3-9세 연령의 스마트폰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 77.9%로 가장 많지만 2시간 이상도 약 5.0% 정도로 나타남.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는 96.5%가 동영상으로 나타났고, 동영상의 주 내용은 애니메이션(만화)(53.1%), 게임(17.2%)순으로 높았음. 이에 스마트폰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3-9세를 위한 대안활동 마련과 대안활동에 지속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3-9세 연령 부모는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 지도 시 82.1%가 스마트폰 이용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해주며, 81.5%는 스마트폰 이용 시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려고 애쓴다고 응답함. 자녀 스마트폰 지도 관련 지식은 약 75% 이상이 본인의 경험과 주변인의 이야기로 보다 전문적인 경로를 통한 전문적 지도·교육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적 욕구

제1절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
제2절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현장종사자 면접조사
제3절 소결

제 4 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이용실태 및 정책적 욕구

본 장에서는 전북지역의 영유아의 부모와 현장전문가 대상 미디어 이용실태 및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첫째, 지역별(시·군), 영유아의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부모의 지도와 개입정도, 개입 시 어려운 점과 자녀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실태 경험에 대해서는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부가적인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 둘째, 현장전문가(어린이집 · 유치원 원장과 교사 및 영유아 관련 전문가, 미디어 과의존 및 예방을 위해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스마트쉼센터 현장전문가와 상담사 및 예방교육 강사, 지역 내 상담 관련 전문가 등)의 입장과 관점에서 전북 도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와 과의존 정도 및 영유아가 미디어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현 지원정책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함

제 1절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 및 표본 설계

❍ 조사대상자는 전북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0세~6세 미만(취학 전)의 영유아 부모 400명임. 단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부모는 조사대상자에서 제외시킴.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연령 범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까지로 규정함(2014년생~2019년생)

❍ 2019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토대로 시·군별* 및 연령별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할당 배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영유아 부모 대상 의도적 표집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시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중심으로, 군 지역은 부안, 무주지역을 중심으로 설문배부 함

〈표 4-1〉 조사대상자 임의 할당 표집설계

구 분				지역별 배분	
전북		영유아 수(비율)	설문지 부수	시 지역 (72.88%)	군 지역 (27.12%)
		86,972(100.0)	400부	250부	150부
연령별 배분	0세	8,702(10.00)	40부	24부	16부
	1세	10,106(11.62)	46부	30부	16부
	2세	11,494(13.22)	52부	32부	20부
	3세	12,875(14.80)	60부	38부	22부
	4세	14,357(16.51)	66부	41부	25부
	5세	14,506(16.68)	66부	41부	25부
	6세	14,932(17.17)	70부	44부	26부
합 계				400부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9.12)..

2) 조사 방법 및 기간

❍ 설문조사는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협회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실무 담당자의 협조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섭외 받은 후 본 연구자가 직접 기관 담당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조사 시 유의점 및 안내 사항 등을 전달한 후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지를 배부함. 설문지 배부 후 1~2주 단위로 기관별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함. 설문 응답의 신뢰도와 비밀 보장을 위해 설문지를 회신봉투에 넣어 테이핑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조사기간은 2020년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됨

❍ 분석방법은 SPSS Win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등을 실시함

3) 조사내용

❍ 설문조사의 조사내용과 세부문항은 연구원이 선행연구를 참고로 설문지를 재구성함.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설문 문항과 이정림 외(2014) 보고서, 이경숙 외(2015), 방효국 · 김낙흥(2013)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함. 재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영유아 부모, 관련 연구자 대상 여러 차례를 통해 설문내용, 세부 문항과 추가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함

❍ 조사내용은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됨.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관련 영역,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부모 개입 정도 영역, 부모변인과 자녀문제 행동 영역, 정책인지도 및 욕구 사항 관련 영역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됨

〈표 4-2〉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과 내용

영 역	조 사 내 용
일반적 특성	(영유아 자녀 특성) : 성별, 연령, 출생순위, 거주지역, 가족형태 등, 주양육자 (부모특성) 연령, 부와 모 교육수준·직업유무·직업구분, 평균 가구소득 등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 (미디어 보유현황) TV, 컴퓨터(노트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테블릿 PC), 비디오/DVD, 기타 • (자녀 이용현황) 주이용 미디어, 미디어별 최초 노출시기, 최초 접하게 해준 사람, 미디어별 평균 이용 횟수와 시간과 시간대 이용에 대한 규칙 유·무, 이용 결정(접근)방법, 주로 이용하는 상황과 장소, 이용하는 주된 이유, 과다이용에 대한 염려정도, 이용 콘텐츠, 과다이용 정도 등
부모 인식과 부모 개입 정도	• 노출하지 않은 이유, 만약 이용 및 노출을 고려한다면 언제부터, 이용 및 노출 이유 • 부모의 스마트기기 평균 이용시간 •미디어 이용 시 주 양육자가 주로 하고 있는 일 • 가정 내 규칙 유무,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심각성 • 미디어 이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 사용지도 시 어려움 • 자녀 부적절 이용에 따른 예방 행동
부모변인과 자녀 문제행동	•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우울 • 주의집중, 공격성
정책인지도 및 요구사항	•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예방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필요성, 교육내용과 교육 장소 등 • 정책 인지도(상담대표전화 인지도, 전문지원센터 인지도 등),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수단 • 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규제나 법·제도 필요성 여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나.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400명의 응답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 49.0%, 여아 51.0% 였으며, 형제순위는 둘째 이상인 경우가 55.8%, 첫째인 경우가 33.6%, 외동인 경우가 10.6% 순임. 연령은 영아 23.3%, 유아 76.7%였음

❍ (부모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400명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은 시 67.0%, 군 33.0%, 가족유형은 부부+자녀 96.0%, 한부모+자녀 4.0%로 나타났으며, 총 가구소득은 300~399만원(24.3%), 400~499만원(18.5%), 200~299만원(15.2%), 500~599만원(14.4%) 등의 순이었으며, 65.3%가 맞벌이 가구 인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라는 응답이 92.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51.2%, 40대 44.7%로 3040대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었음. 어머니 연령 역시 3040대가 가장 많았고, 특히 30대가 68.5%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부모 모두 4년제 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 고졸 순으로 나타남. 취업여부는 아버지는 98.7%가 취업상태였고, 어머니는 69.5%로 나타남
- 직업유형은 아버지는 전문·관리직(25.1%), 사무직(21.1%), 근로기능직(15.7%) 등의 순으로 많았고, 어머니는 전문·관리직(32.4%), 사무직(26.3%) 등이 대부분 이었음

〈표 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자녀 성별	남아	196	49.0	거주 지역	시	268	67.0
	여아	204	51.0		군	132	33.0
	계	400	100.0		계	400	100.0
형제 순위	첫째	133	33.6	가족 유형	부부+자녀	384	96.0
	둘째이상	221	55.8		한부모+자녀	16	4.0
	외동	42	10.6		계	400	100.0
	계	396	100.0	가구 소득	200만 미만	19	4.8
자녀 연령	1세	7	1.8		200~299만	60	15.2
	2세	14	3.5		300~399만	96	24.3
	3세	71	18.0		400~499만	73	18.5
	4세	90	22.8		500~599만	57	14.4
	5세	115	29.1		600~699만	50	12.7
	6세	98	24.8		700만 이상	40	10.1
	계	395	100.0		계	395	100.0
주 양육자	어머니	368	9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1	65.3
	아버지	17	4.3		외벌이	139	34.8
	조부모	14	3.5		합계	400	100.0
	합계	399	100.0				
부 연령	20대	5	1.3	모 연령	20대	13	3.3
	30대	197	51.2		30대	268	68.5
	40대	172	44.7		40대	109	27.9
	50대	11	2.9		50대	1	.3
	계	385	100.0		계	391	100.0
부 최종 학력	고졸	80	20.9	모 최종 학력	고졸	59	15.2
	전문대	79	20.7		전문대	104	26.8
	4년제	189	49.5		4년제	188	48.5
	대학원	34	8.9		대학원	37	9.5
	계	382	100.0		계	388	100.0
부 취업 상태	취업	383	98.7	모 취업 상태	취업	269	69.5
	비취업	5	1.3		비취업	118	30.5
	계	388	100.0		계	387	100.0
부 직업 유형	전문·관리	96	25.1	모 직업 유형	전문·관리	90	32.4
	사무	81	21.1		사무	73	26.3
	행정	25	6.5		행정	23	8.3
	서비스판매	34	8.9		서비스판매	21	7.6
	자영업	44	11.5		자영업	27	9.7
	근로기능	60	15.7		근로기능직	13	4.7
	농어업	10	2.6		농어업	4	1.4
	단순노무	3	.8		단순노무	2	.7
	군인	3	.8		군인	0	0.0
	종교인	4	1.0		종교인	3	1.1
	기타	23	6.0		기타	22	7.9
	계	383	100.0		계	278	100.0

2)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①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이용현황

❍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을 살펴보면, TV가 9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마트폰(83.6%), 컴퓨터(7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 성별로는 남아 및 여아 모두 TV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과 게임기는 남아의 가정에서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태블릿/컴퓨터는 여아의 가정에서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스마트폰은 영아 가정의 보유율이 더 높았고, 그 외 미디어 종류들은 유아 가정의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컴퓨터와 게임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위험군 가정의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정은 TV, 스마트폰, 컴퓨터, 휴대용게임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태블릿과 비디오게임기 보유율은 맞벌이 가정에서 좀 더 높았음

〈표 4-4〉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 및 자녀의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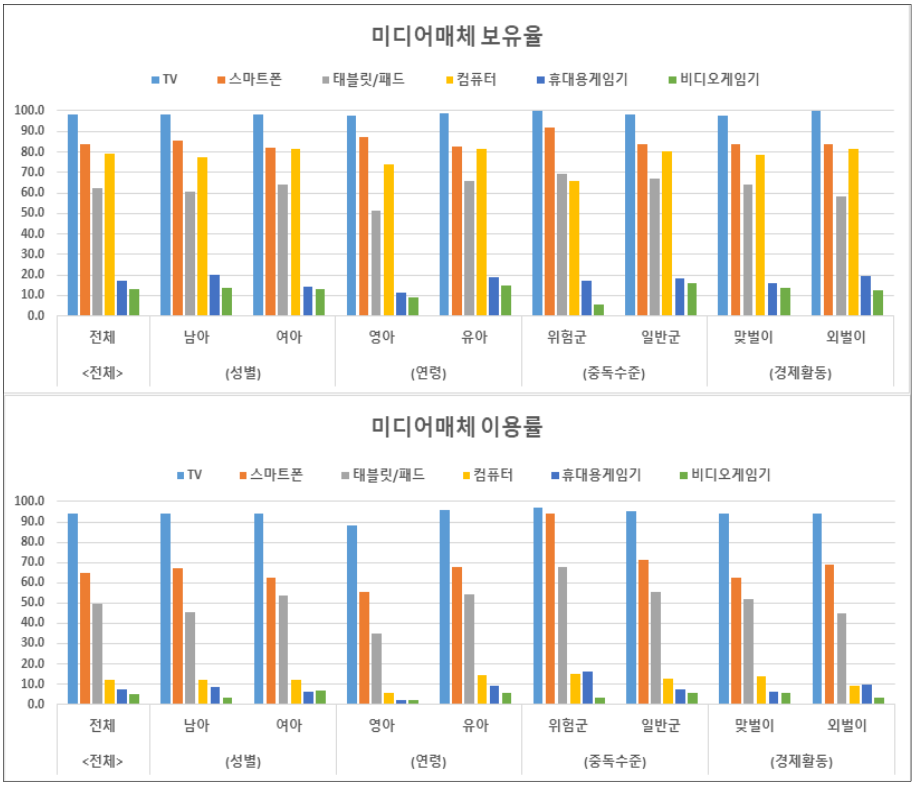
(단위: %)

			TV	스마트폰	태블릿/패드	컴퓨터	휴대용게임기	비디오게임기
〈전체〉		보유율	98.5	83.6	62.2	79.3	16.9	13.3
		이용률	*94.2*	*64.8*	*49.7*	*12.2*	*7.4*	*5.0*
성별	남아	보유율	98.5	85.6	60.4	77.2	19.8	13.5
		이용률	*94.3*	*67.4*	*45.5*	*12.2*	*8.6*	*3.2*
	여아	보유율	98.5	81.8	63.9	81.4	14.1	13.1
		이용률	*94.1*	*62.4*	*53.7*	*12.3*	*6.2*	*6.8*
연령	영아	보유율	97.8	87.0	51.6	73.9	11.1	8.9
		이용률	*88.0*	*55.4*	*35.2*	*5.5*	*2.3*	*2.3*
	유아	보유율	98.7	82.7	65.8	81.4	19.0	14.9
		이용률	*96.0*	*67.5*	*54.4*	*14.2*	*9.1*	*5.9*
과의존 수준	위험군	보유율	100.0	91.7	69.4	65.7	17.1	5.7
		이용률	*97.1*	*94.1*	*67.6*	*15.2*	*16.1*	*3.2*
	일반군	보유율	98.4	83.6	66.9	80.4	18.3	15.7
		이용률	*95.4*	*71.2*	*55.3*	*12.5*	*7.5*	*5.8*
경제 활동	맞벌이	보유율	97.7	83.5	64.1	78.3	15.7	13.7
		이용률	*94.3*	*62.7*	*52.1*	*13.6*	*6.3*	*5.9*
	외벌이	보유율	100.0	83.9	58.5	81.3	19.3	12.7
		이용률	*94.0*	*68.9*	*45.0*	*9.4*	*9.5*	*3.2*

* 과의존 수준에 따른 집단(일반군, 위험군) 구분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9문항)'를 토대로 나타난 집단임

❍ (영유아 미디어 이용률)을 살펴보면, TV 이용률이 9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마트폰(64.8%), 태블릿(49.7%), 컴퓨터(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의 성별로는 TV와 컴퓨터 이용률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태블릿과 비디오게임기 이용률은 여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스마트폰 휴대용게임기는 남아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유아의 이용률이 영아보다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위험군 영유아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휴대용게임기 이용률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태블릿과 컴퓨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외벌이 가정은 스마트폰, 휴대용게임기 이용률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냄



〈그림 4-1〉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 및 자녀의 이용률

❍ (영유아의 미디어별 이용 순위)를 살펴보면, TV(케이블)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마트폰, TV(정규방송), 태블릿 등의 순으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성별로는 남아의 경우 「TV(케이블) 〉 TV(정규방송) 〉 스마트폰 〉 … 」 순이었고, 여아의 경우 「TV(케이블) 〉 스마트폰 〉 TV(정규방송) 〉 … 」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음
- 연령별로는 영아는 「TV(케이블) 〉 TV(정규방송) 〉 스마트폰 〉 … 」 순이었고, 유아의 경우 「TV(케이블) 〉 스마트폰 〉 TV(정규방송) 〉 … 」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의 경우 「스마트폰 〉 TV(케이블) 〉 TV(정규방송) 〉 … 」 순이었고, 일반군의 경우 「TV(케이블) 〉 스마트폰 〉 … 」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음
-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은 「TV(케이블) 〉 TV(정규방송) 〉 스마트폰 〉 … 」 순이었고, 외벌이 가정은 「TV(케이블) 〉 스마트폰 〉 TV(정규방송) 〉 … 」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남

〈표 4-5〉 영유아의 가정 내 미디어별 이용 순위(1-2순위)

(단위: 명)

		TV (정규)	TV (케이블)	비디오/ DVD	스마트폰	태블릿/ 패드	컴퓨터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게임기	기타
〈전체〉		135.0	**209.5**	10.0	136.0	74.5	7.5	2.5	2.0	7.0
성별	남아	67.0	111.0	3.0	63.0	32.5	5.0	2.5	0.0	3.5
	여아	68.0	98.5	7.0	73.0	42.0	2.5	0.0	2.0	3.5
연령	영아	36.0	48.5	3.0	24.0	10.5	2.5	0.5	0.0	3.0
	유아	97.5	158.0	6.5	109.5	64.0	5.0	2.0	2.0	4.0
과의존 수준	위험군	11.0	15.5	0.5	17.0	9.0	0.5	0.0	0.0	0.0
	일반군	101.5	160.0	7.0	110.5	62.5	5.5	2.5	2.0	5.0
경제 활동	맞벌이	86.5	132.0	8.0	86.5	55.0	5.5	2.0	1.0	4.0
	외벌이	48.5	77.5	2.0	49.5	19.5	2.0	0.5	1.0	3.0

주. 종합빈도=[(1순위빈도)*2+(2순위빈도)]/2.

〈표 4-6〉 영유아의 가정 내 미디어별 이용 순위(종합)

	전체	성별		연령		중독수준		경제활동	
		남아	여아	영아	유아	위험군	일반군	맞벌이	외벌이
1위	TV(케이블)	TV(케이블)	TV(케이블)	TV(케이블)	TV(케이블)	스마트폰	TV(케이블)	TV(케이블)	TV(케이블)
2위	스마트폰	TV(정규)	스마트폰	TV(정규)	스마트폰	TV(케이블)	스마트폰	TV(정규)	스마트폰
3위	TV(정규)	스마트폰	TV(정규)	스마트폰	TV(정규)	TV(정규)	TV(정규)	스마트폰	TV(정규)

② TV / 컴퓨터 이용실태

❍ (최초 이용 시기) TV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385명(97.0%)에 대한 최초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TV(n=384)의 경우 생후 18개월부터 시청하였으며, 컴퓨터(n=84)의 경우 생후 37.9개월부터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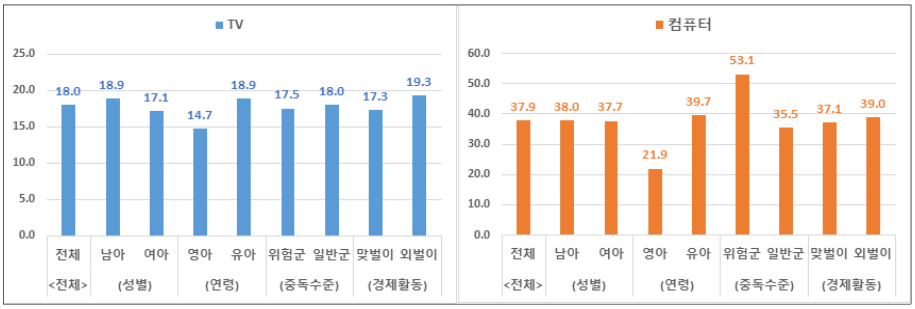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TV와 컴퓨터 이용시기 모두 남아와 여아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이용시기가 소폭 빠른 경향을 보임
- 연령별로는 유아 집단보다 영아 집단의 TV와 컴퓨터의 최초 이용시기가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TV 이용 시기는 위험군과 일반군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컴퓨터 이용시기는 일반군 영유아가 유의하게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TV와 컴퓨터 이용 시기 모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이용시기가 약간 빠른 경향을 보임

〈표 4-7〉 TV / 컴퓨터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

		TV(n=384)				컴퓨터(n=84)			
		최소값	최대값	평균	*t*	최소값	최대값	평균	*t*
〈전체〉		1	60	18.0	-	5	96	37.9	-
성별	남아	1	60	18.9	1.65	5	96	38.0	.09
	여아	1	50	17.1		10	72	37.7	
연령	영아	5	30	14.7	-4.49***	12	27	21.9	-6.95***
	유아	1	60	18.9		5	96	39.7	
과의존 수준	위험군	1	48	17.5	-.25	36	72	53.1	3.23**
	일반군	1	60	18.0		5	96	35.5	
경제 활동	맞벌이	1	60	17.3	-1.82	10	96	37.1	-.49
	외벌이	3	50	19.3		5	72	39.0	

*p<.05, **p<.01, ***p<.001



❍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TV(n=384)의 경우 매일 시청하는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고, 주 3~4회 13.5%, 주 5~6회 12.8%로 일주일에 5일이상 시청하는 경우가 73.7%로 나타남. 컴퓨터(n=84)의 경우 월 1~2회가 50.0%, 주 1~2회 19.0% 등의 순으로 컴퓨터의 이용빈도는 높지 않았음

- 성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TV는 남아의 주 5회이상 이용빈도가 여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컴퓨터는 여아가 다소 높았음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TV와 컴퓨터 모두 유아의 주 5회이상 이용빈도가 소폭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TV와 컴퓨터 모두 위험군 영유아의 주 5회이상 이용빈도가 소폭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TV의 경우 외벌이 가정 영유아의 주 5회이상 이용빈도가 맞벌이 가정 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의 경우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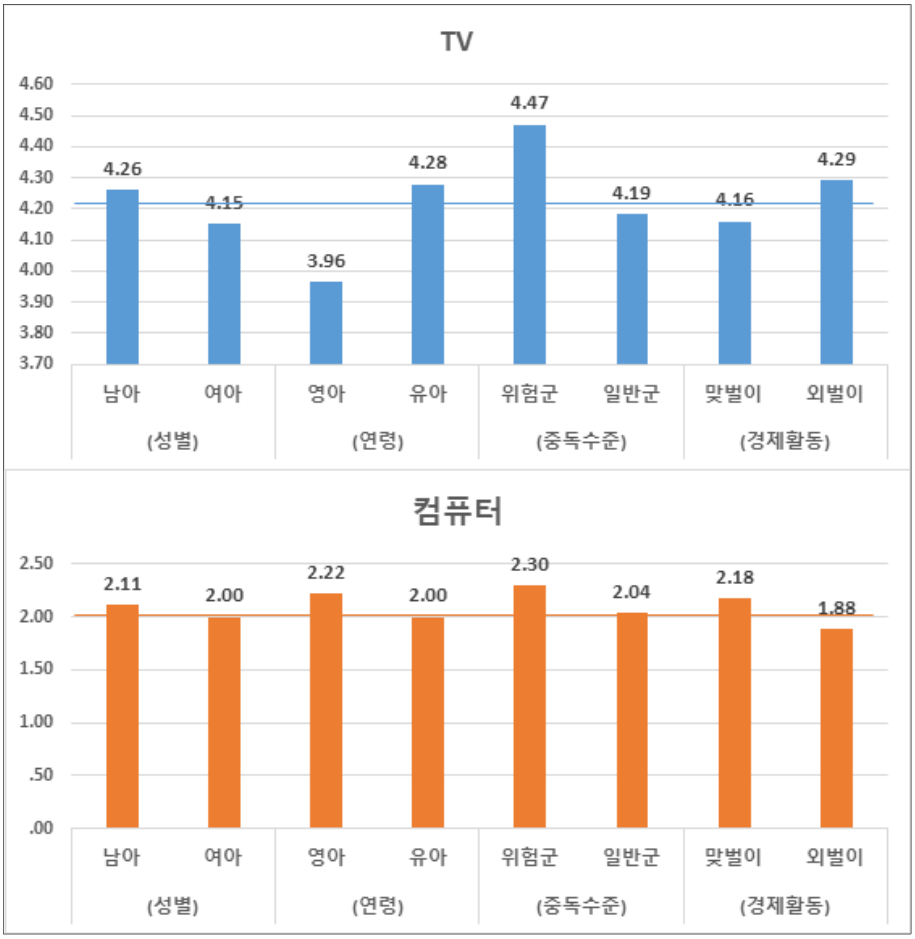
〈표 4-8〉 TV / 컴퓨터 이용 빈도

(단위: %)

		TV(n=384)						컴퓨터(n=84)					
		월 1-2	주 1-2	주 3-4	주 5-6	매일	χ^2	월 1-2	주 1-2	주 3-4	주 5-6	매일	χ^2
〈전체〉		1.3	11.5	13.5	12.8	60.9	-	50.0	19.0	16.7	3.6	10.7	-
성별	남아	1.1	11.2	11.7	12.8	63.3	1.44	45.5	22.7	18.2	2.3	11.4	1.64
	여아	1.5	11.7	15.3	12.8	58.7		55.0	15.0	15.0	5.0	10.0	
연령	영아	2.4	17.6	15.3	10.6	54.1	6.30	33.3	33.3	22.2	0.0	11.1	2.19
	유아	1.0	9.5	12.9	13.6	62.9		52.7	17.6	16.2	4.1	9.5	
과의존 수준	위험군	2.8	5.6	8.3	8.3	75.0	4.17	50.0	10.0	20.0	0.0	20.0	1.42
	일반군	1.3	11.4	14.1	13.5	59.6		52.2	15.9	17.4	4.3	10.1	
경제 활동	맞벌이	0.8	14.0	14.4	10.0	60.8	10.10 *a	46.0	22.0	14.0	4.0	14.0	2.80
	외벌이	2.2	6.7	11.9	17.9	61.2		55.9	14.7	20.6	2.9	5.9	

a: 2셀(2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p<.05, **p<.01, ***p<.001

- 한편, TV/컴퓨터 이용 빈도의 범주를 동일한 간격이라 가정하여 5점기준(월 1-2회: 1점 ~ 매일: 5점)으로 살펴보면, TV는 4.2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컴퓨터는 2.0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TV의 경우 성별로는 남아, 연령별로는 유아, 과의존수준별로는 위험군,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그룹의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컴퓨터의 경우 성별로는 남아, 연령별로는 영아, 과의존수준별로는 위험군,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그룹의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 TV / 컴퓨터 이용 정도(점)

❍ (미디어를 접하게 해준 사람) TV와 컴퓨터를 영유아에게 최초로 접하게 해준 사람은 TV의 경우 모(母) 63.4%, 부(父) 13.8%로 자녀의 부모가 77.2%를 차지하였음. 컴퓨터의 경우 부(父) 42.2%, 모(母) 41.0%로 부모가 83.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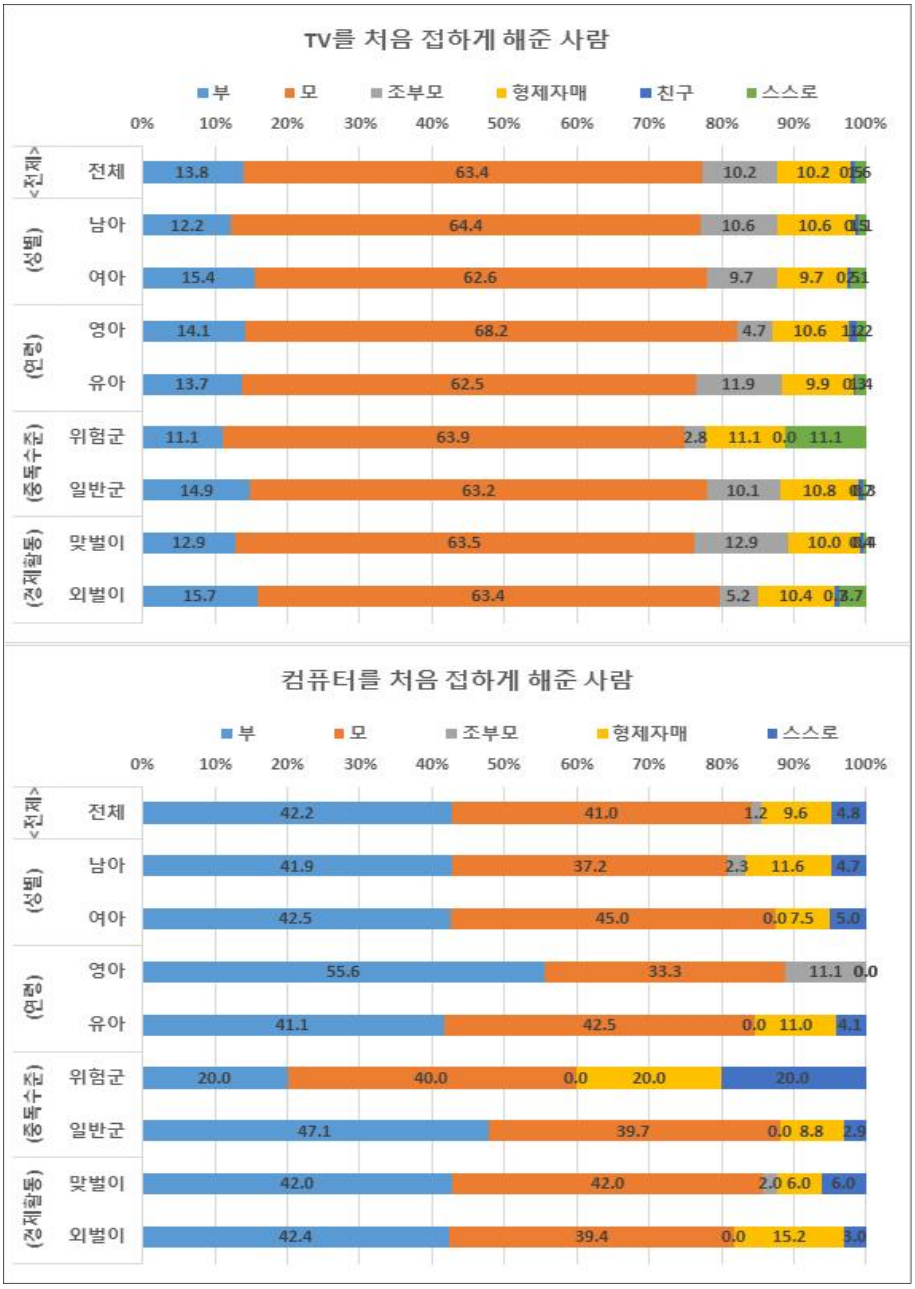
- 성별로는 TV는 여아는 아빠, 남아는 엄마가 접하게 해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컴퓨터는 여아는 부모, 남아는 형제·자매를 통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음
- 연령별로는 TV는 영아는 엄마, 유아는 조부모를 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컴퓨터는 영아는 아빠, 유아는 엄마를 통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TV는 일반군은 아빠와 조부모, 위험군은 스스로를 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컴퓨터는 일반군은 아빠, 위험군은 형제·자매와 스스로를 통한 접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TV는 외벌이는 아빠, 맞벌이는 조부모를 통한 접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컴퓨터는 맞벌이는 엄마, 외벌이는 형제·자매를 통한 접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9〉 TV/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단위: %)

		TV(n=383)							컴퓨터(n=83)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스스로	χ^2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스스로	χ^2
〈전체〉		13.8	63.4	10.2	10.2	0.5	1.6	-	42.2	41.0	1.2	9.6	4.8	-
성별	남아	12.2	64.4	10.6	10.6	0.5	1.1	2.52	41.9	37.2	2.3	11.6	4.7	2.54
	여아	15.4	62.6	9.7	9.7	0.5	2.1		42.5	45.0	0.0	7.5	5.0	
연령	영아	14.1	68.2	4.7	10.6	1.2	1.2	4.91	55.6	33.3	11.1	0.0	0.0	10.14
	유아	13.7	62.5	11.9	9.9	0.3	1.4		41.1	42.5	0.0	11.0	4.1	
과의존 수준	위험군	11.1	63.9	2.8	11.1	0.0	11.1	27.16***a	20.0	40.0	0.0	20.0	20.0	7.62
	일반군	14.9	63.2	10.1	10.8	0.7	0.3		47.1	39.7	0.0	8.8	2.9	
경제활동	맞벌이	12.9	63.5	12.9	10.0	0.4	0.4	13.71*b	42.0	42.0	2.0	6.0	6.0	3.45
	외벌이	15.7	63.4	5.2	10.4	0.7	3.7		42.4	39.4	0.0	15.2	3.0	

a: 6셀(5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b: 6셀(42.9%)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p<.05, **p<.01, ***p<.001



〈그림 4-3〉 TV/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 (미디어 이용을 함께하는 사람) TV와 컴퓨터 이용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 TV의 경우 47.8%가 엄마와 함께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형제·자매 32.5% 등의 순이었음. 컴퓨터 역시 엄마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39.8%, 아빠 28.9%로 나타남. 한편, 성인의 동반이 없는 경우는 TV는 38.0%, 컴퓨터는 30.1%로 TV의 경우 자녀들끼리만 시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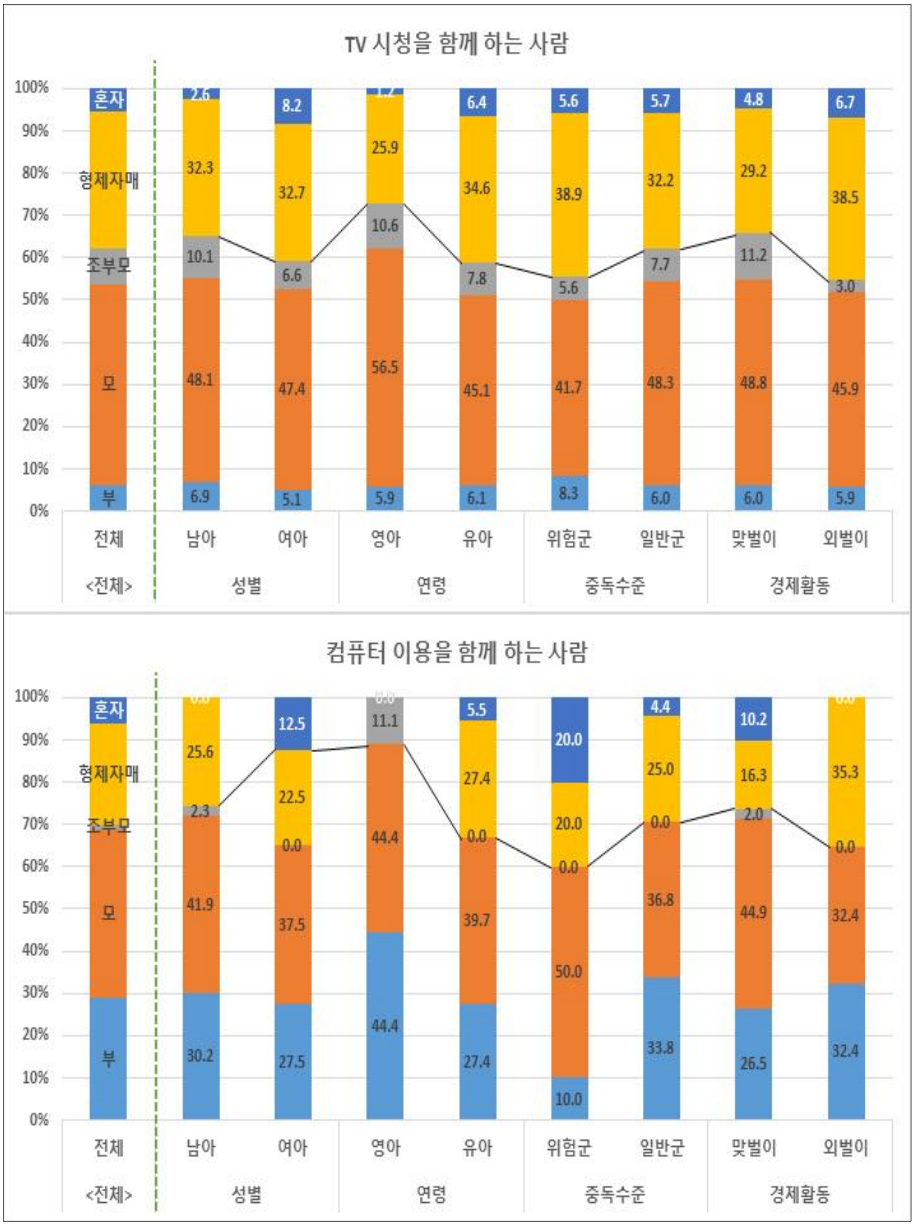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아의 경우 TV시청 및 컴퓨터 이용 시, 성인과 함께 하는 비율이 남아의 경우 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영아보다 유아가 TV시청 시 성인의 동반 없는 경우가 더 높은 편이었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그룹의 영유아가 TV와 컴퓨터 모두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았음
-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서 성인 동반 없이 TV시청과 컴퓨터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한편,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외벌이는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0〉 TV/컴퓨터 이용 시 함께하는 사람

(단위: %)

		TV(n=385)						컴퓨터(n=83)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혼자	χ^2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혼자	χ^2
〈전체〉		6.0	47.8	8.3	32.5	5.5	-	28.9	39.8	1.2	24.1	6.0	-
성별	남아	6.9	48.1	10.1	32.3	2.6	7.25	30.2	41.9	2.3	25.6	0.0	6.54
	여아	5.1	47.4	6.6	32.7	8.2		27.5	37.5	0.0	22.5	12.5	
연령	영아	5.9	56.5	10.6	25.9	1.2	7.42	44.4	44.4	11.1	0.0	0.0	11.91*b
	유아	6.1	45.1	7.8	34.6	6.4		27.4	39.7	0.0	27.4	5.5	
과의존 수준	위험군	8.3	41.7	5.6	38.9	5.6	1.20	10.0	50.0	0.0	20.0	20.0	5.40
	일반군	6.0	48.3	7.7	32.2	5.7		33.8	36.8	0.0	25.0	4.4	
경제활동	맞벌이	6.0	48.8	11.2	29.2	4.8	10.21*a	26.5	44.9	2.0	16.3	10.2	8.19
	외벌이	5.9	45.9	3.0	38.5	6.7		32.4	32.4	0.0	35.3	0.0	

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b: 7셀(7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p<.05, **p<.01, ***p<.001



〈그림 4-4〉 TV/컴퓨터 이용시 함께하는 사람

❍ (이용 규칙 유·무) TV시청 및 컴퓨터 이용에 관한 가정 내 규칙 유·무를 살펴보면, TV의 경우 19.2%, 컴퓨터는 15.0%가 시간 혹은 콘텐츠 등의 이용규칙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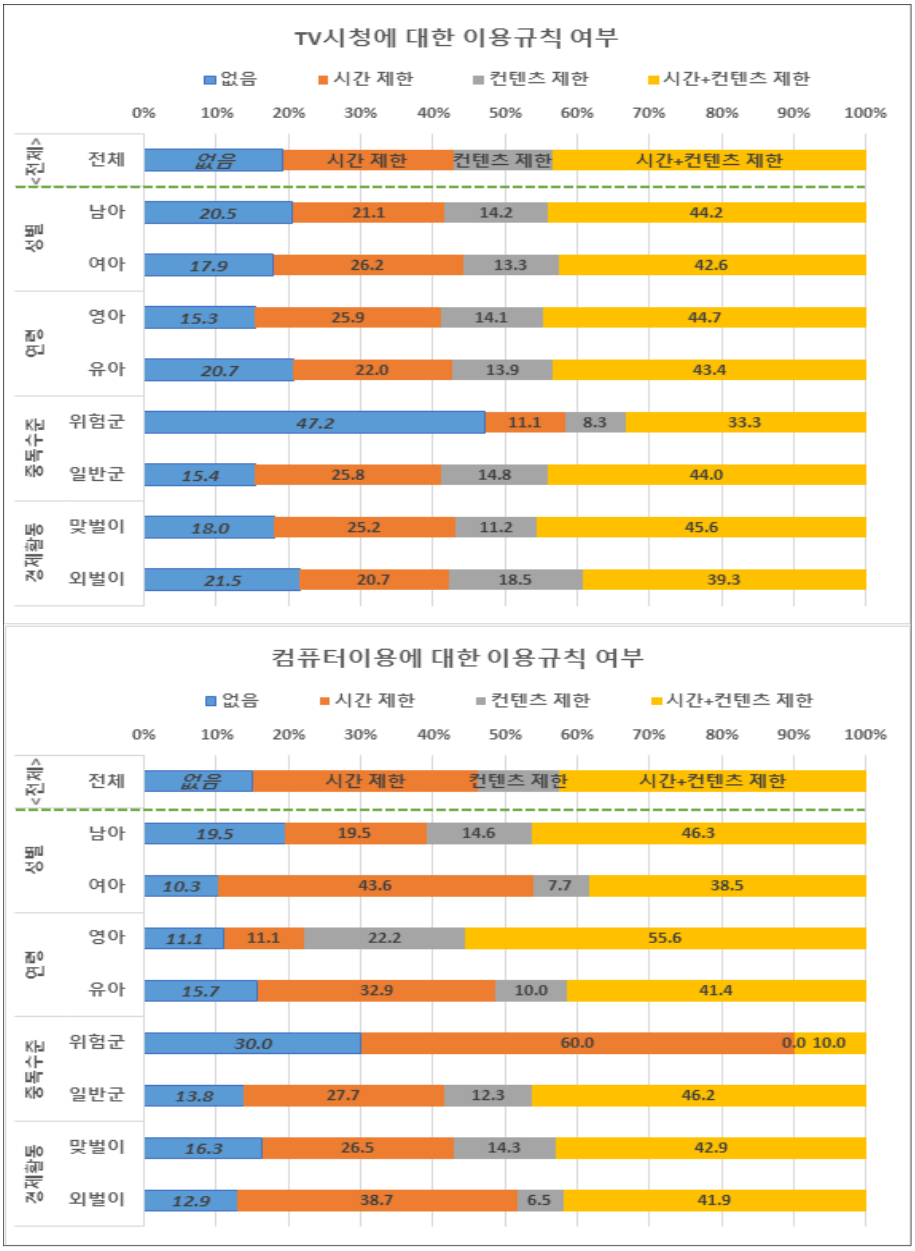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아의 경우 TV와 컴퓨터 모두 이용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는 비율이 여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유아의 경우 TV와 컴퓨터 모두 이용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는 비율이 영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그룹의 영유아가 TV와 컴퓨터 모두 이용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시청하는 비율이 일반군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TV의 경우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이용규칙 없이 시청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컴퓨터 이용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이용규칙 없이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11〉 TV/컴퓨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단위: %)

		TV(n=385)					컴퓨터(n=80)				
		없음	시간 제한	콘텐츠 제한	시간+콘텐츠 제한	χ^2	없음	시간 제한	콘텐츠 제한	시간+콘텐츠 제한	χ^2
〈전체〉		19.2	23.6	13.8	43.4	-	15.0	31.3	11.3	42.5	-
성별	남아	20.5	21.1	14.2	44.2	.41	19.5	19.5	14.6	46.3	1.34
	여아	17.9	26.2	13.3	42.6		10.3	43.6	7.7	38.5	
연령	영아	15.3	25.9	14.1	44.7	1.22	11.1	11.1	22.2	55.6	.13
	유아	20.7	22.0	13.9	43.4		15.7	32.9	10.0	41.4	
과의존 수준	위험군	47.2	11.1	8.3	33.3	21.20***a	30.0	60.0	0.0	10.0	1.68
	일반군	15.4	25.8	14.8	44.0		13.8	27.7	12.3	46.2	
경제 활동	맞벌이	18.0	25.2	11.2	45.6	.68	16.3	26.5	14.3	42.9	.18
	외벌이	21.5	20.7	18.5	39.3		12.9	38.7	6.5	41.9	

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p<.05, **p<.01, ***p<.001



〈그림 4-5〉 TV/컴퓨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이용방법) TV와 컴퓨터 이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TV의 경우 응답자의 62.8%가 양육자의 허용 여부를 묻고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컴퓨터 이용의 경우는 74.6%가 양육자의 허가를 받고 이용함. 반면 부모의 허락이나 지도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 “형제·자매 따라서 이용” 한다는 응답도 24.3%(TV), 15.0%(컴퓨터)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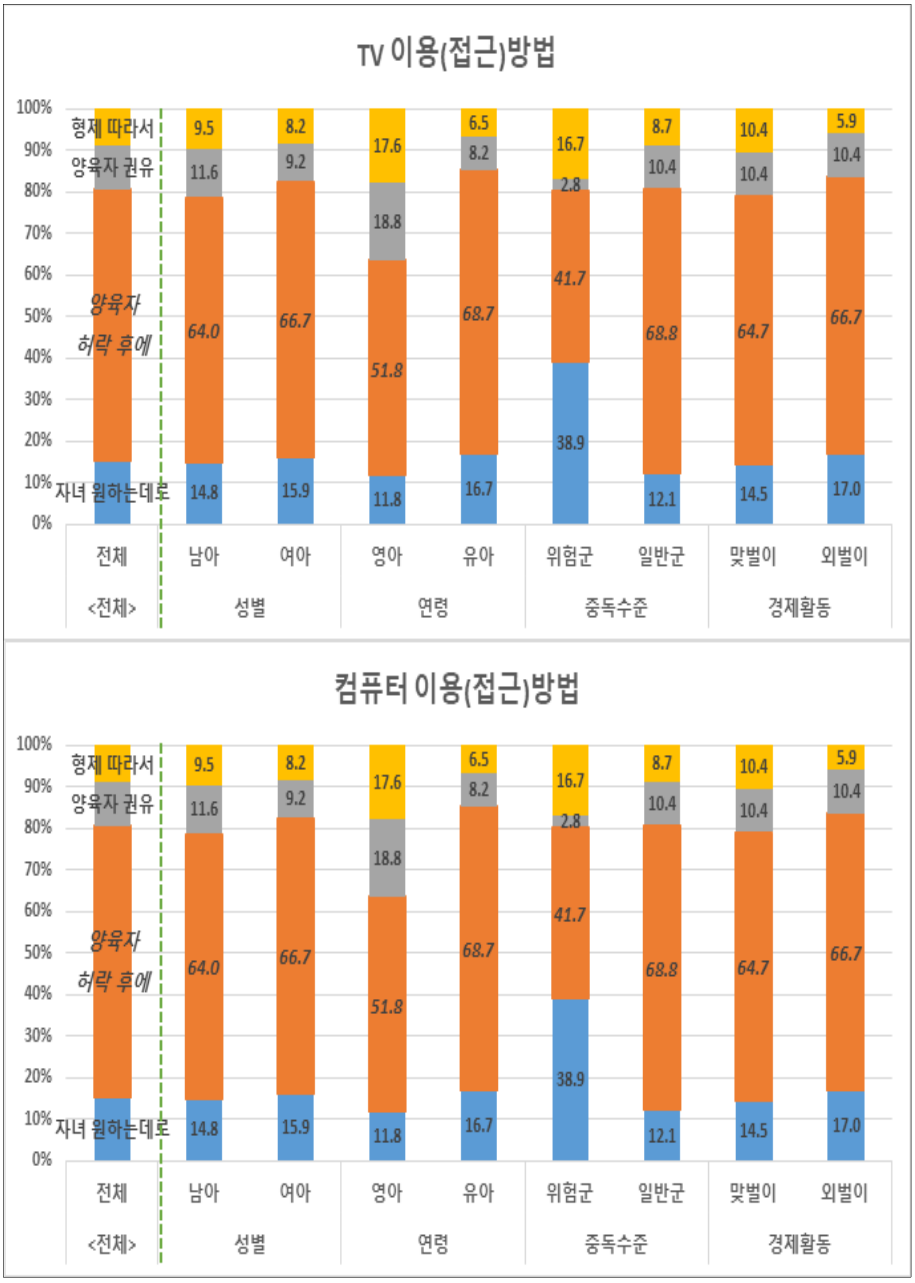
- 성별로는 양육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TV와 컴퓨터 모두 여아일 경우 소폭 더 높았음. 한편, TV시청의 경우 남아는 양육자가 먼저 권유하거나, 컴퓨터 이용은 자녀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 양육자가 먼저 TV/컴퓨터를 켜주거나, 손위 형제가 이용할 때 노출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영유아의 경우 TV시청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형제·자매 따라서 시청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일반군 영유아는 TV시청과 컴퓨터 이용 모두 부모의 동의 후에 시청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음
-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는 형제·자매 따라서 TV시청하게 되는 경우, 양육자의 권유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4-12〉 TV/컴퓨터 이용 방법(절차)

(단위: %)

		TV(n=384)					컴퓨터(n=67)				
		자녀가 원하는 데로	양육자 허락후	양육자 권유	형제 따라서	χ^2	자녀가 원하는 데로	양육자 허락후	양육자 권유	형제 따라서	χ^2
〈전체〉		15.4	65.4	10.4	8.9	-	6.0	74.6	9.0	9.0	-
성별	남아	14.8	64.0	11.6	9.5	.90	11.1	69.4	8.3	8.3	4.65
	여아	15.9	66.7	9.2	8.2		0.0	80.6	9.7	9.7	
연령	영아	11.8	51.8	18.8	17.6	20.23 ***a	12.5	50.0	12.5	25.0	4.26
	유아	16.7	68.7	8.2	6.5		5.1	78.0	8.5	6.8	
과의존 수준	위험군	38.9	41.7	2.8	16.7	23.07 ***b	0.0	50.0	25.0	25.0	5.93
	일반군	12.1	68.8	10.4	8.7		5.5	78.2	7.3	7.3	
경제 활동	맞벌이	14.5	64.7	10.4	10.4	2.45	5.1	74.4	10.3	7.7	1.17
	외벌이	17.0	66.7	10.4	5.9		7.1	75.0	7.1	10.7	

a: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b: 2셀(25.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p<.05, **p<.01, ***p<.001



〈그림 4-6〉 TV/컴퓨터 이용방법(절차)

❍ (평일 총 이용 시간) 주중 월요일~금요일까지 TV를 시청하는 총 시간은 387분(6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70분 정도로 나타났고,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는 저녁(58.3%) 시간대로 나타남. 컴퓨터를 이용하는 총 시간은 135분(2시간 15분)으로 하루 평균 30분 정도였으며,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저녁(46.2%)이 가장 많았음

- 성별로는 여아보다 남아의 시청 시간이 더 길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는 오전과 저녁 시간대는 여아의 비율이, 오후와 밤(취침 전) 시간대는 남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컴퓨터 이용의 경우 남아의 이용시간이 좀 더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오전과 저녁 시간대는 남아의 비율이 높고, 오후와 밤 시간대는 여아의 비율이 좀 더 높았음
- 연령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유아의 이용시간이 좀 더 길었음. TV 시청 시간대는 영아는 오후, 유아는 저녁 시간대에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컴퓨터 이용 시간대는 영아는 오전, 유아는 저녁 시간대에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과의존 수준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TV 시청은 위험군 그룹에서 컴퓨터 이용은 일반군에서 좀 더 높았음. TV 시청 시간대는 일반군은 오후, 위험군은 저녁 시간대의 비율이 높았고, 컴퓨터 이용 시간대는 위험군은 저녁, 일반군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된 비중을 보였음
- 맞벌이 여부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맞벌이 가정은 TV 시청 시간이, 외벌이 가정은 컴퓨터 이용이 좀 더 길었음. 맞벌이 가정은 저녁과 밤 시간대에 TV 시청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13〉 TV/컴퓨터 총 이용 시간(평일)

(단위: %, 분)

		TV						컴퓨터					
		이용 시간대				총 시간	*t*	이용 시간대				총 시간	*t*
		오전	오후	저녁	밤			오전	오후	저녁	밤		
〈전체〉		8.7	30.2	58.3	2.8	387	-	7.7	43.6	46.2	2.6	135	-
성별	남아	6.7	33.7	56.4	3.1	449.6	1.98*	13.3	40.0	46.7	0.0	204.7	1.65
	여아	10.8	26.6	60.1	2.5	325.1		4.2	45.8	45.8	4.2	88.9	
연령	영아	7.7	38.5	50.8	3.1	306.3	-1.29	20.0	40.0	20.0	20.0	60.0	-.87
	유아	9.1	28.2	60.3	2.4	406.8		5.9	44.1	50.0	0.0	140.3	
과의존 수준	위험군	3.4	17.2	75.9	3.4	413.4	.16	16.7	16.7	66.7	0.0	102.9	-.57
	일반군	8.9	31.2	57.1	2.8	394.7		3.4	51.7	41.4	3.4	151.3	
경제 활동	맞벌이	9.4	27.6	59.1	3.9	697.3	.14	13.0	30.4	56.5	0.0	132.3	-.10
	외벌이	7.6	34.7	56.8	0.8	338.0		0.0	62.5	31.3	6.3	138.2	

*p<.05, **p<.01, ***p<.001

❍ (주말 총 이용 시간) 토요일~일요일 주말 동안 TV를 시청하는 총 시간은 280분(4시간 40분)으로 하루 평균 140분 정도였고, 주로 오후(43.4%)에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컴퓨터를 이용하는 총 시간은 113분(1시간 53분)으로 하루 평균 56분 정도였으며, 주로 오후(73.5%)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남아의 TV/컴퓨터 이용시간이 더 높은 편이었음. TV 시청 시간대는 남아는 오전, 여아는 저녁 시간대 비율이 좀 더 높았고, 컴퓨터 이용 시간대는 남아는 오후, 여아는 저녁 시간대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었음
- 연령별로는 TV 시청 시간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시청 시간이 더 높게 나타남. 주된 시청 시간대는 영아는 오전, 유아는 오후 비율이 더 높았음. 컴퓨터 이용은 유아가 더 많았고, 주 이용시간대는 오후에 집중되어져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TV 시청 시간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위험군의 시청 시간이 더 높게 나타남. 주된 시청 시간대는 위험군은 저녁과 밤, 일반군은 오후 시간대에 좀 더 높았음. 컴퓨터 이용은 위험군이 좀 더 길었고, 주된 시간대는 위험군은 오전, 일반군은 오후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음
- 맞벌이 여부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TV 시청은 맞벌이 가정, 컴퓨터 이용은 외벌이 가정에서 좀 더 길었음. 주된 시청 시간대는 외벌이는 오전, 맞벌이는 저녁과 밤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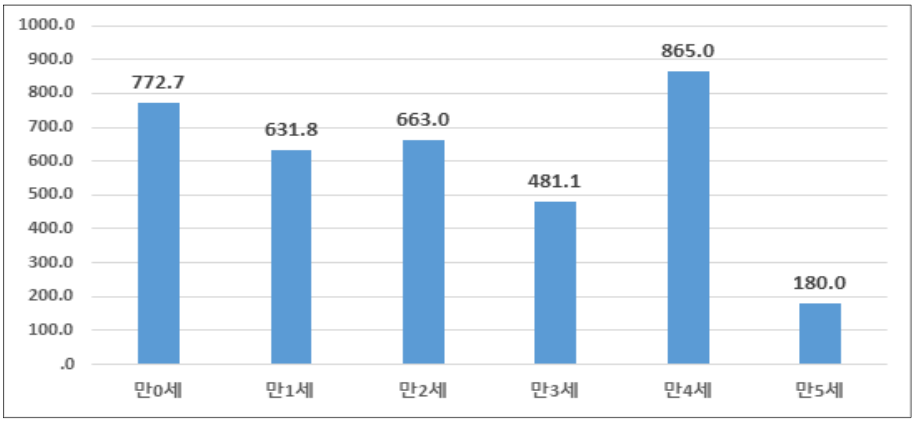
〈표 4-14〉 TV/컴퓨터 총 이용 시간(주말)

(단위: %, 분)

		TV						컴퓨터					
		이용 시간대				총 시간	*t*	이용 시간대				총 시간	*t*
		오전	오후	저녁	밤			오전	오후	저녁	밤		
〈전체〉		39.5	43.4	15.8	1.3	280	-	10.2	73.5	14.3	2.0	113	-
성별	남아	40.3	43.4	14.5	1.9	296.9	1.38	8.7	82.6	8.7	0.0	146.9	1.63
	여아	38.8	43.4	17.1	0.7	263.5		11.5	65.4	19.2	3.8	79.7	
연령	영아	41.0	41.0	16.4	1.6	215.9	-3.54***	25.0	25.0	25.0	25.0	52.5	-.79
	유아	39.7	44.1	15.4	0.8	297.1		8.9	77.8	13.3	0.0	117.2	
과의존 수준	위험군	37.0	37.0	22.2	3.7	410.3	2.56*	33.3	50.0	16.7	0.0	116.3	.08
	일반군	38.1	45.5	16.4	0.0	269.5		4.9	80.5	12.2	2.4	111.3	
경제 활동	맞벌이	36.3	43.8	17.9	2.0	282.1	.23	16.1	64.5	19.4	0.0	99.5	-.84
	외벌이	45.5	42.7	11.8	0.0	276.2		0.0	88.9	5.6	5.6	1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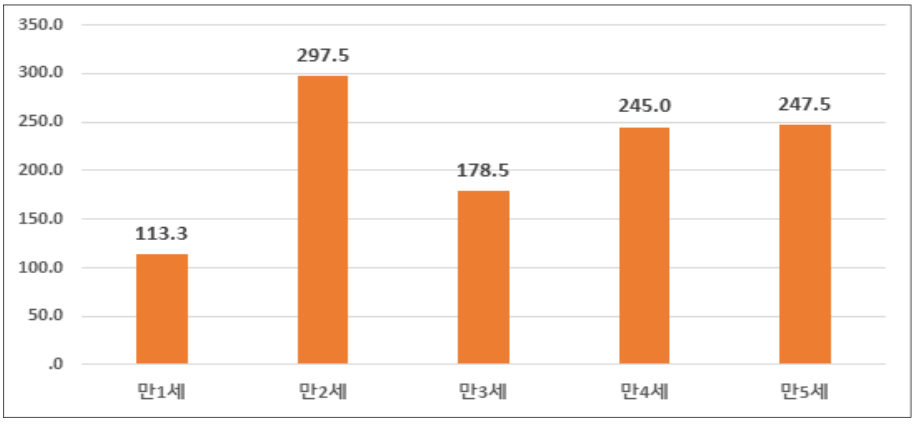
*p<.05, **p<.01, ***p<.001

- TV 최초 이용 시기에 따른 총 시청 시간(평일+주말)을 살펴보면, 만 0세는 772.7분, 1세의 경우 631.8분, 2세는 663.0분, 3세 481.1분, 4세 865.0분, 5세 180.0분으로 최초 시청시기가 빠를수록 시청시간이 긴 경향을 보임



〈그림 4-7〉 TV 최초 이용 시기에 따른 총 시청시간(평일+주말)

- 컴퓨터 최초 이용 시기에 따른 총 이용 시간(평일+주말)을 살펴보면, 만 1세는 113.3분, 2세는 297.5분, 3세 178.5분, 4세 245.0분, 5세 247.5분으로 최초 시청시기가 늦을수록 시청시간이 긴 경향을 보여 TV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냄



〈그림 4-8〉 컴퓨터 최초 이용 시기에 따른 총 이용시간(평일+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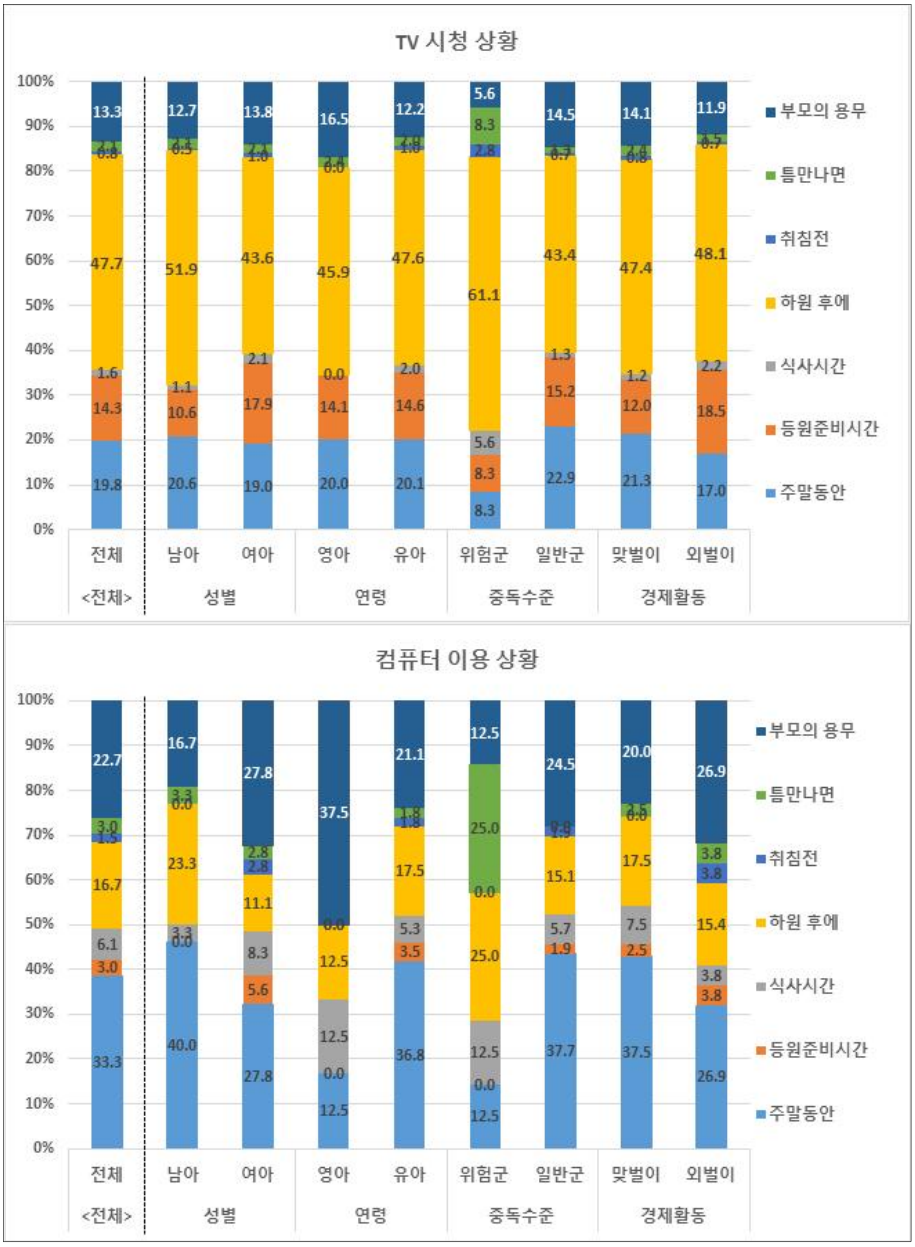
❍ (이용 상황) TV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된 상황을 보면, TV는 '하원 후 오후'가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말 19.8% 순임. 컴퓨터는 '주말'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용무를 위해(22.7%)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성별로는 TV의 경우 남아는 '하원 후', 여아는 '등원준비시간'에 시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컴퓨터의 경우 남아는 '주말', '하원 후' 라는 응답이, 여아는 '부모의 용무'를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TV의 경우 영아는 '부모의 용무', 유아는 '하원 후' 라는 응답이 더 높았고, 컴퓨터의 경우 영아는 '부모의 용무', 유아는 '주말 동안' 이용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은 '하원 후', 일반군은 '등원준비시간'과 '부모의 용무'를 위해 TV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컴퓨터의 경우 일반군은 '주말 동안'과 '부모의 용무'를 위해, 위험군의 경우 '틈만나면', '하원 후' 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은 '주말 동안'과 '부모의 용무'를 위해 TV를 시청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외벌이 가정은 '등원준비시간'에 시청하는 비율이 높았음. 컴퓨터의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는 '주말 동안'에 이용하는 경우가 더 높고, 외벌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용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4-15〉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상황

(단위: %)

		TV(n=384)							컴퓨터(n=66)						
		주말 동안	등원 준비 시간	식사 시간	하원 후에	취침 전	틈만 나면	부모 용무 위해	주말 동안	등원 준비 시간	식사 시간	하원 후에	취침 전	틈만 나면	부모 용무 위해
〈전체〉		19.8	14.3	1.6	47.7	0.8	2.1	13.3	33.3	3.0	6.1	16.7	1.5	3.0	22.7
성별	남아	20.6	10.6	1.1	51.9	0.5	2.1	12.7	40.0	0.0	3.3	23.3	0.0	3.3	16.7
	여아	19.0	17.9	2.1	43.6	1.0	2.1	13.8	27.8	5.6	8.3	11.1	2.8	2.8	27.8
연령	영아	20.0	14.1	0.0	45.9	0.0	2.4	16.5	12.5	0.0	12.5	12.5	0.0	0.0	37.5
	유아	20.1	14.6	2.0	47.6	1.0	2.0	12.2	36.8	3.5	5.3	17.5	1.8	1.8	21.1
과의존 수준	위험군	8.3	8.3	5.6	61.1	2.8	8.3	5.6	12.5	0.0	12.5	25.0	0.0	25.0	12.5
	일반군	22.9	15.2	1.3	43.4	0.7	1.3	14.5	37.7	1.9	5.7	15.1	1.9	0.0	24.5
경제 활동	맞벌이	21.3	12.0	1.2	47.4	0.8	2.4	14.1	37.5	2.5	7.5	17.5	0.0	2.5	20.0
	외벌이	17.0	18.5	2.2	48.1	0.7	1.5	11.9	26.9	3.8	3.8	15.4	3.8	3.8	26.9



〈그림 4-9〉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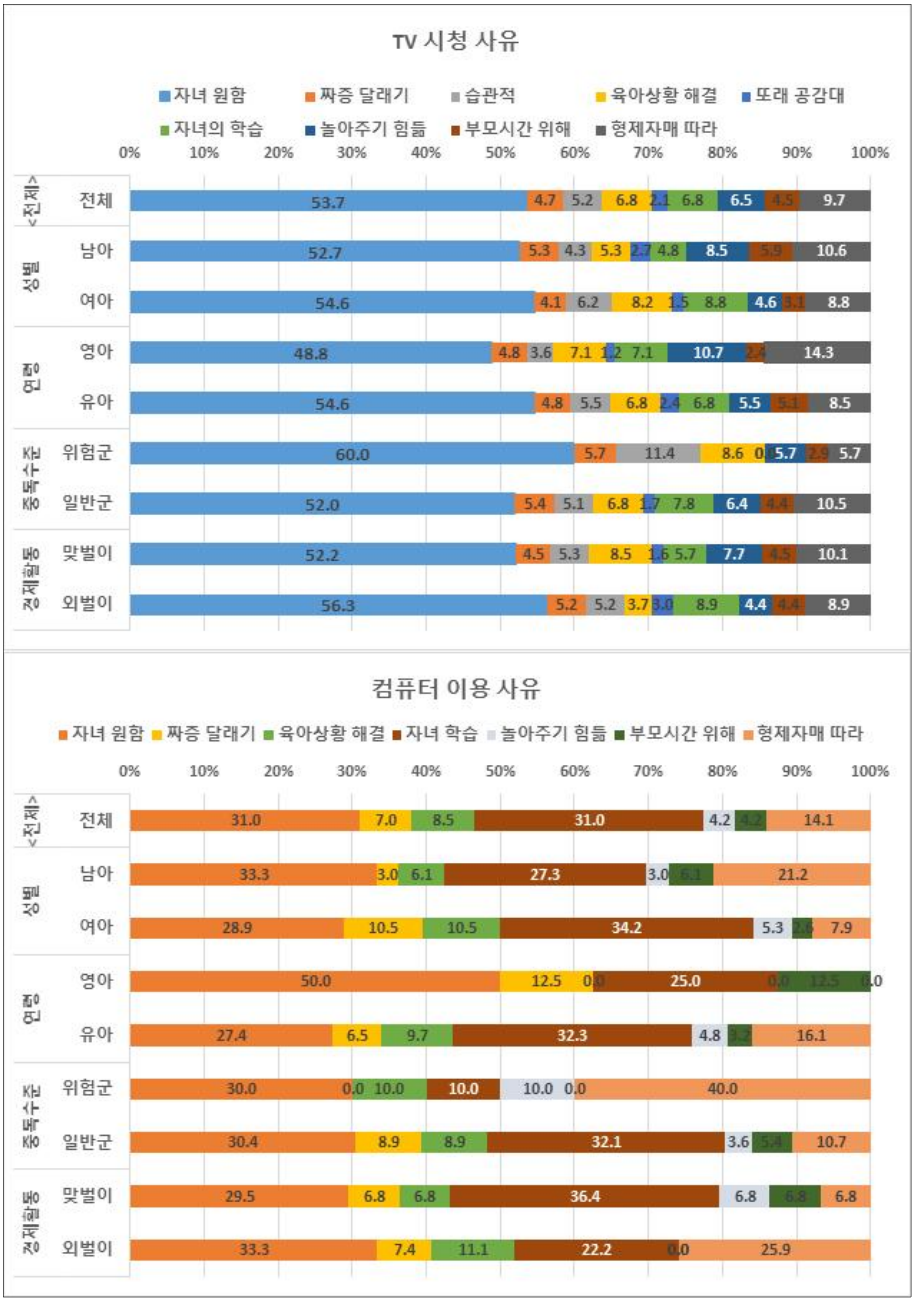
❍ (이용 사유) TV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TV 시청은 사유는 '자녀가 원해서(53.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 이용 사유는 '자녀가 원해서', '자녀의 학습'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 31.0%로 가장 많았음

- 성별로는 TV 시청 사유의 경우 남아 여아 모두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아는 '형제·자매 따라서', '놀아주기 힘들어서', 여아는 '자녀의 학습'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임. 컴퓨터 이용의 경우 남아는 '자녀가 원해서', 여아는 '자녀의 학습'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TV 시청 사유의 경우 영아는 '형제·자매 따라서', '놀아주기 힘들어서',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임. 컴퓨터 이용은 영아는 '자녀가 원함', 유아는 '학습용'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TV 시청 사유의 경우 위험군은 '습관적', 일반군은 '형제·자매 따라서' 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컴퓨터 이용은 위험군은 '형제·자매 따라서', '놀아주기 힘듦', 일반군은 '학습용'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TV 시청 사유로 맞벌이 가정은 '통제할 수 없는 육아상황 해결', '놀아주기 힘들어서', 외벌이 가정은 '자녀의 학습'을 위해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컴퓨터 이용은 맞벌이는 '자녀의 학습', 외벌이는 '자녀가 원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16〉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

		TV(n=382)									컴퓨터(n=71)						
		자녀 원함	짜증 달래기	습관적	육아 상황 해결	또래 공감대	자녀의 학습	놀아주기 힘듦	부모 시간 위해	형제 자매 따라	자녀 원함	짜증 달래기	육아 상황 해결	자녀 학습	놀아주기 힘듦	부모 시간 위해	형제 자매 따라
〈전체〉		53.7	4.7	5.2	6.8	2.1	6.8	6.5	4.5	9.7	31.0	7.0	8.5	31.0	4.2	4.2	14.1
성별	남아	52.7	5.3	4.3	5.3	2.7	4.8	8.5	5.9	10.6	33.3	3.0	6.1	27.3	3.0	6.1	21.2
	여아	54.6	4.1	6.2	8.2	1.5	8.8	4.6	3.1	8.8	28.9	10.5	10.5	34.2	5.3	2.6	7.9
연령	영아	48.8	4.8	3.6	7.1	1.2	7.1	10.7	2.4	14.3	50.0	12.5	0.0	25.0	0.0	12.5	0.0
	유아	54.6	4.8	5.5	6.8	2.4	6.8	5.5	5.1	8.5	27.4	6.5	9.7	32.3	4.8	3.2	16.1
과의존 수준	위험군	60.0	5.7	11.4	8.6	0.0	0.0	5.7	2.9	5.7	30.0	0.0	10.0	10.0	10.0	0.0	40.0
	일반군	52.0	5.4	5.1	6.8	1.7	7.8	6.4	4.4	10.5	30.4	8.9	8.9	32.1	3.6	5.4	10.7
경제 활동	맞벌이	52.2	4.5	5.3	8.5	1.6	5.7	7.7	4.5	10.1	29.5	6.8	6.8	36.4	6.8	6.8	6.8
	외벌이	56.3	5.2	5.2	3.7	3.0	8.9	4.4	4.4	8.9	33.3	7.4	11.1	22.2	0.0	0.0	25.9



〈그림 4-10〉 TV/컴퓨터를 시청·이용하는 주된 이유

❍ (이용량에 대한 평가) 자녀의 TV/컴퓨터 이용량에 대한 평가를 보면, TV는 32.7%, 컴퓨터는 16.9%가 이용량에 대해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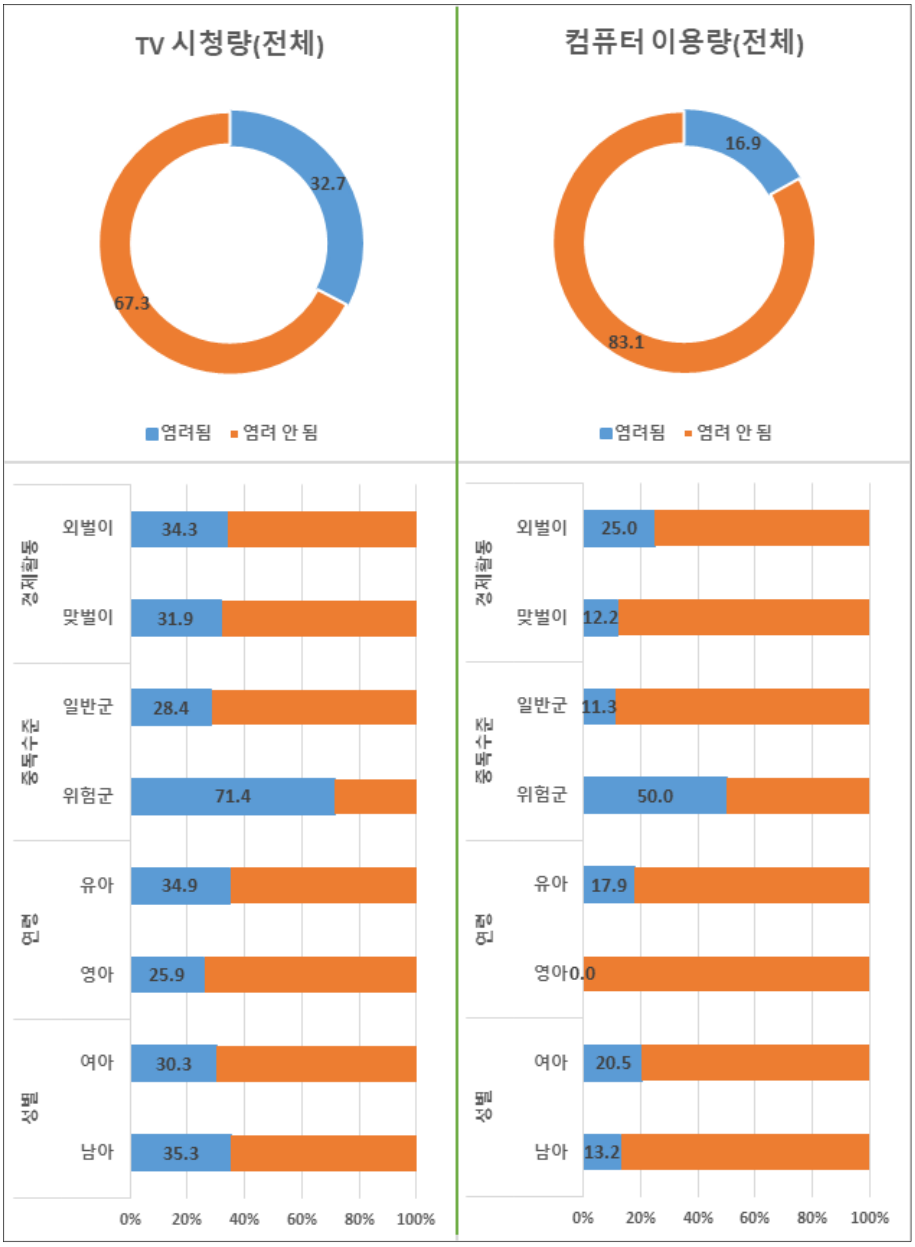
- 과의존 수준별로는 TV와 컴퓨터 모두 위험군 그룹 영유아의 이용량에 대한 염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TV와 컴퓨터 이용량 모두 외벌이 가정 영유아에 대한 염려가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4-17〉 TV/컴퓨터 이용량에 대한 평가

(단위: %)

		TV(n=382)			컴퓨터(n=77)		
		염려됨	염려 안 됨	χ^2	염려됨	염려 안 됨	χ^2
〈전체〉		32.7	67.3	-	16.9	83.1	-
성별	남아	35.3	64.7	*1.10*	13.2	86.8	*.74*
	여아	30.3	69.7		20.5	79.5	
연령	영아	25.9	74.1	*2.44*	0.0	100.0	*1.91*
	유아	34.9	65.1		17.9	82.1	
과의존 수준	위험군	71.4	28.6	*26.26****	50.0	50.0	*9.29***
	일반군	28.4	71.6		11.3	88.7	
경제 활동	맞벌이	31.9	68.1	*.24*	12.2	87.8	*2.07*
	외벌이	34.3	65.7		25.0	75.0	

*p<.05, **p<.01, ***p<.001



〈그림 4-11〉 TV/컴퓨터 이용량에 대한 평가

○ (영유아 이용 프로그램·콘텐츠) 주로 이용하는 TV 콘텐츠는 'EBS(영유아용)'가 3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애니메이션(31.1%)', 케이블방송(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컴퓨터 콘텐츠의 경우 '유투브'가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유아용 포털사이트(18.6%)', '애니메이션(15.7%)' 등의 순이었음

- TV 콘텐츠는 주로 'EBS(영유아용)' 및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으며, 컴퓨터 콘텐츠는 '유투브'와 '영유아용 포털사이트'를 이용함. 특이한 점은 위험군 그룹은 '온라인게임'이 2순위에 포함되었음

〈표 4-18〉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콘텐츠(1-2순위)

(단위: %)

		TV(n=383)								컴퓨터(n=74)						
		EBS (영유아용)	정규 방송 (영유아용)	교육/학습	케이블방송	애니메이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기타	포털 (주니버 등)	음악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교육/학습	유투브	사진/동영상
〈전체〉		34.9	10.8	3.1	15.9	31.1	1.0	0.5	2.6	18.6	6.9	7.4	15.7	9.8	34.8	6.9
성별	남아	32.7	9.0	4.2	15.4	34.6	0.9	0.6	2.6	23.2	7.1	9.1	19.2	8.1	29.3	4.0
	여아	37.1	12.7	2.0	16.3	27.7	1.1	0.5	2.7	14.3	6.7	5.7	12.4	11.4	40.0	9.5
연령	영아	35.5	15.8	3.8	17.9	20.9	0.0	1.7	4.3	4.0	12.0	0.0	40.0	4.0	32.0	8.0
	유아	34.8	9.6	2.7	15.6	33.6	1.3	0.2	2.2	21.0	6.3	7.4	12.5	10.8	35.2	6.8
과의존 수준	위험군	24.8	12.4	2.9	20.0	30.5	4.8	0.0	4.8	8.0	4.0	24.0	4.0	4.0	52.0	4.0
	일반군	37.3	10.5	3.2	14.4	31.4	0.5	0.5	2.3	21.2	6.7	5.5	16.4	9.1	34.5	6.7
경제 활동	맞벌이	33.8	11.3	4.2	16.2	30.2	1.0	0.8	2.5	11.0	7.1	8.7	19.7	11.0	34.6	7.9
	외벌이	37.0	10.0	1.0	15.2	32.8	1.0	0.0	2.9	31.2	6.5	5.2	9.1	7.8	35.1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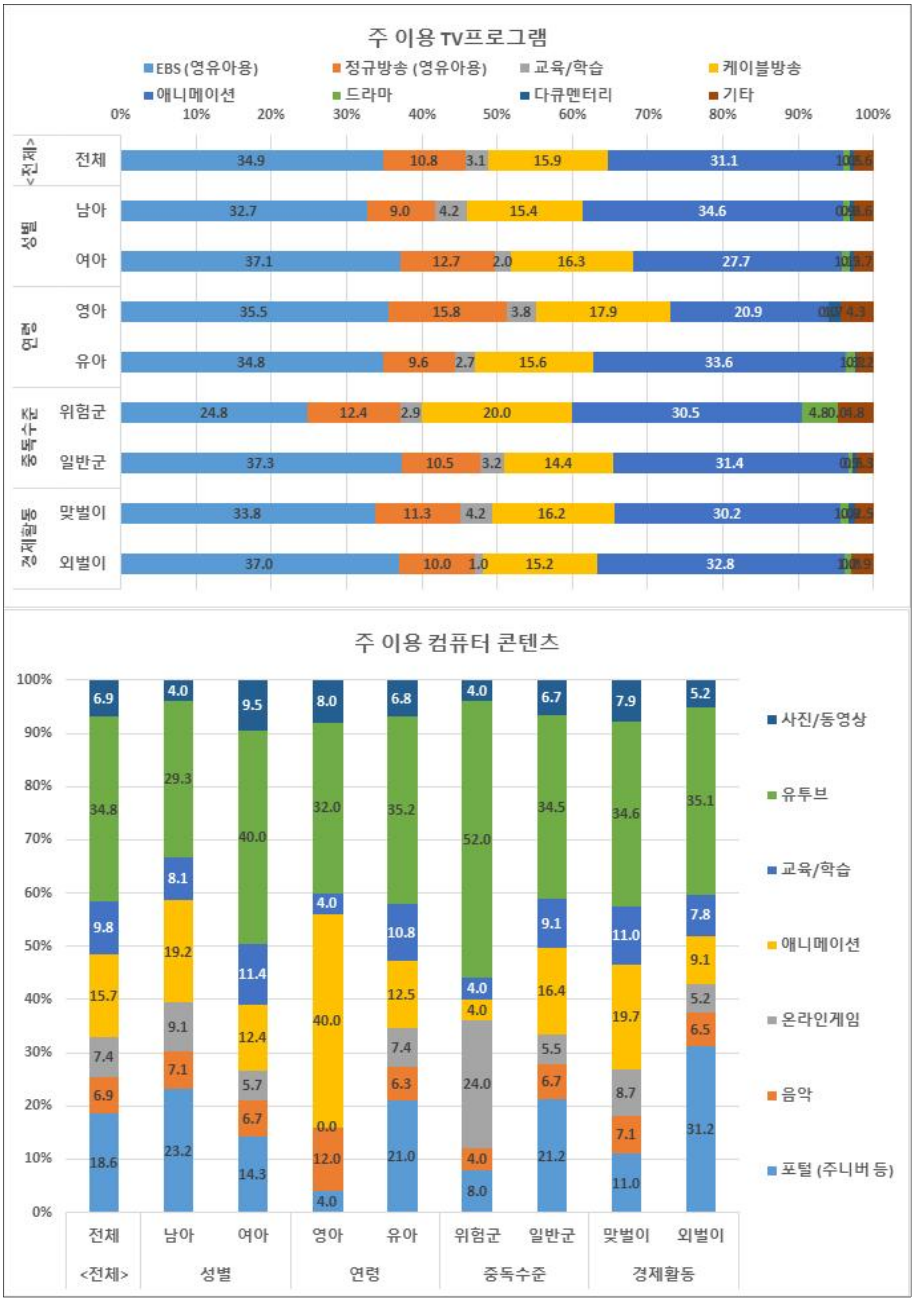
주. 종합빈도=[(1순위빈도)*2+(2순위빈도)]/2. 종합빈도 값을 100%로 기준하여 산출한 비율임.

〈표 4-19〉 TV를 시청하는 영유아의 주 이용 프로그램 순위

	전체	성별		연령		중독수준		경제활동	
		남아	여아	영아	유아	위험군	일반군	맞벌이	외벌이
1위	EBS	애니메이션	EBS	EBS	EBS	애니메이션	EBS	EBS	EBS
2위	애니메이션	EBS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EBS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3위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표 4-20〉 컴퓨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주 이용 콘텐츠 순위

	전체	성별		연령		중독수준		경제활동	
		남아	여아	영아	유아	위험군	일반군	맞벌이	외벌이
1위	유투브	유투브	유투브	애니메이션	유투브	유투브	유투브	유투브	유투브
2위	영유아포털	영유아포털	영유아포털	유투브	영유아포털	온라인게임	영유아포털	애니메이션	영유아포털
3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음악	애니메이션	영유아포털	애니메이션	포털 / 학습	애니메이션



〈그림 4-12〉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콘텐츠

○ (TV 프로그램 규제) 자녀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지도 현황을 보면, 응답자의 66.3%가 '연령·등급에 맞는 프로그램만 시청'하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선정적 장면만 지도' 한다는 응답이 20.6%로 나타남. 다시 말해 33.7%는 소극적인 시청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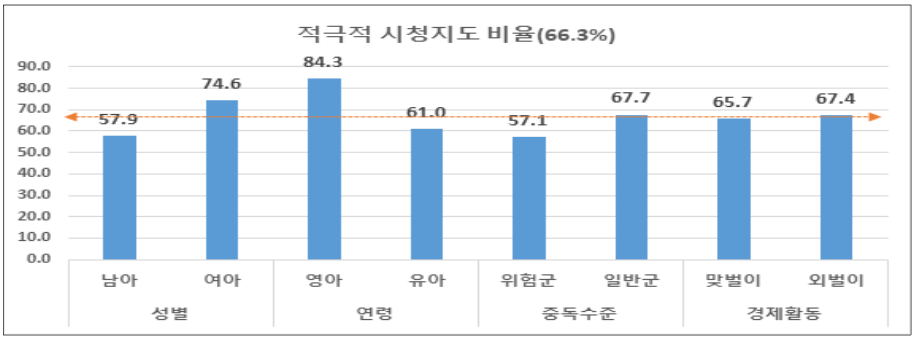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아는 연령·등급에 맞는 프로그램만 시청하게 한다는 적극적 시청지도 비율이 높은 반면, 남아의 경우 소극적 시청지도 비율이 높아 통계적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 보면, 영아는 적극적 시청지도 비율이 높고, 유아는 소극적 비율이 높아 통계적 차이를 보임.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청지도가 느슨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에 비해 일반군 그룹이,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정이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 시청지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임

〈표 4-21〉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지도

(단위: %)

		프로그램등급제 모름	연령·등급 상관없이 모두 보여줌	폭력/선정적 장면만 못보게함	만화는 연령·등급 상관없음	소극적 시청지도 (계)	연령·등급에 맞는 프로그램만 시청	χ^2
〈전체〉		1.8	2.3	20.6	8.9	33.7	66.3	-
성별	남아	1.6	3.2	25.8	11.6	42.1	57.9	9.03**
	여아	2.1	1.6	15.5	6.2	25.4	74.6	
연령	영아	2.4	2.4	6.0	4.8	15.7	84.3	8.45**
	유아	1.7	2.4	24.7	10.2	39.0	61.0	
과의존 수준	위험군	2.9	2.9	22.9	14.3	42.9	57.1	1.38
	일반군	2.0	2.0	20.2	8.1	32.3	67.7	
경제 활동	맞벌이	2.0	2.4	21.8	8.1	34.3	65.7	.36
	외벌이	1.5	2.2	18.5	10.4	32.6	67.4	

*p<.05, **p<.01, ***p<.001



〈그림 4-13〉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지도

❍ (어머니의 미디어 이용시간) 어머니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약 117분(2시간)이었으며, 컴퓨터 이용시간은 약 68분(1시간) 정도로 나타남. 한편, 어머니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첫째, 어머니의 TV 시청시간과 자녀의 TV 시청시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어머니의 TV 시청시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시청시간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어머니의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어머니의 TV 시청시간이 증가할수록 컴퓨터 이용시간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표 4-22〉 어머니의 하루 평균 TV/컴퓨터 이용시간

(단위: 분)

구분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TV 시청시간	0	720	90	117.3	96.75
컴퓨터 이용시간	0	300	60	68.1	60.75

〈표 4-23〉 영유아-어머니 미디어 이용시간의 상관관계

	자녀 TV 시청시간	자녀 컴퓨터 이용시간	어머니 TV 시청시간
자녀 컴퓨터 이용시간	0.119	1	
어머니 TV 시청시간	.199**	0.16	1
어머니 컴퓨터 이용시간	0.046	0.364	.327**

**p<.01

③ 스마트기기(핸드폰·태블릿 등) 이용실태

❍ (최초 이용 시기) 핸드폰 또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355명(88.8%)에 대한 최초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생후 1개월부터 72개월까지로 평균 25.4개월부터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별, 맞벌이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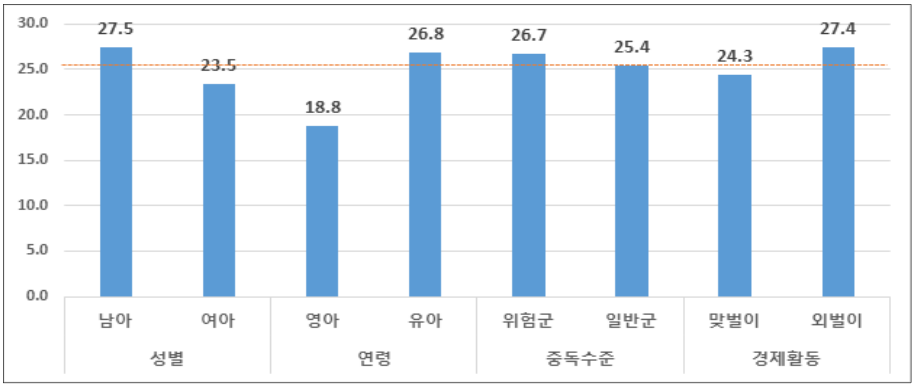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아보다 여아의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시기가 더 빨랐으며, 연령별로는 유아보다 영아의 이용시기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집단보다 일반군 집단 영유아의 최초 이용시기가 보다 더 빠른 경향을 보였으며,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정 영유아보다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이용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	72	25.40	13.18	-
성별	남아	7	72	27.48	13.25	*2.83***
	여아	1	60	23.45	12.83	
연령	영아	5	36	18.77	7.33	*-6.51****
	유아	1	72	26.83	13.69	
과의존 수준	위험군	1	60	26.71	15.47	*.57*
	일반군	5	72	25.38	12.94	
경제 활동	맞벌이	5	72	24.34	13.27	*-2.05**
	외벌이	1	60	27.43	12.80	

*p<.05, **p<.01, ***p<.001



〈그림 4-14〉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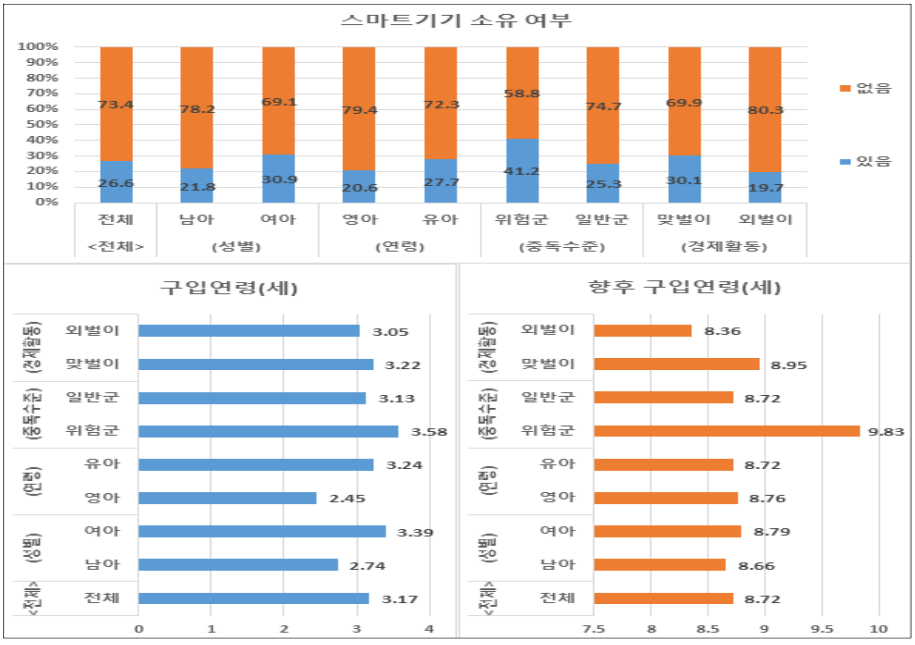
○ (스마트기기 소유 현황)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의 26.6%(92명)가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입연령은 평균 3.17세로 나타남. 한편,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54명(73.4%)의 응답자 중 약 46%(118명)가 향후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로 나타남(평균 8.72세)

〈표 4-25〉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소유 현황

(단위: %, 세)

		소유 여부			구입연령		향후 구입계획 연령	
		있음	없음	χ^2	평균	*t*	평균	*t*
〈전체〉		26.6	73.4	-	3.17	-	8.72	-
성별	남아	21.8	78.2	*3.68**	2.74	*-1.64*	8.66	*-.38*
	여아	30.9	69.1		3.39		8.79	
연령	영아	20.6	79.4	*1.44*	2.45	*-1.43*	8.76	*.11*
	유아	27.7	72.3		3.24		8.72	
과의존 수준	위험군	41.2	58.8	*3.90**	3.58	*.85*	9.83	*1.55*
	일반군	25.3	74.7		3.13		8.72	
경제 활동	맞벌이	30.1	69.9	*4.35**	3.22	*.39*	8.95	*1.91**
	외벌이	19.7	80.3		3.05		8.3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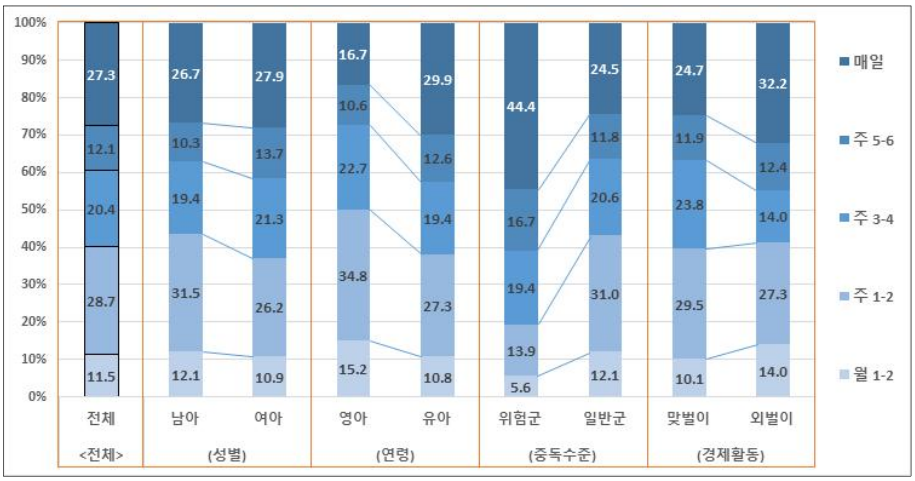
○ (스마트기기 이용 빈도) 최근 3개월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주 1~2회' 28.7%, '매일' 27.3%, '주 3~4회'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이용빈도의 범주를 동일한 간격이라 가정하여 5점기준으로 보면, 3.15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아보다 여아, 연령별로는 영아보다 유아, 과의존 수준별로는 일반군보다 위험군,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보다 외벌이 가정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일반특성 중에 위험군 영유아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았음

〈표 4-26〉 스마트기기 이용 빈도

(단위: %, 점)

		월 1-2	주 1-2	주 3-4	주 5-6	매일	*평균 (5점환산)*
〈전체〉		11.5	28.7	20.4	12.1	27.3	*3.15*
성별	남아	12.1	31.5	19.4	10.3	26.7	*3.08*
	여아	10.9	26.2	21.3	13.7	27.9	*3.21*
연령	영아	15.2	34.8	22.7	10.6	16.7	*2.79*
	유아	10.8	27.3	19.4	12.6	29.9	*3.23*
과의존 수준	위험군	5.6	13.9	19.4	16.7	44.4	*3.81*
	일반군	12.1	31.0	20.6	11.8	24.5	*3.06*
경제 활동	맞벌이	10.1	29.5	23.8	11.9	24.7	*3.11*
	외벌이	14.0	27.3	14.0	12.4	32.2	*3.21*



〈그림 4-15〉 스마트기기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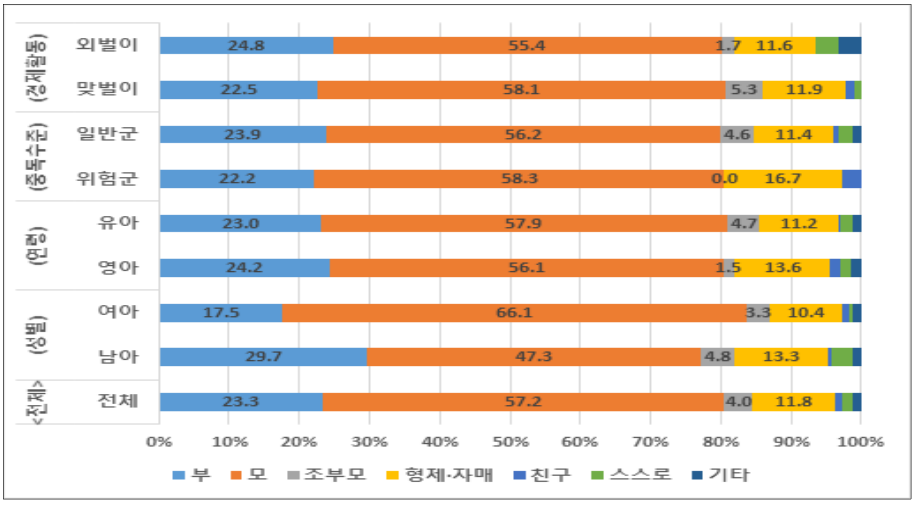
○ (스마트기기를 접하게 해준 사람) 자녀에게 처음 스마트기기를 접하게 해준 사람은 모(母) 57.2%, 부(父) 23.3%로 부모가 80.5%를 차지함. 다음으로 형제·자매 11.8%, 조부모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아는 아빠의 비율이, 여아는 엄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연령별로는 TV는 영아는 형제·자매 비율이, 유아는 조부모를 통해 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일반군은 조부모 비율이, 위험군은 형제·자매를 통해 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는 조부모 비율이, 외벌이 가정 영유아는 스스로 접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표 4-27〉 스마트기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단위: %)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스스로	기타
〈전체〉		23.3	57.2	4.0	11.8	0.9	1.7	1.1
성별	남아	29.7	47.3	4.8	13.3	0.6	3.0	1.2
	여아	17.5	66.1	3.3	10.4	1.1	0.5	1.1
연령	영아	24.2	56.1	1.5	13.6	1.5	1.5	1.5
	유아	23.0	57.9	4.7	11.2	0.4	1.8	1.1
과의존 수준	위험군	22.2	58.3	0.0	16.7	2.8	0.0	0.0
	일반군	23.9	56.2	4.6	11.4	0.7	2.0	1.3
경제 활동	맞벌이	22.5	58.1	5.3	11.9	1.3	0.9	0.0
	외벌이	24.8	55.4	1.7	11.6	0.0	3.3	3.3



〈그림 4-16〉 스마트기기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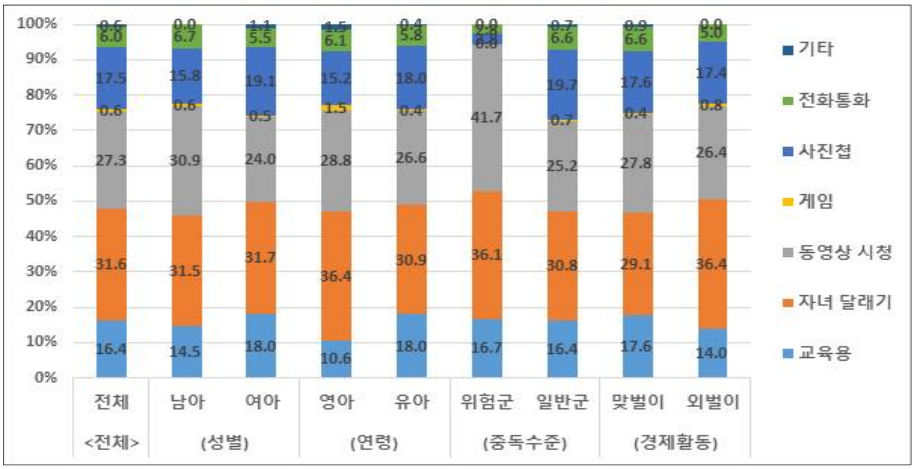
○ (스마트기기 첫 사용 계기) 자녀가 처음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게 된 계기를 보면, '자녀를 달래고자 하는 상황 대처'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동영상 시청' 27.3%, '사진첩 보기' 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아는 교육용 및 사진첩, 남아는 동영상(유투브, 애니메이션 등) 용도로 접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유아는 교육용, 영아는 자녀 달래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은 동영상 시청, 자녀 달래기 비율이 더 높았고, 일반군은 사진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정은 자녀 달래기, 맞벌이 가정은 교육용 이라는 응답이 좀 더 높았음

〈표 4-28〉 스마트기기 첫 이용 계기

(단위: %)

		교육용	자녀 달래기	동영상 시청	게임	사진첩	전화통화	기타
〈전체〉		16.4	31.6	27.3	0.6	17.5	6.0	0.6
성별	남아	14.5	31.5	30.9	0.6	15.8	6.7	0.0
	여아	18.0	31.7	24.0	0.5	19.1	5.5	1.1
연령	영아	10.6	36.4	28.8	1.5	15.2	6.1	1.5
	유아	18.0	30.9	26.6	0.4	18.0	5.8	0.4
과의존 수준	위험군	16.7	36.1	41.7	0.0	2.8	2.8	0.0
	일반군	16.4	30.8	25.2	0.7	19.7	6.6	0.7
경제 활동	맞벌이	17.6	29.1	27.8	0.4	17.6	6.6	0.9
	외벌이	14.0	36.4	26.4	0.8	17.4	5.0	0.0



〈그림 4-17〉 스마트기기 첫 이용 계기

❍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보통(31.3%), 매우 능숙함(28.2%), 능숙함(2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5점을 기준 3.50점으로 '능숙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별, 과의존 수준별, 맞벌이 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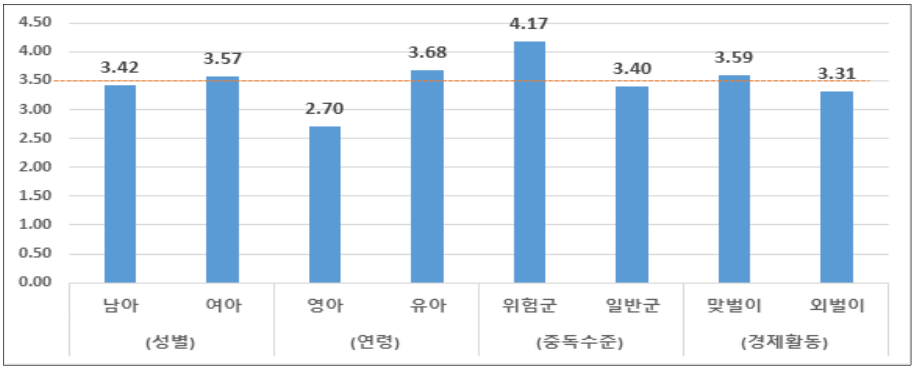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아가 3.57점으로 남아(3.42점)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유아가 3.68점으로 영아(2.70점)보다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그룹이 4.17점으로 일반군(3.40점)보다 높게 나타남.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 영유가 3.59점으로 외벌이 가정 영유아(3.31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4-29〉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

(단위: %, 점)

		매우 미숙함	미숙함	보통	능숙함	매우 능숙함	평균	t
〈전체〉		8.6	10.6	31.3	21.3	28.2	3.50	-
성별	남아	10.9	9.7	30.3	24.8	24.2	3.42	-1.13
	여아	6.6	11.5	32.2	18.0	31.7	3.57	
연령	영아	21.2	19.7	36.4	13.6	9.1	2.70	-6.06***
	유아	5.8	8.6	30.2	22.3	33.1	3.68	
과의존 수준	위험군	2.8	2.8	13.9	36.1	44.4	4.17	4.31***
	일반군	9.4	11.7	33.6	19.5	25.7	3.40	
경제 활동	맞벌이	7.5	10.1	29.5	21.1	31.7	3.59	2.01*
	외벌이	10.7	11.6	34.7	21.5	21.5	3.31	

*p<.05, **p<.01, ***p<.001



〈그림 4-18〉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

❍ (이용규칙 유·무)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관한 가정 내 규칙 여부를 살펴보면, ‘시간/콘텐츠’ 모두 제한 한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만 제한 한다는 응답이 25.5%,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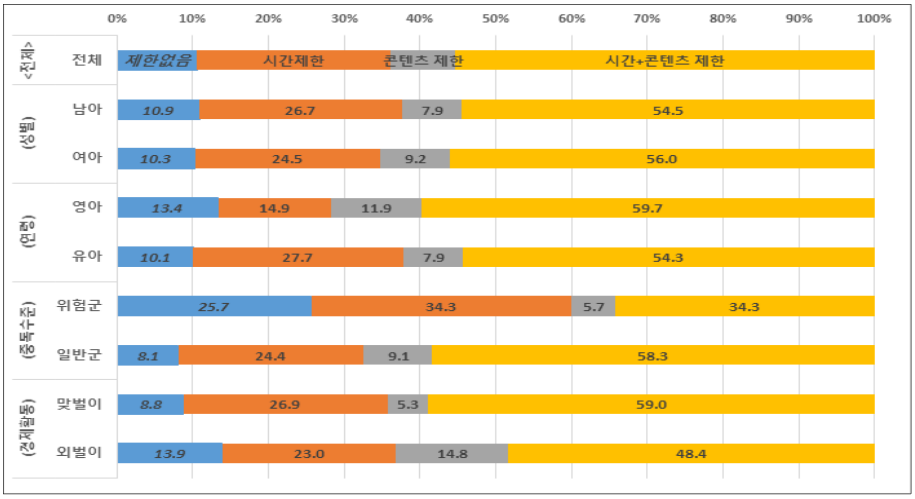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아 여아 모두 규칙 유·무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연령별로는 영아 그룹에서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그룹이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정이 규칙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0〉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단위: %)

		없음	있음				χ^2
			계	시간제한	콘텐츠 제한	시간+콘텐츠 제한	
〈전체〉		10.6	89.4	25.5	8.6	55.3	-
성별	남아	10.9	89.1	26.7	7.9	54.5	.03
	여아	10.3	89.7	24.5	9.2	56.0	
연령	영아	13.4	86.6	14.9	11.9	59.7	.64
	유아	10.1	89.9	27.7	7.9	54.3	
과의존 수준	위험군	25.7	74.3	34.3	5.7	34.3	10.83***
	일반군	8.1	91.9	24.4	9.1	58.3	
경제 활동	맞벌이	8.8	91.2	26.9	5.3	59.0	2.20
	외벌이	13.9	86.1	23.0	14.8	48.4	

*p<.05, **p<.01, ***p<.001



〈그림 4-19〉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이용 절차)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 과정을 살펴보면, ‘양육자의 허락 후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81.9%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응답이 9.7%, ‘양육자가 먼저 권유’한다는 응답이 8.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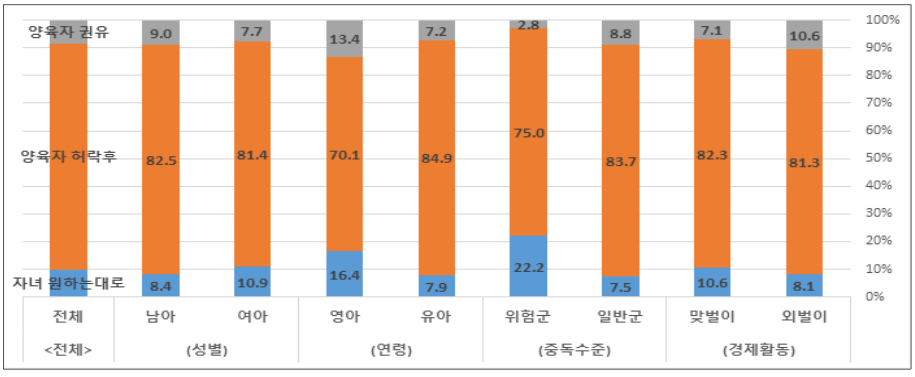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아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남아는 ‘양육자가 권유’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 양육자가 먼저 권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아는 양육자의 허락 후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의 경우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일반군은 부모 동의 후에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좀 더 높았고, 외벌이 가정은 양육자가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4-31〉 스마트기기 이용 절차

(단위: %)

		자녀가 원하는대로	양육자 허락후	양육자 권유	χ^2
〈전체〉		9.7	81.9	8.3	-
성별	남아	8.4	82.5	9.0	.77
	여아	10.9	81.4	7.7	
연령	영아	16.4	70.1	13.4	8.01**
	유아	7.9	84.9	7.2	
과의존 수준	위험군	22.2	75.0	2.8	9.42**
	일반군	7.5	83.7	8.8	
경제 활동	맞벌이	10.6	82.3	7.1	1.68
	외벌이	8.1	81.3	10.6	

*p<.05, **p<.01, ***p<.001



〈그림 4-20〉 스마트기기 이용 절차

❍ (이용 시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총 이용시간대 및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월요일~금요일」까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총 시간은 219.9분(3시간 40분)으로 하루 약 40분 정도로 나타났고,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저녁(64.1%) 시간대로 나타남. 「주말 토요일~일요일」 총 이용시간은 186.9분(3시간)으로 하루 평균 90분 정도였으며,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오후(57.8%) 시간대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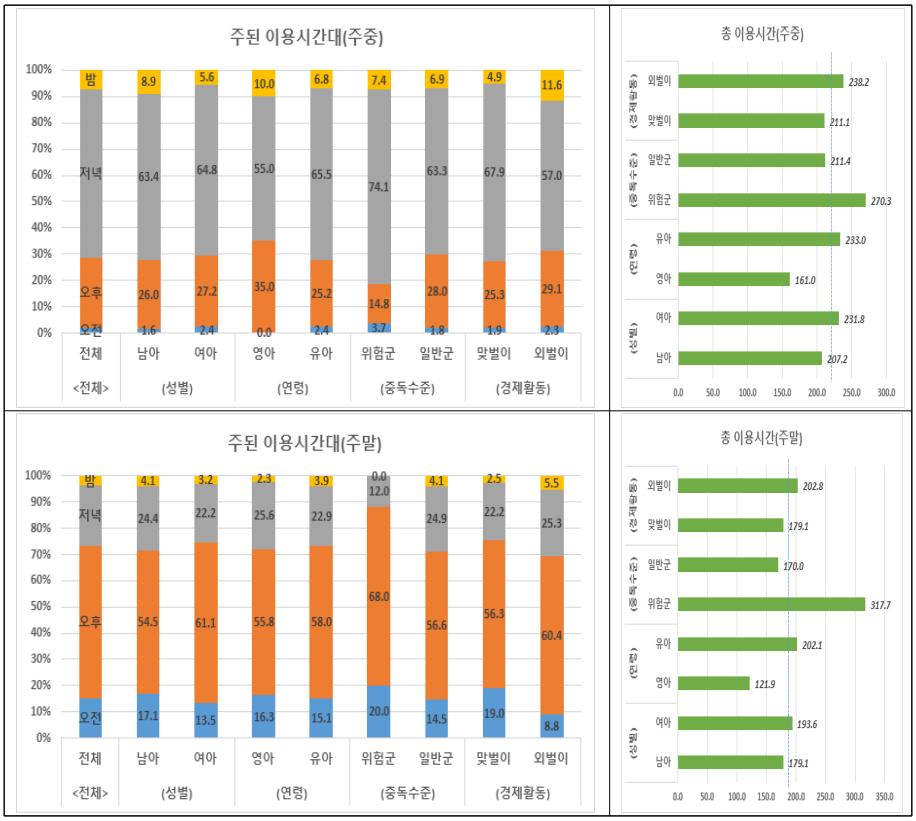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총 이용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남. 「주중(월~금)」의 경우 남아는 총 207분, 여아는 231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여아는 저녁, 남아는 밤(취침 전)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주말(토~일)」의 경우 남아는 179분, 여아는 193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남아는 오전, 여아는 오후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 연령별로는 영아와 유아의 이용시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주중(월~금)」의 경우 영아는 161분, 유아는 233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영아는 오후, 유아는 저녁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주말(토~일)」의 경우 영아는 121분, 유아는 202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유아는 오후, 영아는 저녁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과의존 수준별로는 주말 이용시간에 대해 위험군과 일반군 영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주중(월~금)」의 경우 위험군은 380분, 일반군은 211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된 시간대는 일반군은 오후, 위험군은 저녁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주말(토~일)」의 경우 위험군은 317분, 일반군은 17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된 시간대는 위험군은 오후, 일반군은 저녁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에 비해 외벌이 가정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남. 「주중(월~금)」의 경우 맞벌이 가정 211분, 외벌이 가정 238분이었고, 주된 시간대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저녁, 외벌이 가정은 밤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주말(토~일)」의 경우 맞벌이 가정 179분, 외벌이 가정 202분이었고, 주된 시간대는 맞벌이 가정은 오전, 외벌이 가정은 오후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4-32〉 스마트기기 총 이용 시간

(단위: %, 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이용 시간대				총 시간	t	이용 시간대				총 시간	t
		오전	오후	저녁	밤			오전	오후	저녁	밤		
〈전체〉		2.0	26.6	64.1	7.3	219.9	-	15.3	57.8	23.3	3.6	186.9	-
성별	남아	1.6	26.0	63.4	8.9	207.2	-.99	17.1	54.5	24.4	4.1	179.1	-.68
	여아	2.4	27.2	64.8	5.6	231.8		13.5	61.1	22.2	3.2	193.6	
연령	영아	0.0	35.0	55.0	10.0	161.0	-2.78**	16.3	55.8	25.6	2.3	121.9	-4.37***
	유아	2.4	25.2	65.5	6.8	233.0		15.1	58.0	22.9	3.9	202.1	
과의존 수준	위험군	3.7	14.8	74.1	7.4	270.3	1.49	20.0	68.0	12.0	0.0	317.7	2.98**
	일반군	1.8	28.0	63.3	6.9	211.4		14.5	56.6	24.9	4.1	170.0	
경제 활동	맞벌이	1.9	25.3	67.9	4.9	211.1	-1.02	19.0	56.3	22.2	2.5	179.1	-.99
	외벌이	2.3	29.1	57.0	11.6	238.2		8.8	60.4	25.3	5.5	202.8	

*p<.05, **p<.01, ***p<.001



〈그림 4-21〉 스마트기기 총 이용 시간

❍ (이용 용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를 보면, '동영상 시청'을 한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진첩' 보기 8.0%, '학습' 7.4%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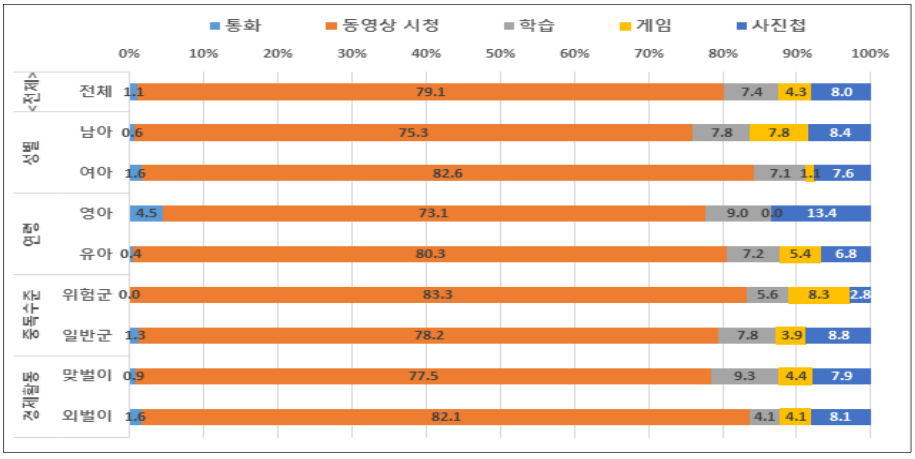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아는 게임용, 여아는 동영상 시청 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유아는 동영상 시청과 게임 용도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영아는 통화(영상)와 사진첩 이용 용도가 더 높은 편이었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영유아는 동영상 시청과 게임 용도가 더 높고, 일반군은 학습과 사진첩 보기 용도가 더 높은 편이었음.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은 학습, 외벌이 가정은 동영상 시청 용도가 더 높은 편이었음

〈표 4-33〉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

(단위: %)

		통화	동영상 시청	학습	게임	사진첩	χ^2
〈전체〉		1.1	79.1	7.4	4.3	8.0	-
성별	남아	0.6	75.3	7.8	7.8	8.4	*10.80**
	여아	1.6	82.6	7.1	1.1	7.6	
연령	영아	4.5	73.1	9.0	0.0	13.4	*15.04***
	유아	0.4	80.3	7.2	5.4	6.8	
과의존 수준	위험군	0.0	83.3	5.6	8.3	2.8	*3.67*
	일반군	1.3	78.2	7.8	3.9	8.8	
경제활동	맞벌이	0.9	77.5	9.3	4.4	7.9	*3.51*
	외벌이	1.6	82.1	4.1	4.1	8.1	

성별: 2셀(2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연령별: 3셀(3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p<.05, **p<.01, ***p<.001



〈그림 4-22〉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

❍ (이용 장소)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주된 장소를 보면,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67.1%로 가장 많았고, 공공장소(식당 등) 24.6%, 차량 8.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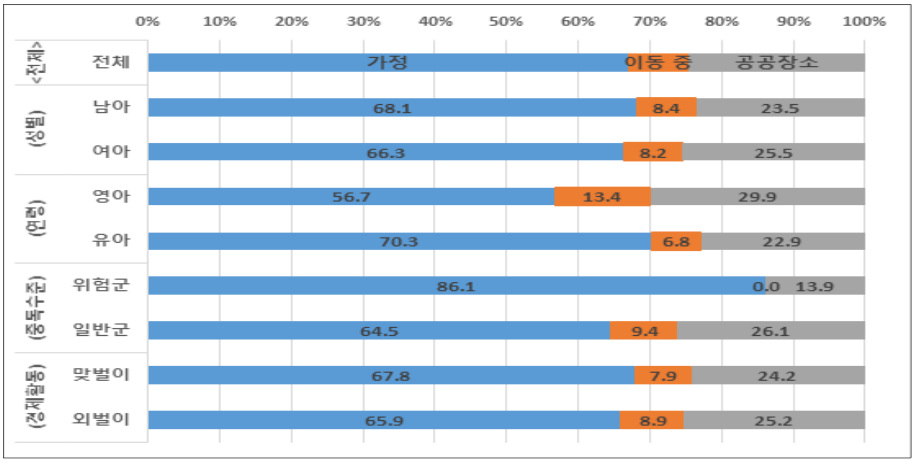
- '성별로'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남아는 가정, 여아는 공공장소의 비율이 소폭 높음. '연령별'로는 유아는 가정, 영아는 공공장소와 차량 이동 중에 이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은 가정, 일반군은 공공장소와 차량 이동 중에 이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은 가정에서, 외벌이 가정은 공공장소에서 이용한다는 비율이 소폭 높았음

〈표 4-34〉 스마트기기 이용 장소

(단위: %)

		가정	공공장소(식당 등)	차량 이동 중	χ^2
〈전체〉		67.1	24.6	8.3	-
성별	남아	68.1	23.5	8.4	.20
	여아	66.3	25.5	8.2	
연령	영아	56.7	29.9	13.4	5.46*
	유아	70.3	22.9	6.8	
과의존 수준	위험군	86.1	13.9	0.0	7.58*
	일반군	64.5	26.1	9.4	
경제 활동	맞벌이	67.8	24.2	7.9	.18
	외벌이	65.9	25.2	8.9	

연령별: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과의존수준별: 1셀(16.7%)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p<.05, **p<.01, ***p<.001



〈그림 4-23〉 스마트기기 이용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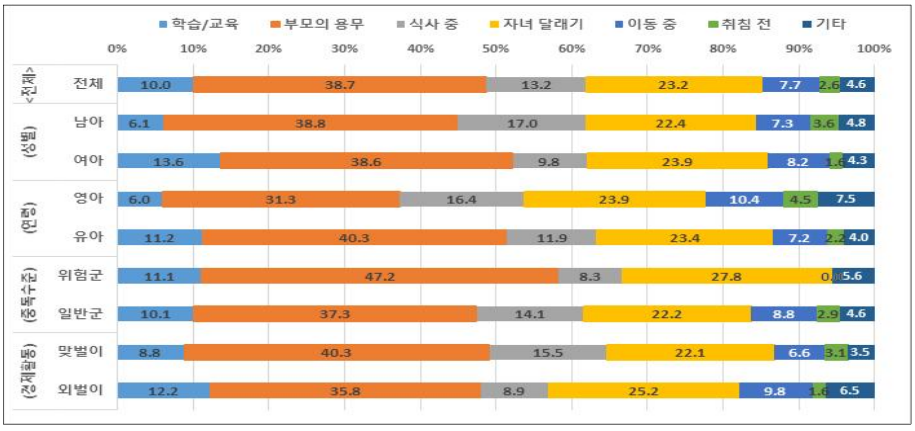
❍ (이용 상황)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부모의 용무를 보기 위해'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자녀 달래기' 23.2%로 주로 돌봄의 대체 상황이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아는 학습/교육을 위해, 남아는 식사하는 동안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연령별'로는 유아는 학습/교육 및 부모의 용무를 위해, 영아는 식사할 때와 이동 중에 이용한다는 비율이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은 부모의 용무와 자녀를 달래기 위한 상황에서, 일반군은 식사 및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용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정은 학습/교육과 자녀를 달래기 위한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은 부모의 용무와 식사하는 동안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표 4-35〉 스마트기기 이용 상황

(단위: %)

		학습/교육	부모의 용무	식사 중	자녀 달래기	이동 중	취침 전	기타
〈전체〉		10.0	38.7	13.2	23.2	7.7	2.6	4.6
성별	남아	6.1	38.8	17.0	22.4	7.3	3.6	4.8
	여아	13.6	38.6	9.8	23.9	8.2	1.6	4.3
연령	영아	6.0	31.3	16.4	23.9	10.4	4.5	7.5
	유아	11.2	40.3	11.9	23.4	7.2	2.2	4.0
과의존 수준	위험군	11.1	47.2	8.3	27.8	0.0	0.0	5.6
	일반군	10.1	37.3	14.1	22.2	8.8	2.9	4.6
경제 활동	맞벌이	8.8	40.3	15.5	22.1	6.6	3.1	3.5
	외벌이	12.2	35.8	8.9	25.2	9.8	1.8	6.5



〈그림 4-24〉 스마트기기 이용 상황

❍ (이용 사유)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어려운 육아상황 통제, 자녀 학습을 위해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1~2순위는 동일한 가운데, 3순위에서 남아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여아는 '학습/교육'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2순위는 동일한 가운데, 3순위에서 영아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유아는 '학습/교육'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1~2순위는 동일한 가운데, 3순위에서 위험군 영유아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일반군은 '학습/교육'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는 1~2순위는 동일한 가운데, 3순위에서 맞벌이 가정은 '학습/교육', 외벌이 가정은 '자녀를 달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36〉 스마트기기 이용 사유(1 - 2 순위)

(단위: %)

		자녀가 원함	자녀 달래기	습관적	육아 상황통제	학습/ 교육	또래와 교류	놀아 주기힘듦	부모 시간필요	최신 기계경험	보상 차원	기타
〈전체〉		36.9	12.1	2.2	18.1	12.8	1.9	3.8	6.1	0.4	4.1	1.6
성별	남아	35.0	12.9	2.3	17.2	11.7	1.6	4.3	6.8	0.7	5.2	2.5
	여아	38.5	11.4	2.2	18.9	13.8	2.2	3.4	5.5	0.2	3.0	0.8
연령	영아	34.3	15.7	1.2	18.6	12.2	1.7	5.8	5.2	0.0	1.7	3.5
	유아	37.7	11.3	2.5	17.7	12.9	2.0	3.5	6.2	0.5	4.5	1.2
과의존 수준	위험군	44.6	8.7	3.3	21.7	5.4	2.2	5.4	5.4	1.1	2.2	0.0
	일반군	35.6	12.6	2.0	17.9	13.6	1.9	3.7	6.3	0.4	4.1	1.8
경제 활동	맞벌이	36.9	12.2	2.5	16.7	13.3	2.0	4.3	6.4	0.3	4.3	1.1
	외벌이	36.7	11.9	1.8	20.5	11.9	1.8	3.1	5.5	0.6	3.7	2.4

주. 종합빈도=[(1순위빈도)*2+(2순위빈도)]/2., '종합빈도' 값을 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비율임.

〈표 4-37〉 스마트기기 이용 사유(종합순위)

	전체	성별		연령		중독수준		경제활동	
		남아	여아	영아	유아	위험군	일반군	맞벌이	외벌이
1위	자녀원함	자녀원함	자녀원함	자녀원함	자녀원함	자녀원함	자녀원함	자녀원함	자녀원함
2위	상황통제	상황통제	상황통제	상황통제	상황통제	상황통제	상황통제	상황통제	상황통제
3위	학습/교육	자녀달래기	학습/교육	자녀달래기	학습/교육	자녀달래기	학습/교육	학습/교육	자녀달래기

❍ (스마트기기 이용 시 부모의 행동) 자녀가 스마트기기 사용 시 양육자의 행동을 보면, '집안일 등의 가사'를 한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스마트기기 이용(14.4%)', '휴식(14.2%)' 등의 순으로 많이 응답함. 자녀만 이용하는 경우가 8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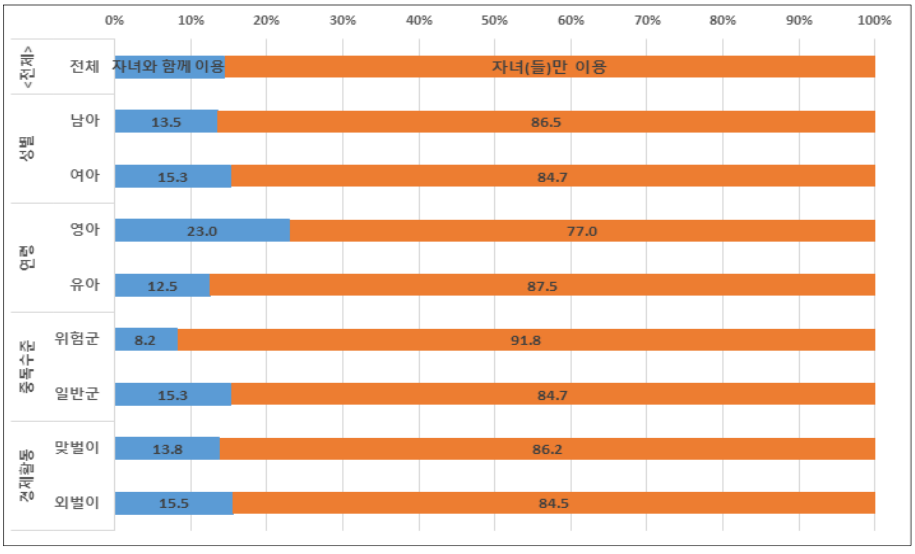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아, 연령별로는 유아,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의 경우에 자녀(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표 4-38〉 스마트기기 이용 시 부모의 행동(1 - 2 순위)

(단위: %)

		자녀와 함께 이용함	부모의 불일을 봄				
			계	가사	휴식	식사/대화 등	업무
〈전체〉		*14.4*	85.6	54.0	14.2	13.0	4.3
성별	남아	*13.5*	86.5	54.7	13.5	14.3	4.0
	여아	*15.3*	84.7	53.4	14.9	11.8	4.6
연령	영아	*23.0*	77.0	47.1	9.2	17.8	2.9
	유아	*12.5*	87.5	55.9	15.4	11.8	4.3
과의존 수준	위험군	*8.2*	91.8	61.9	22.7	4.1	3.1
	일반군	*15.3*	84.7	52.8	13.1	14.3	4.5
경제활동	맞벌이	*13.8*	86.2	54.9	12.0	14.6	4.7
	외벌이	*15.5*	84.5	52.5	18.2	10.1	3.6

주. 종합빈도=[(1순위빈도)*2+(2순위빈도)]/2., '종합빈도' 값을 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비율임.



〈그림 4-25〉 스마트기기 이용 시 부모의 행동(종합)

❍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변화) 자녀의 연령 증가와 함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0.1%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함. 변동이 없다는 응답은 39.5%, 줄어들고 있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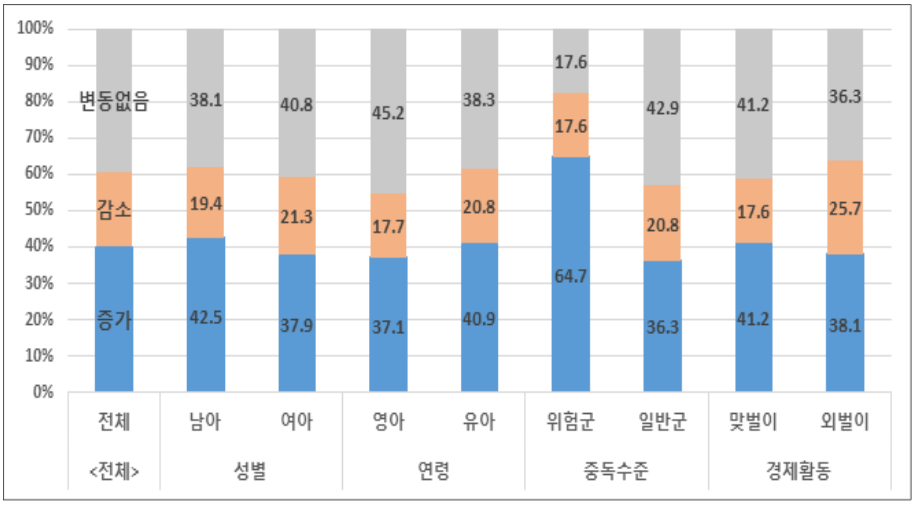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아, 연령별로는 유아,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 그룹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한편, 과의존 수준별로는 일반군 영유아에 비해 위험군 영유아의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표 4-39〉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변화

(단위: %)

		증가하고 있음	줄어들고 있음	변동 없음	χ^2
〈전체〉		40.1	20.4	39.5	-
성별	남아	42.5	19.4	38.1	*.74*
	여아	37.9	21.3	40.8	
연령	영아	37.1	17.7	45.2	*1.02*
	유아	40.9	20.8	38.3	
과의존 수준	위험군	64.7	17.6	17.6	*11.20***
	일반군	36.3	20.8	42.9	
경제 활동	맞벌이	41.2	17.6	41.2	*3.01*
	외벌이	38.1	25.7	36.3	

*p<.05, **p<.01, ***p<.001



〈그림 4-26〉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변화

○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최근 3개월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행동을 살펴보면, 4점 평균을 기준으로 나타남(17.21점/총 36점 기준)

- 성별로 보면, 조절실패/현저성/문제적결과/전체평균 모두에서 성별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음
- 연령별로는 현저성/문제적결과/전체 평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즉, 영아보다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즉, 일반군보다 위험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스마트기기 이용규칙 유무별로는 조절실패/현저성/전체 평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즉, 가정 내 스마트기기 이용규칙이 없는 그룹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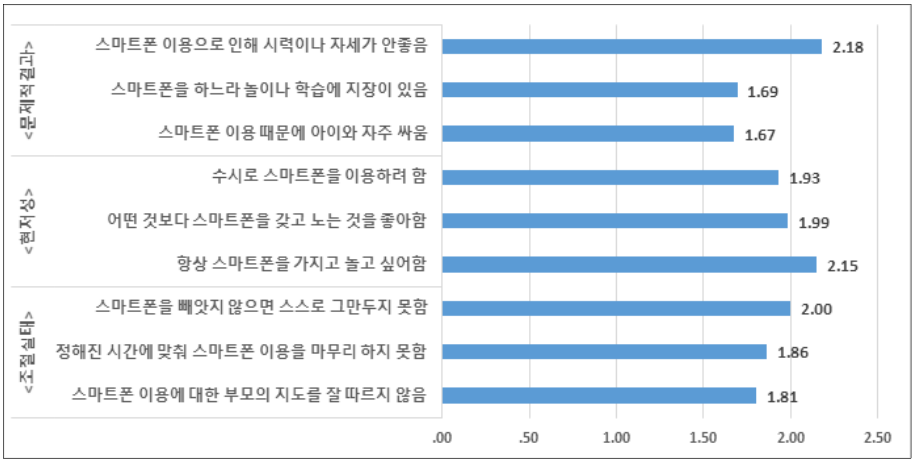
〈표 4-40〉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단위: 점/4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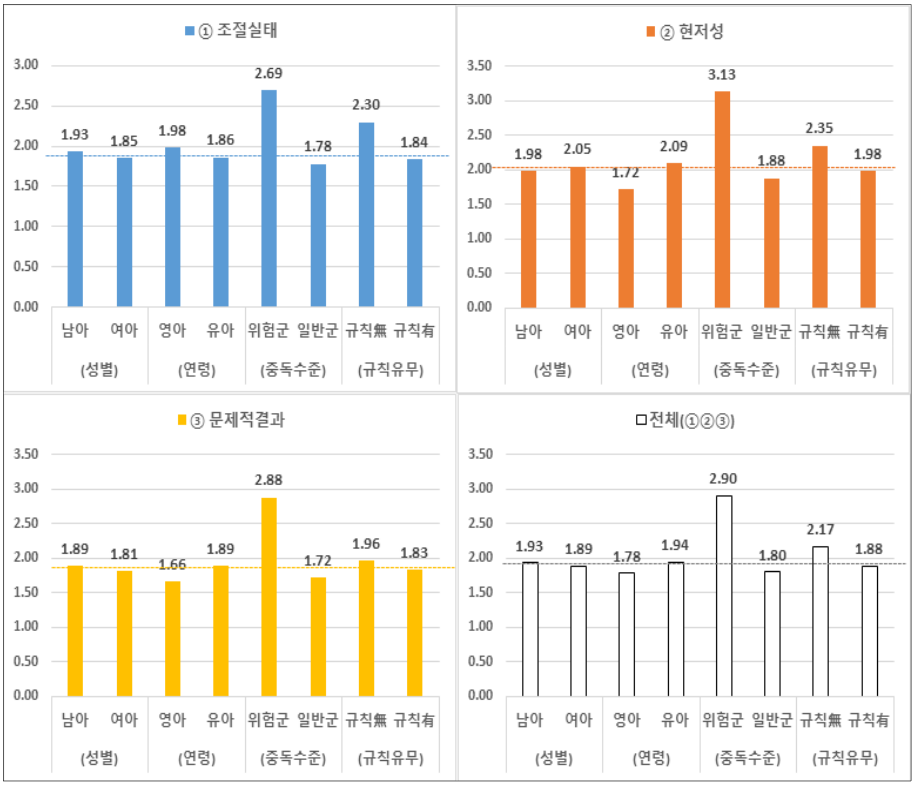
		① 조절실패		② 현저성		③ 문제적결과		전체평균(①②③)	
		M	*t*	M	*t*	M	t	M	*t*
〈전체〉		1.89	-	2.02	-	1.85	-	1.91	-
성별	남아	1.93	*1.33*	1.98	*-.94*	1.89	1.11	1.93	*.67*
	여아	1.85		2.05		1.81		1.89	
연령	영아	1.98	*1.40*	1.72	*-3.91****	1.66	-2.69**	1.78	*-2.24**
	유아	1.86		2.09		1.89		1.94	
과의존 수준	위험군	2.69	*9.87****	3.13	*12.33****	2.88	14.11***	2.90	*19.19****
	일반군	1.78		1.88		1.72		1.80	
규칙 유무	규칙無	2.30	*3.88****	2.35	*2.42**	1.96	1.19	2.17	*2.98***
	규칙有	1.84		1.98		1.83		1.88	

*p<.05, **p<.01, ***p<.001

* 「과의존 척도」의 문항은 3항목의 9문항으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음(1점)'~'매우 그러함(4점)'의 리커트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① 조절실패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조절 관련 문항으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음" 등의 3문항, ② 현저성의 경우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욕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함" 등의 3문항, ③ 문제적결과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결과와 관련된 문항으로 "학습에 지장이 있음"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은 최저 4점에서 최고 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의존 수준이 높음(부정적)을 의미함. 24점 이상은 위험군, 23점 이하는 일반군으로 분류됨.



〈그림 4-27〉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그림 4-28〉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그룹의 일반적 특성) 조사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6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아(55.6%)가 여아(44.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유아(88.6%)가 영아(11.4%)보다 많았으며,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58.3%) 가정이 외벌이(41.7%) 가정보다 많았음. '거주지역별'로는 시(63.9%) 지역이 군(36.1%) 지역보다 많았고, '형제순위별'로는 둘째이상(71.4%), 첫째 및 외동 각 14.3%, '소득수준별'로는 300~399만원(31.4%), 400~449만원(22.9%), 500~599만원(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9〉 스마트폰 과의존군 집단의 일반적 특성

❍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에 따른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살펴보면, 하위영역인 현저성 및 문제적결과, 그리고 과의존 수준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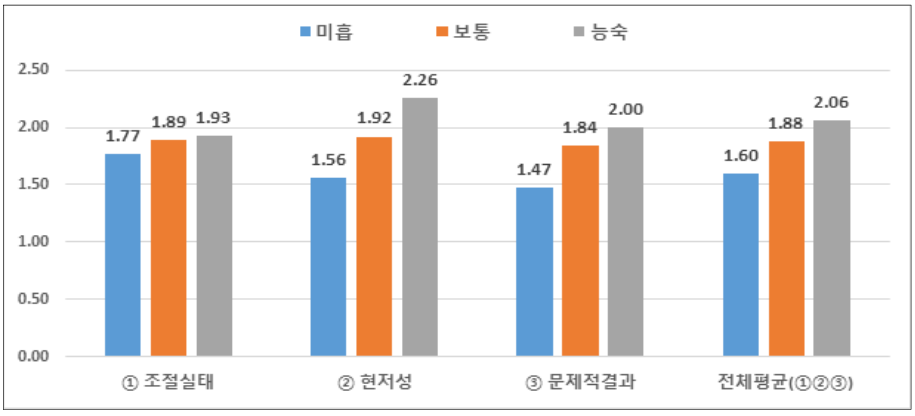
- 조절실패 영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이용능력 수준이 능숙할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현저성의 경우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이 미흡, 보통, 능숙한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용능력이 능숙할수록 과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남
- 문제적결과의 경우 이용능력이 미흡한 그룹과 보통/능숙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용능력이 능숙할수록 과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 전체를 보면 미흡, 보통, 능숙한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용능력이 능숙할수록 과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4-41〉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에 따른 과의존 수준

(단위: 점/4점 기준)

		① 조절실패		② 현저성		③ 문제적결과		전체평균(①②③)	
		M	*F*	M	*F*	M	*F*	M	*F*
이용능력	미흡	1.77	*1.77*	1.56c	*30.58****	1.47b	*19.38****	1.60c	*19.24****
	보통	1.89		1.92b		1.84a		1.88b	
	능숙	1.93		2.26a		2.00a		2.06a	

*p<.05, **p<.01, ***p<.001 사후검증 Duncan a>b>c



〈그림 4-30〉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에 따른 과의존 수준

❍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용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과의존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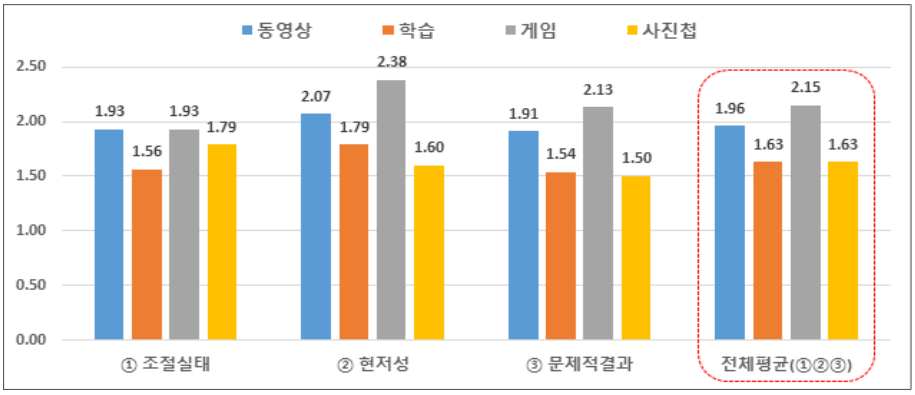
- 조절실패 영역의 경우 학습용 그룹과 동영상 및 게임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영상 및 게임 그룹의 조절실패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현저성의 경우 사진첩용 그룹과 동영상 및 게임 그룹 간, 그리고 학습용 그룹과 게임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게임용 그룹의 현저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문제적결과의 경우 사진첩용 및 학습용 그룹과 동영상 및 게임용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영상 및 게임용 그룹의 문제적결과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 전체를 보면 사진첩용 및 학습용 그룹과 동영상 및 게임용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영상 및 게임용 그룹의 문제적결과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표 4-42〉 스마트기기 이용 용도에 따른 과의존 수준

(단위: 점/4점기준)

		① 조절실패		② 현저성		③ 문제적결과		전체평균(①②③)	
		M	*F*	M	*F*	M	*F*	M	*F*
이용 용도	사진첩	1.79ab	*3.44**	1.60b	*6.68****	1.50b	*7.41****	1.63b	*7.20****
	학습	1.56b		1.79ab		1.54b		1.63b	
	동영상	1.93a		2.07bc		1.91a		1.96a	
	게임	1.93a		2.38a		2.13a		2.15a	

*p<.05, **p<.01, ***p<.001 사후검증 Duncan a>b>c



〈그림 4-31〉 스마트기기 이용용도에 따른 과의존 수준

❍ (영유아의 문제행동) 최근 3개월간 자녀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4점평균을 기준으로 공격성 1.58점, 주의집중력 1.57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58점으로 문제행동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주의집중력/공격성/전체총합 모두에서 성별 간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남. 즉, 여아보다 남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주의집중력/공격성/전체총합 영역에서 영아보다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주의집중력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주의집중력/공격성/전체총합 모두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남. 즉, 일반군보다 위험군 영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스마트기기 이용규칙 유무별로는 주의집중력/공격성/전체총합 모두에서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정 내 스마트기기 이용규칙이 없는 그룹 영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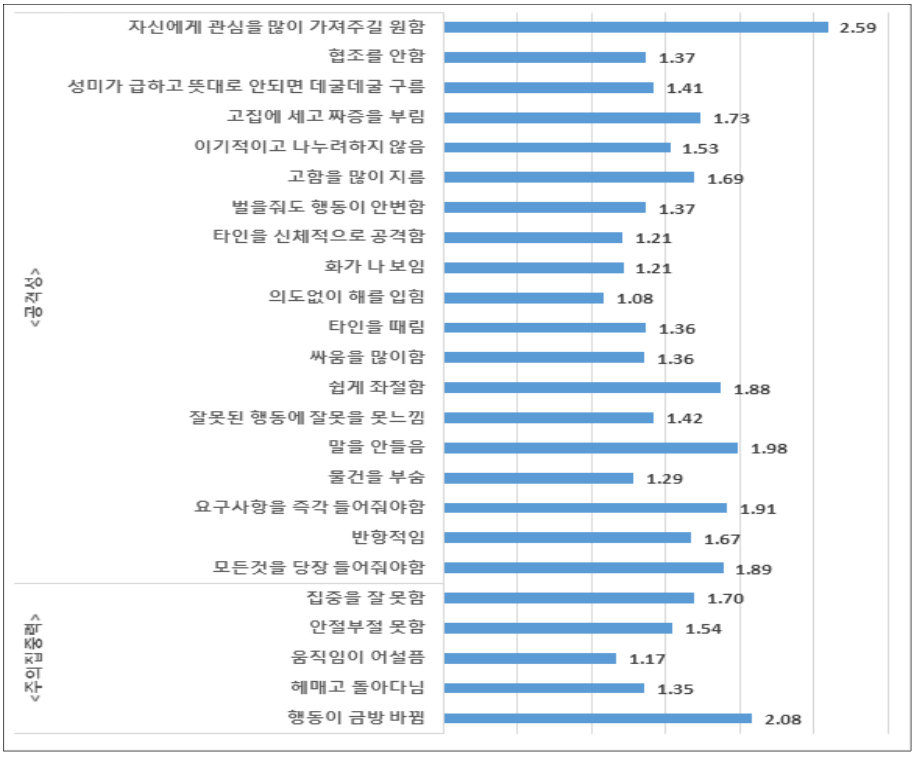
〈표 4-43〉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

(단위: 점/4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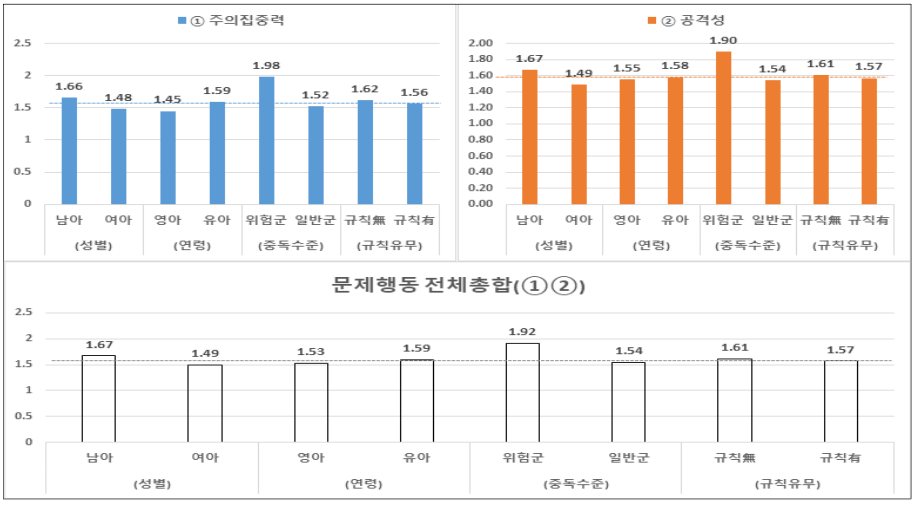
		① 주의집중력		② 공격성		전체총합(①②)	
		M	*t*	M	*t*	M	*t*
〈전체〉		1.57	-	1.58	-	1.58	-
성별	남아	1.66	*3.02***	1.67	*3.34****	1.67	*3.55****
	여아	1.48		1.49		1.49	
연령	영아	1.45	*-2.13**	1.55	*-.48*	1.53	*-.85*
	유아	1.59		1.58		1.59	
과의존 수준	위험군	1.98	*4.81****	1.90	*3.46****	1.92	*3.88****
	일반군	1.52		1.54		1.54	
규칙 유무	규칙無	1.62	*.62*	1.61	*.41*	1.61	*.49*
	규칙有	1.56		1.57		1.57	

*p〈.05, **p〈.01, ***p〈.001

* 「자녀의 문제행동」 문항은 유아의 전반적인 적응과 문제행동을 부모가 평가하도록 Achenbach & Rescorla(2000)의 CBCL 중 유아용 CBCL을 오경자·김영아(2008)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K-CBCL을 활용하였음. 척도의 구성은 2항목의 24문항으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음(1점)'~'매우 그러함(4점)'의 리커트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① 주의집중력 항목의 경우 "집중을 잘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임" 등의 5문항, ② 공격성 항목 경우 "싸움을 많이함", "원하는데로 안되면 금방 짜증을 냄" 등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부정적)을 의미함.



〈그림 4-32〉 자녀의 문제행동 척도



〈그림 4-33〉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

❍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의존 수준과 문제행동 간의 모든 하위영역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 과의존 하위영역의 '조절실패'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주의집중력 및 공격성 그리고 문제행동 전체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 과의존 하위영역의 '현저성'은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주의집중력 및 공격성 그리고 문제행동 전체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 과의존 하위영역의 '문제적결과'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주의집중력 및 공격성 그리고 문제행동 전체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 과의존 수준(전체)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주의집중력 및 공격성 그리고 문제행동 전체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표 4-44〉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과의존 수준				문제행동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결과	전체	주의집중력	공격성
과의존 수준	현저성	.471**	1				
	문제적결과	.557**	.702**	1			
	전체	.781**	.868**	.889**	1		
문제 행동	주의집중력	.216**	.197**	.333**	.289**	1	
	공격성	.256**	.166**	.296**	.282**	.587**	1
	전체	.266**	.189**	.330**	.307**	.742**	.978**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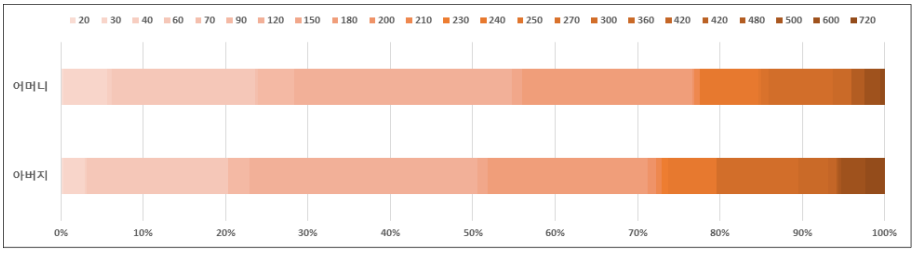
❍ (부모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아버지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은 약 187분(3시간), 어머니는 약 163분(2시간 40분)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좀 더 긴 편이었음

- 한편, 부모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자녀의 이용시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과 자녀의 이용시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이용시간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아버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이용시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배우자의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다른 배우자의 이용시간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과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부모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표 4-45〉 부모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단위: 분)

구분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20	720	120	187	142
어머니	20	720	120	163	117



〈그림 4-34〉 부모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표 4-46〉 영유아-부모 스마트기 이용시간의 상관관계

	자녀 이용시간	아버지 이용시간	어머니 이용시간
아버지 이용시간	.098	1	
어머니 이용시간	.255**	.600**	1
자녀의 문제행동	-.025	.179**	.170**

**p<.01

④ 자녀의 미디어(TV·컴퓨터·스마트기기 등)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개입

❍ (이용 지도 시 어려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어려운 점은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부모가 바빠서 자녀를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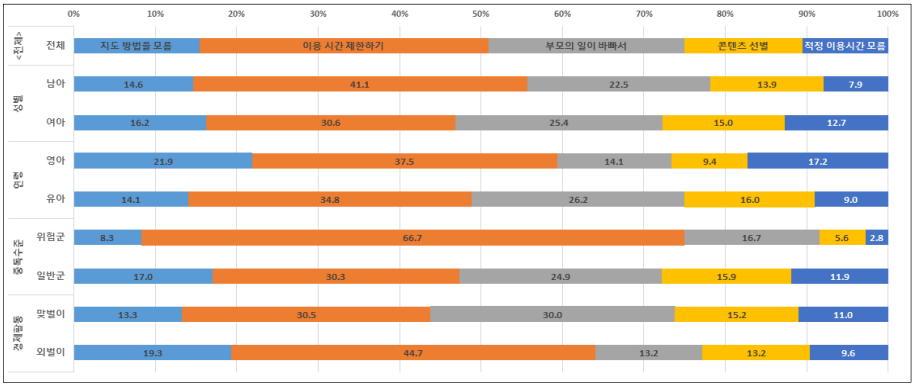
- 성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연령별로는 영아는 지도 방법과 적정 이용시간을 몰라서 어려움을 느꼈고, 유아는 부모의 시간 부족과 콘텐츠 선별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은 이용 시간 제한하는게 어렵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일반군은 지도 방법과 적정 시간을 몰라서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는 이용 시간 제한 어려움, 맞벌이는 부모의 시간 부족 때문에 이용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7〉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시 어려움

(단위: %)

		이용 지도 방법을 몰라서	이용 시간 제한하기	부모의 일이 바빠서	적절 콘텐츠 선별	연령별 적정 이용시간 모름	χ^2
〈전체〉		15.4	35.5	24.1	14.5	10.5	-
성별	남아	14.6	41.1	22.5	13.9	7.9	*4.71*
	여아	16.2	30.6	25.4	15.0	12.7	
연령	영아	21.9	37.5	14.1	9.4	17.2	*10.05**
	유아	14.1	34.8	26.2	16.0	9.0	
과의존 수준	위험군	8.3	66.7	16.7	5.6	2.8	*19.35****
	일반군	17.0	30.3	24.9	15.9	11.9	
경제 활동	맞벌이	13.3	30.5	30.0	15.2	11.0	*14.98***
	외벌이	19.3	44.7	13.2	13.2	9.6	

*p<.05, **p<.01, ***p<.001



〈그림 4-35〉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시 어려움

❍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노력)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미디어 사용 대신 '대안활동 하기(4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규칙 설정(34.1%)', '양육자부터 사용줄이기(12.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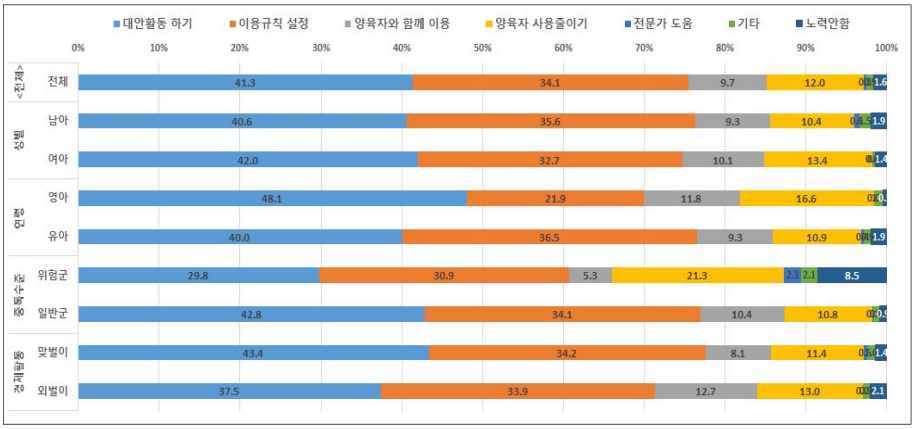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아는 이용규칙 설정, 여아는 양육자 사용줄이기 노력이, '연령별'로는 영아는 대안활동 하기, 유아는 이용규칙 설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일반군은 대안활동 하기, 양육자와 함께하기, 위험군은 양육자의 사용줄이기, 전문가 도움 노력이,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은 대안활동 하기, 외벌이 가정은 양육자와 함께하기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남
- 한편, 딱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위험군 그룹에서 8.5%로 가장 높았음

〈표 4-48〉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노력(1-2순위)

(단위: %)

		대안활동 하기	이용규칙 설정	양육자와 함께 이용	양육자 사용줄이기	전문가 도움	기타	*노력안함*
〈전체〉		41.3	34.1	9.7	12.0	0.3	0.9	*1.6*
성별	남아	40.6	35.6	9.3	10.4	0.6	1.5	*1.9*
	여아	42.0	32.7	10.1	13.4	0.0	0.4	*1.4*
연령	영아	48.1	21.9	11.8	16.6	0.0	1.1	*0.5*
	유아	40.0	36.5	9.3	10.9	0.4	0.9	*1.9*
과의존 수준	위험군	29.8	30.9	5.3	21.3	2.1	2.1	*8.5*
	일반군	42.8	34.1	10.4	10.8	0.1	0.8	*0.9*
경제활동	맞벌이	43.4	34.2	8.1	11.4	0.5	0.1	*1.4*
	외벌이	37.5	33.9	12.7	13.0	0.0	0.9	*2.1*

주. 종합빈도=[(1순위빈도)*2+(2순위빈도)]/2., '종합빈도' 값을 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비율임.



〈그림 4-36〉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노력(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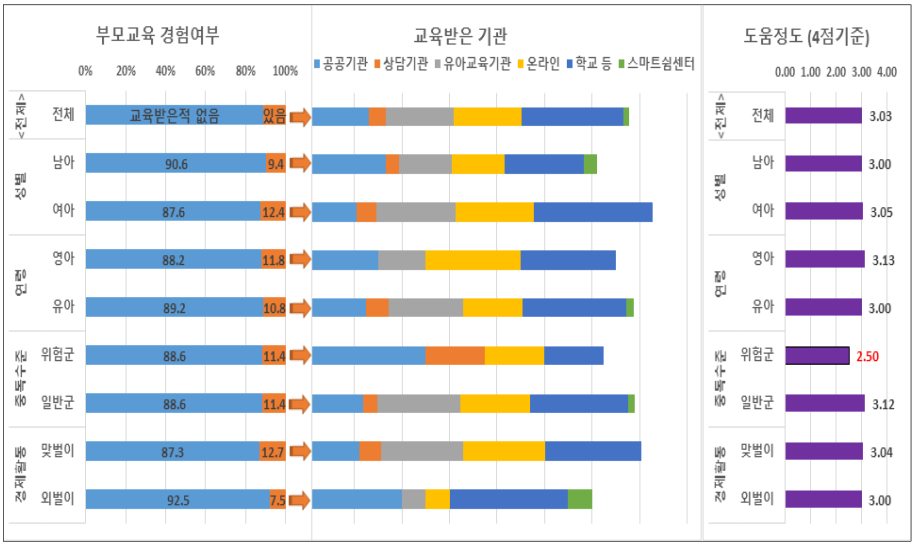
○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해 89.1%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교육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10.9%(42명)에 불과하였고, 교육횟수는 평균 1.9회였음. 교육기관은 학교 42.9%, 유아교육기관 및 온라인 각 28.6%, 공공기관(도서관 등) 26.2% 순으로 많았음. 한편, 부모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는 3.03점(4점기준)으로 도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군 부모의 경우 2.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49〉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경험

(단위: %, 회, 점)

		없음	있음								
			계	횟수	공공기관	상담기관	유아교육기관	온라인	학교 등	스마트쉼센터	도움정도 (4점기준)
〈전체〉		89.1	10.9	1.9	26.2	7.1	28.6	28.6	42.9	2.4	3.03
성별	남아	90.6	9.4	1.7	33.3	5.6	22.2	22.2	33.3	5.6	3.00
	여아	87.6	12.4	2.1	20.8	8.3	33.3	33.3	50.0	0.0	3.05
연령	영아	88.2	11.8	1.6	30.0	0.0	20.0	40.0	40.0	0.0	3.13
	유아	89.2	10.8	2.1	25.0	9.4	31.3	25.0	43.8	3.1	3.00
과의존 수준	위험군	88.6	11.4	1.3	50.0	25.0	0.0	25.0	25.0	0.0	2.50
	일반군	88.6	11.4	2.0	23.5	5.9	35.3	29.4	41.2	2.9	3.12
경제 활동	맞벌이	87.3	12.7	2.0	21.9	9.4	34.4	34.4	40.6	0.0	3.04
	외벌이	92.5	7.5	1.8	40.0	0.0	10.0	10.0	50.0	10.0	3.00

주. 교육기관 응답은 다중응답으로 케이스 퍼센트.



〈그림 4-37〉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경험

○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필요성을 보면, 3.89점(5점기준)으로 부모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합한 부모교육 장소로 어린집(40.1%), 온라인(24.9%), 주민/문화센터(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필요한 교육내용은 '미디어 과다사용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38.1%)', '적정한 이용시간 기준(22.2%)'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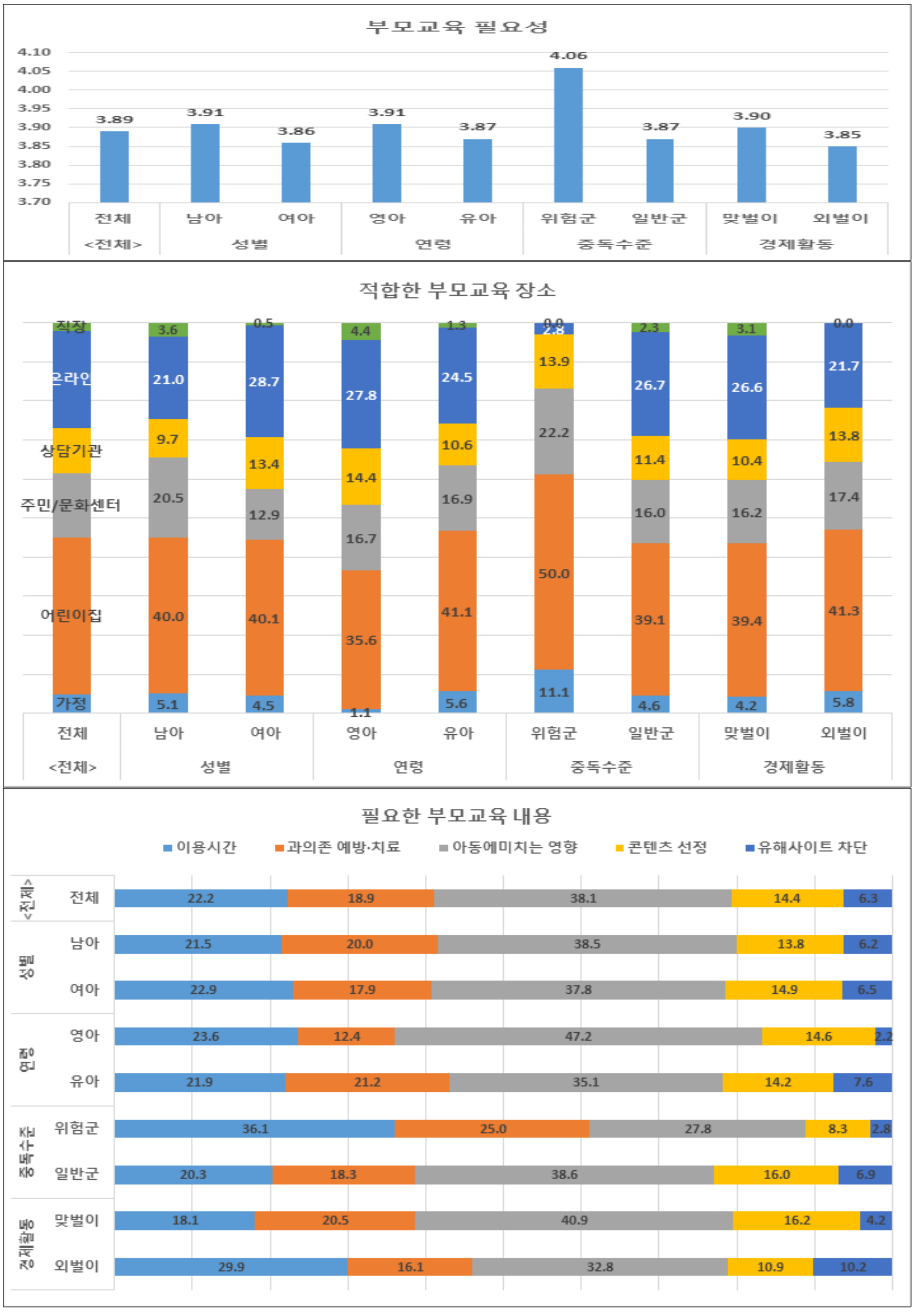
-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별 차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함
- 성별로는 교육장소로 남아는 주민/문화센터, 여아의 부모는 상담기관을 선호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남아의 부모는 과의존 예방·치료에 관심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교육장소는 유아는 가정 및 어린이집, 영아는 상담기관을 좀 더 선호했으며, 교육내용은 유아는 과의존 예방·치료, 영아는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좀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의존 수준별로는 교육 장소는 위험군은 가정·어린이집 등을 더 선호했고, 일반군은 온라인 방식을 더 선호함. 교육내용은 위험군은 이용시간과 과의존 예방 관련을, 일반군은 콘텐츠 선정법에 좀 더 관심을 나타냄. 맞벌이여부별로는 맞벌이 부모는 온라인으로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0〉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필요성

(단위: 점(5점기준), %)

		부모 교육 필요성	적합한 부모교육 장소						필요한 교육내용				
			가정	어린이 집	주민/ 문화 센터	상담 기관	온라인	직장	적정 이용 시간	과의존 예방· 치료	아동에 미치는 영향	콘텐츠 선정법	유해 사이트 차단
〈전체〉		3.89	4.8	**40.1**	16.6	11.6	24.9	2.0	22.2	18.9	**38.1**	14.4	6.3
성별	남아	3.91	5.1	40.0	20.5	9.7	21.0	3.6	21.5	20.0	38.5	13.8	6.2
	여아	3.86	4.5	40.1	12.9	13.4	28.7	0.5	22.9	17.9	37.8	14.9	6.5
	t/f	*.62*	*X^2= 11.77**						*X^2= .42*				
연령	영아	3.91	1.1	35.6	16.7	14.4	27.8	4.4	23.6	12.4	47.2	14.6	2.2
	유아	3.87	5.6	41.1	16.9	10.6	24.5	1.3	21.9	21.2	35.1	14.2	7.6
	t/f	*.34*	*X^2= 8.11*						*X^2= 8.65*				
과의존 수준	위험군	4.06	11.1	50.0	22.2	13.9	2.8	0.0	36.1	25.0	27.8	8.3	2.8
	일반군	3.87	4.6	39.1	16.0	11.4	26.7	2.3	20.3	18.3	38.6	16.0	6.9
	t/f	*1.26*	*X^2= 12.97**						*X^2= 7.54*				
경제 활동	맞벌이	3.90	4.2	39.4	16.2	10.4	26.6	3.1	18.1	20.5	40.9	16.2	4.2
	외벌이	3.85	5.8	41.3	17.4	13.8	21.7	0.0	29.9	16.1	32.8	10.9	10.2
	t/f	*.54*	*X^2= 6.61*						*X^2= 14.84***				

*p〈.05, **p〈.01, ***p〈.001



〈그림 4-38〉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교육 필요성

❍ (어머니의 심리상태) 최근 한 달 동안 어머니가 경험한 심리상태를 살펴보면, 우울감 측정 문항 중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2.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롭다”고 느낀 경험이 1.71점으로 가장 낮았음. 우울감 총점은 11.54점(24점기준)으로 ‘정상’ 수준으로 나타남(평균 1.92점)

- 성별로 살펴보면, 통계적 차이는 아니었으나 여아보다 남아의 부모가 우울감이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영아보다 유아의 부모에게서 다소 높았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영유아 부모의 우울감이 일반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맞벌이 여부별로 외벌이 가정 어머니가 맞벌이 가정 어머니보다 우울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한편, 어머니의 우울감과 주요 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남편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본인의 이용시간, 자녀의 문제행동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하고, 남편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증가하며, 또한 어머니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1〉 어머니의 심리상태*

(단위: %)

		외로움	기분이 울적함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됨	이유 없이 불안함	일이 뜻대로 안 될 것 같음	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	우울감 (평균)	*t*
〈전체〉		1.71	1.85	1.86	1.63	2.29	2.19	1.92	-
성별	남아	1.73	1.89	1.86	1.65	2.34	2.18	1.94	*.61*
	여아	1.69	1.81	1.86	1.61	2.24	2.21	1.91	
연령	영아	1.61	1.74	1.75	1.51	2.24	2.09	1.83	*-1.80*
	유아	1.73	1.88	1.89	1.66	2.30	2.21	1.95	
과의존 수준	위험군	1.92	2.08	2.08	1.91	2.42	2.39	2.14	*2.49***
	일반군	1.69	1.81	1.82	1.60	2.29	2.21	1.90	
경제 활동	맞벌이	1.63	1.72	1.74	1.56	2.23	2.11	1.83	*-4.50****
	외벌이	1.86	2.10	2.09	1.76	2.39	2.35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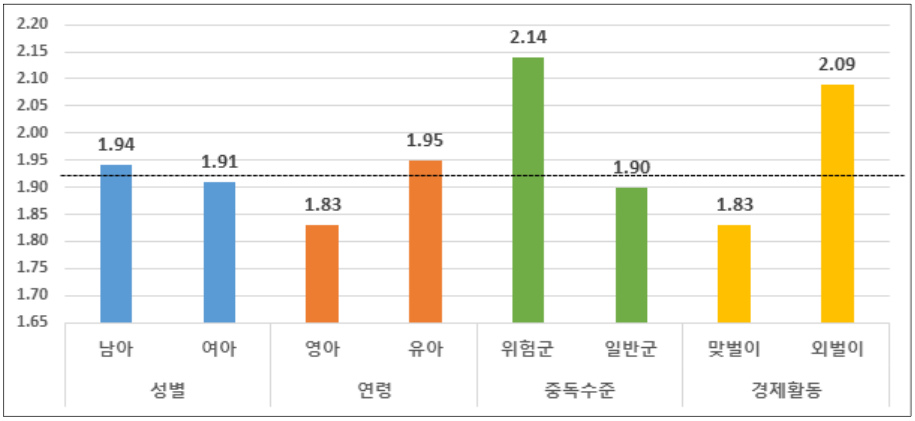
*p<.05, **p<.01, ***p<.001

* ‘어머니의 우울’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함. 이는 Kessler(2002)의 간편형 우울 척도로 리커트 4점척도(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러함 4점)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총점을 기준으로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 19-24은 중도 수준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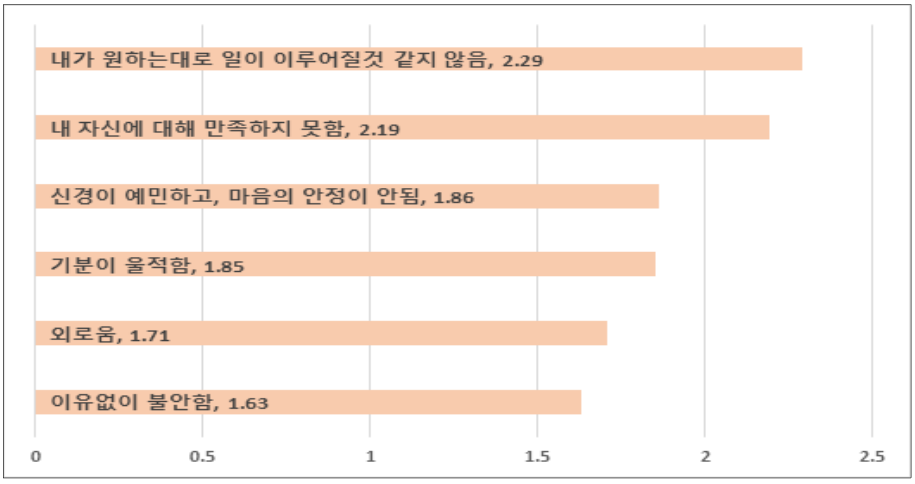
〈표 4-52〉 어머니의 우울감 변수의 상관관계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스마트기기 이용시간(父)	스마트기기 이용시간(母)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수준	자녀의 문제행동
어머니 우울	.009	.243**	.294**	.157**	.24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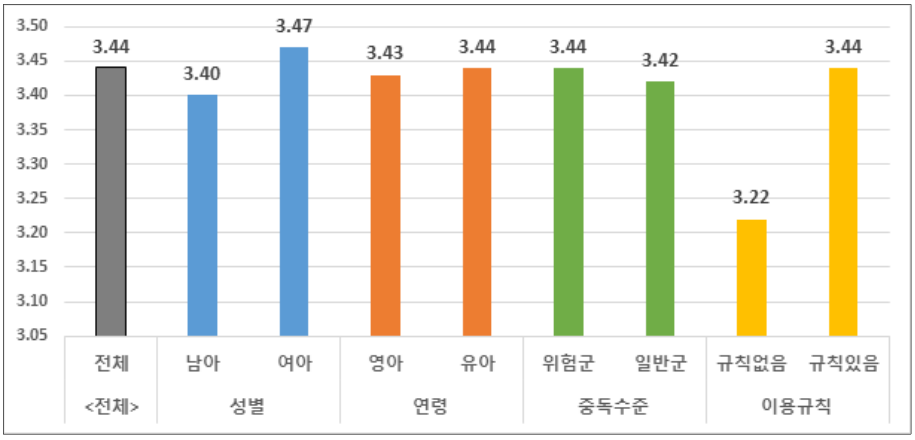
〈그림 4-39〉 어머니의 우울 수준



〈그림 4-40〉 어머니의 우울감 척도(4점 기준)

❍ (미디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3.44점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아니었으나 남아의 어머니보다 여아의 어머니가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영아보다 유아의 어머니가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았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일반군보다 위험군 영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았고, 가정 내 스마트기기 이용규칙 여부별로는 이용규칙을 설정한 어머니의 미디어 부정적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한편, 어머니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주요 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디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및 어머니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변인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미디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은 감소하고, 또한 어머니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1〉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전체)

* 미디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이미정(2013), 김희자(2004), 강금식(2006), 김행숙(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부모 인식 척도로 리커트 5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부정적임을 의미함.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부정적 문항은 리코딩하였음.

〈표 4-5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수의 상관관계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스마트기기 이용시간(父)	스마트기기 이용시간(母)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수준	자녀의 문제행동
미디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213**	-.068	-.195**	-.016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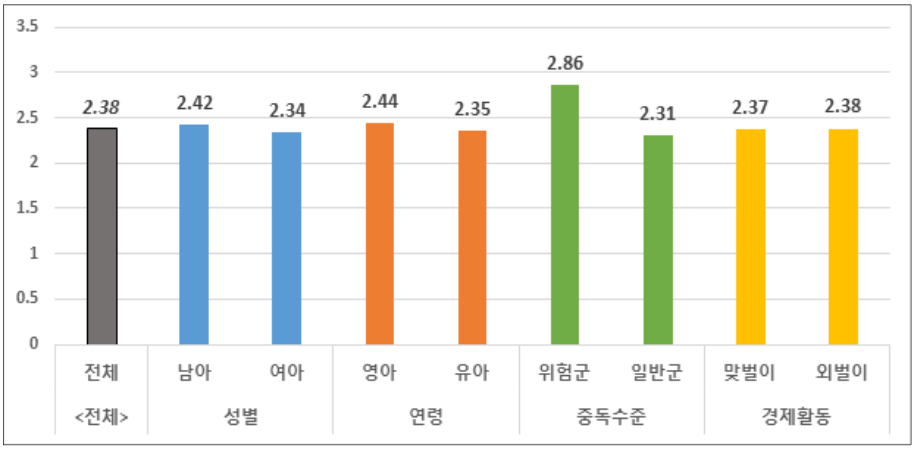
**p<.01

주. 이탤릭체는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리코딩한 문항임.

〈그림 4-42〉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척도(5점 기준)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꼈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2.38점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 차이는 아니었으나 여아보다 남아의 부모가 양육스트레스가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유아보다 영아의 부모에게서 다소 높았음
- 과의존 수준별로는 위험군 영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일반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맞벌이 여부별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주요 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 및 우울감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하고, 또한, 어머니 자신의 우울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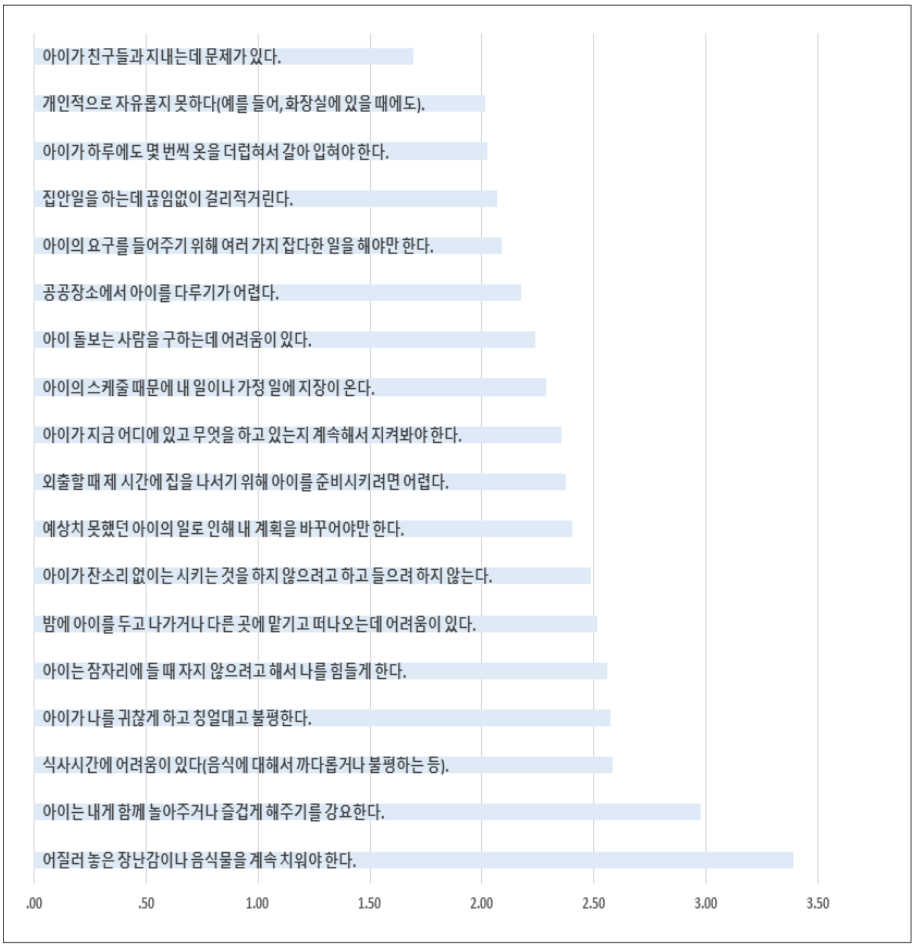
〈그림 4-4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전체)

* 양육스트레스는 K. A. Crnic and M. T.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를 안지영(2000)이 번안한 척도로 리커트 5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한다",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렵다" 등의 총 18문항임.

〈표 4-5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수의 상관관계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스마트기기 이용시간(平)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수준	자녀의 문제행동	어머니 우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074	.080	.365**	.428**	.429**

**p<.01



〈그림 4-4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5점 기준)

❍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어머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4점을 기준으로 온정·격려 3.34점, 한계설정 3.30점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거부·방임 2.32점, 과보호·허용 2.27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온정·격려 행동은 남아보다 여아의 부모의 행동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온정·격려는 영아 부모, 거부·방임은 유아 부모에서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임. '과의존 수준별'로는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은 일반군 영유아 부모, 과보호·허용 및 거부·방임은 위험군 영유아 부모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임
-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주요 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보면, '온정·격려' 행동은 남편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어머니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우울감/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남. '한계설정'은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및 문제행동, 자신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남. '과보호·허용'은 남편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과 부적상관, 자녀의 문제행동, 어머니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이 나타남. '거부·방임'은 남편과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자녀의 문제행동, 자신의 우울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이 나타남

〈표 4-55〉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M	*t*	M	*t*	M	*t*	M	*t*
〈전체〉		3.34	-	3.30	-	2.27	-	2.32	-
성별	남아	3.28	*-2.45***	3.28	*-1.00*	2.26	*-.61*	2.37	*1.77*
	여아	3.40		3.33		2.29		2.27	
연령	영아	3.45	*2.68***	3.25	*-1.18*	2.32	*.83*	2.10	*-4.17****
	유아	3.31		3.32		2.26		2.38	
과의존 수준	위험군	3.06	*-4.07****	3.04	*-3.71****	2.46	*2.13**	2.67	*3.74****
	일반군	3.38		3.34		2.25		2.30	
경제 활동	맞벌이	3.37	*1.80*	3.29	*-.76*	2.25	*-1.31*	2.30	*-.76*
	외벌이	3.29		3.33		2.32		2.3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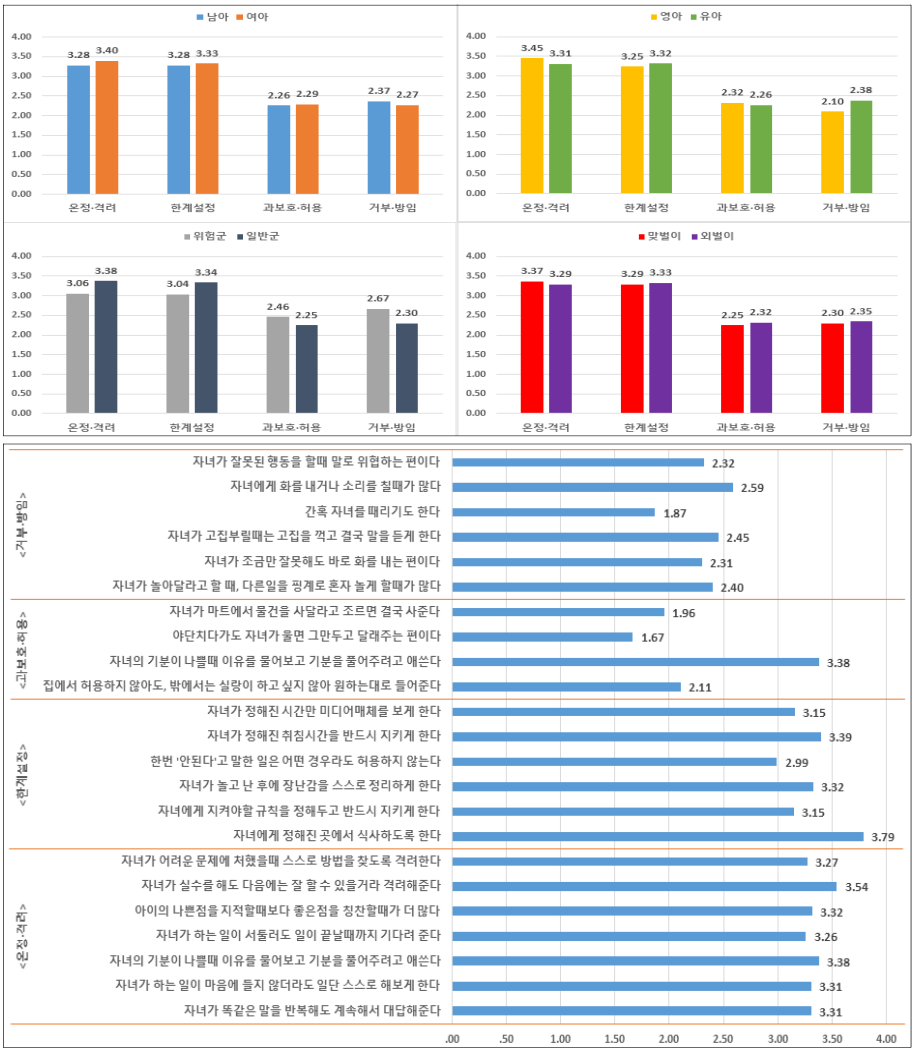
* 「어머니의 양육행동」 문항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을 부모가 평가하도록 박주희(2001)의 어머니 양육행동 관련 질문지를 최윤정(2008)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활용하였음. 척도의 구성은 4항목의 23문항으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음(1점)'~'자주 그러함(4점)'의 리커트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행동 특성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

하위영역	내용
온정·격려	아동에 대한 수용, 애정, 필요한 도움제공,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
한계설정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을 정해 단호히 지키도록 하는 것
과보호·허용	아동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부재를 나타냄
거부·방임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 화를 내거나 체벌을 가하는 행동,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행동

〈표 4-56〉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수의 상관관계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자녀)	스마트기기 이용시간(父)	스마트기기 이용시간(母)	자녀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자녀의 문제행동	어머니 우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온정·격려	-.057	-.188**	-.216**	-.239**	-.243**	-.352**	-.264**
한계설정	-.157**	.071	-.088	-.316**	-.188**	-.115*	-.272**
과보호·허용	.080	-.170**	-.052	.264**	.169**	.035	.308**
거부·방임	.085	.195**	.136*	.194**	.316**	.256**	.297**

*p<.05, **p<.01



〈그림 4-45〉 어머니의 양육행동

〈표 4-5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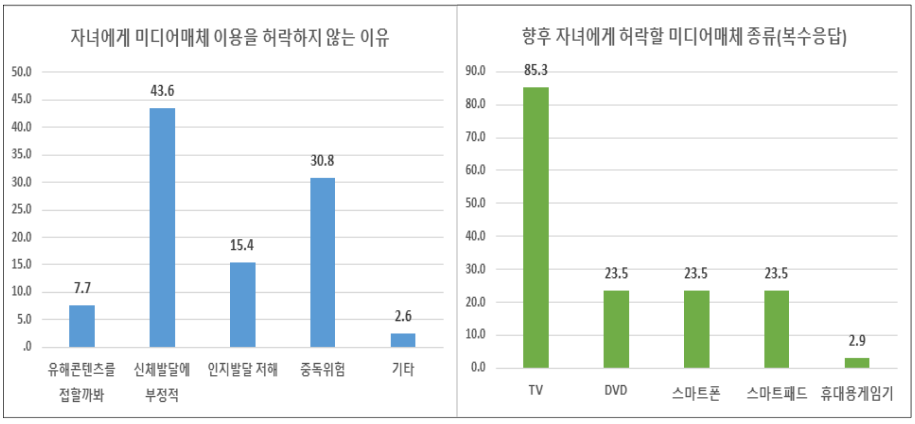
		자녀 TV 최초 시청연령	자녀 TV 이용시간	자녀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연령	자녀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자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자녀 문제행동	母 TV시간	母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父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母의 스마트기 부정적 인식	母 우울감	母 양육스트레스
자녀 TV 이용 시간		-0.09	1										
자녀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 연령		**.504****	0.029	1									
자녀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0.063	**.486****	-0.039	1								
자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0.074	0.108	0.044	**.335****	1							
자녀의 문제행동		-0.028	0.054	0.011	-0.025	**.307****	1						
母 TV 이용 시간		0.09	**.311****	0.033	**.350****	**.139***	0.106	1					
母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0.037	**.333****	0.061	**.255****	0.082	**.170****	**.363****	1				
父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0.01	**.168****	0.039	0.098	0.008	**.179****	**.248****	**.600****	1			
母의 스마트기기 부정적 인식		-0.021	**-.116***	0.011	**-.213****	-0.016	0.065	-0.083	**-.195****	-0.068	1		
母 우울감		0.094	0.056	**.127***	0.009	**.157****	**.240****	**.159****	**.294****	**.243****	-0.08	1	
母 양육스트레스		-0.033	0.035	-0.008	-0.074	**.365****	**.428****	0.057	0.08	0.092	0.067	**.429****	1
母 양육 행동	온정·격려	-0.039	-0.061	-0.038	-0.057	**-.239****	**-.243****	**-.159****	**-.216****	**-.188****	0.06	**-.352****	**-.264****
	한계설정	**.109***	-0.031	**.165****	**-.157****	**-.316****	**-.188****	-0.03	-0.088	0.071	0.086	**-.112***	**-.272****
	과보호·허용	0.019	**.112***	-0.035	0.08	**.264****	**.169****	0.048	-0.052	**-.170****	-0.012	0.035	**.308****
	거부·방임	0.042	0.105	0.107	0.085	**.194****	**.316****	**.170****	**.136***	**.195****	**.111***	**.256****	**.297****

⑤ 미디어(TV·컴퓨터·스마트기기 등) 미 이용 그룹

❍ (미이용 사유) 자녀에게 미디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39명(전체의 9.8%)의 미 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신체발달 저하 우려(43.6%)’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독위험 때문이라는 응답이 30.8%로 높았음

❍ (향후 자녀의 이용 연령) 자녀에게 미디어 노출 시기의 계획은 자녀 연령 7.9세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허용할 미디어 종류와 시간) 자녀에게 이용하게 할 미디어 종류(복수응답)는 TV(85.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DVD/스마트폰/패드 각 23.5% 순이었음. 이용시간은 약 84분(1시간 24분)으로 나타남



〈그림 4-46〉 자녀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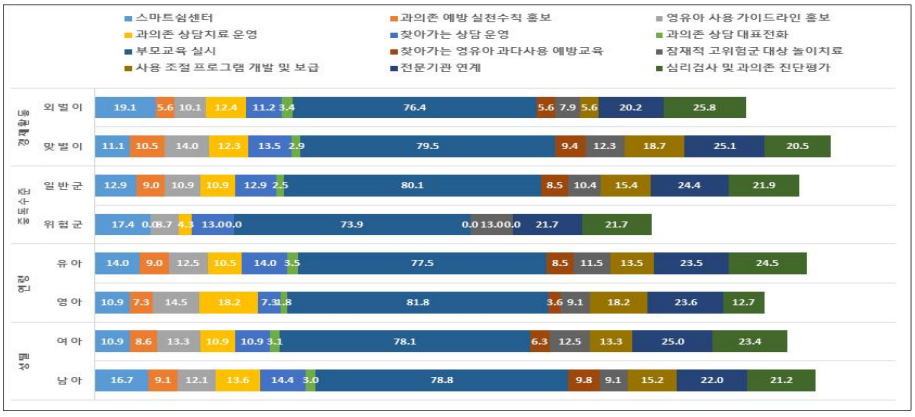
⑥ 자녀의 미디어(TV·컴퓨터·스마트기기 등) 이용에 대한 정책 욕구

❍ (정책 인지도) 미디어 적절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들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실시'가 78.5%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의료·상담기관 연계서비스(23.5%), 심리검사 및 과의존 진단평가(2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각 지원정책 간 인지도 편차가 심한 편임.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인지도를 보면, 맞벌이 여부별로 맞벌이 가정 부모가 정책 인지도 복수응답 누적비율이 229.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과의존 수준별로 위험군 영유아 부모의 경우 1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58〉 미디어 적절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 인지도(복수응답)

(단위: %)

		스마트쉼센터	과의존 예방 수칙 홍보	사용 가이드라인 홍보	과의존 상담 치료 운영	찾아가는 상담	과의존 상담 대표전화	부모교육 실시	찾아가는 예방교육	고위험군 놀이치료	사용 조절 프로그램 보급	전문의료·상담기관 연계	과의존 진단평가
〈전체〉		13.8	8.8	12.7	12.3	12.7	3.1	**78.5**	8.1	10.8	14.2	**23.5**	**22.3**
성별	남아	16.7	9.1	12.1	13.6	14.4	3.0	78.8	9.8	9.1	15.2	22.0	21.2
	여아	10.9	8.6	13.3	10.9	10.9	3.1	78.1	6.3	12.5	13.3	25.0	23.4
연령	영아	10.9	7.3	14.5	18.2	7.3	1.8	81.8	3.6	9.1	18.2	23.6	12.7
	유아	14.0	9.0	12.5	10.5	14.0	3.5	77.5	8.5	11.5	13.5	23.5	24.5
과의존 수준	위험군	17.4	0.0	8.7	4.3	13.0	0.0	73.9	0.0	13.0	0.0	21.7	21.7
	일반군	12.9	9.0	10.9	10.9	12.9	2.5	80.1	8.5	10.4	15.4	24.4	21.9
경제 활동	맞벌이	11.1	10.5	14.0	12.3	13.5	2.9	79.5	9.4	12.3	18.7	25.1	20.5
	외벌이	19.1	5.6	10.1	12.4	11.2	3.4	76.4	5.6	7.9	5.6	20.2	25.8



〈그림 4-47〉 미디어 적절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 인지도(복수응답)

❍ (지원정책 중 효과성 평가) 정부 지원정책 중 미디어 적절 이용 및 부적절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대효과 평가 순위를 종합해보면, '부모교육(19.9%)'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하였음.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 홍보(14.5%), 찾아가는 예방교육(1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9〉 정부 지원정책 중 기대효과 평가(1-2순위)

(단위: %)

		스마트쉼센터	과의존 예방 수칙 홍보	사용 가이드라인 홍보	과의존 상담 치료 운영	찾아가는 상담	과의존 상담 대표 전화	부모 교육 실시	찾아가는 예방 교육	고위험군 놀이 치료	사용 조절 프로그램 보급	전문의료·상담 기관 연계	과의존 진단 평가
〈전체〉		2.7	6.2	**14.5**	5.5	5.6	0.4	19.9	**11.4**	8.8	9.7	5.3	**10.0**
성별	남아	2.4	5.8	14.0	6.2	7.2	0.0	16.6	11.8	9.4	10.8	4.8	10.8
	여아	2.9	6.6	14.9	4.8	4.1	0.8	23.1	11.0	8.1	8.5	5.8	9.3
연령	영아	1.8	6.2	13.2	5.3	3.5	0.0	26.4	12.8	8.8	8.8	4.8	8.4
	유아	3.0	6.1	14.9	5.7	6.1	0.5	17.8	11.0	8.8	10.1	5.5	10.7
과의존 수준	위험군	2.2	10.8	9.7	5.4	5.4	0.0	20.4	14.0	8.6	7.5	5.4	10.8
	일반군	2.7	6.4	14.5	3.9	6.3	0.3	21.6	10.8	9.4	8.6	5.4	10.1
경제활동	맞벌이	2.6	5.4	15.7	3.2	5.4	0.6	18.5	12.2	9.2	11.6	5.2	10.4
	외벌이	2.8	7.8	12.2	9.7	6.1	0.0	22.4	10.0	8.0	6.1	5.5	9.4

주. 종합빈도=[(1순위빈도)*2+(2순위빈도)]/2., '종합빈도' 값을 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비율임.

〈그림 4-48〉 정부 지원정책 중 기대효과 평가(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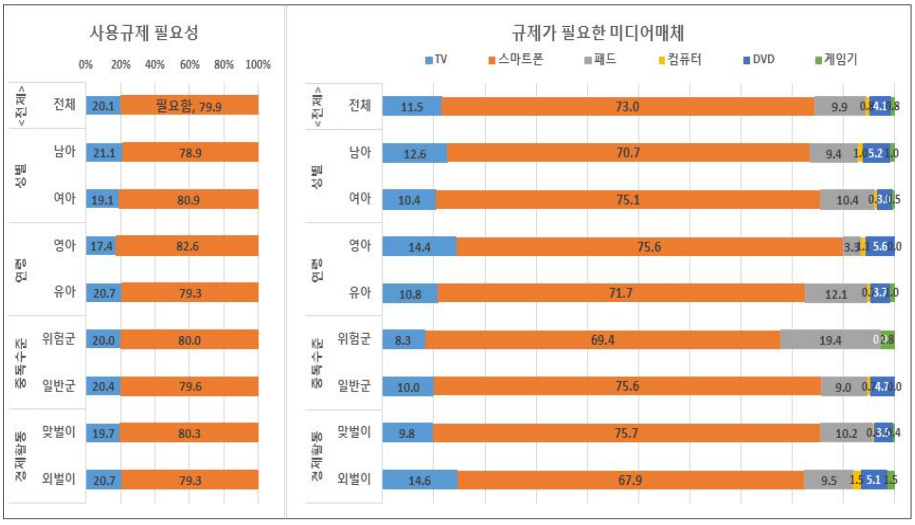
○ (사용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종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79.9%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73.0%가 가장 높았고, TV(11.5%), 스마트패드(9.9%) 등의 순이었음

- TV에 대한 규제는 외벌이가정과 영아, 스마트폰은 맞벌이가정과 영아, 일반군, 스마트패드는 위험군, DVD는 영아, 게임기는 위험군 그룹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4-60〉 사용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종류

(단위: %)

		사용규제 필요성		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필요없음	필요함	TV	스마트폰	패드	컴퓨터	DVD	게임기
〈전체〉		*20.1*	**79.9**	11.5	**73.0**	9.9	0.8	4.1	0.8
성별	남아	*21.1*	78.9	12.6	70.7	9.4	1.0	5.2	1.0
	여아	*19.1*	80.9	10.4	75.1	10.4	0.5	3.0	0.5
연령	영아	*17.4*	82.6	14.4	75.6	3.3	1.1	5.6	0.0
	유아	*20.7*	79.3	10.8	71.7	12.1	0.7	3.7	1.0
과의존 수준	위험군	*20.0*	80.0	8.3	69.4	19.4	0.0	0.0	2.8
	일반군	*20.4*	79.6	10.0	75.6	9.0	0.7	4.7	0.0
경제 활동	맞벌이	*19.7*	80.3	9.8	75.7	10.2	0.4	3.5	0.4
	외벌이	*20.7*	79.3	14.6	67.9	9.5	1.5	5.1	1.5



〈그림 4-49〉 사용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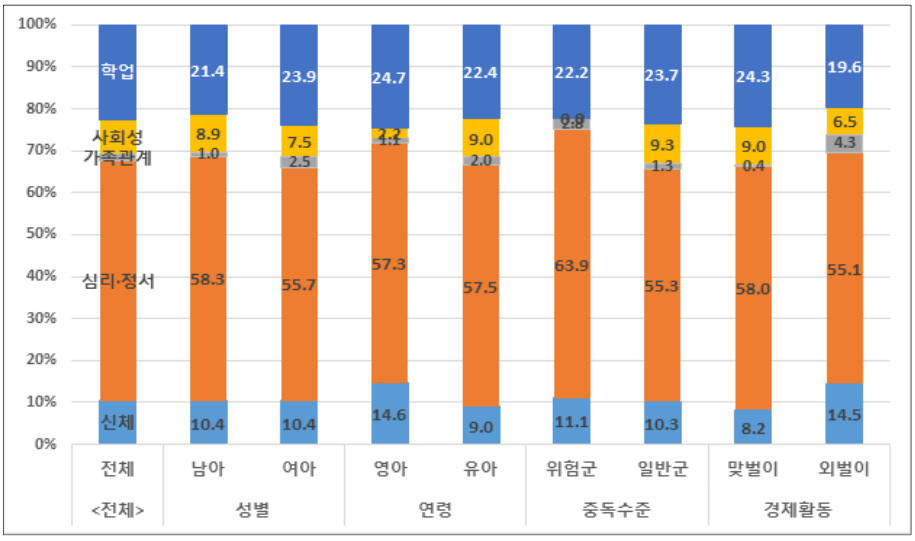
○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 자녀의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걱정되는 영역은 심리·정서발달(57.0%), 학업(22.6%), 신체발달(1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신체발달에 대한 걱정은 영아와 외벌이 가정, 심리·정서발달은 남아와 맞벌이 가정, 가족관계문제는 외벌이 가정, 사회성은 일반군, 학업문제는 영아와 맞벌이 가정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61〉 자녀의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

(단위: %)

		신체발달	심리·정서발달	가족관계	사회성	학업
〈전체〉		10.4	**57.0**	1.8	8.1	**22.6**
성별	남아	10.4	58.3	1.0	8.9	21.4
	여아	10.4	55.7	2.5	7.5	23.9
연령	영아	14.6	57.3	1.1	2.2	24.7
	유아	9.0	57.5	2.0	9.0	22.4
과의존 수준	위험군	11.1	63.9	2.8	0.0	22.2
	일반군	10.3	55.3	1.3	9.3	23.7
경제 활동	맞벌이	8.2	58.0	0.4	9.0	24.3
	외벌이	14.5	55.1	4.3	6.5	19.6



〈그림 4-50〉 자녀의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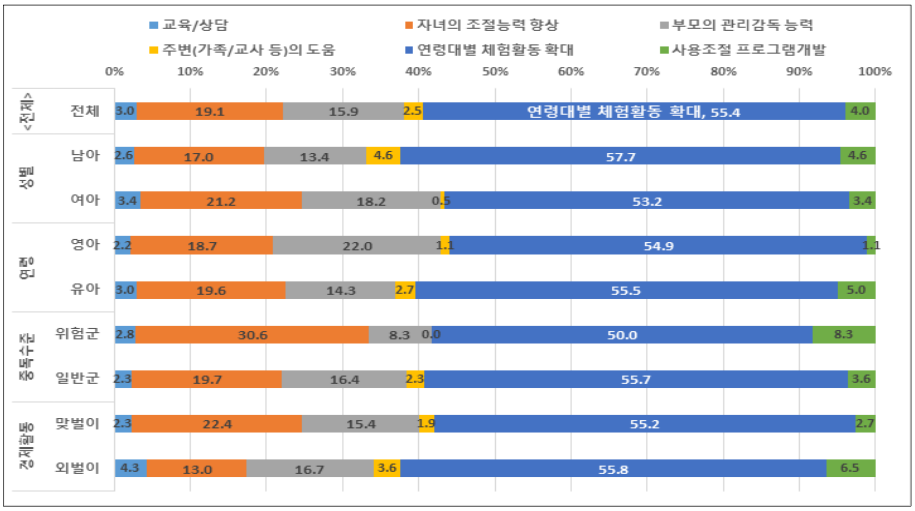
❍ (미디어 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자녀의 연령대별 체험활동 확대(55.4%)'를 가장 많이 선택함. 다음으로 자녀의 조절능력 향상(19.1%), 부모의 관리·감독 능력(15.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상담은 외벌이 가정, 자녀의 조절능력 향상과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은 위험군, 부모의 관리·감독 능력은 영아, 주변의 도움과 체험활동 확대 방안은 남아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62〉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방법

(단위: %)

		교육/상담	자녀의 조절능력 향상	부모의 관리감독 능력	주변(가족/교사 등)의 도움	연령대별 체험활동 확대	사용조절 프로그램개발
〈전체〉		3.0	19.1	15.9	2.5	**55.4**	4.0
성별	남아	2.6	17.0	13.4	4.6	57.7	4.6
	여아	3.4	21.2	18.2	0.5	53.2	3.4
연령	영아	2.2	18.7	22.0	1.1	54.9	1.1
	유아	3.0	19.6	14.3	2.7	55.5	5.0
과의존 수준	위험군	2.8	30.6	8.3	0.0	50.0	8.3
	일반군	2.3	19.7	16.4	2.3	55.7	3.6
경제활동	맞벌이	2.3	22.4	15.4	1.9	55.2	2.7
	외벌이	4.3	13.0	16.7	3.6	55.8	6.5



〈그림 4-51〉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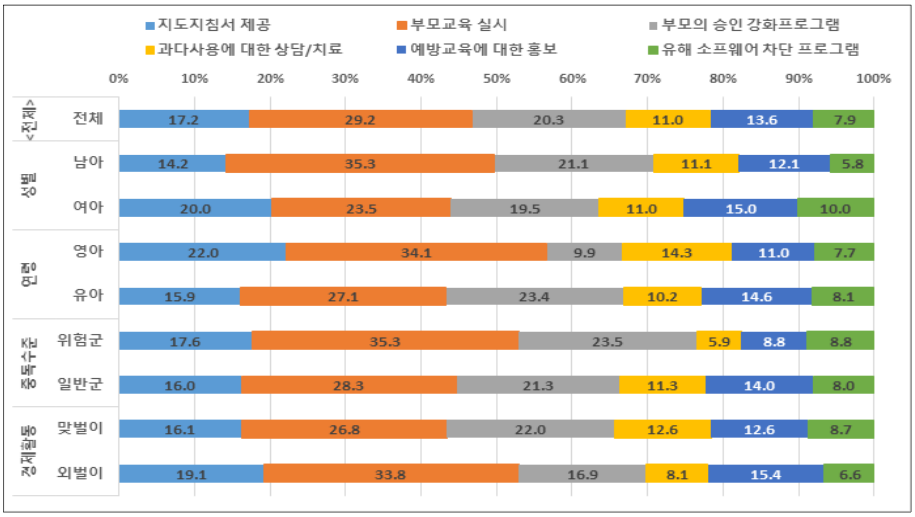
○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자녀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방안으로 29.2%가 '부모교육'이 요구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승인 강화프로그램(20.3%), 이용지침서(17.2%) 제공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음

- 지도지침서가 요구된다는 응답은 영아, 부모교육 실시는 남아 및 위험군, 부모의 승인 강화프로그램은 유아 및 위험군, 과다사용에 대한 치료는 영아, 예방교육 홍보는 외벌이 가정, 유해 소프트웨어 차단은 여아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63〉 자녀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단위: %)

		지도지침서 제공	부모교육 실시	부모의 승인 강화프로그램	과다사용에 대한 상담/치료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	유해 소프트웨어 차단 프로그램
〈전체〉		17.2	**29.2**	**20.3**	11.0	13.6	7.9
성별	남아	14.2	35.3	21.1	11.1	12.1	5.8
	여아	20.0	23.5	19.5	11.0	15.0	10.0
연령	영아	22.0	34.1	9.9	14.3	11.0	7.7
	유아	15.9	27.1	23.4	10.2	14.6	8.1
과의존 수준	위험군	17.6	35.3	23.5	5.9	8.8	8.8
	일반군	16.0	28.3	21.3	11.3	14.0	8.0
경제 활동	맞벌이	16.1	26.8	22.0	12.6	12.6	8.7
	외벌이	19.1	33.8	16.9	8.1	15.4	6.6



〈그림 4-52〉 자녀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제 2절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현장종사자 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면접조사는 영유아 부모와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문가와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우선, 영유아 부모 대상 면접조사는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질문하였고, 설문조사 이외 부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실시함. 다음으로,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실시 이유는 영유아 및 부모를 직접 만나 전문상담 및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상담)전문가와 현장종사자 관점에서 전북 도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과다이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과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음. 둘째로는 기존 인터넷·스마트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 주요 쟁점사항 및 개선안, 그리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했음.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 이용 유도와 과의존 대응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기관인 스마트쉼센터의 주요 현안과 전라북도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2) 면접 대상자와 조사방법

○ 먼저 영유아 부모 대상 면접조사 섭외는 설문조사 시 '면접조사에 참여 하겠다'라고 동의한 부모를 중심으로 섭외함. 섭외 시 영유아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설문조사 시 체크한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체크리스트 점수를 계산하여 일반군과 과의존 위험군(잠재 위험군 + 위험군)으로 구분하여 5명의 부모를 선정하였고, 이외 부모 면접조사 대상자는 영유아 관련 기관과 센터에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전달한 뒤 면접조사에 동의한 영유아 학부모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다음으로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는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직접적으로 만나 교육 · 사업 · 상담 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

자, 스마트쉼센터 실무자·방문상담사·예방교육 강사, 그리고 과의존 관련 전문 상담기관과 병원에서 활동하는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접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이후 면접조사에 동의를 받아 실시함. 특히 스마트쉼센터 방문상담사와 예방교육 강사는 영유아 대상을 중심으로 상담과 교육을 경험한 자를 중심으로 섭외함

○ 조사방법*은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토대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이전에 면접내용을 사전에 고민할 수 있는 여유적 시간을 갖게 해 드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면접시간은 짧게는 40분정도 길게는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면접 장소는 영유아 부모의 경우 자택과 가까운 조용한 카페에서, 현장종사자는 센터 내 상담실이나 회의실에서 진행함

○ 면접조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도 및 면접내용에 대한 녹음과 익명성 보장, 그리고 녹음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설명하였고, 면접조사 기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총 17명을 실시함

3) 분석방법

○ 면접조사의 결과분석은 면접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면접내용을 녹음하였고, 본 연구자가 녹음한 내용을 반복 들으면 전사한 후 전사한 자료, 면접조사 시 필요한 노트를 바탕으로 집단 내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함

4) 면접 조사 내용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재구성함. 먼저, 영유아 부모의 경우 일반적 특성,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현황,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 부모의 개입 실태, 기존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경험·만족도, 정책적 지원 욕구(규제, 법·제도의 필요성) 등을 파악함

---

* 일부 면접조사는 '코로나 19'로 대면 면접조사를 전화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함

❍ 다음으로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과 실태, 부모의 개입정도,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존 지원정책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마지막으로 스마트쉼센터 운영시 경험한 어려움, 개선사항, 그리고 보다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함

〈표 4-64〉 면접조사 내용

구분	영역	질문 내용
영유아 부모	일반적 특성	◦ 자녀 특성변인 - 성별, 연령, 형제순위, 과다사용 정도 등 ◦ 부모 특성변인 - 연령, 맞벌이 유무 등
	영유아자녀 미디어 이용 현황	◦ 영유아 자녀 미디어 이용 현황(주이용 미디어, 최초 노출 시기, 평균 이용 횟수 및 시간, 이용하는 주된 이유와 상황 및 장소, 주이용 콘텐츠 등)
	부모 지도 및 개입 정도	◦ 부모 개입 정도(규칙 유무 등)와 개입 지도 시 어려운 점 ◦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인식
	정책 인지도 및 욕구	◦ 부모교육(예방교육) 경험 유무 및 도움 정도와 필요도 ◦ 기존 정책 인지도, 필요 지원 정책, 법·제도의 필요성 등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일반적 특성	◦ 연령, 담당업무, 담당업무의 근무 경력 등
	영유아 미디어 이용 현황과 부모 개입 정도	◦ 시설 이용 영유아의 이용 실태 및 과의존 정도 ◦ 과의존 영유아와 부모의 특성 및 부모-자녀 관계 특성 ◦ 부모 개입 정도
	정책적 지원 욕구	◦ 현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한계점, 개선 사항 ◦ 현 센터 운영 상 애로사항, 문제점 해결 방안, 필요 지원 부분 ◦ 정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 전북도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적절 이용 유도와 과의존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등

나. 면접조사 분석 결과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 면접조사 참여대상자는 총 17명으로, 영유아 부모 9명,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8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함

❍ 영유아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이 30대 중반으로 나타났으며, 9명의 영유아 중 4명은 군 지역(무주, 순창)에 5명은 시 지역(전주, 정읍)에 거주하였으며, 영유아 연령은 만 1세 1명, 만 3세 4명, 만 4세 2명, 만 5·6세 4명으로 나타남. 9명의 영유아 부모 중 맞벌이인 경우가 4명, 외벌이인 경우가 5명으로 나타남. 영유아 자녀의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종류는 TV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마트폰 순이었음

❍ 영유아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정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시간으로 나타남. 영유아의 미디어 최초 이용 시기는 앉기 시작하는 6개월 무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개월 넘어서가 가장 많았음. 대체적으로 형제순위에 있어서 둘째아이의 경우 첫째아이의 영향을 받아 미디어 노출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현장종사자는 총 8명이였고, 전문가 3명, 현장종사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전문가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으며, 스마트쉼센터 현장 종사자와 어린이집 현직 교사도 상담 및 교사 경력이 대부분 약 10년 이상이면서, 센터 근무경력는 약 5년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쉼센터 현장 종사자는 센터 총괄 운영자에서부터 놀이치료상담사, 가정방문상담 및 예방 교육 강사 등이 참여함

〈표 4-65〉 영유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주요 이용하는 미디어 종류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최초 이용 시기	형제순위 (성별)
1	35세 (여)	만 3세	맞벌이 조부모 양육	TV, 스마트폰 (1시간 이상)	6개월 전 부터	외동 (여아)
2	35세 (여)	만 5세	외벌이	TV, 스마트폰(2시간이상) (3시간 이상)	6개월부터	1남 2녀 둘째(남아)
3	38세 (남)	만 3세	맞벌이/조부모양육 (현 휴직상태)	TV(케이블) (3시간 정도)	12개월 넘어서	외동 (남아)
4	35세 (여)	만4세	외벌이	TV (1시간)	12개월 전 누나 영향 큼	1남 1녀 둘째(남아)
5	37세 (여)	만3세	외벌이	TV (2시간 정도)	12개월 전 언니 영향 큼	자매 둘째(여아)
6	40세 (여)	만5세	외벌이	스마트폰/패드 (1시간30분)	12개월 전부터	1남1녀 둘째(여아)
7	40세 (여)	만6세	외벌이	스마트폰 (2시간)	7개월부터	1남1녀 둘째(남아)
8	35세 여	만1세	맞벌이 (현 육아휴직)	TV, 탭 (약 1시간 정도)	6개월 무렵부터	1남1녀 둘째(남아)
9	42세 여	만5세	맞벌이	TV, 스마트폰 (약 1시간)	6개월 무렵부터	자매 둘째(여아)

〈표 4-66〉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구분	연령(성별)	근무 경력	주요 업무	비고
1	전문가	56세 (남)	원경경력 약 20년	어린이집 총괄 운영	어린이집연합회 운영진
2	전문가	50세 (여)	센터 경력 10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 운영 등	부모교육 및 보육교사 교육 실시 등
3	현장종사자	45세 (여)	보육교사 경력 약 17년	만 2세반 담당 교사	
4	현장종사자	38세 (여)	상담 경력 센터 근무	스마트쉼 센터 총괄 운영 전문상담사	
5	현장종사자	47세(여)	총 상담경력 9년 센터 근무 4년	센터 놀이치료 상담	과거에 가정방문상담 및 예방교육 강사
6	현장종사자	38세 (남)	총 상담경력 11년 센터 근무 5년	스마트쉼 센터 가정방문상담	과거에 예방교육 강사 겸직
7	현장종사자	57세 (여)	총 상담경력 11년 센터 근무 5년	스마트쉼 센터가정방문상담	현재 예방교육 강사 겸직하고 있음
8	전문가	45세 (여)	총 상담경력 17년	전주 모 아동병원 심리상담사 대학교 상담실 상담사 대학교 상담관련 강의	스마트쉼센터 가정방문상담 및 예방교육 강사 겸직

2) 주요 분석결과

○ 부모의 면접조사를 통해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실태와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 부모의 개입 정도, 개입 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살펴봄. 그리고 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 내용을 정리함

○ 영유아와 영유아 학부모를 현장에서 직접 대접하고 미디어 과의존 경향이 있는 영유아와 부모대상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과의존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봄. 또한,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와 부모의 특성 및 부모-자녀간의 관계 특성, 현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와 영유아 미디어 적절 이용과 과의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의견 및 다양한 정책적 욕구들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정리함

(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현황

❒ 면접조사에 참여한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

○ (주이용 미디어 종류) 적어도 3세까지는 TV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케이블방송(투니버스, 카툰 등), 유튜브, EBS정규방송 순으로 나타났고 간혹 유튜브를 TV화면을 통해 시간에 구애 없이 지속 시청하는 경우도 있었음. 4세 이상부터는 TV와 스마트폰을 겸해서 이용하거나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3세까지는 TV시청의 집중도·몰입도가 10분에서 30분 이내로 대체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 TV를 보다가도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의 현상이 나타났으나, 4세부터는 미디어 시청에 대한 몰입도가 높게 나타나 부모가 정한 이용 시간 및 프로그램 시청 개수에 대한 규제와 제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주로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는 관련 콘텐츠가 계속 나오거든요 비슷한게 아이가 직접 보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보기 때문에 딱히 뭘 본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 있더라구요 카툰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투니버스 이런데서 나오는 것(1)

핸드폰은 아직 거의 사용하지 않구요
밖에 나갔을 때 식당이나 이런데서 잠깐 보는 경우이고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구요 아직은요 케이블 TV를 주로 보죠..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요 보고 있죠 (3)

교육방송 EBS 하고 정규방송 되겠죠 케이블 채널하고
오전에는 EBS 교육 방송 보고 오후에는 EBS 보다는 케이블 TV를 주로보고 (5)

TV는 캐이블 방송을 주로 보고 케이블 보다는 핸드폰을 더 많이 이용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위로 오빠가 있어서 핸드폰도 빨리 접하고 오빠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라 하고..
그래서 유치원 다녀와서 저녁때, 혹은 주말에 주로 핸드폰을 많이 보려고 해요

❍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었음. 평일에는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으로 나타남. 주로 어린이집 등원 전 시청과 어린이집 하원 후 저녁에 시청하는 형태를 보임. 보통 어머님이 아침 및 저녁 식사준비 시간에 영유아가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머님들은 보통 하루 평균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미디어의 적정기준 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한편,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평일보다 보통 2배 정도 이상 이용 시간이 증가함

1시간에서 1시간 30-40분 정도, 언니도 같이... 오전에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시청해요.. 그러면 한 번 볼 때는 30분 정도... 보통 어린이집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하고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갈 때.. 점심 때나 저녁 때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저녁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저것 또 해야 되는데
tv를 켜 놈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는 저는 일을하죠

TV 만 하루에 1시간 정도 봐요 ,, 누나랑 같이 주로 봐요... 오전에 한 30분 정도, 오후에 한 30분 정도 봐요

상황 봐서.. 잠깐 시간인 거 같으면 아예 안 틀어 주는 경우가 많구요.. 조금 내가 할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틀어주는 편이죠...
TV는 하루 평균 3시간 혹은 2시간 이정도 보는 것 같아요 수시로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 (주이용 미디어 콘텐츠) 영유아가 많이 보는 미디어 콘텐츠는 EBS 프로그램인 '뽀로로', '타요', '마샤와 곰', '아이쿠', '애코와 친구들' 이외 유튜브 및 케이블에서 제공되는 '엉덩이 탐정', '스폰지 밥', '짱구', '베이비버스', '옥토넛' 등 여러 콘텐츠들을 영유아 자녀 개월별과 상관없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영유아들은 한 종류의 콘텐츠 내용을 반복해서 보기 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찾아 콘텐츠 내용을 바꿔가며 보고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5세 이후부터는 유아는 유튜브에서 장남감 갖고 노는 내용의 콘텐츠, 애완동물 기르기, 먹방, 컵 쌓기, 흔한 남매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들을 계속 변경해가며 시청하고 있었음

주로 EBS 만화요.. 뽀로로, 타요, 아이쿠, 유튜브(카툰, 투니버스)는 관련 콘텐츠가 계속 나와요 ... 그냥 유튜브 좀 보게 놔 두는 게... 케이블 방송에서는 스폰지 밥이나 요새 엉덩이 탐정 그런 걸 위주로 하더라고... 짱구는 저도 봤잖아 별로... 미국 만화나 일본 만화는 아직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는 있긴 하는데

계속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어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뽀로로에서 그 다음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타요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베이비 버스도 한참 봤다가... 베이비버스에서 또 옥토넛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찾으니까.. (1)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을 보는데 남자아이라서 자동차 이런 것들... 타요, 뽀로로 같은 것 봐요

콘텐츠는 ebs에서 나오는 어린이 만화 중심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마샬, 애코와 친구들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흔한남내를 요즘엔 많이 보는 것 같아요.예전에는 집돌이 총각, 허팝을 많이 봤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형이나 장남감 갖고 노는 것 베리.. 유라야 놀자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 (미디어 이용 시작과 마무리 상황) 영유아의 TV 및 스마트폰 시청의 시작은 영유아가 엄마에게 시청해도 되는지를 허락받고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허락받은 후 엄마가 TV를 조작해서 틀어주는 경우와 영유아가 직접 혼자 조작하여 틀어보는 형태로 구분되었음

❍ TV 및 스마트폰 시청의 종료 상황은 엄마와 약속된 시간에 끄는 경우와 약속된 시간이 넘어도 끄지 않으려 떼쓰거나 칭얼거리거나 혹은 가벼운 협박까지 이용하여 제지시키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 이용시간의 제지가 없으면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음

매일 저녁 시간 때.. 아이가 가끔 이야기 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자기 방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긴 해도 보고 싶으면 ' 엄마 TV봐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래' 라고 말하고 제가 직접 켜주기도 하고 저희 집 아이는 TV를 혼자 킬 수가 있어서 혼자 켜서 볼 때도 많아요

특히 밥 먹을 때 티비 꺼!! 밥에 집중 못 하니까.. 식사에 집중 못하니까 끄고 그러면 ... 조금 칭얼대기도 하고 반반인 거 같아요.. 좀 티비 끄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 반 아까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끄는 것 반...

'그만 봐'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어렸을 때는 다섯 여섯 살 때 좀 떼쓰는 것이 있었어요.. 예는 오래 봐요 예는 제제를 해줘야 해요 요새는 좀 커서 그런 가 그만 하자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 이제 그걸 정했어요 약속 하는 시간을 토요일 날 저녁 밥 먹고 잠깐 하도록 그랬더니 잘 지키더라구요

TV 보고 싶을 때 먼저 아이가 와서 TV봐도 되는지 물어보고 저의 허락을 받은 후 TV를 잠깐 보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TV를 볼 때는 제가 주로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 엄마가 이제 그만 보자 하면 바로 끄고 엄마의 말을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 (미디어 이용시간 제한 방법)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10분 혹은 20분으로 짧아서 아이와 2개 혹은 3개를 보고 끄자는 약속을 하고 보거나, 3세 이하일 경우에는 아이의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짧아 자연스럽게 미디어 시청에서 또 다른 놀잇감을 갖고 노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약속을 어기거나 고립부리거나 화내는 경우에는 한 동안 안 보여주거나 리모컨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음

❍ 부모의 인식 속에 미디어 이용의 적정 시간으로 대략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1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음

아이들 프로그램이 짧짧아요 10분에서 20분.. 앞으로 세 개를 더 보고 끄자 아니면 두 개? 혹은 몇 번 더 보고 끌래?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개 보고 끈다. 세 개 보고 끈다 얘기하라고 해서 끄는 편이에요... 그런 약속을 계속 못 지킬 때는 계속 리모컨을 숨기고 있죠.. 숨기고 있으면 다시 볼 수 없다고 그러죠

아이는 아직 그 것을 모르니까.. 제가 인제 그냥 봤을 때 1시간 아니면 인제 못 보게 하려고 하죠..

보다 보면 약속을 한 것을 약간 어기고 싶어라 하는 것도 있고, 또 '끄자'.. 했을 때 약간 고집 부리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 안 보여 준적도 있어요

아이가 집중력이 세지는 않으니까 아이가.. 만화를 틀어놓고도 조금 보다가 길어야 뭐 30분 볼까요? 보고 있다가다도..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럼 티비 끄고 아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다른 데 집중이 쏠렸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죠.. 반 반반인 거 같아요

❍ (향후 스마트폰 사주는 시기)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구입해 주겠다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 후 등 자녀에게 되도록이면 스마트폰과의 접촉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부모도 있었음. 한편 스마트폰을 구입하더라도 통화 기능만 있는 키즈폰이나 스마트폰 자체 내에 유해매체를 차단하는 기능이나 자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기능 등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희망함

스마트폰은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입학 하면 연락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은 큰 아이는 중학교. .중학교 들어가서요.. 4-5-6학년이면... 모르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안 사주고 싶어요

지금 이제 4세 인데... 스마트폰은 저는 예상인데 인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호기능이겠죠.. 저의 입장에서는 보호기능 일 꺼고.. 그런데.. 친구들이 하면 너무 못하게 하지는 않을 꺼예요... 네 주위에 맞춰서 친구들이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란 생각을 해요... 아직은 어린아이를 키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서 최대한 늦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늦게 사주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막연하게 계속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키즈폰 이제 전화 통화만 되는 핸드폰만이나... 스마트폰에 차단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차단기능이나 아이들이 핸드폰을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좋겠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못 쓰게 된다든지? 30분이 지나면 자동 꺼지고... 전화통화만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들을 넣은 스마트폰이라면 조금 걱정을 덜 하면서 아이들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비율 증가

❍ 미디어 및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전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과거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증가 폭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었음

❍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내 인터넷·스마트폰 관련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영유아 자신 스스로, 영유아 부모, 보육 및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의 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높였고, 이로 인해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집단이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영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은 단독 증상을 보이기 보다는 우울, 자폐, ADHD 등 공존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중독이란 것으로 병원(전문상담기관)을 찾기 보다는 공존질환 증상 문제로 전문기관을 찾아와서 스마트폰 중독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예전에는 스마트폰 과몰입이 대부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연령이 중심되었다면, 지금 너무나 빠르게 영유아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유아가 많아져서..
저희가 교육도 다니거든요 예방 강사 교육 다녀보면 한 5~6년 전부터 슬슬 시작하더니
인제 어린이집이 의무교육화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드러나는 거죠. 2018년부터 확실하게 급격히...
잠재되어 있었는데.. 수면아래에 잠재되어 있었는데..이제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현장종사자 박수미)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연령에 있어서 과의존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유아쪽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박경옥)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만으로는 거의 안 오고.. 그것을 증상으로 내놓기는 하나... 그것만 단독으로 상담 오는 경우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공존 질환으로 오고 스마트폰 과의존 플러스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ADHA라던지 자폐 성향 있다 던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영유아가 스마트폰과의존이라고 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왔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스마트폰 없으면 막 떼를 써요 막 이렇게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아이가 스마트폰 과의존인 것 같아서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공존질환이란 이유가 없으면 아마도 안 올 아이들이예요

❒ 최초 노출시기와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형제순위, 조부모가 주양육자(맞벌이)일 경우

❍ 면접에 참여한 영유아들의 미디어 최초 노출 시기는 빠르게는 약 6개월 전부터, 즉 앉기 시작한 시기부터 (동)영상에 노출되었고, 가장 늦게는 12개월을 넘어서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영유아는 돌(만1세) 전에 이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위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미디어 노출이 위의 형제자매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다 어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

❍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영유아 자녀를 주로 양육해주시는 조부모에 의해 부모가 의도했던 미디어 노출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노출되었음. 즉 맞벌이가정 증가로 인해 조부모 양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조부모들의 육체적인 노쇠함으로 인해 쉽게 영유아를 통제할 수 있는 TV/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노출시켰으며, 취업모들도 퇴근 이후 신체적인 피로로 영유아와 신체적 상호작용의 대신 미디어에 쉽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형제자매가 있는 영유아와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해당 개월 수의 영유아보다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시청 빈도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개월 수에 맞지 않은 콘텐츠를 보는 경우도 많았음

❍ 무엇보다 맞벌이의 경우 주 양육자인 조부모가 영유아 자녀에게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어떠한 내용을 노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저하고 있을 때는 핸드폰은 아예 안 봐요 그런데 가끔 할머니가...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니까.. 이제 만화 조금 틀어 주시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100% 다 수용을 해 주시는데.. 체력적으로 놀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가 TV를 켜서 하루 종일 보려고 하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가 할머니랑 있을 때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항상 켜 있어요.. 제가 일을 하니까.. 아이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할머니라.. 어쩔 수 없이..

누나랑 같이 보니까 애가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TV도 보게 된 것 같고.. 또 다른 개월 수 아이들보다 많이, 또 누나가 보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연령대별로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둘째애라 그런지 그런 면에서는 다른 개월 수 아이들보다 빠르죠...노출이...

저도 가끔 이제.. 뭐.. 지금도 처형한테 맡겼고 .. 처형한테 맡기고 오고 장모님 아님 저희 어머님한테 맡길 때 보면
TV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부모가 아닌 이상은 TV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힘드니까.. TV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첫째로 .. 부모가 알지 못하는 시청 시간이 또 있다는 것이 짧아요

위로 언니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앉기 시작할 때부터 같이 본 것 같아요... 앉기 전부터 언니는 봤으니까.. 그 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구요..

저는 아이 낳고도 일을 계속해서 아이를 점보 의자에 앉힐 수 있을 때 아마 6개월 전부터 본 거 같아요... 같이 일하러 나왔거든요 사무실에 ...아이에게 집중을 못 하니까 조금 틀어 줬어요.... 잠깐은 봤으니까.. 안 좋죠.... .사무실에 나왔을 때에는 9시간 근무를 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한... 6시간 정도 틀어줬다면.... 제가 만약 일을 않하고 집에 있었으면 뭐 30분 그 정도나 봤을까요? 그래도 일안하고 집에 있었어도 보여는 줬을 것 같아요

❒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 · 부모의 특성과 부모-자녀관계 특성

❍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의 특성)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는 영유아가 미디어를 보고 싶을 때 부모가 안 보여 주면, 떼쓰고, 보채고, 안절부절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언어적인 면·행동적인 면에서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며, 약속된 이용 시간에 대한 잦은 조절실패 등 미디어 이용 종료에 대한 제지가 잘 안 되고 사람간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성장발달과 연계되어 발달지연이 발생함. 특히 언어발달 지연이 도드라짐. 언어가 늦게 트이거나 말을 잘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 다양한 오감 자극과 사람과의 상호작용들이 영유아들에게 있어야 하나,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간접적인 시·청각 자극만 일방적으로 받기 때문에 언어적 발달 지연이 도드라지고 있음

❍ 미디어 과의존은 공존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데, 공존 질환으로는 소아 우울, 공격성, 자폐성향, ADHD 및 향후 취학해서는 학교중단,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은둔이란 행동 문제로 표출되기도 함

❍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도 나타남. 대체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가 과의존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여아일 경우에는 엄마하고 정서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서적인 문제가 문제 행동인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남아일 경우에는 남아의 특성이기도 한 공격적인 자극들을 선호하고 강한 자극을 지속 추구하며 자극들이 빠르게 바뀌는 것들을 좋아하며 영상에서 봤던 것들을 또 재현하는 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음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는 조카가 있는데.. 애들이 하고 싶은 걸로 못 골라요 애가 안절 부절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순한 아이가 과격해지고, 언어적인 면, 행동적인 면, 과격해지고 말이거칠어져요
총을 쏘거나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여서 말도 거칠어지고 성질도 안 좋아지더라구요

스마트폰 중독이라 함은 자기조절 같은 게 힘들다는 것. 자기조절 같은 게 좀 힘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친구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 같은게 중요한데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조금 외톨이처럼 동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제지가 안 되는 아이들... 자기가 그거를 보고 싶을 때 부모가 안 주면 제지가 안 되는게.. 과잉행동 하는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오죠 .. 소아 우울도 아이들이 스마트기기 조금 몰입될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제.. 큰 문제는 인제... 우리는 무력감이니까

스마트폰 중독으로만은 거의 안 오고.. 그 것을 증상으로 내놓기는 하나
그것만 단독으로 상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 우울, 자폐 등 겸해서 공존장애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존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 공존질환으로 오고 스마트폰 과의존 +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ADHA라던지 자폐성향 있다 던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은 스마트폰만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모든 상담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존장애가 거의 대부분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adhd가 가장 많고 등등

어떤 경우는 심각한 경우에는 정말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은둔.. 문 닫고 나오지도 않고

미디어 많이 본 친구들이,,, 발달지연이 너무 많아요 ... 우선은 이제 요즘에 언어치료 받는 아이들이 많짢아요
언어가 늦게 트이거나 잘 안되거나 부정확하거나 미디어 영향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인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 다음에 자극.... 자극이 더디면 아이들 발달이 지연이 되잖아요 다양한 자극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일상으로 했던 자극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계속 노력을 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발달지연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는 아이들이 발달지연이 좀 많은 것 같다 특히 언어 측면에서 이런 게 도드라지고 있고

일단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 이상을 하는 거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내가 그만 해야겠다고 아는데 그 그게 안 되는 거죠 조절이
그리고 인제 뭔가 이 아이들이 과의존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학교를 안 가거나
부모와 다툼이나 몸싸움이 있거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그러면 가장 안좋은게 분노조절, 공격적

저는 남아가 많다고 보여 지고 대체적으로 여아는 정서적인 문제로 좀 오는 것 같구요.. 결국은 이제 뭐 과몰입이다 해서 왔지만 저희가 인제 아이들하고 치료해 보고 양육태도 살펴보면
엄마하고 인제 정서적인 교류가 조금 뭔가 어긋나서 아이가 문제행동이 나오는 것 같구요
남아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쉽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남아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 친구들 자체가 그런 액션 크게 변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자극이 바뀌고 공격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디어 노출이 많아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그 강한자극 때문에 약한 자극이 들어오지도 않고 점점 강한 자극만 추구하고 그렇죠 강한 자극만 원하고 노래에서도 계속 그 스마트폰에서 보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봤던 것들을 재현하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구요 남아들이

❍ (부모 및 가정환경 특성) 맞벌이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영유아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기 보다는 스마트폰 등으로 상호작용과 양육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또한, 취업모 대신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가 영유아기 미디어 조기노출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적 노쇠 등의 이유로 영유아 손자녀를 쉽게 통제하고 돌보기 위해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음

❍ 둘째, 부모 자신 또한 지나치게 미디어 및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고, 영유아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등 관심을 두지 않거나 자녀에 관심 없고,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경우에 자녀들이 높은 과의존 경향을 보임

❍ 셋째, 부모가 올바른 자녀양육 방식과 행동을 잘 모르거나 자녀와 어떠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자녀 성장 발달별 어떠한 놀이를 해줘야 되는지 등에 무지한 경우 자녀 양육을 미디어를 활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양육함. 미디어 이용에 대한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나 부모의 적절한 지도·관리가 부재한 경우에도 영유아의 미디어 과다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미디어 노출과 이용으로부터 영유아 자녀를 관리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주 양육자가 없는 가정환경인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과의존 성향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주 양육자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영유아 자녀가 미디어 과의존 성향을 보임

❍ 즉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집단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및 주 양육자(부모와 조부모)의 미디어 과다이용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한 경우에 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부재,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지도가 부재할수록 높게 나타남

그런 가정들을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한테 관심을 안 주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가정들도 꽤 많아요
혹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들 사이에서 부모님이 너무 기대가 크다거나
너무 바쁘시다거나..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니면..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가 자기 욕구 충족을 너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할머니들이 키우시던지.. 미디어 노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전현 없는 할머니들이들이 키우시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아이들의 환경인데... 아이들을 통제 해줄만한 양육자가 거의 없어요

할머니하고 살거나 삼촌하고 살거나 아이들끼리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
부모님이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통제나 이런 것도 좀 해주면 그래도 아이들은 그 통제 때문에 좀 덜한 요인이 있는데
그런 주변에 환경들이 통제자도 없고 양육환경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일단은 부모님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았고요 조손가정에 많았고
한부모 가족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았고
일단 부모님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와 건강한 양육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엄마가 맞벌이 이거나 그래서 집에 오면 너무 에너지가 없는데 얘가 계속 놀아달라고 칭얼대거나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의 맞벌이 이외
그 다음에 엄마가 너무 우울해.. 기운이 없어... 불안해...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쉽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또 허용해준다 하던가... 뭐 떼쓰기 행동이나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힘들면 엄마 그래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한다던가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가 아이의 떼쓰기를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기분좋을 때는 주고 엄마가 정신차렸을 때는 아니야.. 어디서 교육 받았을 때 줘서는 안 된다는 비일관적인 태도...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엄마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시끄러우니까 주고 그래 너 놀아라 하고 주고

보통 아이들이 과의존 하고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보통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만큼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노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줄여라 하지만
왜 엄마 아빠는 하는데 왜 나만 줄어야 되는지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2)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개입정도

❒ 영유아기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의 핵심은 부모다

○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영유아기는 외부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 및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미숙하기에 영유아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 의사에 의해 미디어가 노출·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즉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개입 없이는 미디어 노출 시기와 이용 및 빈도 등에 있어서 영유아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집착이 강해질 수 있음

○ 즉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과 이용 정도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 결정되며. 이용 정도의 수준은 부모가 갖고 있는 미디어 관련 인식정도와 양육행동 및 중재적 역할 정도에 의해 상의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80% 이상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영유아기 때가 보다 부모의 영양이 큰 것 같아요
참.. 부모.. 그래서 부모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0세에서 6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보통 엄마 거나 아빠 것을 갖다 보는 거고
엄마나 아빠가 언제 어떤 나름의 규칙이나 제한이 없으면 일인데 더 노출이 되고
그래서 때를 쓰게 되는 거고 됐으니깐 주게 되고 그 아이는 주요 변수가 부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유아는 확실히 있을 거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고 안 주고에 어떤 그런 상황에 결정을
엄마에게 심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훨신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강조하는 게.... 애들은 문제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다 .. 이렇게 얘기 항상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0-6세 아이들은 자기가 처음에 원해서 핸드폰을 .. 누군가에 의해서 핸드폰을 처음 보게 되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계속 이것을 몰입하게 되죠 부모의 적절한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0-6세 아이들의 과의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
부모가 스마트폰을 주지않는 것.. 아이들에게 .. 0-6세 아이들인 경우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미디어에 대한 부모 인식 정도에 따라 노출·허용 정도의 차 발생

○ 영유아 자녀에 대한 미디어 노출 정도는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부모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허용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남. 미디어에 대해 부정적이고 역

기능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는 미디어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 및 통제가 강하고,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도 최대한 늦추고자 했음. 반면, 미디어 이용에 대해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크고, 향후 4차 혁명 시대와 연계시켜 자녀 일상생활에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이용에 대해 그 허용도가 높게 나타남. 또한, 미디어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부모와 교사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영어 및 한글을 미디어를 이용해 학습시키는 등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조카들만 봐도 언어발달, 시력 저하, 폭력적 행동, 등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져서...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일찍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새 뭐 학습지도 북 패드로 하는데 그것도 솔찍히 걱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종이로 학습지로 하는 그런 거에 종이에 인쇄물로 된 공부가 재미없어 질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흥미가 떨어질까 봐
시대가 변하기는 하는데 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늦게 접촉할 수 있도록 자제시키는 ... 스마트폰이랑 좀 늦게 사주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장시간 푹 빠져서 하는 부분들은 이게 좀 좋지 않은 역기능의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실은 부모가 잘 알고 있고 잘 이용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교사보다 쉽게 더 자세히 알려주는 동영상은 좋았더라 같이 이야기해주고 대화가 오고간다고 하면.. 나쁘다고만은 생각이 안들어요 어린이집 교사가 저렇게 재미나게 잘 할 수 있을까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이 눈높이에서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해주나?
아이들이 쉽게 느끼고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이 있어요..

티비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TV 만보고 있으면 확실히 빠져 있어요 애가
확실히 빠져 있는 것이 눈에 팍 보이니까 ...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 그런게 좀 차단이 되니까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구요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TV에서 이제 좋게 표현하면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TV를 바보상자라고 그러짢아요... 뇌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그리고 체감이나 오감 등이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화면으로만 접하니까 수동적이 되는 것 등이 우려되고 걱정되어서...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보여주기고 그렇고 또 보여주기도 그렇고 고민이 많죠...큰 아이가 핸드폰 갖고 싶다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서... 최대한 늦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늦게 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막연하게 계속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 키즈폰 이제 전화 통화만 되는 핸드폰만 사 줄 건지... 진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줄 건지...

부모가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해 스스로도 위험성을 알고 좀 제한을 했던 부모들은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일관적이지 않고 어떤 때는 하라고 줘버리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확 걷어버리고 했던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즉 부모님들의 비일관적인 경우의 아이들이 과의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상황에 따라 좀 막 바뀌잖아요 애들은 또 혼란스럽거든요 쉽게 영향 받더라고요

❍ 부모의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자녀(영유아)의 미디어기기 이용 형태(시간, 빈도, 활용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부모가 미디어의 용도와 내용을 잘 알고, 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영유아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효과로 나타나나 영유아 자녀에게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생각이었음

❒ (집안)일하기와 쉼(여유), 통제 등을 위해 미디어를 양육도구로 사용

❍ 영유아 자녀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주요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피곤함을 달래고 휴식과 여유를 갖고자 할 때로 나타남. 즉 식사 준비 시, 나름의 휴식과 자녀양육 부담 해소 및 자녀와 떨어져 부모 본인의 시간적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미디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또한, 공공장소에서 편히 식사하기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경우 상대방과 편히 이야기하거나 자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회사 및 자영업 일하기 위해 미디어를 영유아 자녀에게 노출시키는 경우, 조부모가 영유아 손자녀 양육 시에도 미디어가 제2의 양육자 역할을 하거나 양육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 연령..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식당.. 집에서 아이에게 폰 보여주고.. 내 할 일 하고.. 부모가 조금 좀.. 노력

현재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주양육자들이 아이들을 양육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뭐 아이들 스마트폰 이용하는 거를 잘 조절을 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못 하시고... 오히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노출을 시키시다 보니까... 당신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다문화 엄마랑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애기가 하나 따왔어.. 12개월 조금 지난 아이인데 밥 먹는 시간 1시간 이상을 계속 틀어 놓고 뽀로로 뽕뽕이 뽕뽕이 계속 보여 주는데 엄마가 잠깐 껐어 그 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시간 그대로 계속 집중해서 봐요

❒ 미디어 이용에 대한 아버지 변인 및 기타 대상과도 합의 필요

❍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영유아 자녀에 대한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양육행동이 부와 모가 서로 상이하여 나타나는 곤란한 상황도 유발되곤 함. 어머니는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노출과 이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아버지는 자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미디어를 이용한 양육이 편하고 쉽다는 점을 이용해 어머니 몰래 혹은 부모가 서로 합의되지 않은 범위를 넘어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었음

❍ 주 양육자가 규정한 영유아자녀의 미디어 노출·이용 제한을 아버지 이외 조부모와 어린이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음. 무엇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등원 직후 혹은 하원 직전에 아이들을 모아 놓고 집단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황당함과 주 양육자의 미디어 이용관련 규범의 틀이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 시설에 의해 흐트러진 경험 사례가 있었음. 이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미디어 노출과 이용에 대한 규제나 방침 등이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어져야 함을 토로함

나는 별로 안 보여 주려고 하고 ... 그런데.. 주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이 보여줘서 애기 아빠가 아이들 보다 보면 힘이 드니까 동영상들을 보여줘서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전에 이제 맡겨놓고 제가 일을 하러 간 경우.. 그런 경우 좀 몇 시간 동안 동영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는 걸 좋아했어요 ..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아이랑 놀 수 있는 어떤 놀이방법이나.. 뭐 그런 것을 몰라서 ...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제지를 안 하면 끝까지 할 때도 있어요... 집안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 또 이제 제가 없고 아빠랑 있으면 아빠가 몰래 줘요 .. 엄마인 저 몰래.... 아이 보기 힘드니까 아빠가.. 그럴 때...

저희 와이프는 자기도 스마트폰을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애가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애도 좀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같이 있는 시간에는 아이가 확실히 보는 시간이 적어요 .... 애가 TV보는 하는 시간이 확실히 적어요 와이프가 통제를 하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고서 저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니까... 와이프는 조금 못 하게 하려고 하죠

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알았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집에서는 노출시킨 적도 없는데..... 뽀로로 등... 어린이집에서 애가 보고 와요.. 그래서 알더라구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규제의 나왔던 규칙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 그냥 아이들을 대신 봐지는 그런 효과로 TV 프로그램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 미디어 과다이용임에 대한 인식과 과다이용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저조

❍ 면접에 참여한 부모 뿐 아니라 과의존 의심증세로 전북스마트쉼센터와 전문상담기관·병원을 찾아온 영유아 부모 모두 자신의 자녀가 미디어를 장시간 이용하고 있거나 미디어 과의존 성향이 있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문가 및 상담가들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문제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각성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음. 즉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부모들의 양육 편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러니까란 안일한 생각 등 미디어 이용이 하나의 일상 문화로 받아들여져 부모는 영유아기 자녀에게 미디어 노출과 이용을 자주 허용하고 있음. 또 부모의 업무와 활동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양육수단으로도 미디어 노출이 행해지고 있는 반면, 부모는 미디어 장시간 이용에 대한 유해함과 위험성 및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저조했음

❍ 부모의 영유아기 미디어 노출과 이용에 대한 관대함은 미디어 과다이용 시 나타나는 부정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각성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이며 저조한 인식은 영유아기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탓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영유아기 미디어 건전 이용지도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된 영유아 대상 전문상담 및 치료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사실 영유아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우리 애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느끼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애가 아직도 어린데 어린애가 스마트폰을 봐야 얼마나 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크면서 좀 못 보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영유아기 때에는 부모가 잘 못느낄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상담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부모가 별로 그걸 많이 느낄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과의존상태다 라는 것을 부모가 파악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 우리애가 보면 얼마나 보겠어.. 크면서 조금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관심 있는 사람 ..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나쁜 행태.. 사례를 봤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내심 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조금 관심이 있는 정도가 있긴 한데.... 대부분 부모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겠지.. 아직도 어린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스마트폰 세대 짤아요.. 키우는 어머님들이...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보고 .. 자주 보는 세대들이짤아요.. 30대 초반...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영유아는 뇌가 성장하는 시기인데.. 좀 감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간간히
특히나 저소득층은 더 그러구요 본인도 그냥 그거를 늘상 하니까..뭐 애들도 그냥 늘상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조금 홍보로 널리 전파해서 인식개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문제를 좀 인식을 하시고 평소에 어떻게 자기 자신도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용 하는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문제는..

과다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는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약간 문화로 받아들인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모님은 많이 떨어져요 다른 아이들도 다 하니가.. 이런 인식이여서... 그게 문제죠

❒ 영유아자녀 미디어 이용법에 대해 부모도 도움이 필요함

❍ 영유아 부모도 별도로 영유아자녀 미디어 적절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 없었고,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등을 받아본 경우도 대부분 없었음

❍ 부모들 또한 자녀의 개월 수와 연령대별에 맞는 미디어 적정 사용시간·콘텐츠 선별, 활용방법 등을 잘 모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안내와 지침 활용법 등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했음. 더 나아가 바람직한 부모역할, 미디어 이용 통제 및 중재역할법 등 영유아 자녀 적정 미디어 이용을 위한 부모의 지도 역량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이용하게 하는 것 대신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체놀이 종류, 방법, 공간 등 다양한 놀이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도움도 필요로 했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체험하고 신체적으로 오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등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요구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미디어 적절이용 관련 부모교육이나 안내문 등은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맞벌이여서 부모교육 참석은 좀 힘들지만.. 건전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아이옆에서 무엇을 지도해주면 좋은지 등 관련 내용들을 전달해 주면 참고가 되지요
그리고 놀아주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바쁘니까.. 많은 시간 내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랑 놀 수 있는 어떤 놀이방법이나.. 뭐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 보여줘도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가 무엇이고 보다 교육적인 것은 무엇이고 보다 건전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유아기 때부터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저도 많이 하게 되요
미디어 이용시간 조절방법, 통제하고 관리하는 노하우,, 아이 연령대별로,,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지만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큰 츨에서 놀이 문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관이나 프로그램 공원 조성 등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미디어를 보는 것 대신에 공원에 놀러 가고 이런 거는 안전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차도 별로 없고 위험한 것도 별로 없고..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생화 등등..

(3) 정책 인지도 및 욕구

❒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의 교육참여 제고

❍ 영유아기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유아 부모는 물론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부모교육'이라고 지적함

❍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은 영유아 스스로 조절능력이 없기에 부모가 자녀 옆에서 관리해주고 통제해 주어야 하며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환경도 조성해 주어야 함

❍ 한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북스마트쉼센터를 통한 부모교육 전문강사 파견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부모 모집부터가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부모교육

에 참여하는 부모는 의외로 적다는 것에 전문가와 현장종사자들은 심각성을 갖고 있었음. 영유아 부모들은 미디어 노출 및 이용에 대해 갈망하기는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부모교육 받는 것이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았음을 나타냄

❍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까지 부모교육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경력과 강의를 잘하는 강사 섭외 및 작은 이벤트와 함께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제고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부모교육 참여가 힘든 부모 대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디어 적절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공지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교육에 대한 것을 갈망하기는 하지만..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교육 받는 것이 어려운 부모들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영유아 때부터 이게 중독이 돼 가는게 현실화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영유아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실은 스스로 조절하기는 어렵잖아요

부모교육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 초등학교 등 다른 교육도 해보고 하면 부모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부모교육이 있습니다하면 부모 모집이 잘 안되더라구요
부모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규제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미디어를 양육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교육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문제를 좀 인식을 하시고 평소에 어떻게 자기 자신도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용 하는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부모들이 관심은 많지만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모교육 자체를 실시할 수 있는 이.. 선생들 되게 일단 귀찮아하고 그리고 부모 모이라고 하면은 한 10명 모이나 많이 보이면 12명 모이는 거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은 좋긴 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의 엄마들 대부분은
또 저녁에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녁에 교육을 원하면 아이들 맡기고 나와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부모교육이 잘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안 되죠
낮에 하면 집에 있는 엄마들이 나올 수 있지만 유치원에서 교육을 또 못 하고 교육을 실시해도 잘 안나온다. 교육참여가 저조하다.. 근데 그 스마트쉼센터에서는 저녁 교육이나 주말 교육은 없는 거예요
저녁교육도 있는데 주말교육은 거의 원하지 않아요 원에서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고 싶겠어요

❒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의 중요성 및 반복 교육 필요

❍ 예방교육 강사와 전문상담사에 의하면, 영유아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은 매우 효과가 좋다고 나타냄. 영유아기 뇌는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는 면에서 강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미디어를 적절 이용해야 한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고 지적함

❍ 한편, 예방교육 강사는 대상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 내용 전달, 영유아와 질문과 답변 및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정 인원은 20-30명 정도라고 지적함. 적어도 예방교육 시 최대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만 영유아에게 콘텐츠를 보여주고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고 토로함

❍ 영유아 시기에는 1년에 1회로 끝나는 예방교육 보다는 반복적 교육이 더 효과적이고, 2-4세까지는 5-7세와는 받아들이는 것과 집중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령을 혼합하여 예방교육 진행 시 2-4세까지 교육을 함께 하고, 5-7세를 함께 할 것을 권장함. 그리고 되도록이면 동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제안함

영유아 대상 미디어 예방교육은 효과가 좋다고 봐요.. 가장 효과가 좋고
영유아 아이들은 굉장히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막 인제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도 더 많이 안 봐요 이렇게 하면서 안 볼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효과는 아주 좋다고 봐요 저는

아무래도 인제 그 의료교육이고 많은 인원들에게 교육을 해야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은 좀 받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거 같더라고요 예산 관련된 문제가 좀 걸려서... 보통 인원이 한 2-30명 최대의 40명 뭐 이렇게 되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해 가면서 이렇게 답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7-80명 100명 넘으면 힘들잖아요 ... 그 아이들을 아무리 그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면 서로가 손을 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아이들한테 답변을 들을 려고 하나 그게 인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인원은 많지 않은 게 조금 너무 적은 것도 그렇지만 한 2-30명, 3-40면 그 정도면...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좋고 조금 전에 봤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가면 4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동시에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4세는 조금 너무 어리니까 5 6 7세를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는 데도 있고 조금 차별적인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은 보통 보면 ... 확실히 5세부터는 조금 받아들이는게 저희가 콘텐츠가 애니메이션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 또 막 동화구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집중하는게 4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어려워서 .. 4세부터 6-7세까지 한 꺼번에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반복교육을 하지 않으면 조금 쉽지는 않지요.. 반복교육 ... 한데 년에 1회 이상 못하죠 그것도 다 못 하죠

스마트폰과의존이 한 번 1회 교육으로 과연 효과가 있나 그부분에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을 1회, 단 회가지고 효과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반복으로 어느 정도 주기를 주고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단을 하던지 아니면 그래요 ...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하던지 이렇게

❒ 전북지역 내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 · 치료 환경 취약

❍ 전북지역 내 미디어 과의존 관련 영유아 대상 전문적인 상담 · 치료 인프라와 인력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영유아 대상 관련 정책 및 사업 또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남

❍ 만 9세인 초등3년부터는 14개 전북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이 가능하지만, 만0-6세인 영유아 대상 영유아 연령 및 특성별 과의존 관련 전문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은 부재함. 이에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 영유아 중심의 사업과 전문 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는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다.. 근데 영유아가... 대부분 다 ...바우처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개인 센터들이 하고 있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유아를 좀 잘 편안하게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아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11세부터는 청소년기관.. 공공기관이 잘 돼 있잖아요 지역에서는 거기서 다 커버해요.. 11세부터는 초4확년부터는
그러니까 가운데가 붕 떠있어요 지금
6, 7, 8, 9, 10세까지 붕 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애내들은 센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 했으면 좋겠네요
과의존 예방의 의미는 진짜 영유아 대상 포커스 잡으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상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한 번 해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내 아이를 문제를 만들어서 할 순 없잖아요...
영유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내 아이를 문제를 만들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이전에.. 문제를 키우기 이전에 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와서..그냥.. 맘 컷 체크 받고 어떻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변경 시켜 주세요 양육태도... 이렇게 좀 바꿔 주세요
하면 도움이 엄청 될 텐데요... 그게 안되요.. 그런 상담 기관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만이... 그때 사 치료가 가능해지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안 잖아요... 계속 딜레이 하고 싶죠.. 내 아이는 문제가 없어 하고.. 계속 딜레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빵 터질 때 오시는 거예요... 체크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필요해요
과몰입도 마찬가지죠 애가 과몰입인가? 다른 아이들도 다들 그렇게 보는데..뭐.. 그렇게 하실 것 아니예요?
근데 그것을 체크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정책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인터넷과의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0-6세는 어디에서도 상담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이 청소년이니까.. 9세 이상을 청소년 기관에서 무료상담이 되는데..
0-6세는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 개인 유로상담 센터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런 아이들이 정말 취약한 거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알고 있어도 여기를 와야 되는데 저 무주에서 오는 것은 조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상담... 인터넷 중독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 미디어 적정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영유아 체험관 필요

❍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단점과 평일 저녁 6시면 센터의 모든 사업이 마감된다는 제한점을 보완하는 기관을 필요로 함

❍ 주말 및 평일 오후 시간 언제든지 부모와 자녀가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미디어 이용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고, 이용 조절방법과 연령대별 적정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 미디어 과다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을 필요로 함

❍ 체험관에 가서 부모 자신과 자녀의 미디어 사용수준에 대한 설문과 체크로 사용수준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영유아 대상 미디어의 적정 이용과 과의존 예방 및 인터넷 상 윤리 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관을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주말은 안하니까.. 주말(토/일) 부모와 함께 영상을 보거나 그곳에 가서 단점과 장점을 조절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박물관처럼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가서 보고 배우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창의 박물관.. 터치해서 보고 배우는 시기인데.. 그런 세상에서 부모가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가서 부모가 그 자리에서 설문하고 알아가지고 오는 기회와 기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 기관을 좀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 하잖아요.. 부모가 좀 있을 때.. 이 아이들하고 어느 기관에 가서 영상을 보거나 그 곳에 가서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에 대한 것들도 있고

어떻게 조절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박물관처럼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서 보고 배우는 뭔가가 있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창의 박물관도 가도 저 그게 뭐야 과학 기상청만 가더라도 저보다 터치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배우는 그런시기인데 이게 부모가 조금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같이 보고 오고

부모가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들도

가서 그 자리에서 설문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좀 알아 갖고 오는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사업 활성화

❍ (센터의 전문성 제고) 전북스마트쉼센터의 도청 담당 주무부처 실무자는 대부분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과의존 관련 전문 지식의 부재로 센터 총괄 운영과 시스템 구축 및 사업 발굴 ·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담 및 과의존 치료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 등으로 센터 인력 구성과 섭외, 센터의 총괄적인 운영, 사업 발굴·추진 등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전문상담사에게 전문가로써 합당한 기본적 처우보장과 그에 해당한 적합한 교육, 사례회의 운영 등을 필요로 함. 특히 가정방문상담사들은 가정방문상담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필요에 따른 상담회기 확대, 가정방문약속 관련 시스템 개선 등) 마련과 처우 개선(단 회기 실시도 상담사례비 지급 등)을 필요로 함

내가 볼 때는 이 과의존 상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며 전문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세팅 할 때부터 이렇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센터장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분야의 전문가를 딱 이렇게 데려다 놔서 센터가 딱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것 같고....

거기를 주관하는 주무부서가 어디더라 ..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한 부서에서 맡아요 그것을.. 그래서 더 이상 요청 하기는..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총괄해서 딱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상담... 인터넷 중독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고..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상담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성이 제가 볼 땐 전문성이 떨어져요
인력 구성부터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또 부서 자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상담전문가가 제가 볼 땐 되게 소수인 것 거 같아요... 없다기 보다는 인력 구성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

뭔가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야 하는 상황.. 센터 사업, 인원 구성 및 섭외, 운영하는 것, 주무부서도 문제고.... 근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부처별로 좀 역할을 나눠서 하기는 해요..
역할을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좀 겹치는 내용들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이짢아요..이게 .. 상당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써 인정을 안 해 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전문가면... 전문가로써 대접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란 생각이 들고
교육도 거기 알맞는 좀.. 적합한 교육도 제공해야 되고..

거기가 선생님 거기는 그 센터장은 스마트폰과의존 이런 거에... 그게 경력이 되게 짧아요 한 1년 2년 됐어요
기업 상담하다 온 사람이라

가정방문상담은 어..6회기 상담이거든요.. 단회... 어렵죠.. 6회 가지고 뭐 개입 하겠어요.. 근데 6회 가지고는
한 달하고 조금 더 만나는 건데... 실제로 가정방문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가정방문 해서 없으면 또 퇴짜 맞고 오는 경우도 많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래서 제가 가정방문상담은 별로 발굴해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런 스마트폰과의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이 너 이런 거 문제다라고
내가 이런게 문제구나 인식정도 시켜주고 할 수는 있고.. 발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6회기 상담 해 가지고 개입의 효과를 본다는 건.. 저는 상담의 효과성은 정말 없다고 봐요 솔찍히

가정방문상담 하여튼 힘들어요 되게... 가정방문상담인데 지역을 몇 킬로 이상 가야 많이 교통비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담료 이것이 조금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거의 무료봉사인 거 같고
근데 만약에 약속을 하잖아요 .. 내담자가 빵꾸를 내잖아요 .. 그러면 상담비를 못 받아요 ..
다시 연락해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자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분야에서 되게 전문가 하고 .. 그런데 막.. 자기 맘대로 막 안오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내 상담실에서 기다렸는데 안 온다 이거 하고 .. 내가 그 자리를 가서 방문했는데
퇴짜 맞는다.. 그거는 좀 더 되게 자존감 떨어뜨리고 시간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안 했어요..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이짢아요..이게 .. 상당히...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써 인정을 안 해 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전문가면... 전문가로써 대접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란 생각이 들고
교육도 거기 알맞는 좀.. 적합한 교육도 제공해야 되고..

❍ (놀이치료 운영 확대) 전북도내 미디어 과의존 관련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기관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스마트쉼센터의 놀이치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센터는 미디어 과의존을 보이는 영유아 대상 상담을 놀이치료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센터의 놀이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몇몇 제한적인 요소들이 개선되어져함. 우선은 놀이치료 예산 부족으로 1년에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는 10명 미만임. 이에 놀이치료를 받고 싶은 영유아와 부모 대기자가 많은 상황임. 다음으로 놀이치료실 운영 시간대도 평일에는 보육기관 하원 이후에 주로 겹쳐 이뤄지고 있어 놀이치료실 운영시간대를 주말 및 평일 야간 등으로 확대 변경 조정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센터 내 조성한 놀이치료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놀이치료사를 추가 채용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가용 인원을 확대시켜 스마트쉼센터에서 영유아 특화 전문 상담치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 있음. 이상의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정책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인터넷과의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0-6세는 어디에서도 상담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이 청소년이니까.... 9세 이상을 청소년 기관에서 무료상담이 되는데.. 0-6세는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 개인 유로상담 센터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런 아이들이 정말 취약한 거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알고 있어도 여기를 와야 되는데 저 무주에서 오는 것은 조금

어머님들도 인제 너무 요일도 제한되어있고... 사례 그... 인원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 회기도 제한되어 있고

전라북도 예산... 1년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 제가 1년에 하는 아이들은 10명 미만인 거 같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1년에 몇 케이스 못 하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작년에 이제 신청을 해놓은 거죠. 내년에 라도 시작하면 연락 달라고 제가 그 뒤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영유아는 특히나 어디 다른 기관에서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으로 조금 조금씩 받았던 사람이 이제 소개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 그분들이 딱 확보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못 오고....그렇게 가더라고요

치료실을 잘 활용하려면... 조금 운영시간 때도 변경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그럼 확보가 되잖아요 ... 오는 시간이 거의 겹치니까요

과의존 예방의 의미는 진짜 영유아 대상 포커스 잡으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놀이치료 선생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시간대랑 확보되고.. 예산 먼저 확보 보내고.. 인력도 확보되어야 될 거 같고... 아마 놀이치료 인력들이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버거워서.. 다들 많지 않아요... 지역에도...그렇지만 아마 공공기관에서 뭔가 안정적인 세팅이 된다면... 다 들어오고 싶어라 할 거예요

어찌되었든 센터는 비어있는 사각지대가 영유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기관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 (유관기관 협업 통한 홍보 및 사업 활성화)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전북 도내에 있고, 스마트쉼센터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홈페이지 상 이외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한다면 홍보와 안내에 대한 그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임. 즉 스마트쉼센터 단독으로 홍보와 안내 및 캠페인 등 모든 것을 다 추진하기도 힘들 뿐 아리나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우니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협업한다면 센터 사업 안내, 예방교육 및 과의존 관련 지침 안내 등도 겸할 수 있고 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됨

예전에는 협업을 해서 '안내'도 하다가 좀 뜸해졌다 작년부터 저기를 했는데 ... 실은 어린이집교사들 같은 경우 뭔가의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받기를 워하는데.. 거기는 수료증이 안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부모들에게 이것에 대한 안내를 하려면.. 홍보에 대한 것들...홈페이지에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짢아요 그 안에는 홍보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나 계획된 부분들로 상반기에 끝나버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 못 나오더라구요 작년에 우리가 행복다움을 부모랑 하짢아요
행복다움 항상 부모랑 하는데.. 부스를 하면 부모들에게 알림이 되겠다 연락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안에만 있기 보다는 왔다갔다하며 부모들에게 더 알림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나왔어요
계획된 부분들이 상반기에 끝나버리거나..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실은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대면에 대한 것들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도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전부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해소가 안돼는 경우가 많아요.. 쉼센터가 하나만으로 다 해결하기는 없을 것 같고...어린이집, 학교 등 전파가될 수 있도록.. 육종 등을 활용하면 협업하는 부분들이.. 좋아질 것으로

❒ 부모 및 영유아 대상 정밀화된 과의존 척도 마련 및 자가진단 기회 확대

❍ (정밀화된 과의존 척도 마련) 현재까지 미디어 과의존(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합의된 기준이 없기에 스마트쉼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 대상 과의존 척도는 과의존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유아의 과의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화된 척도와 진단 기준 및 치료법이 영아와 유아 대상별 세분화되어져 마련되어져야 함

어쨌건 스마트폰 과의존 일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합의된 논의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운 거 같기는 해요

스마트폰과의존이 진단명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이게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되게 반박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볼때는 있는 것 같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이 진단명 있었고 그걸로 아예 딱 이렇게 이런 이런 걸 진단해서 이거에 .. 해당이 되면 애를 스마트폰과의존이라고 명칭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초점을 맞춰 가지고 ...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
진단기준 자체도 그렇고 어떤 걸 스마트폰과의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용시간이 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했는데 ...이제는 사용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 시간이 또 완전히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척도의 문제인데.. 지금 9문항짜리 척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중독이야 중독이니냐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정밀하게 아이들의 과의존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개발이 되면 그런 일반적인 아이들과 과의존 아이들을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영아와 유아에 해당되는 미디어 관련 과의존 관련 정밀화된 척도가 필요하니까..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겠죠.

❍ (영유아와 부모의 과의존 상태 자가진단 가능 기회 확대) 부모는 영유아 자녀가 미디어를 과다이용하고 있고 과의존 행동 특성을 보여도 이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언제든지 쉽게·간편하게·빠르게 부모 스스로가 본인 및 영유아 자녀의 과의존 정도를 앱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회가 확대되기를 요구함

❍ 자녀의 과의존 정도에 대한 진단 기회는 부모 스스로 영유아 자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과의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척도 내용 체크를 통해 미디어

과의존 행동 특성과 자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증상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자녀의 과의존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또한, 미디어 과의존 위험성이 농후한 위험군 가정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부모가 본인 및 영유아자녀의 과의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척도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및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확대해야 할 것임

아이가 과의존 상태다 라는 것을 부모가 파악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못 느껴요
우리 애가 보면 얼마나 보겠어.. 크면서 조금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앱'으로 쉽게 아이들의 과의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들이 돌아다니면.. 내 아이는 얼마일까 계산하여 기준점보다 넘어 가네 잠재적인 과의존..주의를 해야겠구나.. 그런 것 괜찮을 것 같아요.. 둔감한 부모들을 위해

과의존에 관련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뭐 이런 것은 전혀 띄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의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쉽게 언제든지 구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아이가 좀 이상한데...하면서 이제 과의존에 대해 체크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과의존 체크요.. 체크는 그냥 진흥원에서 나온 영유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그런 걸로는 그냥 인터넷 상으로도 가능하니까...그리고 아이가 아..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

제 3절 소결

본 절에서는 첫째, 영유아 부모 대상 영유아 연령대별·과의존정도별·맞벌이 유무별 등에 따른 미디어 이용 현황·실태, 부모 개입정도와 개입 시 어려운 점,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한 정책적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중 중요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둘째,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현장종사자 대상 미디어 이용 및 과다이용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경험, 과의존 성향의 영유아·부모 특성, 부모의 기존정책 인지도와 전문가·현장종사자 대상 현 지원정책의 제한점과 개선점 파악, 필요한 정책적 지원 욕구 등에 대한 면접 분석 결과들 중 중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 및 정리 함

가.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가정 내 미디어 종류별 이용현황

❍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을 보면, TV(98.5%) 및 스마트폰(83.6%)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유율과 더불어 이용률 역시 TV(94.2%) 및 스마트폰(64.8%)이 매우 높게 나타남. 특히,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미디어별 이용 순위를 보면, 케이블TV, 스마트폰, TV정규방송 순으로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남. 한편, 과의존 위험군 그룹의 영유아는 스마트폰 이용 순위가 1순위로 집계되어 나타남

2) TV/컴퓨터 이용실태

❍ 미디어 최초 이용시기를 보면, TV는 생후 18개월, 컴퓨터는 생후 37.9개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중 최초 시기가 생후 1개월부터라는 응답도 존재하였음. TV와 컴퓨터 모두 영아 그룹의 최초 이요시기가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이용시기가 하향화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미디어가 일종의 양육의 한 방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미루어볼 수 있어서 정책적 지원 역시 어린 영아기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질 필요가 있음

❍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TV의 경우 5점을 기준으로 4.2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의 경우 4.47점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의 이용빈도가 4.29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외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유에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됨. 미디어(TV)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도 어머니(63.4%)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양육의 대체 수단, 즉, 외벌이 가정 어머니의 독박육아의 피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가정 내 규칙 여부를 보면, TV는 19.2%, 컴퓨터는 15.0%가 별도의 이용규칙 없이 영유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이용규칙이 없는 경우가 47.2%로 매우 높았고, 이용절차도 자녀가 원하는대로 이용하게 둔다는 응답이 38.9%에 달함

❍ TV를 이용하는 주된 상황을 보면, 주말동안 이용한다는 응답이 19.8%, 등원준비 시간 14.3%, 부모 용무를 위해 13.3%로 나타남. 앞서 기술한대로 미디어가 특정한 목적보다는 양육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목적에 맞는 미디어기기의 사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어머니의 TV 시청시간과 자녀의 시청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자녀의 시청시간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남. 이는 주 양육자의 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증명함. 자녀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서는 자녀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스마트기기(핸드폰·태블릿 등) 이용실태

❍ 스마트기기 최초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생후 1개월부터 72개월까지로 평균 25.4개월부터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아의 이용시기가 더 빨랐고, 외벌이 가정 영유아의 이용시기가 더 빨랐음. 그리고 응답자의 26.6%가 자녀를 위한 스마트기기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소유 비율은 41.2%에 달함

❍ 스마트기기 이용빈도 역시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1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3.81점(주 5회이상 61.1%)으로 가장 높았음. 처음 스마트기기 이용계기를 보면, 자녀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 31.6%로 가장 높았음

❍ 미디어가 양육의 대체 수단으로서 이미 깊숙이 자리잡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스마트기기 주 이용장소 가정 67.1%, 이용상황은 부모의 용무를 보기 위해 38.7%,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40.1%), 올바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더불어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지하기 보다는 다른 양육의 대체수단 발굴과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특히, 스마트기기 이용 시 영아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 이용한다는 응답이 23.0%로 높게 나타남. 물론 자녀와 함께 이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는 초보 양육자의 양육방법, 즉, 놀이법의 미숙에서 기인한다고 미루어 볼 수도 있어서 영아 부모를 위한 다양한 놀이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스마트기기 총 이용시간대 및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월요일~금요일」까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총 시간은 219.9분(3시간 40분)으로 하루 약 40분 정도로 나타났고,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저녁(64.1%) 시간대로 나타남. 「주말 토요일~일요일」 총 이용시간은 186.9분(3시간)으로 하루 평균 90분 정도였으며,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오후(57.8%) 시간대가 가장 많았음. 최소한 주말 동안만이라도 스마트기기 보다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연령대별 다양한 체험 및 여가활동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보면, 4점을 기준으로 현저성(2.02점), 조절실패(1.89점), 문제적결과(1.85점) 등 전체 1.91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과의존 위험군(2.90점) 그룹과 가정 내 이용규칙 없는 그룹(2.17점)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남. 또한,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문제행동 수준이 일반군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별도의 이용 관리 방안이 요청되며, 스마트기기 이용시 가정 내 이용규칙 설정이 세워질 필요가 있을 것임

❍ 부모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남. 즉, 아버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어머니의 이용시간 모두 자녀의 문제행동 증가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자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한편, 부모교육 경험률은 10.9%에 불과하였으나,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해 5점을 기준으로 3.89점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4) 자녀의 미디어(TV·컴퓨터·스마트기기 등) 이용에 대한 부모 개입

❍ 영유아의 미디어기기에 대한 사용 지도 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음. 이를 위해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간제한 프로그램, 미디어 사용조절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3.44점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가정 내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규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어머니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감소하며, 어머니 자신의 이용시간도 감소하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행태가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주양육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어머니의 심리상태(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1.92점으로 정상 수준이었으나,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의 어머니(2.14점), 외벌이 가정 어머니(2.09점)의 우울감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어머니의 우울은 남편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본인의 이용시간, 자녀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감 및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남.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더불어 남편의 양육참여를 위한 부부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온정·격려’ 행동은 남편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어머니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우울감/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남. ‘한계설정’은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및 문제행동, 자신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남. ‘과보호·허용’은 남편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과 부적상관, 자녀의 문제행동, 어머니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이 나타남. ‘거부·방임’은 남편과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자녀의 문제행동, 자신의 우울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이 나타남

❍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한 대부분의 변인과 유의한 정적/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만큼 중요한 변인으로서 부모교육시 양육행동에 관한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녹여낼 필요가 있을 것임

5) 자녀의 미디어(TV·컴퓨터·스마트기기 등) 이용에 대한 정책 욕구

❍ 미디어 이용 및 과다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들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실시’가 78.5%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의료·상담기관 연계서비스(23.5%), 심리검사 및 과의존 진단평가(2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각 지원정책 간 인지도 편차가 심한 편임.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인지도를 보면, 맞벌이 여부별로 맞벌이 가정 부모가 정책 인지도 복수응답 누적비율이 229.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장 관심도가 높아 정책 인지도가 높아야할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 부모의 경우 1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미디어 이용 및 과다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관심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임. 이를 위해 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한 광고나 리플릿을 제작하여 산부인과, 어린이집 부모교육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되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영유아 부모, 조부모 등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녀의 미디어 이용 수준에 대한 간단한 문진을 할 수 있는 앱 등을 제작·배포하여 자녀의 현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79.9%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스마트폰 사용규제가 73.0%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남.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부모가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영유아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이기도 함.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부모가 공감하고 있는 결과임(심리·정서발달 저해 57.0%). 따라서 미디어 중 특히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규제와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나.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현장종사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먼저 면접조사에 참여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 이용 미디어는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즉 3세까지는 TV를 많이 이용하고, 4세 이상부터는 TV와 스마트폰을 겸해서 이용하거나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평일보다 보통 2배 이상 이용 시간이 증가함. 미디어 이용 시작 상황은 주로 영유아가 엄마에게 시청해도 되는지를 허락받고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료 상황은 엄마와 약속된 시간에 끄는 경우와 약속된 시간이 넘어도 끄지 않으려 떼쓰거나 칭얼거리거나 혹은 가벼운 협박까지 이용하여 제지시키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 향후 스마트폰 구입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구입해 주겠다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 후 등 자녀에게 되도록이면 스마트폰과의 접촉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부모도 있었음

❍ 면접에 참여한 영유아들의 최초 미디어 노출 시기는 빠르게는 약 6개월 전부터, 늦게는 12개월 넘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영유아는 돌전에 이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맞벌이로 조부모가 주 양육하는 경우 미디어 노출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의 특성을 보면, 부모가 안 보여 주면 떼쓰고, 보채고, 안절부절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언어적인 면·행동적인 면에서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며, 약속된 이용 시간에 대한 잦은 조절실패가 나타나며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언어 발달지연이 도드라지고, 공존질환으로 소아 우울, 공격성, 자폐성향, ADHD 및 향후 취학해서는 학교중단, 집에 틀어 박혀 나오지 않는 은둔이란 행동 문제로 표출되기도 함. 미디어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집단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및 주 양육자(부모와 조부모)의 미디어 과다이용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한 경우에 보다 높게 나타나며,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부재,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지도가 부재할수록 높게 나타남

❍ 둘째, 부모의 개입정도를 살펴보면, 특히 영유아기는 외부 환경을 스스로 통제 및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하기에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과 이용은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이 부각됨. 그리고 부모가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허용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미디어를 부모 일하기와 여유를 즐기기 위한 양육수단으로 이용할수록 영유아 미디어 노출 및 이용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맞벌이가정 증가로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영유아 자녀에 대한 미디어 노출과 이용정도는 부가 모보다 허용적이었음. 이는 부가 자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미디어를 이용한 양육이 편하고 쉽다는 점을 이용해 미디어를 양육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문가 및 상담가들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각성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있음. 이런 저조한 인식은 영유아 부모가 별도로 관련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등을 받아본 경우도 없었기 때문임

❍ 셋째, 부모와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들이 필요로 한 정책적 욕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교육'을 지적함.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도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영유아 대상 반복교육이 필요하며, 되도록 2-4세와 4-7세 집단이 같이 받거나 혹은 동일 연령별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영유아와 적절한 상호작용과 이용현황 파악 및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해서는 수강 인원이 최대 50명을 넘

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함

❍ 한편, 전북지역 내 과의존 관련 영유아 대상 전문적인 상담·치료 인프라와 인력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영유아 대상 관련 정책 및 사업 또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단점과 평일 저녁 6시면 센터의 모든 사업이 마감된다는 제한점을 보완하는 체험 중심의 기관을 필요로 했음

❍ 향후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상담 및 과의존 치료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센터 인력 구성과 섭외, 센터의 총괄적인 운영, 사업 발굴·추진 등에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하고, 전북도내 과의존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놀이치료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스마트쉼센터 단독으로 홍보와 안내 및 캠페인 등 모든 것을 다 추진하기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협업한다면 센터 사업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그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5 장

전북 영유아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 및 대응방안

Jeonbuk Institute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2절 전북 영유아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대응 방안

제5장 전북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 및 대응방안

5장에서는 첫째, 2장의 정책 및 정책사례 분석, 3장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현황 분석, 4장의 설문 및 면접조사 분석결과 내용들 중 주요 연구결과 요약과 관련 분석들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함. 둘째, 주요 연구결과와 도출된 정책적 함의들을 토대로 전북 영유아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가. 미디어 이용 연령의 하향화 및 영유아기 과의존위험군 증가 추세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중 TV의 경우는 94.2%, 스마트폰의 경우는 64.8%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를 영아와 유아집단으로 구분하여 미디어 최초 노출 시기를 살펴본 결과, TV의 경우 영아집단은 생후 14.7개월, 유아집단은 생후 18.9개월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컴퓨터의 경우도 영아집단은 생후 21.9개월, 유아집단은 39.7개월, 스마트폰의 경우는 영아집단 18.7개월, 유아집단 26.8개월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유아집단보다는 영아집단의 미디어 노출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면접조사 결과, 영유아와 부모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센터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미디어 과의존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피부로 실감하면서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률 및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도 2019년 기준 3-9세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동들의 과의존 위험이 크게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에 3세 미만 영아의 과의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0-3세 대상에서도 추가하여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빠른 인터넷 환경,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기기의 가속화 및 다양화, 일상생활의 전 디지털화 등으로 영유아에게 미디어 노출은 더 쉽게, 더 많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기에 미디어 노출 및 이용 연령의 하향화는 지속될 것임. 이에 3세 미만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미디어 노출 및 이용 실태조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나. 영유아기 미디어 (과다)노출/이용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저조

❍ 어느 시기보다도 특히 영유아기는 성장 및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며, 향후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임. 영유아기 동안 겪은 오감적인 경험들은 이후 자아존중감, 학습능력, 유능감, 애착형성, 신뢰감 및 두뇌 발달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한편, TV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는 간접적인 시·청각 자극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없고, 오감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재하며, 순간의 강한 자극과 빠르고 화려한 장면이 지속되어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음. 이에 미디어에 조기 및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영유아는 언어발달 지연, 애착형성 문제로 사회성발달에 악영향, 충동성·공격성을 띄며, 과잉행동장애 등 문제행동 등을 일으킬 우려가 존재함

❍ 그러나 면접조사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미디어 조기 노출과 장시간 이용 시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각성의 인식이 저조하여, 영유아 자녀에게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조기 노출시키고, “다른 아이들도 다 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과 하나의 일상생활 문화로 받아들여 미디어를 장시간 영유아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었음

❍ 이에 영유아기 부모(주 양육자인 조부모 포함)에게 미디어 조기노출과 장시간 이용 시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와 두뇌 발달 등 성장 발달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기 이후 학습능력과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주의 깊게 인식시켜 부모가 미디어를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부모 및 주양육자(조부모 등) 대상 영유아의 미디어 장시간 이용 시 나타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부모(주양육자) 교육, 건전이용 지도방안·지침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영유아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및 사회 전반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스마트폰 육아 : 미디어를 양육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0-3세의 경우 88%가 TV를 시청하며 55.4%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세의 경우는 96%가 TV를 시청하고 67.5%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북지역 부모가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노출하고 사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자녀 육아에 있어서 미디어 노출 및 이용은 뗄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됐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부모가 영유아 자녀에게 미디어를 허용하는 주요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가 (집안)일 등을 해야하는 상황이거나 피곤함을 달래고 휴식과 여유를 갖고자 할 때, 영유아 자녀를 공공장소 등에서 통제하고자 할 때,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할 때 등 미디어를 이용해 부모 자신의 시간적 여유와 육아의 편의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와 같이 부모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를 건네 육아를 하는 행위를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육아”나 “스마 방치”등으로 불리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즉 부모가 미디어를 이용한 자녀 육아는 부모의 여유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영유아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신체적·정신적·두뇌 발달 및 애착형성 등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이러한 스마트폰 육아의 시시비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부모(보호자)의 미디어 지도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으나 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 이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를 이용한 영유아 육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사회전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영유아기에 미디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부모의 중재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 및 방송사와 관련 미디어 제작사 등에 영유아 대상 콘텐츠 내용 제작 시 광고 규제, 폭력성과 선정성 등에 대한 내용 규제, 편성규제 등의 제도적 차원의 규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영유아 부모의 미디어 적절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 태도와 행동 및 가치와 신념 등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라. 영유아기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의 핵심은 부모·부모교육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은 TV의 경우 모 63.4%, 부 13.8%, 컴퓨터의 경우 부 42.2%, 모 41.0%, 스마트폰의 경우 모 57.2%, 부 23.3%로 나타나 약 80% 정도가 영유아 자녀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해준 것으로 나타남. 즉 영유아기는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거나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의 미디어 조기 노출과 이용 정도는 영유아와 가장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부모가 미디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양육태도 및 중재적 역할 정도 등에 따라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행태(이용시간, 빈도, 활용도 등) 및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쳐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 해주거나 혹은 부모 개입 없이 장시간 노출시킴으로 과의존하게 되어 미디어에 집착하는 등 부정적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함

❍ 무엇보다 미디어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스스로가 조절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옆에서 지도 관리해주고 통제해 주어야 하며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도 조성해주어야 함

❍ 한편, 대부분의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기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부모교육을 별도로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지침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물 등을 접한 경우도 대부분 없었음. 또한,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의 개월 수에 맞는 적정 미디어 콘텐츠 선별과 이용시간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요구함

❍ 이에 부모가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건전 및 안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 조절, 개월별 이용 가능한 콘텐츠 선별 등과 관련된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와 미디어 중재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영유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증가에 따른 아버지 교육 등을 필요로 함

❍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은 일회성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자녀연령대별에 따른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하며, 강의식의 일방적·수동적 교육보다는 체험적·경험적·참여적·사례중심의 교육이 필요함

❍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와 영유아 부모는 미디어 건전 및 안전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면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부모교육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마. 부모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도 역량 부재

❍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들은 보호자(부모, 조부모 등 포함)들의 미디어리터러시 부족에 대해 지적함. 영유아기에 형성된 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이용 습관 등은 향후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미디어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부모들은 이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부모는 영유아의 연령별 미디어 이용시간과 콘텐츠 내용 선별 및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올바른 이용 습관 형성을 돕고 지도 방법, 미디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보호자 스스로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자가진단 습관

과 미디어 이용에 있어 자녀와 규칙세우고 실천하고 보상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 등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한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과 다양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400명의 부모 중 단 42명만이 부모교육을 받았고, 약 89%는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재했음. 즉 영유아 부모 대부분은 별도로 영유아자녀의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등을 받아본 경우도 대부분 없었음

❍ 반면에, 영유아 부모들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 미디어 적정 이용시간과 컨텐츠 선별 및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받고 싶어 했음.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의 개월 수에 맞는 미디어 적정 사용시간·콘텐츠 선별, 활용법 등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했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방법, 미디어 이용 시 중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안내 및 제공 받고 싶어하였음. 또한, 영유아 자녀에게 미디어를 노출·이용을 대신하여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대체놀이 종류, 방법, 공간 등 다양한 체험놀이 환경 조성 마련도 함께 요구함

❍ 이에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생애 초기부터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해 부모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훈육해야 하며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의 이용 습관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지속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정보 전달로 영유아의 미디어 올바른 경험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습관형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바. 영유아 대상 관련 인프라·정책적·제도적 기반 취약

❍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전국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과 관련 대응책

등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및 중간조직 이외 전문기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영유아는 현재로서는 과기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 연령 대상 '스마트쉼센터'를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연령 대상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사비를 털어 어린이병원의 정신과를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임 대응책임. 즉 현재까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 어디에서도 미디어 적정 이용 및 과의존 관련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영유아 특성을 전적으로 반영한 예방교육 · 상담 · 치료 등의 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기관 혹은 중간조직(담당 센터)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 특정 대상 미디어 적절이용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책 관련 사업과 서비스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과 센터(단체, 병원)들 간의 상호 네트워크도 미흡한 상황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종합계획(제4차, 2019~2021)」 및 매년 시행계획(2019년도 추진계획안 발표)에 부응한 전북지역 차원의 영유아 미디어(인터넷 및 스마트폰 포함)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자체가 부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도 미흡한 상황임

사. 전북지역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치료 및 대응 체계 취약

○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노출 및 이용 시간 증가와 함께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군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에 따른 개인적·가족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통계자료로 두드러지게 나타면서부터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이용 유도 및 과의존을 예방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무엇보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3-9세의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보다 2.2배 증가했고 이는 전 연령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 영유아의 미디어 조기 노출과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연구결과들로 많이 알려졌으며,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그 심각성이 보다 심함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음

❍ 전북지역은 특히 미디어 과의존 성향이 있는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상담기관과 전문 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유아 대상 과의존 상담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중앙 부처별 대상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은 많으나 영유아 대상 지원정책은 양적 · 질적으로 부족하며, 영유아 대상 과의존 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 또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남. 만 9세부터는 청소년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이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만0-6세 대상 과의존 관련 전문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은 부재함

❍ 이에 스마트쉼센터에서 영유아 중심의 전문 상담과 치료,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예방교육, 지침안내,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

❍ 영유아의 심리·정서·행동적 발달 특성은 청소년/성인과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반응과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유아의 심리·정서·행동적 발달특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놀이치료, 모래치료, 가족치료)나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함. 특히, 만 0~6세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화된 기관이나 협력체계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영유아 부모 대상 관련 교육 · 상담 · 치료 및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 할 수 있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전북 도내에서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와 부모 대상 과의존 수준별(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등)에 따른 전문 상담·치료 지원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져야함.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화된 척도와 진단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 척도를 통해 과의존 정도를 조기에 파악하여 과의존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조기 전문상담 치료 및 부모교육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 및 치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영유아 특성상 부모대상 개별 심리 상담 및 가족치료와 부모교육 등을 병행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 수준별에 따른 맞춤형 전문 상담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디어 과의존과 심각한 공존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 병원과 연계를 통한 치료 지원도 필요함. 따라서 스마트쉼센터는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대응을 위해 특히 군단위 지역사회 내 전문 상담기관 및 병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센터와 전문 상담기관 및 병원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가 더욱 요구되어짐

아. 영유아 관련 유관 기관과 스마트쉼센터 간의 행정협력 연계 및 협업 강화

❍ 현재까지는 영유아 대상 미디어 관련 교육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기관은 스마트쉼센터라 볼 수 있음. 스마트쉼센터가 영유아 대상 관련 교육, 사업, 프로그램 등을 추진 시 행정 주관부서 또는 부처가 서로 달라 사업 안내 및 신청과 홍보에 대한 혼란 등이 발생하고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공문) 등이 유관기관에 전달되었어도 유관기관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즉 스마트쉼센터는 교육, 사업, 프로그램 등의 안내를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사업 신청을 독려하지만, 영유아 관련 중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를 통한 사업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영유아 대상 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부처 간의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과 스마트쉼센터에서 사업 안내 및 참여 공문 전달 시 해당 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관련 협업 매뉴얼(신청방법, 연계방법 등을 제공)등을 제시할 필요 있음

❍ 또한, 스마트쉼센터가 전북 도내에 있고, 스마트쉼센터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캠페인 등을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한다면 스마트쉼센터 단독으로 활동한 것보다 그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임. 이에 스마트쉼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업한다면 센터 사업 안내, 영유아와 부모대상 예방교육 및 과의존 관련 지침 안내와 홍보 등이 한결 쉽고 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임

자. 영유아 미디어 적절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마련 필요

-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청소년 대상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 대상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법률과 전북도 차원의 조례는 부재함.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부모의 79.9%인 약 80%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종류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규제 필요성은 73.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TV 이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11.5%를 보였음
-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TV의 경우 생후 12개월, 즉 돌 이전부터 미디어에 조기 노출되고 있었고, 조사대상자 중 61%가 매일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무엇보다 영유아기 미디어 조기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영유아 부모도 다른 아이들도 다 보니까, 하나의 일상 문화니까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조기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그 심각성이 매우 저조했음. 반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서는 과의존 비율이 어느 연령대보다도 영유아에서 지속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에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 관련 법적 규제 마련이 필요함
- ❍ 성장 발달 특성상 영유아 간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영유아의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규제조항 내용을 구체화 시켜야 하고, 지원 정책과 사업, 과의존 대응체계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도 세분화시켜 실시되도록 권장해야함
- ❍ 그 외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의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부모와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 미디어를 사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교육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면서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실무자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 ❍ 그리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 과의존을 예방과 적절이용을 유도하는 부모와 영유아 관련 시설에 안전 앱에 대한 정보를 당위적으로 배포·안내 관련 내용, 지

속적으로 고도화된 안전 앱에 대한 개발,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홍보, 사용 연령·연령별 이용가능 콘텐츠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 부모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와 접촉할 수 있는 소아과의사, 가족, 교육기관 등에 따라 세부지침을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방안 등을 고려한 기본 정책 수립, 관련 예산 수립 및 국가 및 지역 사회적으로 영유아기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적절이용 환경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내야 할 것임

차. 통신/방송사 · 제조사·기업 등의 공적책무 강화 및 사회적 기준 확립 필요

❍ 국내 인터넷 및 스마트폰 평균 보급률은 99%를 웃돌고 있을 만큼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과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ITC 산업들이 더욱 대중화되고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강화될 전망임. 이는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과 이용은 필수적이며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 환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디어 노출과 이용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미디어 관련 영유아 대상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호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습관형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할 것임.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영유아 대상 미디어 노출 및 이용 관련 안전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무방비로 노출된 영유아에 대한 범사회적 보호대책이 시급함

❍ 또한, 미디어를 만들어 내는 통신사, 제조사, 기업 등에도 공적 책무를 강화하여 영유아 미디어 건전 및 올바른 이용과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마련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

(1) 스마트폰 및 뉴테크놀로지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지원
- 스마트폰 이용이 영유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개발과 결과 공개
- 스마트폰 이용이 영유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재원 확충과 지원
- 뉴테크놀로지 보급에 선행하여 뉴테크놀로지의 잠재적 위험도 및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필수적 연구

(2)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디자인 마련
- 영유아를 스마트폰 또는 미디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유해물 차단 앱)
- 디지털 과의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디자인 접촉(알림기능)
- 영유아 이용 앱에 간단한 경고 문구 삽입
- 키즈앱 및 크지 콘텐츠에 대한 심사 강화
- 보호자가 자녀 스마트폰 이용을 쉽게 통제 및 제한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3) 스마트폰/뉴테크놀로지 리터러시 향상
-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보호자 대상 정보제공 앱 개발 및 탑재
- 테크놀로지를 좋은 목적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틀 제공

자료 :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2018. 12. 17). 국회의원 박선숙 주최. '테크놀로지 기업의 공적 책무로서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방안(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제2절 전북 영유아의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대응 방안

○ 본 절에서는 영유아 관련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법률과 지원정책 분석,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전북 도내 영유아 대상 미디어 이용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전북지역 영유아 미디어 건전 이용 및 과의존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영유아의 미디어 건전 및 안전 이용과 과의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① 사회적 인식 개선 제고, ② 부모의 교육 참여와 역량 확대, ③ 기관 예방교육 내실화, ④ 스마트쉼센터, 영유아 특화 기능 확대 및 강화, ⑤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 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표 5-1〉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방향	과제
사회적 인식 개선 제고	영유아기 미디어 조기 노출과 과다이용의 심각성 사회적 인식 제고
	영유아기 미디어 올바른 이용과 과의존 예방 '전문가 정기 포럼' 운영
부모의 교육 참여와 역량 확대	영유아기 보호자(부모, 조부모 포함) 대상 부모교육 참여 제고
	영유아기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채널 다각화 및 실질적 정보 전달화
	미디어 시간관리 및 유해정보 차단 앱 · 프로그램 관련 정보 안내
기관 예방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예방교육 의무교육 횟수 및 이행 점검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 양적 · 질적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 아이돌봄 교사 대상 예방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확대
스마트쉼센터 영유아 특화 기능 확대 및 강화	영유아 전담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영유아 전담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놀이치료 예산과 인력 확대 및 놀이치료실 운영 시간대 편성 조정
	관련 행정부서 및 영유아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협의회) 구성·운영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 체계 구축·운영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 조성	영유아 미디어 올바른 이용 및 과의존 대응 관련 조례 제정 혹은 기존 조례 일부 개정 등 제도 정비
	영유아 미디어 올바른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기본계획 수립 · 추진
	영유아 특화 인터넷 윤리 체험관 운영

1.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관련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 제고

❍ 영유아기는 성장 및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며 앞으로 긴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조기 및 장시간 노출 시 언어발달 지연, 애착형성 문제로 사회성발달에 악영향, 충동성·공격성을 띠며, 과잉행동장애 등 문제행동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과 사회전반적인 인식은 미디어 조기 노출과 장시간 이용 시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각성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영유아기 부모(주 양육자인 조부모 포함)와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영유아기 미디어 조기노출과 장시간 이용 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들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과제 1-1) 미디어 조기노출과 과다이용의 심각성 사회적 인식 제고

❍ 스마트폰 건전 및 안전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일상생활 중 일정시간 절제하는 지정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전반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홍보, 적절한 미디어문화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 스마트쉼 실천운동 확산 등 영유아의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 예를 들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필요, 서포터즈단 양성, 유해사이트 감시 및 신고 등 지속적인 부모교육으로 부모 및 주양육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수기 공모전, 뮤지컬과 연극 등 오프라인 이벤트와 주요 포털사이트 이벤트 및 SNS 홍보 등 병행, 참여형 창작 동화구연대회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 토크콘서트, CF제작 등 부모의 관심과 이를 넘어 모든 사람의 노력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었던 한 통신사의 광고 카피 문구(“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등의 아이디어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자녀가 미디어 시대에 뒤떨어

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도 보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이 어려움' 등의 사유보다는 아이들의 세상을 만날 땐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것도 자녀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함을 각인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과제 1-2) 영유아기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예방 '전문가 정기 포럼' 운영

❍ 전북지역에서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 현상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이 미흡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아젠더 발굴이 부재한 상황. 이에 행정, 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스마트쉼센터, 학계 전문가 및 현장의 전문상담가·의사 등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문화조성 및 과의존 대응에 대한 현안 이슈 및 정책 아젠더를 만들어가는 정기 포럼이 구축·운영 필요

❍ 스마트쉼센터가 주관이 되어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의 정기 포럼 실시

❍ 정기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실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기초연구에서부터 과의존 예방법 모색과 과의존 원인 및 대응, 진단기준, 영유아 척도개발, 전문 상담치료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과 더불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법, 대응방안 및 상담치료법이 개발, 정보공유 방안, 해외사례 공유와 적용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 현장에서 사업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과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정기적 포럼 운영으로 관련 부서 간, 유관기관 간, 학제 간 결속력이 강화되고 영유아 부모, 관련기관 실무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수립 및 전문성 제고 및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 개선 제고 효과가 기대됨

2. 부모의 교육 참여와 역량 확대

❍ 영유아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의 미디어 조기 노출과 이용 정도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호자(부모와 조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반면, 보호자 대부분은 별도로 영유아자녀의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등을 받아본 경우도 대부분 없었음

❍ 이에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의 생애 초기부터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지도하고 훈육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의 이용 습관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지속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정보채널로 전달받아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경험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부모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과제 2-1) 영유아기 보호자(부모, 조부모 포함) 대상 부모교육 참여 제고

❍ 영유아기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의 가치와 태도에 의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정도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인 부모교육으로 미디어 조기노출과 과다이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모(조부모 및 주양육자 포함)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그리고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전북 차원의 부모교육을 보다 체계화 및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영유아 부모들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부모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유아 유관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경우는 극히 낮았음(본 설문조사 결과 단 10% 정도만이 부모교육 받음). 이에 부모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질 내실화가 필요함. 그리고 맞벌이가정 등 부모들의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주말과 저녁시간 이용 및 관련 내용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 채널을

다각화하여 부모가 간접적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부모교육 또한 자녀의 연령대별, 기본 및 심화과정 등 단계별, 대단위의 집단강의보다는 실천사례 및 상담사례 중심으로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할 필요 있음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추가) 미디어에의 올바른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과제 2-2) 영유아기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채널 다각화 및 실질적 정보 전달화

○ 영유아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이에 스마트쉼센터[2]와 아름다운인터넷세상[3] 에서는 영유아 부모 대상 생애초기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 지침을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개발하여 제작한 다수의 콘텐츠(매뉴얼, 가이드라인, 디지털 페어런팅 잡지 등)들이 있음에도 영유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어 가정 내에서 직접 적용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광범위적인 정보가 영유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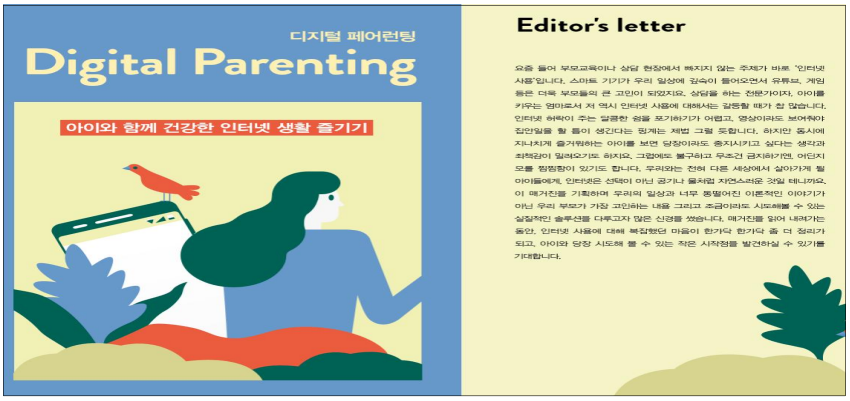
2)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조사연구, 전문인력양성, 지역별 센터 설치운영, 상담협력기관 지원, 예방활동(예방교육과 가정방문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함

3) 아름다운인터넷세상(아인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0년부터 범국민 대상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조성 사업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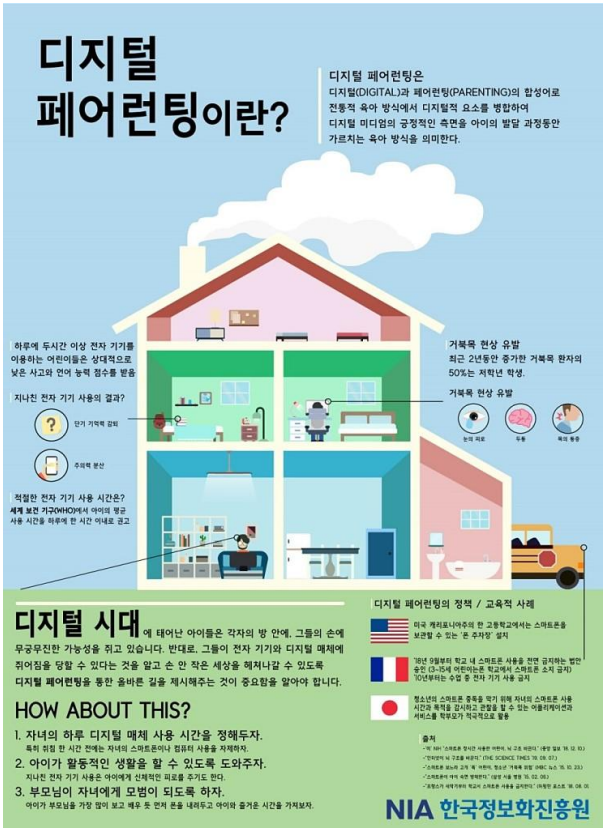
전달되어 가정 현장에서 활용하고 영유아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정보자료 사례)

〈그림 5-1〉 영아와 유아 보호자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_모바일용



〈그림 5-2〉 한국 디지털 페어런팅 잡지 제작 사례



❍ 영유아기 보호자 대상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방법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해 제작된 정보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가정에서 적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라인 상 전달 방법 : 맞벌이가정의 보호자를 위해 앱(디지털 육아 잡지 등) 제작 배포, 발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모바일),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도우미,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모바일) 등 광범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보제공 확대

❍ 오프라인 상 전달 방법 : 영유아와 그 보호자(부모, 조부모, 시설의 교사 등)가 가는 장소들에 정보물 배포 및 부착 등이 필요함

- 자녀 출산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산부인과,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등에 정보물을 비치 및 정보 부착에 따른 내용 홍보
- 출생 직후부터 예방접종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 소아과, 약국 등
-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 시작 이후 : 보육 관계 기관 협조로 영유아 관련 시설을 통해 알림장, 가정통신문, 주간계획안, 공지사항 및 부모교육 등을 통해 정보물을 전달
- 그 외 (작은)도서관, 놀이터, 키즈카페,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파트 안내판 및 엘리베이터 광고란, 각종 문화센터, 육아용품과 장난감 매장 등등

(과제 2-3) 미디어 이용 시간관리 및 유해정보 차단 앱·프로그램 관련 정보 안내

❍ 영유아기 부모가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첫 번째는 부모교육이었고, 그 다음으로 안전한 미디어 사용 환경과 관련 하여 유해정보 차단할 수 있는 앱과 프로그램 안내 및 적정 이용을 위한 시간관리 혹은 시간제한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나타남

❍ TV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만큼 영유아기 부모는 영유아가 연령대별로 안심하고 이용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특히 부모가 안심하고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노출하고 시청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위해 부모는 유해콘텐츠를 차단하고 일부 콘텐츠만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음. 이에 보육기관 및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영유아기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유해 콘텐츠 차단 앱·프로그램·사이트 등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영유아가 적정 시간만큼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시간을 제한하거나 시간을 관리해주는 즉, 타이머가 프로그램 내에 내장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유튜브 화면에 알람이 뜨고 앱이 잠기는 기능 등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과 개발을 요구함

❍ 이에 아래와 같은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보호자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영유아 보호자에게 다각적인 채널로 정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해보세요!

- **불필요한 앱을 정리하고 보호자용 앱은 잠금(암호)기능을 설정해주세요.**

  스마트폰에 강제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는 아이에게 자극적인 맛을 경험시켜줄 수 있는 게임, 웹툰 등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한 앱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앱을 삭제하거나, 아이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앱은 하나의 폴더에 모아서 잠금 설정을 해 주세요.

- **자녀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다음과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단말기 기종	유해 콘텐츠/유해 사이트 차단방법
아이폰	1)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을 선택 → 2) '차단'을 선택 → 3) '차단 활성화'를 선택 → 4) 암호 설정 → 5) 스크롤을 내린 후 차단할 항목 선택
안드로이드폰	각 통신사별로 무료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이용 (SKT-T청소년 안심 서비스 / KT-올레 자녀폰 안심 / LG-자녀폰 지킴이)

서비스명	개발처	사용료	설치수	비고
KT 자녀폰 안심	KT Corporation	무료	10만 ~ 50만	KT가입자만 이용가능
SKT 쿠키즈	SKTelecom	무료	10만 ~ 50만	SKT가입자만 이용가능
엑스키퍼	JiranSoft	3300원/월	1만 ~ 5만	보호자-자녀 메신저 기능
아이스마트키퍼	NETCUBE TECHNOLOGIES	무료	5만 ~ 10만	4종류의 차단기능 제공
키즈락	㈜웹이란	무료	1만 ~ 5만	자녀위치, 전화, SMS 내역 조회

-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선별해주세요.**

  영상물의 시청 등급과 게임의 이용 연령을 부모가 먼저 확인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은 없는지, 흡연, 약물사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을 부추기지는 않는지 점검하여 유해요소를 접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즐길 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나서서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아이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5-3〉 유해 콘텐츠 차단 사례

3. 기관 예방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

❍ 영유아의 미디어 조기 노출과 부적절 사용에 따라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한편,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기기의 가속화 및 다양화, 일상생활의 전 디지털화 등으로 영유아에게 미디어 노출은 더 쉽게, 더 많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기에 미디어 노출 및 이용 연령의 하향화는 지속 될 것임. 이에 3세 미만을 포함한 영유아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과제 3-1)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 예방교육 의무교육 횟수 및 이행점검 강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비율에 대응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대상 과의존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했고 의무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음

❍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내 교사 및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차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지사항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대상 의무교육이 1년에 1회 이상이라 제안되어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년에 단 1회의 의무교육을 형식적이면서 대단위 집단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효과성은 떨어짐

❍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대상 예방교육을 1년에 2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회 중 1회 이상은 스마트쉼센터의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파견되어져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도 보다 심화하는 등 강화해야 함. 반면 예방교육 의무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패널티 부과도 모색해야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 **목적**

○ 국가정보화기본법*('18.2.21) 및 시행령 개정('18.8.28)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실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 **예방교육 개요**

○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구분	대상	횟수	이수기준	교육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연 1회 이상	이수율* 70%이상	ㅇ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ㅇ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ㅇ 온라인 교육 ㅇ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유치원	유아	연 1회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반기별 1회 이상		
공공기관	직원	연 1회 이상		
대학교	학생	연 1회 이상	이수율 50% 이상	

* 이수율(%)=(교육참여인원/교육대상인원)×100

○ 교육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현황 및 사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 그 밖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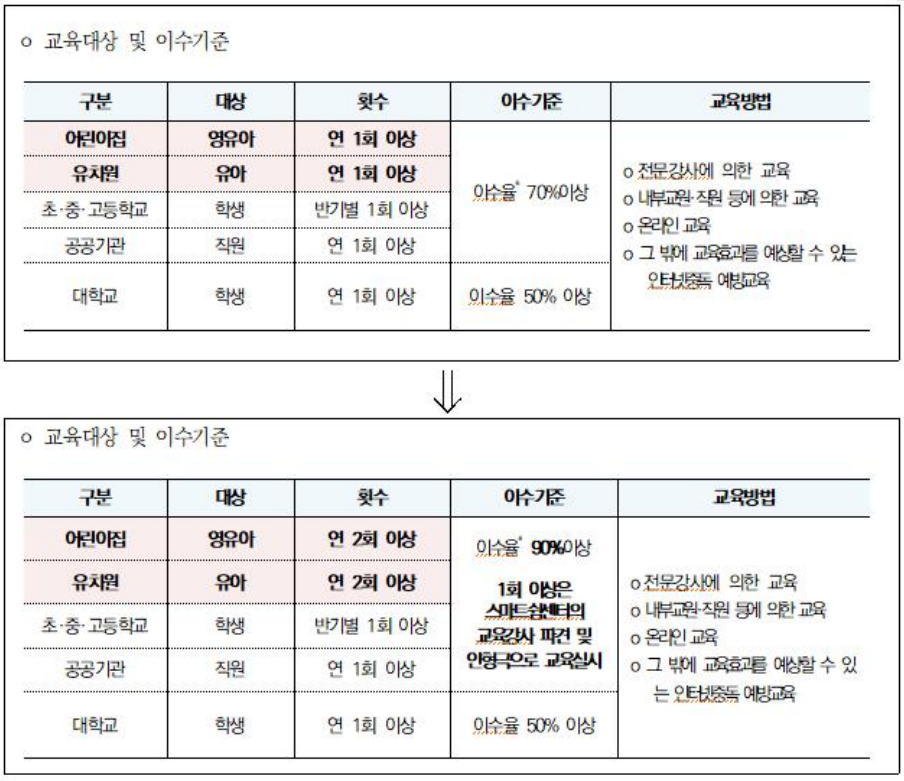
□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온라인* 제출(별도 공문 제출필요 없음)

- 제출기간 : '20.2.26.(수)~4.30(목)

*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접속 → '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에서 실시결과 입력

※ 관련 교육이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ㅇ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구분	대상	횟수	이수기준	교육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연 1회 이상	이수율' 70%이상	ㅇ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ㅇ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ㅇ 온라인 교육 ㅇ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유치원	유아	연 1회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반기별 1회 이상		
공공기관	직원	연 1회 이상		
대학교	학생	연 1회 이상	이수율 50% 이상	

ㅇ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구분	대상	횟수	이수기준	교육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연 2회 이상	이수율' 90%이상 1회 이상은 스마트쉼터의 교육강사 파견 및 안형무으로 교육실시	ㅇ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ㅇ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ㅇ 온라인 교육 ㅇ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유치원	유아	연 2회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반기별 1회 이상		
공공기관	직원	연 1회 이상		
대학교	학생	연 1회 이상	이수율 50% 이상	

(과제 3-2) 어린이집 · 유치원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 양적·질적 확대

❍ 센터의 예방교육 강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영유아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의 효과는 매우 좋다고 지적함. 영유아기 뇌는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는 면에서 예방교육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예방교육을 양적 및 질적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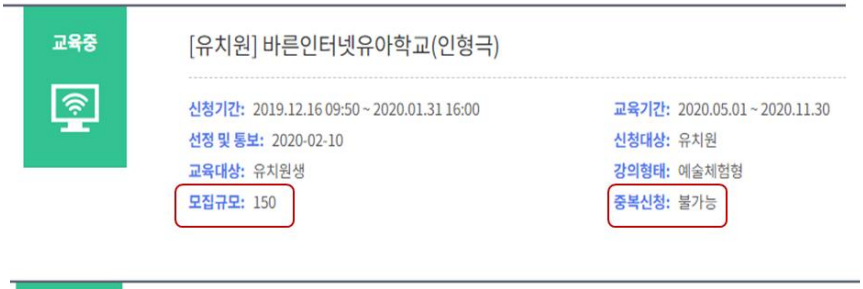
❍ 영유아 대상 과의존 예방 및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 수강 인원이 최대 5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혹은 가장 적정 인원인 20 - 30명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영유아이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보다는 2회 이상이 더 효과적임. 2-4세까지, 5-7세까지는 받아들이는 것과 집중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연령을 혼합하여 예방교육 진행 시 2 - 4세까지, 5-7세까지를 함께 할 것을 권

장함. 그리고 가능하면 동일한 연령대별로 구성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또한, 단 1회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소규모의 체험형 교육, 연령대별 강의 내용의 차별화(기본과정 - 심화과정 - 보수과정 등), 현장 연계 교육, 인형극 형태의 예방교육 등 영유아의 눈높이 맞춘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아래 그림들은 현재 스마트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예방교육임. 살펴보면, 영유아 바른인터넷유아학교(인형극)은 모집규모가 150명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으로 제시되어 있고, 강사파견 바른인터넷유아학교(예방교육)은 모집규모 50명에 중복신청 또한 불가능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에 대한 사업 예산 확대 및 인력 확대 등으로 모집규모 소규모화 및 중복·반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 있음

❍ 마지막으로 전문강사 파견으로 실시되는 학부모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의 모집규모 또한 100명으로 집단의 대단위 강의가 중심이기에 상담 및 경험 사례중심, 토론식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 있음



(과제 3-3) 유치원 / 어린이집 / 아이돌봄 교사 대상 예방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확대

❍ 보육 및 어린이집 교사 등 직무연수, 보수교육, 교사양성과정 내에서 영유아기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예방 및 대응 관련 교육 실시 필요. 교육 실시로 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교사가 올바른 미디어 이용 관련 습관형성에 도움 줄 수 있고, 미디어 과의존위험군 심리·행동적 특성에 대한 민감도 향상으로 잠재적 위험군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상담치료 및 부모교육에 개입 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될 수 있음

❍ 이외 가정양육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인 아이돌보미 양성과정과 보수과정 내에 영유아기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과의존 대응 관련 교육 운영으로 아이돌봄교사의 인식개선은 물론 돌보고 있는 영유아 대상 안전한 미디어 올바른 이용 지도와 과의존 예방에 효과 있을 것임

4. 스마트쉼센터 영유아 특화 기능 확대 및 강화

❍ 전북지역 내 미디어 과의존 관련 영유아 대상 전문적인 상담·치료 인프라와 인력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영유아 대상 관련 정책 및 사업 또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스마트쉼센터에서 영유아 중심의 사업과 전문 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과제 4-1) 영유아 전담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전문 상담 치료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전국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영유아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 및 대응을 중앙부처 및 중간조직 이외 전문기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영유아 관련 각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 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고, 지자체에서는 담당 부서 간의 단절과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필요성에 의해 개별적 단회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전북지역은 특히 미디어 과의존 성향이 있는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과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상담기관과 전문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유아 대상 과의존 상담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에 전북지역은 영유아대상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관련 정책 교육, 사업 및 상담 등을 스마트쉼센터가 전담하여 관련 유관부서와 협력 지원을 통해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과 관련하여 통합 운영하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4-2) 영유아 전담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 영유아의 심리· 정서·행동적 발달 특성은 청소년/성인과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반응과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유아의 심리·정서·행동적 발달특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놀이치료, 모래치료, 가족치료)와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예방교육 강사들 중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을 3년 이상 지속한자, 전공이 아동학과 교육학 중 유아전공인 자, 보육 및 유치원 교사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선별하여 영유아 관련 기관의 예방교육만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무엇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착을 보이는 강사를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행동 특성 및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해 센터에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 전담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과제 4-3) 놀이치료 예산과 인력 확대 및 놀이치료실 운영 시간대 편성 조정

❍ 전북도 내에는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과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과 전문 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유아 대상 과의존 상담 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또한, 과의존하는 영유아는 특성상 부모 영향과 부모의 관리 지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과 더불어 부모 대상 관련 교육 · 상담 · 치료를 함께 실시하는 상담이 필요함

❍ 따라서 스마트쉼센터의 놀이치료실 운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센터 내 조성한 놀이치료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놀이치료 예산 확대로 놀이치료사(현 인원 1명) 인원을 추가 채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가용 인원을 확대시켜야하고, 놀이치료실 운영 시간대도 주말 및 평일 야간 등으로 확대 변경 조정이 필요함

(과제 4-4) 관련 행정 부서 및 영유아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협의회) 구성 · 운영

❍ 영유아 대상 미디어 관련 교육·사업·프로그램 운영의 핵심기관은 스마트쉼센터임. 스마트쉼센터가 영유아 대상 사업(교육, 프로그램, 행사, 캠페인 등) 추진 시 행정 주관부서(도청의 정보총괄과, 사회복지과, 교육청 유치원 담당과 등)와 부처가 달라 사업 안내 및 신청과 홍보에 있어서 일과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 영유아 유관기관에 공지 공문 등이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유관기관에 전달되었어도 유관기관에서는 담당 부처와 행정부서가 아니라는 점으로 소극적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영유아 대상 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부처 간의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과 스마트쉼센터에서 사업 안내 및 참여 공문 전달 시 해당 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관련 협업 매뉴얼(신청 및 연계방법 등을 제공) 제시 등 스마트쉼센터와 행정 주관부서 및 영유아 유관기관간의 협력 연계가 필요함

❍ 또한, 스마트쉼센터의 다양한 사업 홍보와 교육·캠페인 등을 영유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임. 이에 스마트쉼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할 필요 있음

(과제 4-5)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체계 구축 · 운영

❍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노출 및 이용 시간 증가와 함께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군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영유아의 미디어 부적절 이용과 과의존에 따른 개인적·가족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반면, 전북지역은 미디어 과의존 성향이 있는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상담기관과 전문 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유아 대상 과의존 상담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에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체계는 ① 지역사회 내 과의존 안전망 강화(잠재적 과의존군 조기 선별) → ② 조기 선별된 영유아와 부모 대상 가정방문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 → ③ 과의존위험군 영유아와 부모 대상 센터 내방 놀이치료상담 /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 / 영유아 자녀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역량강화교육 → ④ 미디어기기 과의존 이외 공존질환을 보유한 영유아 대상 영유아와 부모 종합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적 치료를 위한 협력병원 연계, 치료비 지원 등

▶ 지역사회 내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 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영유아 관련 기관 및 돌봄 기관[4]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 기관에 강사파견 예방교육(인형극 등)·부모교육 실시 등으로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
- 기관 이용 중인 영유아 중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영유아 조기 발굴·센터연계·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

- 스마트쉼센터와 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와 부모 50가족 대상 1박 2일 혹은 2박 3일 등의 치유캠프 실시
-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안활동, 가족활동, 영유아 체험활동, 집단상담 등을 실시
- 참여 및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 교통비만 일부 자부담 형식

▶ 과의존 영유아의 부모 대상 올바른 미디어 사용 조절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교육

- 과의존 위험군 영유아 부모 대상 실시
- 과의존이 영유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 기술, 부모 집단상담, 부모심리검사 등

▶ 미디어 과의존 이외 공존질환을 보유한 영유아 대상 종합적 치료 지원

- 공존질환 영유아 : 미디어 과의존 이외 기타 소아 우울, ADHD, 자폐, 공격성 등의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
- 종합심리검사 지원
- 치료협력 전문 병원 연계
-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치료비 지원
- 병원 치료 종료 이후에도 약 3개월간 센터 상담사 등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사후 사례관리 지원 등

4)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 조성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청소년 대상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 대상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법률과 전북도 차원의 조례는 부재함

❍ 이에 전라북도에 있는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관련 내용의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법적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해 영유아 미디어 올바른 이용과 과의존예방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및 정보문화총괄과 및 스마트쉼센터가 주요 업무를 담당하여 향후 전북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 확산과 과의존 예방 및 전문 상담치료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음

(과제 5-1)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관련 조례 제정 혹은 기존 조례 일부 개정 등 제도 정비

❍ 전북 차원에서의 영유아 대상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조례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마련이 없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발굴 및 정책사업 추진이 역부족임

❍ 이에 전북차원의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해 이미 기존에 제정된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영유아 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의 내용을 변경 개정하거나 혹은 광주광역시 동구와 같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 관련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전라북도 영유아 및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영유아**·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영유아**·청소년 이용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과 과몰입 **영유아**·청소년의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북도를 **영유아**·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영유아**·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유아**·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영유아**·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4장 지원·운영 체계

제17조(상담·치유서비스 등의 제공) 도지사는 **영유아**·청소년에게 정보화역기능의 상담·치유 서비스와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제공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의 위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호와 중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중독"이란 디지털기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디지털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교육 등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기기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디지털기기 중독 관련 예방을 위한 아동 돌봄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동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활동 아이디어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예방 서비스 제공

③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사업수행을 맡길 경우의 필요 경비

④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마을강사를 육성할 경우 사업예산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구민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제 5-2)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기본계획 수립 · 추진

❍ 전라북도 차원의 조례 개정 및 신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조례에의한 법적근거로 약 3년 단위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행정적 지원방안, 인적 자원 활용 방안, 영유아 유관기관과 행정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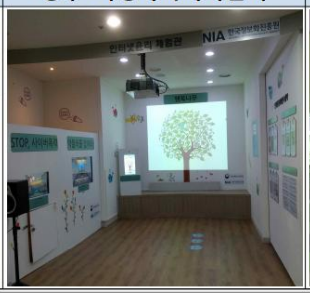
및 민간단체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대신할 대체 놀이 문화 환경 및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과제 5-2) 영유아 특화 '인터넷 윤리 체험관' 운영

❍ 스마트쉼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단점과 평일 저녁 6시면 센터의 모든 사업이 마감된다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주말 및 평일 오후 시간 언제든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 이용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고, 이용 조절방법과 연령대별 적정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 미디어 부적절 이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에 '전라북도창의체험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기 자녀와 부모 특화 인터넷 윤리 체험관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됨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재까지 영유아와 청소년이 체험하면서 인터넷 윤리를 배울 수 있는 인터넷 윤리 체험관을 4곳(경기 성남 분당 한국잡월드, 국립부산과학원, 국립광주과학원, 대전 국립중앙과학과) 운영하고 있음

국립부산과학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분당 잡월드
		

자료 : 당신이 놓치고 있는 사이버 윤리 이야기(한국정보화진흥원 고민석)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은영(2014). 경기도민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성자(2017). 2018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게임중독, SNS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청소년꿈키움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2019~2021).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19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2018).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 박선숙 의원실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동일 외(2013).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김여라(2019).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현황과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방효국·김낙흥. 만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사용실태 및 게임 과몰입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6), 43-64.

어성연·김동민·김미정(201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청소년 지역단위 지원체계 활성화 전략모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2019.5.15.일자 보도자료.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4). 영유아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이창호·김경희(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김기헌(2017).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민경(2015). 경기도 청소년 인터넷과다사용 현황과 대응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민경(2016). 중독과 사회문제: 인터넷·스마트폰중독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인식 외(2012).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여진·고승한·문순덕·이형초·조정문(2016). 제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대응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201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집.
Davis. R. A.(2001). A cognitive- behavior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PIU).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2), pp. 187-195.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www.emhc.com/mlists/ research. html.
Gunn, D. A.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K. URL : /147.197.152.160/netquest/ all-ver6.html.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pp. 899-902.

기본연구 2020-02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5월 29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84-4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330
9 788966 122844
ISBN 978-89-6612-284-4